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12. 10(목) 15: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목 차

【심의사항】 10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공 개
2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	공 개
3	고려 오백나한도	공 개
4	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	공 개
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공 개
6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 반출>	공 개
1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등 9건 국외반출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 변경>	공 개
1	보물 제1683-2호 ‘정약용 필적 하피첩’ 현상변경	공 개
2	보물 제1684호 ‘신위 해서 천자문’ 현상변경	공 개
【검토사항】 11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공 개
1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공 개
2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공 개
3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공 개
4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공 개
5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공 개
6	익재난고 권6~7	공 개
7	역옹패설	공 개
8	퇴계선생문집	공 개
9	퇴계선생문집 목판	공 개
10	조선왕조의궤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수 검토>	공 개
11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보수 검토	공 개
【보고사항】 2건		
1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실시계획 보고	공 개
2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수량관련 학술대회 결과 보고	공 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5-06-001

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가. 심의사항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승격 신청(’15.2.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26/5.28/7.21/9.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0.26~’15.11.25)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보물 제1021호(1990. 3. 2지정)
- 명 칭: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내원사
- 소재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내원로 256, 내원사 (대포리)
- 수 량: 1구
- 규격(cm): 상높이 102, 어깨너비 52.5, 무릎높이 15.3, 무릎너비 85.2
광배높이 118, 광배너비 80, 대좌높이 79.5
- 재 질: 석조
- 제작연대: 766년(혜공왕 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좌 중대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전하는 국보 제 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명문에 의하여 통일신라시대인 766년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좌상은 기년명 불상으로서 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의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현존하는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불상보다 가장 앞선 시기의 불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산 정상부 노천에 봉안하는 불상의 시원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 정상부에 불상을 조성한 가장 이른 예라고 추정되는 석굴암 본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기년명 불상이자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가장 이른 예라는 점, 산 정상부에 봉안한 특이한 봉안 방법을 보여 준다는 점, 국보 제 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보 제 233호 납석사리호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일괄 지정될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부산박물관 소장 <영태이년명사리합>의 명문에 의하여 현존 最古인 766년에 제작된 비로자나불상으로 판명되었다. 다소의 파손과 훼손이 있지만, 대좌, 광배, 불신 등 모든 부분이 유존하고 있으며 대좌에서 반출된 사리합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본 불상도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이 비로자나불상은 발견된 납석사리호의 명문을 통해 766년이라는 조성연대와 法勝과 法緣 두 승려가 죽은 豆湍哀郎의 뜻을 받들어 석남암수 觀音巖에 봉안하였다는 기록을 가진 중요한 불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最古의 紀年銘의 智拳印 비로자나불상으로서 우리나라 지권인 비로자나불의 시원양식일 뿐만 아니라 편년자료가 부족한 고대조각사 연구에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특히 지권인을 한 如來形의 비로자나불 형식이 766년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불교 사상의 대두와 불교사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이 비로자나불상은 동아시아를 통틀어 명문이 밝혀진 최초의 지권인 石造毘盧遮那佛像으로서 도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불교미술사 연구에 매우 귀중하고 획기

적인 자료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8세기 중엽경에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석탑과 마찬가지로 불상에도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이 불상을 통해 알 수 있어, 우리나라 불상복장의 시원적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미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가 국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봉안했던 석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각을 별도로 국보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이미 국보 제233호 지정되어 있는 납석사리호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함께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두 유물의 소장기관이 상호 다르므로 국보 제233호를 모범으로 하여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납석 사리호”로 명칭을 정하고 가지 번호를 부여하여 국보 제233-1호를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제233-2호를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산청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766년이라는 조성연대가 뚜렷한 불상으로서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라는 점에서 불교 미술사는 물론 불교사적으로도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이 불상의 대좌에서 발견된 납석제사리함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비로자나불상도 함께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신, 대좌, 광배를 모두 갖춘 불상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다.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현재 남아있는 비로자나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된 것이며, 한국조각사의 기준 작품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에 불상의 대좌에서 영태(永泰) 2년(766년)의 명문이 새겨진 사리항아리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로자나불을 언제부터 사찰의 주불로 봉안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예로 미루어 본다면 8세기 후반부터는 일부 사찰에서 봉안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산청 석남암사지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비록 佛身과 광배가 깨어져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온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766년의 상대편년자료를 지녔고, 현재 알려진 불상형 비로자나불좌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라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국보 지정 명칭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1990년 3월 ‘석남암수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南巖藪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1021호로 승격된 이후, 2010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재정비 때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른다. 사리호에 ‘巖藪’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석남암수’는 ‘석남암사지’에 비해 이곳이 절터임을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모든 유물을 관련 기록(혹은 명문)에 의거하여 변경하는 것도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정명칭은 이미 국보 제233호로 지정된 납석사리호와 함께 일괄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납석사리호’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 지정(부번으로 할 것)

조사보고서



○ 현 상

1966년, 신라오악종합학술조사단의 보고와 선행 연구에 의하면, 현재 내원사 비로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원래 내원리 산 152번지인 지리산 해발 902m의 높이에 있는 觀音巖 위에 있었다고 한다. 실제 이곳을 답사해 보면, 비록 원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산재된 돌 부재들로 미루어 보아 불좌상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관음암 위에서 지리산의 주봉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신과 대좌, 광배를 각각 따로 만들어 조합하였으며, 대좌도 상대와 중대, 하대를 별도로 제작하여 쌓아 올렸다. 불좌상은 원래 산 정상에 노출된 상태로 봉안되어 있어서 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마모가 심각한 편이다. 전언에 의하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일부 파손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불상에서는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 흔적을 통하여 목이 부러졌고, 불신 우측의 다리 부분, 복부 등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손된 불상을 고정하기 위하여 불신 뒷부분과 밑 부분을 시멘트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래 불신은 뒷부분이 약 10cm, 밑 부분이 5 cm 정도 인위적으로 깎여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불상의 뒷면과 측면에서는 입체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미간의 백호와 목의 삼도 또한 시멘트로 후보된 것이다.

광배도 상당부분 파손되어 없어진 상태로, 특히 좌측 밑부분이 약 10cm 정도 떨어져 나갔으며, 일부는 부러져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다. 대좌는 불신과 광배에 비하여 온전한 편이지만, 하대 모서리 일부가 부러져 나간 상태이다. 한편 대좌 중대석의 중앙에는 깊이 19cm, 폭 12cm~14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 비로전 안 불상 우측에는 원래 봉안처에서 수습되었다고 전해지는 돌 부재가 보관되어 있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입자가 굵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봉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모와 훼손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그러나 불상의 존격을 알려주는 수인과 편년의 기준이 되는 불상의 비례나 양식을 고찰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 내용 및 특징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으나 불신과 광배, 대좌를 갖춘 존상이다. 불상은 적당한 크기의 광배를 배경으로 상·중·하대를 갖춘 팔각연화대좌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있다. 인위적인 훼손과 자연적인 마모로 인하여 원래의 면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으나, 남아 있는 상태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하고, 상당한 표현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상은 인위적으로 뒷부분과 밑부분이 깎여나간 것을 고려하면, 원래는 머리와 몸체, 상체와 하체의 비례가 매우 안정감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적당한 크기의 육계와 장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 삼각형의 길쭉한 귀, 오뚝한 코,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갖추고 있다. 법의는 통견식으로 입고 있으며, 남아 있는 옷주름을 통하여 법의가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둥근 어깨와 약간 내민 가슴, 법의 위로 살짝 드러난 허리, 굴곡진 발바닥 등에서 수준 높은 표현력을 읽을 수 있다. 수인은 명치 앞에 놓인 오른손으로 배 앞에서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살짝 잡고 있는 지권인[비로자나인]을 결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권인과 비교해 보면, 다소 손 자세가 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권인을 결한 것은 분명하다.

광배는 2중의 돌기선으로 두광과 신광을 구분하였으며, 돌기선이 이어지는 곳에는 연화문을 새겨 광배를 보다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개개의 연꽃 무늬는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불상 조성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두광은 16개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광은 당초문으로 장엄하고, 그 외연에 화염문을 새겼다.

상대와 중대, 하대를 별도로 만들어 조합한 대좌는 상대에 비해 하대의 폭이 훨씬 넓은 편이다. 또한 상대의 양련은 단판 형식의 연꽃잎 16개를 이중으로 겹쳐 놓았으며, 하대의 복련은 복판으로 표현하였다. 팔각형인 중대의 각 모서리에는 기둥돌이 새겨져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상대 윗부분에 광배를 올려 놓기 위하

여 높이 18.5cm, 폭 13.4cm의 별도의 단이 각출되어 있다. 대좌 상대 위에 광배를 올려 놓기 위하여 따로 단을 고부조로 마련한 것은 매우 드문 예에 속한다. 아마 원래 봉안되어 있었던 지리산 902m 고지에서 불상 조성에 적합한 석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연대에 대해서는 불상에서 반출되었다고 전해지는 [국보 제 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1981년 부산박물관 소장, 1169g, 참고 자료1)와 관련하여 영태 2년, 즉 신라 혜공왕 2년(766)으로 비정되고 있다. 반출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납석사리호가 이 불좌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좌 중대의 구멍과 납석사리호의 크기가 일치하고, 명문에 새겨진 석남암수 관음암이 불상이 원 봉안처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리호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함께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양식적인 특징과 광배의 형식과 문양, 대좌의 형식이 8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것과는 일치한다.

<참고 자료1.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명문>

1. 사리호 몸체 명문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郎 願爲石毘盧遮那佛成 內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藪觀音巖中在內如 願請內者豆溫愛郎 靈神賜那二僧亦 那若見內人那向尔 頂禮爲那 遙聞內那隨喜爲內那影中逕類那吹尔 逕風 逕所方處一切衆生那 一切皆三惡道業滅 尔 自毘盧遮那是十 覺去世爲尔 誓內之

2. 사리호 밑면 명문

內物是在之 此者恩術恒惟爲 一二介反藥者大 還病■爲逐■

□

○ 현 상

현 산청 내원사 소장 석비로자나불좌상은 지리산 중턱(해발 1000미터가량)의 폐사지에서 전래한 불상으로, 이동과정에서 불상의 뒷면과 밑면에 인위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목 또한 손상된 후 보수된 상태이다. 화염문과 연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배는 절반가량만 남아 있다. 대좌는 복련형 하대, 팔각주형 중대, 앙련형 상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 윗면의 뒤쪽에 이어진 突帶는 광배 하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는 대좌에서 반출된 ‘납석제호’(부산박물관 소장)를 제외한 불신, 광배, 대좌가 함께 봉안되어 있으나, 입자가 굵은 조질화강암 재질의 불상이 오랜 기간 동안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상의 표면은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양감이 강한 얼굴과 몸체, 조밀하고 입체적인 양각으로 이루어진 옷주름 등에서 전형적인 통일신라 8세기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연화문과 화염문으로 구성된 광배, 3단의 연화대좌 등도 8세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하체가 빈약하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몸통이 빈약한 것은 이동 과정에서 행해진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을 감안한다면 매우 입체적이고 양감이 풍부한 통일신라기 불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태2년(766)명 석합이 석남암수의 비로자나불상의 대좌 중대석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본 상도 현존 最古인 766년의 절대연대를 가진 비로자나불상으로 인정되었는데, 양식과 기록이 합치되는 결과이다.

「蠟石製壺 造成記」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賜豆溫哀

郎願爲石毘盧遮那佛

成內無垢淨光陁羅尼并

石南巖藪觀音巖中

在內如 願請內者豆溫

愛郎靈神賜那二僧等那

若見內人那向尔頂禮爲那

遙聞內那隨喜爲內那

影中逕類那吹尔逕風

逕所方處一切衆生那一切

皆三惡道業滅尔自毘盧

遮那是等□見去世爲尔誓

內之

□

○ 조사내용

이 불상은 원래 내원사의 북쪽 지리산의 중턱 해발 888.7m(좌표 N35.32924° E127.79881°)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삼면(三面)은 절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절벽 위에 마련된 5평 남짓 작은 공간의 터에 불상을 봉안하였는데, 현재 그 원형이 많이 훼손, 변형되어 있으나 타원형 모양으로 대략 370×290cm 규모의 적심을 다졌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불상을 놓았던 정면은 앞이 탁 터인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멀리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이 조망이 되며, 이곳이 바로 사리호

의 명문에 등장하는 觀音巖(관음바위)으로 추정된다. 이 관음바위는 산을 오르는 도중에도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돌출되어 있다.



석남암사 관음바위 원경(불상의 원봉안처)



석남암사 관음암지근경(불상의 원봉안처)

이 불상은 지금의 내원사로 이안되기 前 석남리에 사는 이성호 형제가 사지에서 옮겨 와 집안에 봉안하고 있었다. 이를 주민들이 洪圓鏡이 중창한 내원사에 양도할 것을 권유하여 결국 내원사로 이안하게 된 내력을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불상을 사지에서 옮겨 오는 과정에서 이들은 불상의 무게를 덜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불상의 등과 무릎 부분을 깎아 내었다고 하며, 그 흔적으로 인하여 불상이 완전치 못하고 불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현재 파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불상과 대좌, 광배 등 불상을 구성하는 3부를 모두 갖추고 있다. 臺座 및 光背는 불상이 원래 있었던 자리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88년 수습하여 內院寺에 옮겨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시켜 놓은 것이다.

한편,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나무뿌리를 캐러 다니던 이 지역 주민에 의해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진주의 목공예 제작소에서 여러 손을 거쳐 1981년 부산박물관에서 입수한 것이다. 박경원 선생의 논문에 수록된 반출, 이안, 소장 경위는 아래와 같다.

6.25 사변이 나기 전 1947년경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에 사는 이성호 형제가 이 석불을 반출하여 10년 동안 자기 집에 봉안하였다가 1959년경 내원사에 양도하였던 것이다. 내원사의 圓鏡住持는 1953년 회진된 內院寺에 들어와서 복구에 노력한 결과 절도 차츰 면목을 갖추게 되고 지방의 신망도 높아지면서 신도들이 이성호 모자에게 권유하여 내원사로 이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 불상을 下山搬出한 이성호 형제는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두부를 분단하고, 등과 무릎 아래 부분을 쪼아내었다고 한다.¹⁾

1) 朴敬源,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像」, 『考古美術』 168(韓國美術史學會), 1985, p.3.

6.25 사변 전후하여 내원사계곡은 共匪들의 소굴이 되어서 토벌작전 중 이 일대의 산림이 거의 소실되었다. 수복 후 한때 이 지방 주민들은 불타 다 남은 나무뿌리를 화목으로 채굴하기도 하고 형태가 이상한 고목의 뿌리는 목공예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진주지방으로 팔기도 하여 농한기의 부업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무뿌리를 캐러 다니던 주민들에 의하여 험준한 산중에 있던 석불대좌 속에서 석함(石函)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진주의 목공예 제작소에서 여러 손을 거쳐 우리 박물관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²⁾

이 불상은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확실한 예이다. 766년의 분명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어서 불상의 양식편년의 기준자료일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연구에서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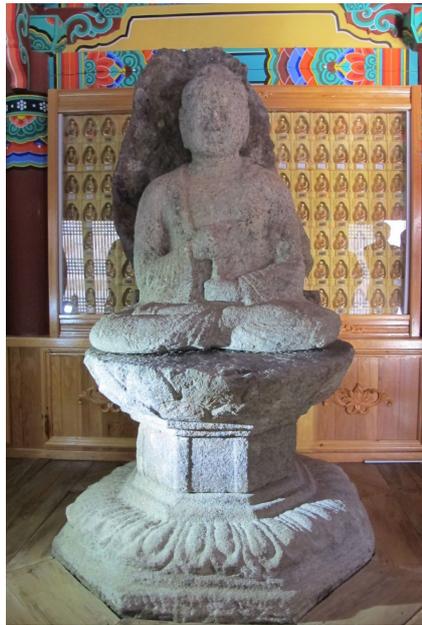
석남암사지는 신라의 오악(五嶽) 중 하나인 중악에 위치한 사찰로,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766년에 조성된 비로자나불상과 사지에 흩어져 있는 석탑재 등을 통해 늦어도 8세기 중엽 경에는 법등을 밝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가 위치한 지리산은 일찍부터 신라의 오악 중 남악으로 중요시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지방 확산과 더불어 지리산 지역에도 중요한 사찰들이 속속 창건되었다. 즉 斷俗寺, 三壯寺, 智谷寺, 內院寺, 大源寺 등이 8~9세기 대에 창건되어 법등을 밝혀 왔음을 사지에 잔존하는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 단연 주목되는 사찰은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석남암사지와 경덕왕을 위해 창건했다고 전하는 단속사이다. 석남암사지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지만,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 명문을 통해 永泰二年(新羅 惠恭王 2, 766년) 釋 法勝 · 法綠 등에 의해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속사는 이순(李純)이 경덕왕을 위하여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또 신행선사가 신라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8세기 중엽경, 이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활발하고 긴밀했던 교류 관계를 엿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앙의 한층 발전된 조각 기술과 양식, 그리고 새로운 도상이 빠르게 이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석남암사지에 보이는 비로자나불상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불상은 대좌와 광배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균형 잡힌 형태와 섬세하고 탄력적인 표현기법 등에서 전성기 양식을 엿 볼 수 있다. 대좌는 하대 복련석과 팔각의 중대석, 상대 양련석의 삼단 연화대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각 중대석은 모서리에 기둥을 모각하였고 표면에는 문양을 새겨 넣지 않고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단판복엽의 하대양련과 아무런 조식이 없는 낮은 중대석, 그리고 단판 仰蓮을 중첩시킨 상대석은 8세기 중엽경의 대좌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광배는

2) 朴敬源, 「위의 글」, p.6.

불상의 광배 뒷면에서 높은 턱을 마련하고 그 곳에 꽃잎형 거신광배를 놓은 점이 특색이 있다.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766년

우선 머리는 나발로 표현되었고, 복발을 얹어 놓은 듯 육계가 크고 뚜렷하다. 둥근 얼굴에는 양감이 과장되지 않고 적절하여 탄력적인 부피감이 느낄 수 있으며, 이목구비는 반듯하고 균제되어 상당히 균형감 있게 묘사되어 이상적인 상호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신체비례와 균제된 상호는 석굴암 본존불이나 경주 남산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엽 경에 제작된 불상들의 비교할 수 있다. 깃바퀴는 둥글게 돌리고 상·하각의 연골의 표현도 뚜렷하게 새겼으며 깃구멍도 열쇠 구멍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내었고 깃불에는耳孔을 모각하여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후반 불상의 귀표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통견으로 걸친 大衣는 표면의 마멸이 심하여 옷 주름의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은은하게 빛을 비추면 물결이 일렁이듯 금방이라도 불신 전면에서 가라앉아 있던 주름이 돋아 오른다. 옷 주름은 두께가 무척 얇고 골 깊이가 일정한 세밀한 주름 선을 사용하였는데, 불신의 아름다운 굴곡과 살결을 따라서 유려하게 흘러내려 불신의 아름다운 부피감을 잘 드러나게 하였다. 길상좌로 앉은 두 발은 모두 노출시켰으며, 무릎의 측면은 부드럽게 둥글리고 발목에서 뻗쳐 가는 사선 주름이 신축성 있게 표현되어 무릎의 살결과 골격도 잘 드러나는 듯하다. 수인은 智拳印을 결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 부근에서 곧게 세운 왼손의 검지의 첫마디를 쥐고 있는 모습이고, 왼손은 무릎과 거의 수평 되게 내린 채 검지만 곧게 세워 주먹을 쥐었다. 왼손 검지가 특히 길어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비로자나불상의 그것과

달리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경전의 내용을 잘 적용한 사례로 생각된다.

○ 사리호 명문

사리호 외면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

郎願爲石毗盧遮那佛

成內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藪觀音巖中

在內如 願請內者豆溫

愛郎靈神賜那二僧亦那

若見內人那向尙頂禮爲那

遙聞內那隨喜爲內那

影中逕類那吹尙逕風

逕所方處一切衆生那一切

皆三惡道業滅尙自毗盧

遮那是亦覺去世爲尙誓

內之

(해석:문명대의 해석을 따름)

영태2년 병오(혜공왕 2년, 766년) 7월 2일에

法勝·法緣 두스님이 함께 뜻을 만들어

과거로 나아가신(돌아가신) 豆溫愛郎이 발원한

석비로자나불을 조성하여

석남암사 관음암에 봉안하였다.

발원하여 청한 이인

두온애랑의 영혼이시나

두 스님들이나

혹 (불상을) 본 이나

(불상을) 향해서 정례한 이나

멀리서 (불상에 대해서) 들은 이나

(이를 듣고) 따라서 기뻐한 이나

불상을 지나간 중생들이나

바람이 불어 (불상을) 지나간 바람이 경과한

모든 곳의 일체 중생들이나

이런 일체 모두가

삼악도의 업이 소멸되고
비로자나로부터(에 의하여) 곧 평등하게 깨닫고
세상을 떠나지기를(等覺과 去世가 이루어지기를)
서원하나이다.

바닥면
內物是在之
此者恩亦恒性爲
二介反藥者
還病?爲逐?

○ 문헌자료

朴敬源·丁元卿, 「永泰二年銘蠟石製壺」, 『年報』 6,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83
朴敬源,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像」, 『考古美術』 168, 韓國美術史學會, 1985
姜友邦, 「韓國毘盧遮那佛像의 成立과 展開」, 『美術資料』 44, 國立中央博物館, 1989
文明大, 「石南巖寺毘盧舍那佛像의 研究」, 『佛教美術』 11, 東國大學校博物館, 1992
文明大, 「지권인 비로자나불의 성립 문제와 석남암사(石南巖寺) 비로자나불상」, 『圓音과 古典美』, 예경, 2003

□

○ 현 상

현재 보물 제 1021호로 지정되어 있는 산청 내원사 법당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이 불상의 원 봉안장소는 내원사 뒷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 가까이에 위치한 석남암사 관음암으로 관음바위라고 불리는 넓은 바위 위쪽에 위치한 절터에는 불상이 안치될 수 있을만한 약 370cm x 290cm 넓이의 정지(整地)된 공간이 있고 적심석으로 생각되는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여기서 다시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 옆쪽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석남암사터가 있다. 즉, 산지가람인 석남암사의 부속암자였던 관음암에 비로자나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재료는 입자가 거친 화강암으로 풍화가 심하여 표면이 마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얼굴(도 1)은 양 뺨이 통통하고 이목구비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상호(相好)를 보이고 있어 조형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머리에는 작고 동그란 육계가 표현되었고 양어깨에서 가슴에 이르는 불신(佛身) 부분은 양감이 느껴지며, 양 손은 앞으로 하여 왼손 검지를 곧게 펴고 그 첫마디를 오른손으로 쥐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도 2). 어깨에 걸친 가사(袈裟)는 팔과 소매부분에 유려한 주름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으며,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은 옷자락

에도 도드라진 양각의 옷주름이 부드럽게 새겨져 있다.

결가부좌한 두 발도 크고 사실적인데, 다리의 높이(坐高)가 유난히 낮은 것은 불상을 산 정상에 절터에서부터 마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훼손이 있었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등 부분도 훼손되어 편평하고 몸통의 두께가 얇아졌다.

불상 뒤에 놓인 광배는 삼분의 일 가량 깨졌으나 연화두광과 신광(身光)을 구획하는 두 줄의 선과 원문(圓紋)이 장식되어 있고 화염문의 조각도 섬세하다. 대좌는 팔각연화대좌인데(도 3), 특이하게도 대좌 윗면의 뒤쪽에 광배를 올려놓기 위한 턱이 마련되어 있다. 상대양련좌는 단판연화문, 하대복련좌는 복판연화문이 각각 16엽씩 돌려져 있고 상대와 중대의 받침은 2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대석의 높이는 19.3cm로 대좌 전체높이(79.5cm)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화려하게 장식된 신라시대 9세기 대좌와 달리 부조(浮彫)된 장식은 없고 우주(隅柱)만 모각되어 있다. 이 중대석(도 4)에 뚫려있는 원통형의 사리공(상부직경 14cm, 하부직경 12cm)에는 영태 2년(766)의 명문이 있는 납석제 사리호(높이 14.4cm, 직경 12~3cm)가 납입되어 있었는데 현재 국보 제 233호로 지정되어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리호 표면과 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 郎願爲石毘盧遮那佛 成內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藪觀音巖中 在內如願請內者豆溫 愛郎靈神賜那二僧那 若見內人那向尔頂禮爲那 遙聞內那隨喜爲內那 影中逕類那吹尔逕風 逕所方處一切衆生那一切 皆三惡道業滅尔自毘盧 遮那是術覺去世爲尔誓 內之」(표면)

內物是在之 此者恩術恒性爲 二介反藥者 還病爲逐」(바닥면)

(표면) 영태(永泰) 2년 병오 7월 2일에 석 범승(法勝)과 석 법연(法緣) 두 승은 함께 만들어 돌아가신 두운애랑(豆溫哀郎)의 원을 위해 석조비로자나불(石造毘盧遮那佛)을 이루어 무구정광다라니와 함께 석남암사(石南巖寺)의 관음암(觀音巖)에 둔다. 원하여 바라는 것은 두운애랑(豆溫愛郎)의 영신(靈神)이나 두 승려나 이것을 본 사람이나 향하여 정례(頂禮)한 사람이나 멀리서 들은 사람이나 수희(隨喜)하는 사람이나 그림자 가운데를 지나간 이나 불어서 지나간 바람이 지나간 곳의 모든 곳에 있는 일체의 중생이나 일체 모두의 삼악도(三惡道)의 업이 소멸하여 스스로 비로자나불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뜨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바닥면) 호(壺) 안에 있다. 이것은 은혜를 항성(恒性)으로 삼는 것이다. 두 개 반의 약은 도로 꺼내어 병을 쫓을 것(鄭炳三 역).

위 발원문을 통하여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좌상이 영태(永泰) 2년(766)에 범승(法勝)과 법연(法緣)의 두 승려가 발원하여 조성된 사실과 불상과 함께 「무구정광다라니」를 관음암에 봉안한 것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상은 훼손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불두와 불신의 비례가 적절하고 조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당시 우수한 조각장인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이 상과 비교될 수 있는 동시대의 불상으로는 이 상보다 약 8년 정도 앞서 조성된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758년경, 도 5)을 꼽을 수 있는데, 양감이 풍부한 얼굴과 사실적으로 조각된 이목구비의 표현에서 서로 상통한다. 왕실 진골세력의 발원으로 조성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상의 조형적인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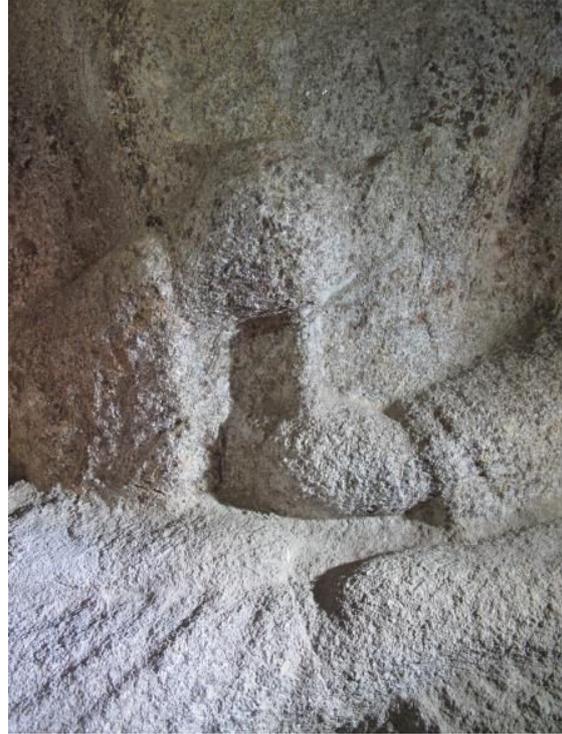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상이 학계에 알려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이 전래된 시기를 신라하대 9세기 중엽경으로 생각하였으나,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상의 출현으로 지권인 비로자나불 도상의 전래시기가 거의 1세기에 가깝게 앞당겨지게 되었다. 비로자나불(Vairocana)은 화엄경의 주존(主尊)으로 일찍이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조성되었으나 특유의 수인(別印)이 없었으므로 다른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시무외·여원인(通印)으로 표현되어 명문이 없으면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런 경우에는 대의(大衣)나 광배에 많은 불상을 그리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모든 부처의 진신(眞身)이며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불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당대(唐代) 번역된 금강정경계(金剛頂經系) 경전인 「금강정엄송성불의례」(不空金剛 譯)에 지권인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타나고, 「섭진실경(攝眞實經)」(般若 譯)에는 지권인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이 경전들은 8세기 중엽에 역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보다 단지 십여 년이 지난 뒤에 지권인 비로자나불이 신라에서 조성되었다는 것은 신라의 활발한 대당(對唐) 교류 속에서 당대 불교 새로운 변화가 신속하게 신라에 전해졌음을 말해준다.

○ 문헌자료

- 한국고대사회연구회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朴敬源, 1985,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坐像-智異山 內院寺 石佛 探查 始末」, 『考古美術』 168, pp. 1-21.
文明大, 「智拳印毘盧遮那佛의 成立問題와 石南巖寺毘盧遮那佛像坐의 研究」, 『佛敎美術』 11, pp. 5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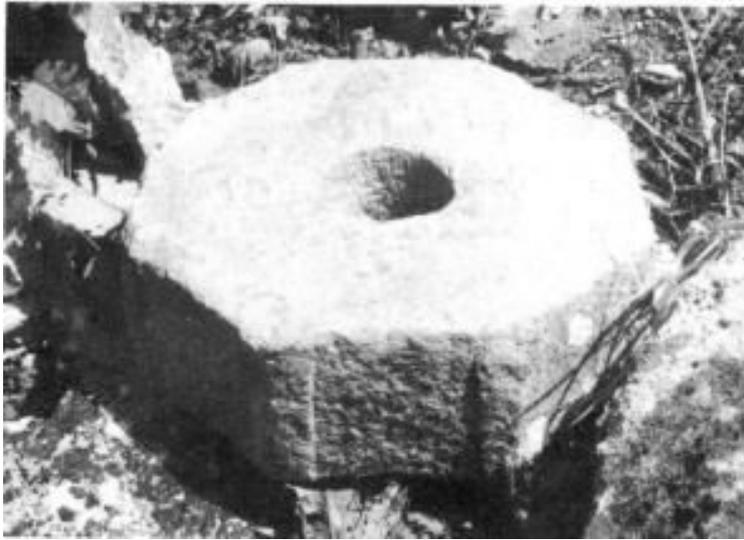
도1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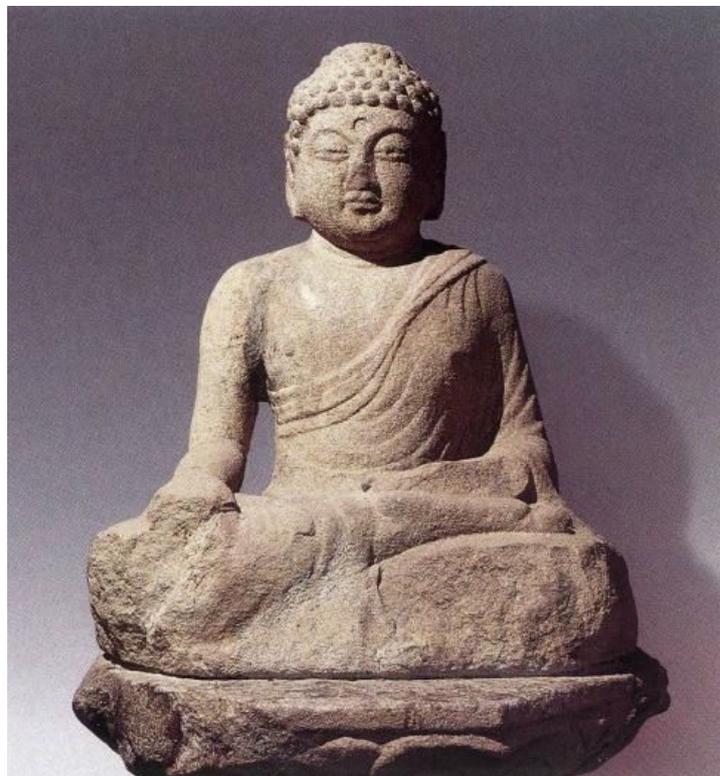
도2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의 수인



도 3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도 4 중대석의 사리공 모습 사진



도 5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 758년경,
경북 김천

□

○ 현 상

이 불상은 현재 경남 산청군 내원사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을 반출하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하부와 등 부위를 쪼아내었고, 얼굴은 마모되었지만, 광배와 대좌는 하나의 세트로 잘 갖추어져 있다. 불상은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데 당당하고 모습으로 8세기 최전성기 신라불의 특징을 잘 갖추었다. 육계는 알맞게 솟았는데 표면이 다소 깨어졌으나 나발의 흔적이 남아있고, 머리와 얼굴 윤곽은 둥글고 원만하다. 통견(通肩)의 가사가 전신을 감싸고 있으며, 두께가 얇고 주름선이 유려하여 신체의 굴곡과 양감이 잘 드러난다.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은 불상 형식이며, 수인은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있는 ‘불상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다. 비로자나불상은 머리모양에 따라 크게 불상형과 보관형(寶冠形)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상형’의 머리형식이 보편적이며 ‘보관형’은 드물다. 오른손을 위로 하여 왼손을 아래로 하여 정확하게 지권인을 맺고 있는데, 두 손의 위치가 조금 낮게 처리되었고 왼손의 검지가 길게 표현되어 있다.

배 모양의 광배는 윗부분과 향해서 오른쪽 부분이 깨어져 있으나,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테두리는 불꽃무늬이고 두광과 신광의 테두리는 두 줄로 이뤄져 있으며, 중간 중간 둥근 고리무늬를 새기고 있다. 두광의 중심부는 16잎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변으로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런 모양의 광배 역시 8세기에 유행했던 불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대좌는 하대, 중대, 상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대는 팔각에 복판(複瓣)의 연꽃무늬를 복련으로 새겼으며, 중대는 팔각에 각 모서리마다 우주(隅柱)가 있다. 복판의 연잎이나, 팔각의 중대석과 우주를 갖춘 이러한 형식의 대좌는 석굴암 본존의 대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8세기 대좌의 전형적인 모양이다. 다만 중대뿐만 아니라 하대도 팔각평면으로 제작된 가장 이른 기년작은 766년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팔각평면의 하대는 이후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 잡는다. 원형평면의 상대, 팔각평면의 중대와 하대의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가장 애용되던 대좌의 형태이다. 바로 766년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형식이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동일한 형식의 대좌는 경주 남산 보리사 석불좌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역시 팔각중대에 각 모서리마다 우주를 모각하고 있으며 하대의 평면이 팔각이다.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부터 전형 형식을 갖춘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이후 고려시대 전기까지 형식의 큰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

○ 내용 및 특징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사 마당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66년 여름 신라오악학술조사단이 발견한 것이다. 이 상이 현재 내원사에 있게 된 연유는 1947년경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에 사는 이성호 형제가 이 석불을 원봉안처에서 반출하여 약 10년 동안 자기 집에 봉안하였다가 1959년 내원사에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성호 형제는 불상을 반출하면서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등과 무릎 아래 부분을 쪼아내었다고 한다. 이성호 형제가 불상을 반출한 원봉안처는 행정구역으로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山152번지이며, 지리산의 해발 880여미터 고지이다. 이 불상의 제작자는 불상을 제작한 후 산 정상의 높은 절벽 돌출 기암 위에 5m×6m의 평평한 대지를 마련하고 이곳에 불상을 봉안하였다.

한편 부산박물관은 1981년 ‘永泰二年(766)’이라는 명문이 있는 납석사리호를 입수하게 된다. 이 사리호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리호가 있었던 원 위치가 비로자나불좌상이 반출된 곳과 같은 장소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다시 주목하게 된다.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의 사리공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호 표면에는 15行 136字의 造像記가 새겨져 있고, 그릇 밑면에는 4行 21字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대좌 중대석의 중심에 뚫린 사리공은 원형으로 중대석을 관통하고 있고, 윗지름 14cm, 밑지름 12cm로 높이가 14.5cm, 지름12~13cm인 사리호가 들어가기에 알맞은 크기이다. 명문에는 조성일과 조성한 불상명칭 및 봉안장소, 발원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영태 2년 병오 7월 2일에 범승·범연 두 스님이 함께 뜻을 받들어 과거로 돌아가신 두운애량을 위하여 석비로자나불을 조성하여 『무구정광다라니경』 과 함께 석남암사 관음암에 봉안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766년에 조성되었고 석남 암사의 관음암에 봉안했던 것임이 분명해 졌고, 이 후 이 상은 766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비로자나불좌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학계에서는 경전의 번역과 지권인의 수용상황으로 미루어 9세기 중엽에야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유행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의 발견으로 8세기 중엽에도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제작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학계의 의견은 수정되었다.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5-06-002

1.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七 迦理迦尊者)]

가. 심의사항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고려 십육나한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8.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1.27)를 거쳐 2014년도 제3차 분과위원회(‘14.4.10)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사용안료 검토 및 국립박물관 소장 고려나한도 비교조사 후 지정 검토’사유로 보류됨
- 이에, 비파괴 성분분석(‘14.6.30 / 붙임 1참조) 및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려 십육나한도’에 대한 비교조사(‘15.3.27)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0.26~’15.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七 迦理迦尊者)]
- 소유자(관리자): 현승훈
-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46-10
- 수 량: 1폭
- 규격(cm): 화폭 세로 60.5×가로41.6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6년(고려 고종 23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본 나한도는 현존하는 동 시기 조성의 다른 예들과 그림 솜씨를 견주어 보아 솜씨가 약간 뒤떨어짐이 파악 된다. 그러나 화면구성상의 특징과 묵서되어 있는 존자명, 남아 있는 화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을미년-병신년(1235-1236년) 간에 일괄 조성된 1236년 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나한도는 비록 조성연대 및 솜씨에 대해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고 바탕천의 박락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현존 예가 많지 않은 고려시대 16나한도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6나한도(제15 阿代多尊者)와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명칭은 16羅漢圖(第7 迦理迦尊者)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이 나한도는 16나한도 중 하나인 제7존자인 가리가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고요하게 의자에 앉은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의 모습을 채색을 최대한 배제한 수묵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내었다. 이는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백나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16나한도의 도상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병신년에 그려진 것인데, 필선과 색채, 표현방식 등에서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제작된 고려 나한도와 거의 같은 畵記 내용과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인 丙申年은 1236년의 丙申으로, 다른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棟梁 金義仁 등 무인들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가 제작될 당시는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 위기의 상황으로, 국난 시 크게 베풀어졌던 나한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작된 사례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화는 고려시대 제작된 나한도와 16나한도 중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16나한도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第15 阿代(氏)多尊者와 이 작품이 유일하다. 따라서 국내·외에 현전하는 고려 나한도의 수가 극히 드물고 고려 불화가 대부분 14세기 대에 제작된 것인데 반해, 이 나한도는 13세기 전반인 1236년에 제작된 것이고 발원내용, 주관자 등을 기록하고 있어 고려 불화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비록 수리 과정에서 고쳐 그린 흔적이 다소 있으나 원형을 크게 왜곡하거나 지정 가치를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정명칭은 “고려 십육나한도”로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5 아벌다존자와 더불어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 나한도는 십육나한도 중의 하나인 第七迦理迦尊者를 그린 것으로 1236년(고종 23)에 武官인 隊正 金義仁의 주관 하에 제작되었다. 화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온 국토가 유린당하던 시기에 나라의 태평과 왕의 성수만세를 기원하며 조성되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고려시대 나한도와 전체적인 표현양식 및 화기 등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고려 나한도는 모두 16점이다. 이중 14점은 오백나한도이며, 16나한도로 추정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제15아벌다존자도와 이 작품 뿐이다. 이 작품과 아벌다존자도가 함께 조성되었는지, 또 이 2점의 16나한도와 오백나한도가 한 세트로 제작되었는가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본 치온인소장 오백나한도에 오백나한도와 16나한이 함께 그려져 있는 점. 화기의 형식이 거의 유사한 점 등을 보면 고려시대에 오백나한과 16나한이 한 세트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나한도는 현재 화면에 박락이 심하고 보수과정에서 일부 보건과 보채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가필이 됨으로써 고려불화 특유의 탄력있는 필선 등은 많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그 예가 거의 없어, 이 작품은 고려시대 16나한신앙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상

비단바탕에 수묵담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迦理迦尊者와 侍者를 표현한 족자형태의 나한도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열화에 의한 바탕천의 박락과 함께 가필 흔적이 부분적으로 엿보임.

○ 내용 및 특징

팔걸이의자에 오른쪽을 향하여 앉아 있는 左顔七分面の 나한상은 석가모니불의

일곱 번째 제자인 迦理迦尊者로, 둥근 머리광배를 갖추었으며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소맷자락 안에 모으고 두 발은 나란히 足臺 위에 올려놓았다.

구부정한 어깨에 고개를 약간 숙여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은 일정한 굽기의 선(鐵線)을 사용하여 각지지 않고 둥글게 나타낸 원만형으로, 이목구비의 표현이 마치 덕망 높고 자비심 충만한 노비구의 모습을 보는 듯 실감나다. 얼굴 크기와 알맞게 그려진 귀에는 둥근 고리 모양의 귀걸이를 착용하였으며, 목에는 三道 표현이 뚜렷하다.

화면 전반에 걸쳐 베어나는 붉은 갈색 톤과 붉은 기운이 감도는 색채로 안온한 느낌이며, 대의 깃과 이음새의 담묵처리와도 어우러져 격조가 있어 보인다. 존상과 의자, 배경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채용된 거의 동일한 색조로 말미암아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화면에 의자 등받이를 붉은색으로 처리하여 활기가 느껴진다.

나한이 앉아 있는 의자 밖 오른쪽에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는 시자는 얼굴은 존자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몸은 존자상과 같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加筆을 하여서인지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이 다소 어색하고 초점 없는 무심한 시선처리로 자애로우면서도 긴장감 있는 존자상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특히 1235년 작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天聖尊者圖’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236년 작 ‘제170 慧軍高尊者圖’, 1235-1236년 작 추정 ‘제15 阿代多尊者圖’ 등과 비교해 보아 평면의 화면에 먹의 농담으로 입체감을 살려내고 있으며 머리와 머리광배, 족대와 신발, 대의 깃과 이음새 등에 바림기법을 구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표현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나한존상과 시자의 인물표현 및 의자 묘사에 있어 생동감이 약간 뒤떨어짐은 물론 표현력에서 많은 차이점이 보이는 등 어색함이 발견된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 가장자리 쪽에 ‘第七 迦理迦尊者’라는 존자명이 있어 16 나한도 중의 제7존자도임이 밝혀진 본 나한도는, 일부가 잘려나가 완전한 판독은 어려우나 하단 중앙부에 화기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畫記]

國土□□

聖壽□□

太子□□

令壽□□

之願

下□□□

景□□□

丙申□□

棟梁□□

金□□

이와 같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화기의 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조성연대가 을미년-병신년(1235-1236년)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백나한도(제92 守大藏尊者, 제125 辰寶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제170 慧軍高尊者, 제427 願圓滿尊者) 및 제15 阿代多尊者,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제23 天聖尊者圖 등과 연관 지어 볼 때, 본 나한도 역시 마지막 부분의 ‘丙申□□’ ‘棟梁□□ 金□□’의 경우 ‘丙申七月’ ‘棟梁隊正 金義仁’으로 판독해 볼 수 있겠다.



제7 가리가존자 전경



제명



화기-적외선



얼굴



하단부분



동자승부분

□

○ 조사내용

현재 고려시대에 단독의 폭으로 조성된 나한도는 16폭 정도 알려져 있고, 그 중에 16나한도는 2폭이다. 이들 작품은 乙未年에서 丙申年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그림의 양식적 특징과 화기의 내용 등으로 보아 1235~1236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화는 ‘적병의 속멸(隣兵速滅)’, ‘국토의 태평(國土太平)’, ‘왕실의 수명장수를 발원하였으며, 불화제작의 주도층은 都兵馬錄事, 將軍, 洪茂下隊, 校尉, 隊正 등의 관직을 지닌 무신계층이며 이외 재가신도들도 일부 참가하였다. 주관자인 棟梁은 하급 군관인 隊正의 직책을 가진 金義仁으로 확인된다. 대정은 고려 때 무관 벼슬의 하나로 2군 6위에 각각 40인을 두었고 종9품에 해당하는 최하급 군관이다. 따라서 이들 나한도들은 무신정권 아래 무신들에 의해 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시대에는 무량 공덕사상과 관련하여 스님들에게 음식공양을 올리는 飯僧의식과 더불어 佛弟子에게 齋를 올리는 羅漢齋가 크게 성행하였다. 특히 나한신앙에는 외적의 적멸이나 기우 등 나라의 큰 불행이 닥쳤을 때 神僧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 이 불화가 제작될 무렵은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난의 시기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잘 부합한다.

이 나한도의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방향의 畫題欄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第七 迦理迦尊者”라고 세로로 썼고, 화제란 바로 옆에

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墨書하였는데, 이는 고려 나한도에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먹 선과 朱線으로 이루어진 방형의 화기란을 두어 발원내용, 제작시기, 제작의 주관자 등을 기록하였으나 하단 부분은 잘려나갔다. 비록 화기의 하단부분이 잘려 나갔지만, 현존하는 나한도 화기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丙申年(1236년)에 隊正 金義仁의 주관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나한도는 의좌에 앉은 의좌상으로 암석과 수목 등 자연 산수를 배경으로 하는 오백나한도 도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현재화기	추정화기
第七迦理迦尊者」	第七迦理迦尊者
國土□□」	國土大平
聖壽□□」	聖壽天長
太子□□」	太子千載
令壽□□」	令壽萬年
之願□」	之願□」
下□□」	下□□」
景□□」	景□□」
丙申□」	丙申□」
棟樑□□	棟樑隊正
金□□」	金義仁」

이 나한도는 존자 중심의 구도와 수목위주의 채색을 보여준다. 주인공인 존자는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의좌에 앉은 모습인데, 화면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하여 주인공을 크게 중시하였다. 존자는 둥근 두광을 갖추고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각진 의좌에 앉았다. 가사 장삼을 걸쳤으며 오른손으로 가슴부근에서 가사자락을 움켜쥐었다. 측면으로 놓인 두 발은 방형의 足座臺 위에 가지런히 올려 두었고, 은은하게 먹 바림을 한 뾰족한 코의 비단신을 신었다. 의좌의 우측 편에는 존자를 향해 고개를 돌려 합장한 청년의 侍者를 묘사하였는데, 시자는 존자에 비해 작고 부차적인 모습으로 배치하여 尊格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시자는 존자보다 야위고 날렵한 청년의 모습이다. 의자는 자를 대고 그은 듯 딱딱하게 각져 있으나, 등받이는 둥글게 처리하고 붉은색 비단으로 드리워 부드러움을 부가하였다. 팔걸이와 등받이 끝에는 연화머리초처럼 곱팽이 위에 연꽃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존자는 좌안칠분면의 전신상이며, 머리는 대체로 편평하나 정수리가 약간 솟아 있고 울퉁불퉁한 뒤통수는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삭발한 머리는 열은 먹으로 바림

질하여 파르스름한 수행승의 짧은 머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윤곽이 분명한 귀는 상·하각의 연골에 음영을 넣었고, 꺾불에는 태환식 귀고리를 착용하였다. 이 목구비는 호모범상형의 異僧의 모습인데, 호방하게 붓질한 눈썹, 푹 붙거진 부리부리한 눈매, 높고 우뚝한 매부리형태의 콧날, 붉게 칠한 작고 도톰한 입술, 턱선을 2~3중으로 표현하여 異國僧의 중후함을 드러내었다.

필선에서 얼굴 등 肉身의 윤곽선과 주름의 세부는 가는 선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과 신체의 윤곽선은 이보다 굵은 선을 사용하여 억양의 변화를 주었다. 가사의 옷깃, 광배의 외연, 의자, 족좌 등에는 잔잔한 먹 바림을 하여 잔잔한 입체감을 주었고, 의자의 등걸이와 입술 등 극히 일부분에는 붉은 색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이 나한도에서 보이는 구도, 인물표현의 기법, 필선, 색채 등의 양식적 특징은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그려진 나한도들과 유사함을 보인다.

○ 문헌자료

- 柳麻理, 「高麗時代 五百羅漢圖의 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黃壽永 編), 民族社, 1987
정우택, 「나투신 隱者의 모습 - 나한도」, 『구도와 깨달음의 聖者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고려시대 오백나한도 및 16나한도 현황

no	작품명	제작 시기	크기(cm) 세로×가로	재질	소장처	화기	비고
1	第23 天聖尊者	1235년	59.7×41.5	견본담 채	동경국립박물관	國土大□ 聖壽(天長) 令壽萬(年) 之願 有 輝□□ 正羅□□ 乙 未十(月日) 棟樑 金 義	오백
2	第31 王相尊者	1235~6 년경		견본담 채	한국 개인		"
3	第92 守大藏尊者	1235년	58.0×41.0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 聖 令壽 之願 司宰 徹 乙未 棟樑 金	"
4	第112 掌法盖尊者	1235~6 년경	54.9×34.7	견본담 채	일본 개인		"
5	第125 展寶藏尊者	1235년	55.2×38.8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聖 太子 令壽 之願 將軍 垡下 高 王(土)乙未 棟 金	"
6	第145 喜見尊者	1236년	59.5×42.0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 聖壽 太子 之 願 君卿 將全 丙申 棟樑 金義	"
7	第170 慧軍高尊者	1236년	54.0×37.2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太平) 聖壽□□ 太子□□ 令壽(万年) 之願 校尉 丙申 東 梁 金	"
8	第234 上音手尊者	1235년	55.1×38.1	견본담 채	일본 大和文華館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万年之願洪茂下 隊 李? 乙未七月日 棟樑隊(正) 金義仁	"
9	第282 寶手尊者	1236년	54.6×31.7	견본담 채	한국 개인	國土大 聖壽天(長) 令壽万歲 之願 散員 徐彦妻 丙申四月(日) 棟樑隊 金義仁	"
10	第357 義通尊者	1235~6 년경	52.8×36.8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

no	작품명	제작 시기	크기(cm) 세로×가로	재질	소장처	화기	비고
11	第379 圓上周尊者	1235년	59.0×41.3	견본담 채	한국 개인	伏惟 隣兵速滅 中外 咸□ 聖壽等□ 令壽 齊北 已身延壽□ 室 內得椿齡 之願都兵 馬錄事李奕瞻 乙未 十月日棟梁隊正金義 仁	"
12	第413 傳聖住尊者	1235~6 년경	53.3×36.7	견본담 채	일본 개인		"
13	第427 願圓滿尊者	1236년	58.6×40.7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太□ 聖壽天(長) 太子千(午) 令壽萬 (年) 之願金□ 智□ 丙申七月日 棟梁隊 (正) 金義仁	"
14	第464 世供養尊者	1235~6 년경	52.8×40.8	견본담 채	미국 Cleveland Museum	國土(太平) 聖壽(天 長) 令壽 願□□ 鄭 □□ 棟梁□□ 金	"
15	第7 迦理迦尊者	1236년	60.5×41.6	견본담 채	한국 개인		십육
16	第15 阿代多尊者	13세기	53.8×39.7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

*화기는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71 재인용.

□

이 작품은 16나한 중 제7존자인 迦理迦尊者를 그린 것이다. 의자에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비구와 그를 시봉하는 侍者를 淡彩로 표현하였는데, 1매로 이루어진 비단바탕은 상당부분 박락되었으며 일부 補絹과 補彩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화면의 좌측(향우측) 상단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길게 旁題蘭을 만들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第七迦理迦尊者’라고 적었으며,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한 방제란 밖으로 다시 第七迦理迦尊者라고 적었는데 글자 역시 상당부분 박락되어 몇몇 글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존자는 백색 內衣 위에 장삼과 가사를 걸쳐입고 팔걸이가 달린 등 높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머리에는 원형의 두광을 지니고 있는데, 두광은 윤곽을 짙게 그리고 안쪽은 먹으로 바림질하여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존자의 오른쪽에는 젊은 시자가 의자 뒤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존자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하여 주종 간

의 차이를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가슴 앞쪽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소매자락으로 감싸 덮었으며,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내밀어 옷자락을 잡고 있다. 드러난 두 발은 가지런히 족대 위에 올려놓았다.

존자는 장년의 비구 모습으로, 파르라니 깎은 머리, 짙은 눈썹에 형형히 빛나는 눈, 콧망울이 넓고 큼직한 코, 꼭 다문 작은 입술 등이 수행자로서의 나한의 성격을 잘 나타내었다. 귀는 어깨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둥근 고리모양의 귀걸이를 착용했는데, 이러한 귀걸이 형태는 고려 오백나한도중 제92守大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第329 圓上周尊者, 제464 世供養尊者 등에서도 확인된다. 존자가 앉아있는 의자는 거의 존자의 머리부분까지 올라오는 높은 의자로서, 등받이 부분은 반원형으로 붉은 천으로 덮혀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연봉우리로 장식하였다. 의자 뒤에는 상체를 드러낸 시자가 존자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고 서있다. 시자의 얼굴은 다소 가채되어 부자연스러운데, 이목구비는 존자와 유사하다. 이처럼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존자가 앉아있고 옆에 시자가 서있는 형식은 고려 16나한도의 하나로 추정되는 제15 아벌다존자도(국립중앙박물관소장)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두 작품은 존자가 발을 올려놓은 足臺 또한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도상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채색은 열은 갈색으로 화면 전체를 칠한 후 먹으로 윤곽을 그린 후 두광이라던가 머리부분, 족대 등 일부분에 바림질을 가하여 濃淡을 표현하였으며, 의자 등받이부분 등에 부분적으로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또한 장삼 가장자리에는 짙은 먹으로 칠하여 농담을 이용한 입체효과를 표현한 반면, 자칫 단조롭기 쉬운 화면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화면 하단 중앙에는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윤곽선을 먹으로 그린 뒤 다시 붉은선을 둘렀다. 화기는 아랫부분이 잘려나가고 글자 또한 박락되었는데, 현재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國土□□」 聖壽□□」 太子□□」 令壽□□」 之願」 下□□□」 景□□□」 丙申□□」 棟梁□□」 金□□」

화기 중 상당 부분이 잘려나가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丙申이라는 간지와 이 불화를 제작하는데 棟梁, 즉 시주를 모아 불화를 제작하는 등 불사를 주관한 金씨의 이름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나한도의 화기는 1236년과 1236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려 나한도의 화기와 매우 유사하여 그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 화기와 가리가존자도의 화기를 비교해보면, 이 불화는 병신년, 즉 1236년에 隊正 金義仁이 주관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화제작 불사를 주관한 김의인은 武官으로, 군인 25명으로 이루어진 최하위 군사조직인 隊의 책임자였는데,

그가 어떤 연유로 이러한 대불사를 계획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에서 화기 앞부분에 나라의 태평과 임금의 성수만세를 기원하거나 이웃의 병사가 물러가기를 바란다(제329존자도)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몽고군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유린되던 때에 나한의 신통력으로 몽고군을 몰아내고 나라가 태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武人の 신분으로 오백나한도와 16나한도 제작이라는 대불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나한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7가리가존자라고 쓰여진 묵서에 의해 볼 때 16나한 가운데 7번째 존자인 가리가존자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16나한은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미륵불이 나타나기까지涅槃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하도록 부처님께 위임받은 제자들로, 三界(과거·현재·미래)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三藏(경·율·논)에 통달하였으며, 특히 外典에 능하여 外道를 항복받고, 신통력으로써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하였다고 한다. 16나한에 대한 신앙은 중국 당나라 때 玄奘이 654년에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를 번역한 이후 크게 성행하였다. 『法住記』에 의하면 16나한 중 7번째 존자인 가리가존자(迦理迦, kalika)는 기상나한(騎象羅漢)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1,000명의 아라한과 함께 僧伽茶洲에 머무르며 불법을 행했으며 正法을 守護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遺事》 駕洛國記에 수로왕이 도읍을 정한 뒤 “산천이 빼어나서 가히 16나한이 살 만한 곳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16나한 신앙이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한에 대한 신앙이 성행한 것은 고려시대인데, 923년(태조 6) 태조가 梁나라에 보냈던 사신 尹質이 오백나한상을 가지고 귀국하자 해주 崇山寺에 봉안하게 하였으며, 왕실에서는 神光寺, 神穴寺, 外帝釋院, 王輪寺, 普濟寺, 神護寺 등에서 비오기를 기원하거나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國家設行의 羅漢齋를 자주 베풀기도 했다. 따라서 이 16나한도를 비롯해 국내외에 전하는 고려 오백나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작되었다.

【붙임1】 휴대용X-선형광분석기를 이용한 사용안료의 비파괴 성분분석

‘고려16나한도’ 채색 안료의 성분분석 결과

2014. 6.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1. 분석대상

○ '고려16나한도'(1236년 추정) 채색 안료

- 적색, 흑색, 백색, 갈색 등

2. 분석내용 및 방법

○ 분석내용

- 불화 채색 안료에 대한 주요 성분의 비파괴분석

○ 분석기기 및 조건

- 장 비 명 : 휴대용X-선형광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Delta Professional, Innov-X Systems Inc., America)
- 분석조건 : Soil Mode, 분석시간 30초, Rh Target, 40kV, 100 μ A, spot size 15mm

3. 분석결과

- 고려16나한도에 채색된 주요 색상별 안료의 비파괴 성분분석을 통해 사용안료를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음.

사용위치	색상(추정)	추정안료
글씨테두리, 대의 등	적색	주사(진사)
내의, 발목양말 등	백색	연백(연분)
배경(바탕) 등	황갈색	연백(연분), 탄산칼슘(합분 또는 호분 등)
광배, 얼굴 등	연갈색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눈동자, 글씨 등	흑색	흑석지(먹) 또는 카본블랙

- 배경(바탕) 채색층과 광배 등 전체적으로 연한 황갈색을 띠는 층위에 사용된 안료는 성분분석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성분조성을 통해 판단한 각 색상별 안료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적색(赤色) 안료는 Hg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주사(朱砂 또는 진사辰

- 砂, Cinnabar, HgS)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백색(白色) 안료는 Pb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연백[鉛白, 또는 연분鉛粉, Lead white, $2\text{PbCO}_3 \cdot \text{Pb}(\text{OH})_2$]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배경(바탕)층 등에서 Ca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CaCO_3 , Calcite) 종류의 호분(胡粉) 또는 합분(蛤粉)이 일부 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흑색(黑色) 안료는 주로 바탕층의 성분 이외에 별도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먹(墨)과 같은 흑석지(黑石脂, Graphite, C)나 카본블랙(Carbon Black)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녹색(綠色) 안료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물에서 녹색으로 판단되는 부위는 찾을 수가 없음. 다만, 일부 색상에서 Cu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석록[石綠, $2\text{CuO} \cdot \text{CO}_2 \cdot \text{H}_2\text{O}$] 또는 동록[銅綠, $\text{Cu}(\text{C}_2\text{H}_3\text{O}_2)_2 \cdot 2\text{Cu}(\text{OH})_2$]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4. 고찰 및 종합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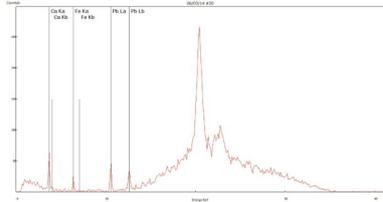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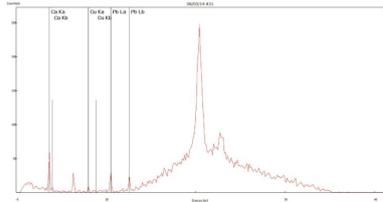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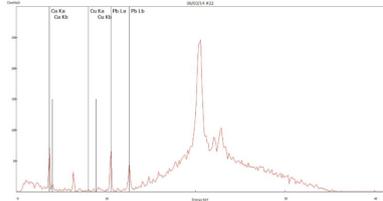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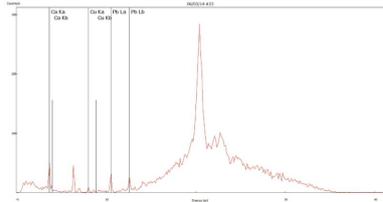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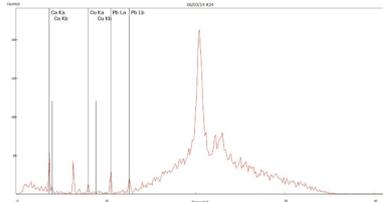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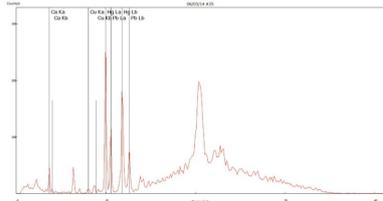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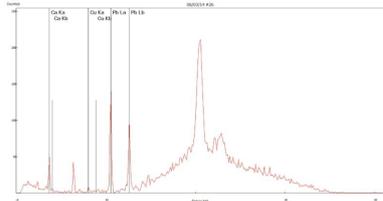
- 색상별 안료의 비파괴 성분분석을 통해 ‘고려16나한도’에 사용된 안료 원료물질을 분석한 결과, 적색이나 백색 등 주요 색상에 사용된 안료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었음.
- 일부를 제외하고 안료의 대부분이 변색되거나 탈락되어 명확한 색상의 구분과 사용안료의 추정이 어려웠으며, 보다 정확한 색상별 사용안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탈락된 시편의 단면분석 등 파괴분석이 수반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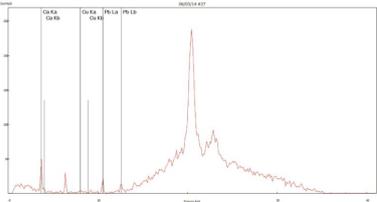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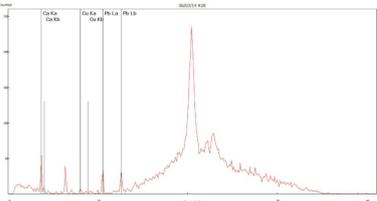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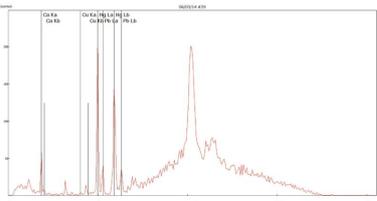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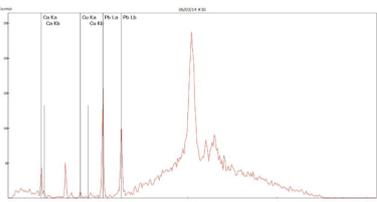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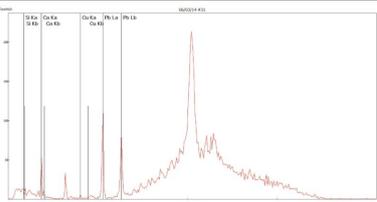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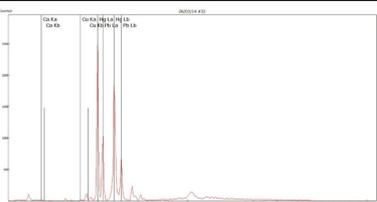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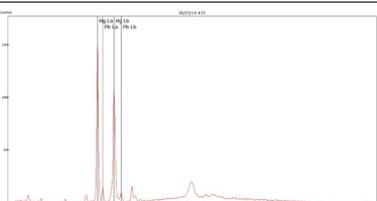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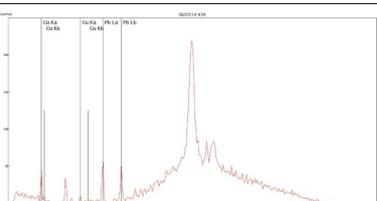
붙임 : ‘고려16나한도’ 채색 안료의 분석 결과데이터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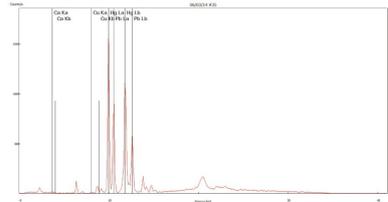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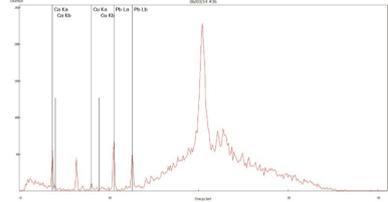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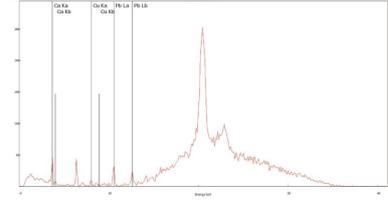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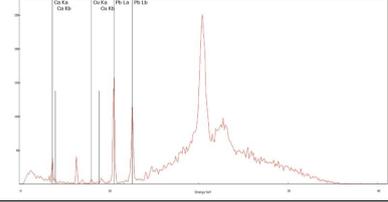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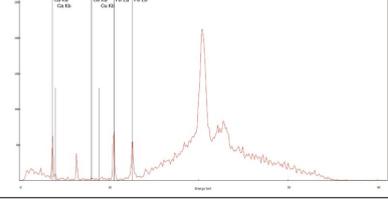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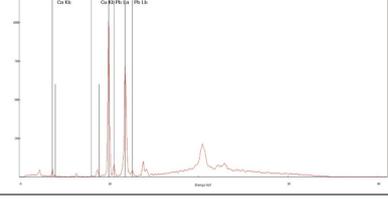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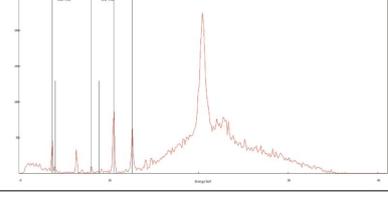


그림 1. '고려16나한도' 채색안료 P-XRF 분석위치도

표 1. '고려16나한도' 채색안료 비파괴 성분원소 결과 및 추정 안료

분석번호	명칭	분석위치 이미지	P-XRF 결과그래프	주요 검출원소	추정 안료명
p0	배경 (박락)			Pb, Ca, Fe	연백(연분), 탄산칼슘(합분 또는 호분 등)
p1	배경			Pb, Cu, Ca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탄산칼슘(합분 또는 호분 등)
p2	광배			Pb, Ca, Cu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p3	머리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석록 또는 동록
p4	눈동자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5	입술			Hg, Pb, Cu, Ca	주사(진사)
p6	상내의			Pb, Cu, Ca	연백(연분)

p7	대의			Pb, Ca, Cu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p8	대의 전답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9	의자 등받이 천			Hg, Pb, Cu, Ca	주사(진사)
p10	대의 안감			Pb, Cu, Ca	연백(연분)
p11	내의 (박락)			Pb, Cu, Ca, Si	연백(연분)
p12	의자 등받이 천자락			Hg, Pb, Cu, Ca	주사(진사)
p13	글씨 테두리			Hg, Pb	주사(진사)
p14	글씨			Pb, Ca, Cu,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15	천자락			Hg, Pb, Ca, Cu	주사(진사)
p16	의자 다리			Pb, Cu, Ca	연백(연분),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17	신발 상부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18	발목 양말			Pb, Cu, Ca	연백(연분)
p19	동자 승머리			Pb, Ca, Cu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p20	화기 테두리			Hg, Ca, Cu	주사(진사)
p21	단상 테두리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2.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十五 阿伐多尊者)]

가. 심의사항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기관이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5.3.27)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0.26~'15.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十五 阿伐多尊者)]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폭
- 규격(cm): 53.8×39.7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6년경
- 제작자: 혜간(惠間)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본 나한도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화기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백나한도 가운데 화기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판

독이 가능한 자료(제92 守大藏尊者, 제125辰寶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제170 慧軍高尊者, 제427 願圓滿尊者) 및 부산 개인 소장 16나한도(제7 가리가존자)로 이루어 보아, 본 나한도 역시 乙未年-丙申年(1235-1236년)에 일괄 조성한 작품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16나한도로서 부산 개인 소장 16나한도(제7 가리가존자)와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명칭은 16羅漢圖로 하고 괄호 속에 해당 존자명을 기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고려시대 나한신앙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으나, 현재 불화로 남아 있는 16나한도를 비롯하여 제7 가리가존자도와 이 작품이 유일할 정도로 그 유례가 드물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화면의 여백을 존중한 안정된 구도 속에 농묵의 변화를 통한 깊은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안정된 구도와 세밀하고 유려한 필선, 그리고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백색과 붉은색, 짙은 농묵 등의 묘한 색채대비를 통하여 격조 높은 그림을 완성하였다. 특히 고려 16나한도와 오백나한도를 통틀어 작자명이 밝혀진 유일한 예로서도 주목된다.

제작 이후 수 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화면의 꺾임과 박락, 꺾임, 그리고 후대의 수리 등 아픈 상흔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으나 현재 고려시대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더구나 국내에 잔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부산의 개인 소장품인 “제7 가리가존자도”와 함께 일괄로 지정하되 가지번호를 주어 지정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이 나한도는 십육나한도 중 15번째인 阿伐多尊者(또는 阿氏多尊者)를 그린 것이다. 현재 화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기존에 알려진 고려 오백나한도 및 16나한도와 전체적인 표현양식 및 화기 등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1235년(고종22)~1236년(고종23)에 武官인 隊正 金義仁의 주관 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나한도는 울이 굵은 비단바탕에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안료의 박락이 엿보이며 화면에 구김이 많고 부분적으로 화건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필선이 수려하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부산개인소장 第七迦理迦尊者와 이 작품 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려시대 16나한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상

비단바탕에 수묵담채로 표현한 나한도로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음. 화면 전반에 걸쳐 열화에 의한 안료의 박락이 엿보이기는 하나 필선이 수려하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임.

○ 내용 및 특징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 ‘第十五 阿代多尊者’ 라는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는 나한도로서, 석가불의 16제자 중 제15존자인 阿氏多尊者의 誤記인 듯하다.

畫記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지는 않으나 화기의 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조성연대가 乙未年-丙申年(1235-1236년)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한도(제92 守大藏尊者, 제125 辰寶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제170 慧軍高尊者, 제427 願圓滿尊者)들과 비교해 보아 본 나한도 역시 동일시기에 조성되었으며, 조성에 관여한 자 또한 ‘棟梁隊正 金義仁’ 으로 추정된다.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큼직하게 그린 나한의 경우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하고 팔걸이의자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비구의 모습으로 두 발은 足臺 위에 가지런히 표현되었으며, 두 손은 오른 어깨에 비껴 기댄 竹節形 주장자를 감싸 쥐고 있다.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하고 시선은 앞 쪽에서 있는 시자를 향하여 서로 무엇인가 얘기를 나누는 듯하다.

나한이 착용한 法衣는 袈衣에 長衫을 두르고 있는 형식으로 채색은 안료의 박락과 퇴락으로 떨어져 명확하지 않으나, 먹선으로 나타낸 의습선은 활달하고 유려하여 빼어난 솜씨가 돋보인다.

나한상에 비해 작게 그려진 侍者는 승려형 인물로 앞·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쪽의 시자는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두 손으로 묶음 끈이 길게 늘어진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서서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입을 약간 벌리고 있어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듯하며, 뒤쪽의 시자는 콧꼴하게 서서 나한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꽃송이가 아래쪽으로 늘어진 연꽃다발을 받들고 있다.

배경 역할을 하는 의자는 높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마련되어 있는 의자로 등받이에는 草葉紋이 그려진 붉은색 바탕천이 둘러져 있으며, 팔걸이 끝부분에는 수식

이 마련되어 있다.

발을 딛고 있는 足臺는 네 모서리에 수각형의 다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족대 뒤쪽 하단에 ‘惠間’ 이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다.





고려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

□

○ 조사내용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오백나한도는 모두 6폭으로, 그 중에서 16나한도는 1폭이며 오백나한도는 6폭이다. 도상적으로 구분하면 대체로 16나한도는 의좌에 앉아 있고, 권속이 등장하는 반면, 오백나한도는 야외 암석과 수목을 배경 배경으로 하여 수행하거나 신통력을 부리는 장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나한도들은 고려시대 때 크게 성행했던 나한신앙에 대한 결과여서 고려시대 불화 연구는 물론 나한신앙 연구에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존자는 허리를 약간 구부려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좌에 우안칠분면을 취하고 앉았으며, 두 발은 나란히 내려 방형의 족자대를 딛고 있다. 족자대는 짙은 濃墨으로 처리하여 등받이의 맑은 붉은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존자의 머리 뒤로 형성된 둥근 광배는 먹 바림질 하여 존자의 얼굴을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무한 광명을 나타내고 있다. 등받이에는 당초문이 시문된 붉은 천을 드리워 존자의 성스러운 尊格을 부각시켰고, 의자에도 먹선으로 단청문양처럼 문양초를 섬세하게 넣었는데, 이러한 표현방식은 부산 개인소장 제7가리가 존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요소이다. 존자는 대나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老軀를 의지하였고, 허리를 약간 구부려 두루마리를 펼쳐 든 侍者를 내려 보

고 있는 모습이다. 하얗게 늘어진 눈썹과 약간 올려 뜬 새까만 눈동자가 묘한 대비를 이루며 마치 살아 있는 존자를 보는 듯 생기가 감돈다.

존자는 짧게 드러낸 백발과 흰 수염, 이마에 표현된 물결형태 주름살과 굴곡진 깡마른 윤곽을 통해 살집 없는 늙은 존자의 얼굴 표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백발과 흰수염은 호분을 사용하였다. 착의는 가사와 균의를 입었다. 가사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가사에는 크기가 일정치 않은 點文을 붓으로 쿡쿡 찍듯이 시문하였다. 존자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혀 두루마리를 펼쳐 든 시자를 향해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의좌의 우측에는 팔걸이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키가 작고 왜소한 侍者가 두 손으로 연꽃을 잡고 서 있다. 이처럼 존자의 주위에 시자들이 등장하는 도상은 미국의 Freer Gallery 소장 傳 梵隆筆 나한도와 劉松年筆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작가미상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등 남송대 나한도에서도 볼 수 있어 상호 영향관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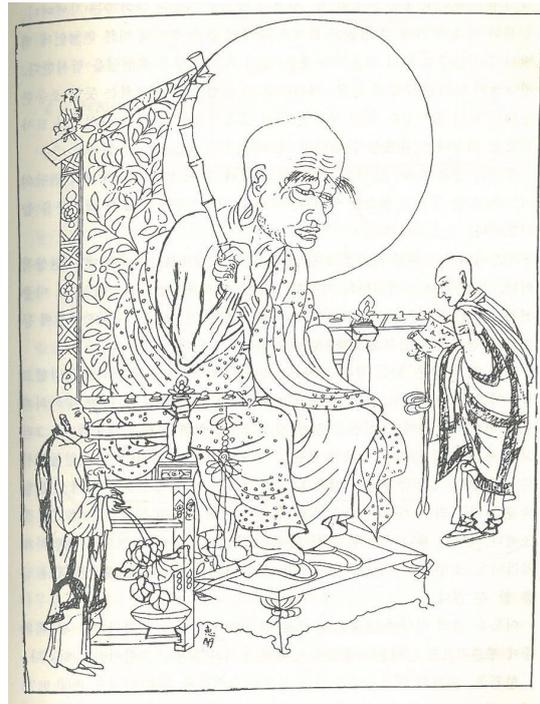
오른쪽의 의자와 족좌대 사이에는 묵서로 “慧間(?)”이라는 묵서를 써 놓았는데, 이는 이 그림을 그린 작자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화면의 오른쪽 붉은 화제란의 존자명은 마멸되었고, 왼쪽 편에 후대에 먹 글씨로 다시 옮겨 쓴 것에는 “第十五 阿伐多尊者”라고 뚜렷이 확인된다. 석가여래의 16제자를 기록한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에는 “제15 阿氏多尊者”라고 되어 있고, 조선 후기의 의식집인 『五百聖衆請文』에는 “제15 阿伐多尊者”로 되어 있는데, 글자의 획과 형태로 보서는 “伐”자를 “代”자로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한의 두광이 화면 상부의 끝단에 닿아 있어 화면 위 부분 중 일부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잘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작당시 화면은 지금보다 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풍이나 도상 등 전반적인 면에서 부산의 개인소장품인 “제7 가리가존자도”와 셋트로 구성된 16나한도 중 한 폭으로 생각되므로, 제작시기도 부산의 제7존자도와 여타의 오백나한도와 마찬가지로 1235~1236년경 나라의 태평과 왕실의 안녕을 발원하며 隊正 金義仁의 주관 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15 아벌다존자도



제15 아벌다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고려시대 오백나한도 연구』에서 전재

○ 참고문헌

『高麗, 영원한 美』, 호암갤러리, 1993

『高麗時代の 佛畫』, 시공사, 1997

柳麻理, 「高麗時代 五百羅漢圖의 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社, 1987

신광희, 「高麗時代 羅漢圖의 특성」, 『美術史學研究』 275·276, 韓國美術史學會, 2012

□

○ 조사내용

이 작품은 제15존자인 아벌다존자도로서, 노비구와 그를 시봉하는 侍子 2인을 함께 그렸다. 노나한은 왼쪽을 향해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인 채 두 다리를 足臺에 올려놓고 등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백발, 길고 흰 눈썹, 흰 수염,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 주름살에서 나이든 모습이 역력하다. 오른쪽 가슴 부근으로 두 손을 올려 비스듬히 죽절형 주장자를 감싸 쥐고, 눈을 약간 아래로 내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죽절형 주장자에 몸을 의지하고 힘없이 앉아있는 노비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노비구의 얼굴 표정에는 날카로움과 기백이 살아있고 형형한 눈빛은 오

랜 세월의 수행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존자가 앉아있는 의자는 머리 위까지 올라오는 등높은 의자로서, 등받이 부분은 반원형으로 붉은 바탕에 화려한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연봉우리로 장식되었다. 의자의 오른쪽에는 중년의 비구가 긴 줄기의 흰 연꽃을 들고 서 있으며, 왼쪽에는 사미형의 젊은 비구가 경전을 펼쳐들고 노나한과 마주보며 다소곳이 서있다. 이처럼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존자가 앉아있고 옆에 시자가 서있는 형식은 고려 16나한도의 하나로 추정되는 第7 迦理迦尊者圖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두 작품은 존자가 발을 올려놓은 족대 또한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도상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또 여기에서 처럼 나한의 주위에 시자들이 서있는 도상은 미국 Freer Gallery 소장 傳 梵隆筆 나한도와 劉松年필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작가미상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등 남송대 나한도에서도 볼 수 있어, 중국 남송대 나한도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화면 왼쪽(向右) 상단에는 “第十五阿代多尊者”라고 수묵으로 기록되어 있다. 16나한 중 15번째 존자에 대해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에는 “阿氏多尊者是 권속1500아라한을 거느리고 鷲峰山에 거주한다”라고 하였으며, 십대제자, 십육나한, 오백나한의 차례와 존명을 명기한 조선 후기의 의식집 《五百聖衆請文》에는 16나한 중 15번째 존자를 阿代多尊者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阿代多尊者是 阿氏多尊者 또는 阿伐多尊者的 오류로 생각되는데, 代와 伐의 글자체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오백성중청문》의 阿伐多尊者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족대 뒤쪽 하단에는 惠間이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화승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3.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羅漢圖)

가. 심의사항

‘고려 오백나한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5.3.27)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0.26~'15.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羅漢圖)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6폭
- 규격(cm): 제92 수대장존자도 58.0×41.0
제125 진보장존자도 55.2×38.8
제145 희견존자도 59.5×42.0
제170 혜군고존자도 54.0×37.2
제357 의통존자도 52.8×36.8
제427 원원만존자도 58.6×40.7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5년-1236년(고려 고종 22년~23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오백나한도 6점은 부분적으로 바당천의 박락과 가채의 흔적이 있음은 물론 화기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어 완벽한 판독은 어렵다고 하겠으나, 화면구성상의 특징과 묵서되어 있는 존자명, 비교적 많은 양이 남아 있는 제427 願圓滿尊者圖 화기에 의거하여 乙未年-丙申年(1235-1236년) 간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일괄 조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록 화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보존상태 또한 다소 양호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현존 작례가 많지 않은 고려시대 오백나한도로서, 일괄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명칭은 五百羅漢圖로 하고 각기 괄호 속에 해당 존자명을 기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고려시대 나한도는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으나 불화로 남은 오백나한도와 16나한도를 비롯하여 몇 폭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나한도는 모두 한 폭에 한 존자씩만을 그리되, 오백나한도는 야외의 암산으로 배경으로 하여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거나 신통력을 부리는 해학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16나한도 중 하나인 第15 阿代多尊者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큼직한 의자에 앉아 권속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 엄연히 구분된다.

크기는 대체로 세로 55~60cm 내외, 가로 35-40cm 내외의 絹本 위에 그려졌으며 입술이나 머리, 의자의 장식 직물, 가사, 지물 등 극히 일부에 제한적으로 채색을 사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묵을 기본으로 하여 그윽함에서 우러나는 우아함으로 화격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가사의 조와 광배 등에는 발묵법을 이용하여 무한한 공간감과 입체감 통해 존자의 수행 깊이를 더해 주는 효과를 주고 있으며, 수행자의 옷차림이지만 목깃이나 소매 등 가사장삼 사이로 새하얀 속옷을 드러내 맵시 있고 세련된 옷차림을 보여준다. 붓놀림은 활달하고, 구사된 선은 담백하고 간결하여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었다. 광배와 기물, 가사의 條와 문양 등에는 금니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등 고려불화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암석의 표현에서 중앙부를 비워 照光효과를 주는 등 이른바 李郭派 화풍이 가미되어 있어 고려시대 산수화의 경향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모든 작품에서 화면의 좌측 또는 우측 상단에 붉은색 화제란을 마련하고 화면에 그려진 존자의 차례와 尊名을 명시하여 도상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하면, 화면 하단 중앙에도 붉은색 화기란을 마련하여 제작시기, 발원자, 그리고 발원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고려시대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화기를 통해 이들 오백나한도는 乙未年과 그 다음해인 丙申년에 걸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화풍과 도상 등으로 미루어 1235년~1236년에 제작된 것으로

로 추정되며, 제작의 주관자는 隊正 金義仁으로 확인된다.

이들 작품들은 제작 이후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화면의 꺾임과 박락, 꺾임, 그리고 후대의 수리 등 세월의 상흔이 곳곳에서 확인되지만, 현재 고려시대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더구나 국내에 잔존하는 사례가 더욱 희귀하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되,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립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 6점(第92 守大藏尊者, 第125 辰寶藏尊者, 第145 喜見尊者, 第170 慧軍高尊者, 第357 義通尊者, 第427 願圓滿尊者)는 을미년과 병신년의 두 해에 걸쳐 일괄적으로 제작되었다. 을미년, 즉 1235년 제작으로 추정되는 것은 제92수대장존자, 제125정보장존자 등 2점이고, 병신년, 즉 1236년 제작으로 생각되는 것은 제145희견존자, 제170혜군고존자, 제427원원만존자 등 3점이다. 제357의통존자도는 화기란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존자의 자세와 가사의 형식, 암반의 표현 등에서 123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第170上音手尊者圖(일본 大和文華館 소장)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이 역시 1235~123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은 대개 세로 55~60cm 내외, 가로 35~40cm 내외의 비단바탕에 水墨淡彩로 그려졌으며, 일부 붉은색과 흰색을 칠했다. 존자들은 대부분 원형 두광을 갖춘 채 가사 장삼을 입고 측면을 향해 암석 위에 걸터앉아 舍利器(수대장존자), 淨瓶(정보장존자), 香爐(혜군고존자, 원원만존자), 如意(의통존자) 등을 들거나 앞에 놓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윤곽의 필선은 먹선으로 강하고 힘이 있으며, 얼굴 부분은 좀더 섬세한 필선을 사용하였다. 화기에 의하면 이 작품들은 모두 隊正 金義仁의 주관하에 일괄 조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양식적 특징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러 명의 화사가 나누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박소장 오백나한도 6점은 고려시대에 성행한 나한신앙을 배경으로 하여 조성된 것으로, 비록 화기가 온전치 못하고 화면의 박락과 보채 및 가필이 된 것이 많긴 하지만 국내에 몇 점 전하지 않는 고려 나한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이에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상

비단바탕에 수묵담채로 의자 또는 바위에 앉아 있는 존자를 그린 오백나한도 중의 6점으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열화에 의한 바탕천의 박락과 함께 가필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내용 및 특징

.제92 守大藏尊者

암벽을 배경으로 암벽 사이에 놓여 있는 대나무 의자 위에 右向 하고 걸터앉아 두 손으로 연화받침을 하고 몸체에 문양이 그려진 상감청자 추정의 淨瓶을 받쳐 들고 있다. 정병에는 버들가지가 꽂혀 있는데 그 위로는 瑞氣가 뻗어나가며, 무릎 앞쪽의 經床 위에는 두각 다리를 한 寶珠形 기물이 놓여 있다.

금선 테두리를 한 투명 머리광배를 구비한 나한존상은 머리칼과 수염이 하얗고 큼직한 둥근 귀고리를 한 채 어깨가 구부정한 자세에 머리를 약간 뒤로 젖혀 앞쪽을 응시하고 있어 신통력 있는 老比丘를 보는 듯하다.

착용하고 있는 가사는 쪽의 이음새인 組에 金剛杵 문양을 표현 하고 여백에는 草花紋을 그려 장식하였으며, 소매 끝자락에 호분을 칠하고 암벽 면에 흰색 초화문을 표현하여 전반적으로 장식적 임이 파악된다.

배경을 이루는 바위면은 濃墨을 사용하여 음영을 나타낸 반면 의습선은 가늘고 힘찬 먹선을 사용함으로써 회화성이 엿보인다.

화면 상단 좌측(向右)에는 ‘第九十二 守大藏尊者’ 라는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하단 중앙부에는 조성시기 및 조성 관련자, 발원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國土 聖壽 令壽 之願 司 徹 乙未 棟梁 金’ 이라는 내용의 화기가 일부 남아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1235년 棟梁 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 된다.

.제125 辰寶藏尊者

화면 우측(向左) 상단에 ‘第一百二十五 辰寶藏尊者’ 라는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고, 하단에 ‘國土 聖壽 太子 令壽 之願 將軍 □下 高光 乙未 棟梁 金’ 이라는 내용의 화기 일부가 남아 있는 존자도로서 바위 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右向하여 앉아 있다.

두 손 가운데 오른 손으로는 버들가지가 꽂혀 있는 정병을 들고 있으며, 왼 손

은 원 무릎 위에 두어 한가롭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원 어깨로는 가사를 묶은 끈이 흘러내리고 있다.

본 나한도 역시 화기로 미루어 보아 1235년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45 喜見尊者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하고 바위에 걸터앉아 구부정한 어깨에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두 손을 맞잡고 화면 좌측(向右) 상단의 피어 나는 구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는 듯하다.

걸터앉은 바위와 法衣에 농묵으로 음영처리를 하여 간략하면서도 깊이감이 있어 보인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 ‘第一百四十五 喜見尊者’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아래쪽이 결실되어 온전하지 못한 ‘國土聖壽 太子 令壽 之願 軍鄉 □ 全 丙申 棟梁 金義’ 라는 내용의 화기가 남아 있다.

화기로 미루어 보아 본 나한도는 1236년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짐작된다.

.제170 慧軍高尊者

암벽을 뒤 배경으로 하고 바위 위에 右向하여 몸을 튼 채 결가부좌하고 앉아 두 손을 북부쪽에서 맞댄 禪定印 자세를 취하여 명상에 잠긴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한 존자의 경우 선이 굵고 강한 인상에 넓은 어깨를 하여 근엄하면서도 禪風 넘치는 高僧을 대하는 듯하다.

선정자세와 어울리게 존자 오른쪽 평평한 곳 경상 위에는 高杯形 향로가 놓여 있고 香煙이 피어나고 있는데, 연기를 코 밑으로 스쳐 지나가게 표현하여 參禪三昧境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듯하다.

화면 우측(向左) 상단에 ‘第一百七十 慧軍高尊者’ 라는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하단 중앙에는 아랫부분이 결실된 ‘國土 聖壽 令壽 之願 校尉 丙申 棟梁 金’ 이라는 내용의 화기 일부가 남아 있다.

화기로 보아 본 나한도는 1236년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제357 義通尊者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한 채 바위 위에 右向하여 결가부좌하고 있는 나한도로서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는 ‘第三百五十七 義通 尊者’ 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화기는 남아 있지 않다.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는 존자의 경우 왼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손 등이 보이도록 살짝 구부리고 있으며, 무릎 아래쪽의 오른 손으로는 如意를 들고 있다.

바위 면과 자유롭게 흘러내리는 法衣 자락에 농묵 처리함으로써 농익은 회화성이 엿보인다.

화기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지는 않지만 존자상 및 표현기법 상으로 미루어 보아 1235-1236년에 일괄 조성한 나한도로 추정 된다.

.제427 願圓滿尊者

바위 위에 左向하여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존자도로서 시선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며, 두 손 중 오른 손으로는 손자루가 긴 柄香爐를 잡고 왼 손은 향로 뚜껑을 잡고 있다.

화면의 손상이 심하여 명확한 표현은 잘 볼 수 없으나 화면 상단 좌측(向右)에는 ‘第四百二十七 願圓滿尊者’ 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하단 중앙부에는 나한도 중 가장 많은 내용의 화기가 남아 있다.

화기는 ‘國土大 聖壽天 太子千 令壽萬 之願全 智 丙申七月 棟梁隊 金義仁’ 라는 내용으로 본 나한도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백나한도 일괄에 대한 조성시기와 조성관련자, 발원 내용을 파악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화면 하단 테두리 바깥 부분에는 광서 18년 임진년(1892년) 정월 沙彌 允五가 쓴 추서가 첨부되어 있다.

□

○ 조사내용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나한도는 16나한도 1폭, 오백나한도 6폭 합쳐서 모두 7폭을 소장하고 있다. 도상적으로 구분하면 16나한도는 존자는 의좌에 앉아 측면관을 하였고, 의자 주위에 권속들이 시위하는 모습이고, 오백나한도는 암석과 수목을 배경 배경으로 하여 수행하거나 신통력을 부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 구분이 된다. 이 나한도들은 고려시대 때 크게 성행했던 나한신앙에 대한 결과여서 고려시대 불화 연구는 물론 나한신앙 연구에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 第九十二 守大藏尊者

왼쪽 상단에 먹 글씨로 제92 수대장존자라고 내려 썼다. 존자는 얇은 바위굴 안에 의자를 마련하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 존자는 측면관을 하였으며 허리 부근에는 마치 팔걸이처럼 거친 바위가 가로지르고 있다. 머리는 백발로 표현하였고, 컷 불에는 둥근 귀고리를 착용하였다. 금선을 두른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고개를 살

짜 들어 두 손으로 받쳐 든 사리에서 솟구쳐 오르는 瑞光을 응시하고 있다. 그 앞의 탁자에는 사리기의 뚜껑으로 생각되는 기물이 놓여 있고, 기물과 사리병의 외곽선은 금니로 처리하였다. 존자는 가사장삼을 걸쳤으며, 가사의 조에는 여타의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떡 바림으로 음영을 주었고, 다시 그 위에 금니로 금강저 문양을 섬세하게 시문하여 장엄하였다. 가사의 條에 화려한 금니로 문양을 시문하는 것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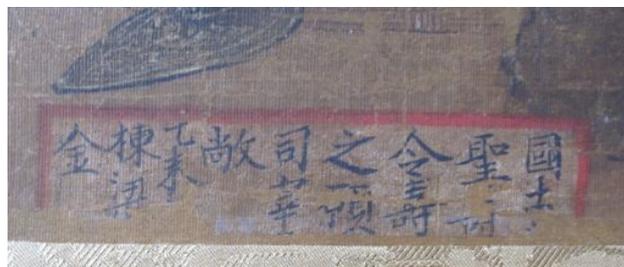
이 나한도는 乙未年, 즉 1235년 隊正 金(義仁)이 주관하였으며, 다른 나한도와 달리 어물의 조달과 하천의 교통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司宰寺의 관리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畫記」

國土」聖」令壽」之願」司宰」敝」乙未」棟梁」金」



제92 수대장존자도, 1235년



제92 수대장존자도 화기

○ 第一百二十五 辰寶藏尊者

왼쪽 상단에 붉은색 방란과 나란히 묵서로 “第一百二十五 辰寶藏尊者”라고 적어 놓았는데, 방란의 글씨는 탈락이 심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붉은색 화기란을 두르고 그 안에 화기를 적어 놓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오백나한도 중 125번째 진보장존자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을 향해 두 무릎을

모아 바위에 걸터앉아 마치 오른손 바닥에 올려놓은 정병을 눈을 부라려 물이 솟구치게 하는 신통력을 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무채색의 장삼위에 條가 있는 가사를 걸쳤으며 왼쪽 어깨에는 가사를 고정한 고리와 매듭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가사의 조와 장삼의 테두리, 존자가 앉은 바위 등에는 발묵법을 사용하여 음양의 효과를 주어 깊이와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y형으로 여민 옷깃과 타원형으로 넓게 흘러내린 소매 자락 안에는 얇고 부드러운 하얀 속옷이 드러나 맵시가 있다. 묘선은 가늘고 힘 있는 선을 구사하였고, 가사에는 먹의 濃淡으로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화기는 탈락이 심하고, 하단부가 잘려 나갔다.

國土…」聖壽…」太子…」令壽…」之願」

將軍…」垞下…」高…」乙未…」棟梁…」金…」

화기의 내용으로 보아 일군의 나한도와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화기 가운데 태자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는 고려사에 기록된 고종22년(1235), 즉 乙未年 正月에 원자인 〇〇(후에 元宗)을 태자로 책봉하였고 6월에 혼례를 올렸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125 진보장존자도, 1235년



제125 진보장존자도 도면, 유미리의 논문에서 전재

○ 第一百四十五 喜見尊者

이 작품은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일본식 장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신년에 그려진 오백나한도 중 제145 희견존자를 그린 것이다. 화면 좌측 상단에 붉은 화제란과 그 옆에 후서로 “第一百四十五喜見尊者”라는 畫題를 세로 먹 글씨로 적어 놓았고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붉은색 방란을 마련하고 화기를 적어 놓았으나 일

부는 잘려나가고 일부만 남아 있다. 존자는 암반 위에 걸터 앉아 측면관을 하였는데, 고개를 들어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이목구비는 이국적인 젊은 비구의 모습이며, 얼굴에는 분홍빛이 감돈다. 콧볼에는 둥근 고리 모양의 귀고리를 착용하였으며, 턱 바림을 한 둥근 광배를 가지고 있으며,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 깍지를 끼었다. 장삼 위에 條가 표현된 붉은 색 가사를 걸쳤다. 하얀 속옷자락이 가사장삼 바깥으로 슬쩍 빠져나와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발에는 코가 뾰족하고 폭이 좁은 세장한 신을 신었다. 군데군데 수리의 흔적이 확인되나 구도와 인물의 표현 등은 안정적이며, 선의 굵기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의습과 신체의 윤곽 등에 사용된 선은 세련되고 활달한 선을 사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차분하게 가라앉은 고급스러운 색감을 사용하여 고려 불화의 수준 높은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은 다른 고려 나한도에 비해 얼굴과 가사 등 전반적으로 채색을 많이 사용한 편이다.

畫記

國土」聖壽」太子」令壽」之願」君卿」將全」丙申」棟梁」金義」



제145 회견존자도, 1236년



제145 회견존자도 화기

○ 第一百七十 慧軍高尊者圖

얼굴이 풍만하고 이목구비도 큼직하게 표현된 장년의 모습이다. 턱으로 음영을 넣은 바위대좌 위에 걸가부좌하고 앉았고, 두 손은 명치에서 가지런히 포개어 禪定印처럼 취하였다. 머리 뒤로는 원형의 두광을 갖추었으며, 가사는 條가 나뉜진

분소의의를 입었고, 오른쪽 어깨 위로 가사를 묶은 고리 장식이 표현되었다. 巖座와 연결된 圓盤 위에는 절첩본의 경책과 고배형 향완이 놓여 있다. 등 뒤에 작게 표현된 수직 암반은 구름이 에워싸고 있어 무한한 공간감과 원근감을 의도하되, 산수보다는 인물중심의 나한도의 특성을 잘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입이 벌어진 원통형의 몸통에 깔대기 모양의 받침대가 붙은 고배형 향완은 당시 유행했던 청동은입사향완과 같은 모습이지만, 유일하게 뚜껑이 표현된 완전한 형태로 표현되어 향완 연구에 주목되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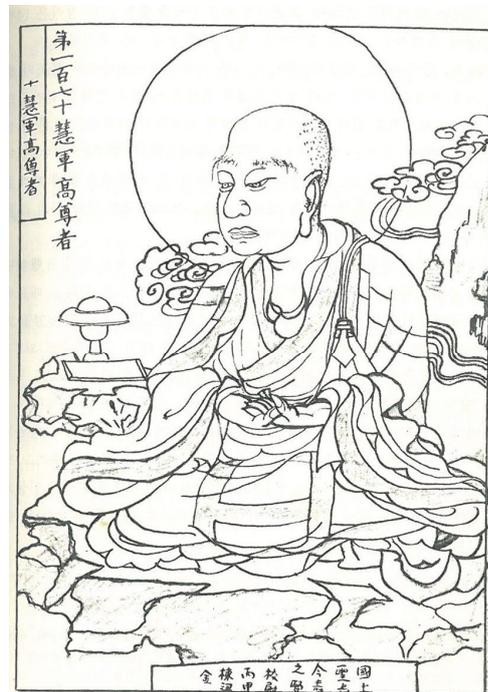
좌측 상단에 붉은 색 방란과 바로 옆에 먹 글씨로 “第一 百七十慧軍者尊者”라고 내려 썼다. 화면 하단 중앙부분에 붉은 방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화기를 적어놓았으나 표구로 인하여 하단부는 잘려 나가고 윗부분의 8행 2자 정도가 확인된다. 화기를 통해 이 나한도도 다른 오백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병신년, 즉 1235년 동량 김의인의 주관으로 그려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화기

國土」聖壽」令壽」之願」校尉」丙申」棟梁」金」



제170 혜군고존자도, 1236년



제170 혜군고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논문에서 전재

○ 第三百五十七 義通尊者

화면의 좌우상단에 그림의 제목을 적어 놓았다. 왼쪽 상단에는 먹 글씨로 내려 썼고,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색 방란을 마련하고 그림의 제목을 적었으나 글씨와 방란이 많이 잘려나가 현재는 글씨가 확인되지 않는다. 존자는 타원형의 바위 위에 측면관을 하고 가부좌하고 앉았으며 머리 뒤로는 큼직한 圓光을 갖추었다. 오

큰손으로 여의를 잡았고, 왼손은 가슴 앞에 들어 설법하듯 포즈를 취하였다. 길게 늘어진 눈썹은 몇 번의 붓질로 나타내었으며, 이마는 넓고 뒤통수는 둥글게 표현하였다. 존자의 시선은 땅을 향해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고, 굳게 다문 입술은 붉게 칠하였으며, 이마와 볼, 목에는 老僧의 수행의 이력을 말해주듯 주름과 骨筋이 잘 드러나 있다. 명문은 잘려 나갔다. 가사의 條에는 먹바림을 하였다. 신체의 윤곽선은 유사한 굵기의 선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주며, 가사의 衣褶은 활달하게 멋스럽고 생동감 있게 처리하였다.



제357 의통존자도



제357 의통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논문에서 전재

○ 第四百二十七 願圓滿尊者

이 존자는 아무런 배경 묘사 없이 암반 위에 걸가부좌 하고 앉은 단독의 젊은 비구형 존자상이다. 머리에는 먹바림을 한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條가 있는 가사장삼을 걸쳤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 붉은색의 방란과 그 바로 옆에 먹 글씨로 “第四百二十七 願圓滿尊者”라는 제목을 後書 하였는데, 붉은색 방란의 글씨는 마멸이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다.

존자는 우안칠분면을 한 전신상으로 암좌에 앉아 수행하고 있는 단엄한 표현하였는데, 화면 전체가 마멸이 심하여 형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세밀한 붓질로 단정하게 표현한 젊은 비구를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짙은 눈썹 아래 눈동자가 살아 있는 예리한 눈을 묘사하였고 굳게 다문 붉은 입술을 통해 굳은 의지를 담아 내었다. 장삼 위에 條가 표현된 무문의 가사를 걸쳤고, 가사 조의 음영을 통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목과 타원형으로 크게 벌어진 소매 안에는 부드러운 하얀 속옷을 드러내 멋을 내었다. 왼손으로는 S자형의 반침이 달려 있는 향로의 뚜껑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도 무언가의 지물을 들고 있다. 어깨는 넓고 둥글며 앓은 모양 안정감 있다.

화면의 중앙 하단에는 붉은색 방란에 쓴 화기의 일부가 잘려나간 채 남아 있으며, 아래쪽 덧댄 회장부분에는 1892년에 沙彌 允五가 쓴 墨書가 남아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황해도 신광사에 전해오던 것이라 한다. 일부 잘려나간 원래 화기에는 丙申年에 나라의 태평과 국왕과 태자의 만수무강을 발원하였으며, 그림 제작의 주관자는 隊正 金義仁으로 기록하고 있다.

畫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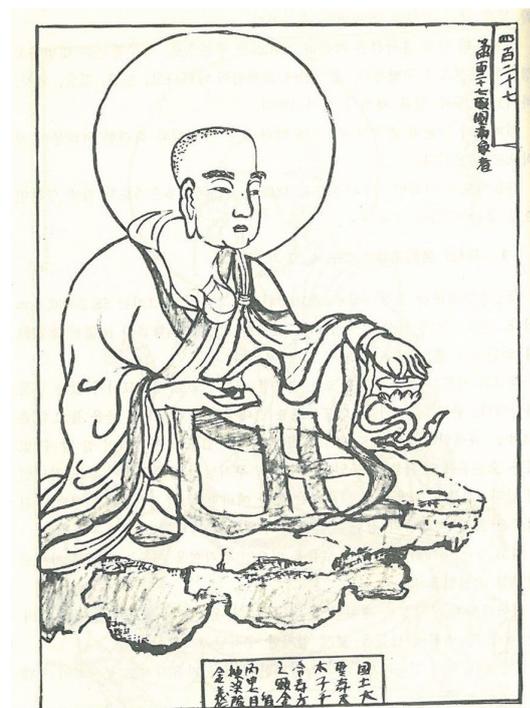
國土大「聖壽天」太子千「令壽萬」之願金「智」丙申七月「棟梁隊」金義仁」

沙彌 允五 墨書

高麗太祖六年府卿尹質使」於後梁梁帝以五道子所畫」五百羅漢幀奉賜曰可奉」安于東國名山麗太祖承」詔奉安于首陽山神光寺」至今千有餘載猶存眞本」雖爲剝落敢慕古人名」畫誠意亦使吾輩得」拜」尊者七分面目不勝欽仰」補缺復排以爲有緣者之」作福云爾」光緒十八年壬辰正月日」沙彌允五」



제427 원원만존자도, 1236년



제427원원만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논문에서 전재



① 第92 守大藏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8.0×41.0cm
- 재질 : 견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5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화면 향우측의 괴석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노나한을 그린 제92 수대장존자도이다. 존자는 다리가 높은 탁자를 앞에 두고 나무를 엮어서 둥글게 만든 墩臺形 의자에 두 다리를 내려뜨리고 앉아서, 받침 위에 놓인 사리병을 양손으로 받쳐 들고 고개를 살짝 들어 사리병 속에서 뻗어 올라가는 瑞氣를 바라보고 있다. 사리병은 목이 길고 원형에 가까운 몸체로 이루어졌는데, 금니로 촘촘하게 문양이 그려져 있다. 존자 앞 탁자 위에 놓인 2단의 투각형 다리를 가진 기물은 형태로 보아 사리기의 뚜껑으로 생각되지만 확실치 않다. 존자가 앉은 돈대형 의자는 남송대 유송년필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관소장)에서 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매우 비슷하며, 서기가 뻗어 올라가는 사리병을 손에 들고 서기를 바라보는 모습은 남송대의 작가미상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관소장)와 유사하여 전체적인 도상이 중국 나한도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존자는 화려한 금니의 문양이 그려진 가사를 입고 있으며, 가사의 각 조에는 金剛杵 문양, 사이사이에는 난 문양이 장식되었다. 얼굴은 코가 크고 턱이 각져 강한 인상을 주며, 귀에는 큼직한 금 귀걸이를 착용하였다. 머리와 소맷자락, 발등 등 부분적으로 호분을 칠해 강조하였다. 이 존자도는 배경을 이루는 바위면에는 濃墨을 사용하여 음영을 나타낸 반면 광배라던가 가사의 금강저, 난 문양 등은 다른 나한도에 비해 금니를 많이 사용했는데, 의습선 역시 가는 먹선으로 그린 뒤 그와 중첩하여 금니로 선을 그어 장식하였다.

한편, 화면 상단 좌측(向右)에는 짙은 먹으로 ‘第九十二守大藏尊者’, 상단 우측(향좌)에는 붉은 선 안에 ‘000守天藏尊者’라고 존자명이 적혀있다. 《五百聖衆請文》에 92번째 존자명이 守大藏尊者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상단좌측에 적힌 묵서는 ‘第九十二守大藏尊者’가 맞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단 중앙부에는 붉은색으로 선을 두른 화기란에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之願 司宰□□ 敝□ 乙未□□ 棟梁[隊]
[正] 金[義][仁]

이라는 묵서의 화기가 남아있다. 화기 일부가 박락되긴 했지만, 다른 작품의 화

기와 비교해볼 때 乙未年(1235)에 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오백나한도(第92 守大藏尊者), 1235년,
건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② 第125 辰寶藏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5.2×38.8cm
- 재질 : 건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5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이 불화는 오백나한 중 125번째 존자인 辰寶藏尊者를 그린 것이다. 고운 비단바탕 위에 그려졌으나 화면의 박락이 심하며, 가칠된 부분이 많은 등 상당부분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존자는 몸을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고 두 다리를 내려뜨린 채 암석 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앉아있다. 왼손은 무릎 위에 대고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손바닥 위에 정병을 들고 있는데, 정병 속에서 물줄기가 솟구쳐 올라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존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줄기가 떨어진 곳에 있는 동물을 보고 있어 동물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존자의 신통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을 쳐다보는 존자의 큼직하고 거 무턱턱한 얼굴, 부릅뜬 눈, 두터운 입술 등에서 이국적인 나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화면 상단 우측(향좌)에는 붉은 화기란 안과 밖에 존자의 명칭이 묵서로 쓰여져 있으나 화기란 안쪽의 명문의 거의 지워졌으며, 바깥쪽의 묵서는 ‘第一百二十五 辰寶藏尊者’로 판독된다. 화면 하단 중앙에는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윤곽선을 먹으로 그린 뒤 다시 붉은 선을 둘렀다. 화기는 아랫부분은 잘려나가고 글자 또한 박락되었는데, 현재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國土[大][平] 聖壽[天][長] 太子千□ 令[壽][萬][年] 之願 將軍□ 垡下 高光 乙未 □ 棟[梁][隊][正] 金[義][仁]

화기에 의하면 이 나한도는 을미년(1235년) 將軍 高光의 시주로 棟梁 隊正 金 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를 시주한 將軍 高光은 1,000명으로 구성된 領의 지휘관이자 정4품으로, 오백나한도의 조성에 고위직인 장군도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고려 오백나한도(第125 辰寶藏尊者), 1235년,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③ 第145 喜見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9.5×42.0cm
- 재질 : 견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6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오백나한 중 145번째 존자인 喜見尊者를 그린 그림이다. 바위에 걸터앉은 존자의 모습을 그렸는데, 화면이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부분적으로 가필된 흔적이 보인다. 존자는 커다란 원형두광을 지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며, 존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구름이 떠가고 있어 아마도 구름을 부리는 존자의神通력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부정한 어깨에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두 손을 맞잡고 하늘을 응시하는 존자는 濃墨으로 음영처리를 한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있지만 발 아래에 땅이 그려지지 않아 마치 허공 중에 떠있는 듯 보인다. 얼굴과 가사 끝자락에 백색안료를 칠하고 바위와 가사에는 바람질을 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등 변화를 주었다. 다른 나한도에 비하여 채색이 강하고 굵은 선을 사용하여 힘있는 느낌을 주는데, 일부 채색과 선묘는 후에 기필, 가채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는 第一百四十五 喜見尊者' 존자명이 두 번 적혀있는데, 붉은 화기란 밖의 묵서는 후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단 중앙에는 윤곽 선을 먹으로 그린 뒤 다시 붉은 선을 둘러 화기란을 만들고 화기를 적었다. 화기는 아랫부분 일부가 잘려나갔으며, 다른 나한도와 비교하여 화기 내용을 복원해 보면 아래와 같다.

國土[大][平] 聖壽[天][長] 太子[千][載] 令壽[萬][年] 之願 君卿□ 將全□ 丙申 棟梁[隊][正] 金義[仁]

즉 이 나한도는 병신년(1236)에 나라가 태평하고 임금과 태자가 수명장수하기를 기원하며 조성한 것으로, 이 역시 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오백나한도(第145 喜見尊者), 1236년,
건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④ 第170 慧軍高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4.0×37.2cm
- 재질 : 건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6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오백나한 중 170번째 존자인 慧軍高尊者를 그린 것으로, 바위 위에 앉아 곁가 부좌한 나한을 그렸다. 존자는 농묵으로 음영을 처리한 넓은 암반 위에 앉아 배 앞으로 두 손을 모아 선정인의 자세를 취한 채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앉아있다. 커다란 눈을 약간 아래로 내리깔고 선정에 든 나한은 큼직한 얼굴에 매부리코, 짙은 눈썹, 꼭 다문 입 등에서 근엄하면서도 후덕한 인상이 풍긴다. 나한의 앞에 있는 작은 암반 위에 놓인 高杯形 香爐(香垵)에서는 향연이 피어 오르고 있는데, 향연이 길게 뻗어가는 모습에서 깊은 禪定三昧에 빠진 수도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커다란 두광을 지닌 나한의 모습, 화면에 꼭 차게끔 나한을 배치한 구성은 굵으면서도 단순한 옷주름과 함께 강한 인상을 주지만, 바

람에 흠날리듯 자연스러운 옷자락과 먹의 효과를 최대한 살린 바림질기법, 釘頭蛇尾描의 필선, 섬세한 얼굴 묘사 등에서 뛰어난 양식을 보여준다. 옷자락 부분과 일부 채색은 후보되었다.

화면 우측(向左) 상단에는 붉은 선의 화기란 안팎으로 ‘第一百七十 慧軍高尊者’라는 존자명이 두 번 묵서되어 있는데, 밖의 글씨는 후에 가필된 것이다. 하단 중앙에는 붉은 선을 두르고 먹으로 화기를 적었다. 화기는 아랫부분이 일부 결실되었으나, 남아있는 부분과 복원된 화기는 다음과 같다.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 之願 校尉□ 丙申□ 棟梁[隊][正] 金[義][仁]

이 나한도는 병신년(1236년)에 나라가 태평하고 임금과 태자가 수명장수하기를 기원하며 校尉의 시주로 隊正 金義仁이 발원 조성하였다. 이 나한도를 시주한 인물은 2개의 隊로 편성되는 伍를 통솔하던 정9품의 하위무관인 校尉로, 정4품 장군이 시주한 第125 辰寶藏尊者와 달리 하위무신들 역시 나한도의 주요 시주자였음을 보여준다.



고려 오백나한도(第170 慧軍高尊者), 1236년,
견본수목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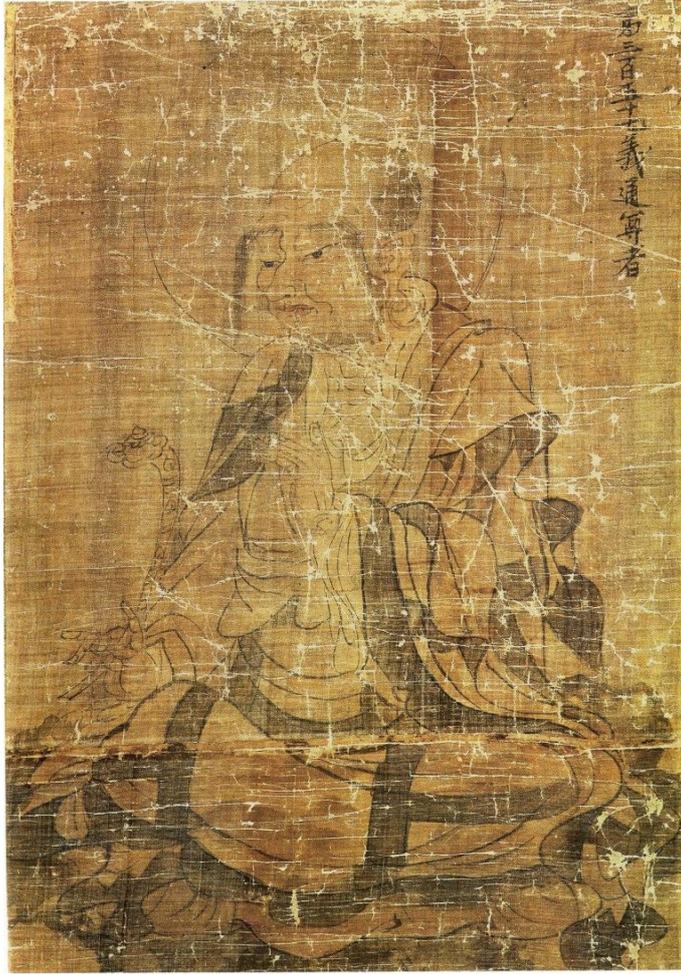
⑤ 第357 義通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2.8×36.8cm
- 재질 : 견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5~6년경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이 불화는 오백나한 중 357번째 존자인 義通尊者를 그린 것이다. 치밀한 비단에 그려졌는데 전체적으로 화면에 구김이 많고 박락된 부분이 많으며, 인물 표현과 옷자락부분에 약간 가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향우측 부분과 아래부분은 색이 매우 짙어보여 갈변현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분적으로 보전이 되었다.

존자는 둥근 머리광배를 지니고 오른쪽을 향해 약간 몸을 튼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암반 위에 앉아있다. 얼굴은 윤곽선이 가늘고 세밀한 편이며, 능숙한 필치로 이목구비를 그렸는데, 눈썹이 길게 늘어진 모습이 흥미롭다. 양 어깨에는 가사를 걸치고 結跏趺坐의 좌세로 앉아 왼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손등이 보이도록 살짝 구부리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如意를 들고 있다. 섬세한 얼굴 표현에 비해 옷자락은 굵고 강한 필선으로 그리고 條線은 濃墨으로 처리하였는데, 옷자락의 주름이 매우 유려하여 작가의 기량이 뛰어남을 엿볼 수 있다. 존자가 앉은 암반도 濃墨으로 처리하였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는 ‘第三百五十七 義通尊者’라는 명칭이 묵서되어 있으며, 우측(향좌) 상단에는 화기란의 붉은선만 남기고 잘라내어 원래의 묵서명은 남아 있지 않다. 화면 중앙에도 화기란이 남아있지 않지만 존자의 자세와 가사의 형식, 암반의 표현 등에서 123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第170上音手尊者圖(일본 大和文華館소장)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이 작품 역시 1235-1236년에 일괄 조성한 나한도 중 한 점으로 추정된다.



고려 오백나한도(第357 義通尊者), 1235~1236년경,
건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⑥ 第427 願圓滿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8.6×40.7cm
- 재질 : 건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6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오백나한 중 427번째 존자인 願圓滿尊者를 그린 그림으로, 1236년에 隊正 金 義仁의 주도로 조성되었다. 화면의 존상이 매우 심하고 다른 작품에 비해 비단 바탕의 울이 성근 편이다. 화면 상단 향우측에 ‘第四百二十七 願圓滿尊者’ 명이 묵서되어 있으나 워낙에 손상이 심해 잘 보이지 않는다. 존자는 몸을 약간 왼쪽으로 틀고 해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커다란 두광을 두르고 향로를 들었다. 존자가 들고 있는 향로는 원형의 爐身에 연꽃 모양의 받침이 있으

며 긴 손잡이가 달려있는 柄香爐로, 존자는 오른손으로 향로의 손잡이를 잡고 爐身 위에서 왼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데, 노신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병향로는 일반적으로 行香儀式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병향로를 나한이 들고 있는 예는 일본 네주미술관 소장 석가 16나한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석가십육나한도에서도 볼 수 있어 고려시대에 널리 사용되던 향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나한도의 하단에는 광서 18년 임진년(1892년) 정월에 沙彌 允五이 쓴 묵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高麗太祖六年府卿尹質使於後梁梁帝以五道子所畫五百羅漢幀奉賜曰可奉安于東國名山麗太祖承詔奉安于首陽山神光寺至今千有餘載猶存眞本雖爲剝落敢慕古人名畫誠意亦使吾輩得拜尊者七分面目不勝欽仰補缺復排以爲有緣者之作福云爾光緒十八年壬辰 正月日 沙彌允五

(고려 태조6년 부경 윤질이 후량에 사신으로 갔는데, 양제가 오도자가 그린 오백나한도를 주면서 동쪽나라 명산에 봉안하라고 했다. 이를 전해들은 태조는 이 그림을 수양산 신광사에 봉안하라고 명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이 넘었는데도 진본이 남아있으니 비록 벗겨지고 떨어졌으나 감히 옛 사람의 명화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존자의 칠분면목을 절하며 공경하게 하니 欽仰을 이기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인연이 있는자로서 복을 짓는 것이라 할 것이다. 광서18년 임진 정월일 사미윤옥)

이 내용은 이 작품을 비롯한 고려 오백나한도가 후량에서 온 吳道子가 그린 오백나한도로서 신광사에 봉안되었던 그림이라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백나한도의 조성시기와 조성관련자, 발원 내용을 파악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크다. 그렇지만 19세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전해오는 고려 오백나한도를 후량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아마도 후량에서 가져온 오백나한도를 후대에 고려에서 모사한 그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오백나한도(第427 願圓滿尊者), 1236년,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4. 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가. 심의사항

‘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5.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0.26~’15.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소유자(관리자): 홍명순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반포리체아파트 103동 3102호
- 수 량: 1冊(6張)
- 규격(cm): 세로 22.4(16.4) × 가로 13.5(10.8)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79년(成宗 10) 推定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化 7年(1471, 성종 2)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를 수록한 명단으로 현재 공개된 자료 가운데 가장 앞서는 유물이다. 또한 科試에 합격한 趙鑣이 跋文을 직접 지어 수록하였다는 특별한 점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현재 전하는 인본이 적은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에서 書誌學的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化 7(1471, 成宗 2, 辛卯)년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의 名單으로 成化 15(1479, 成宗 10)년 7월에 간행된 榜目이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현재까지 公開된 榜目으로는 刊行時期가 가장 앞서고 당시 科試에 합격한 趙鑣(?~?)이 跋文을 지음으로써 해당 科試에서 합격한 인물이 跋文을 지은 독특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와 같이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書誌學的 가치가 큰 것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前期의 人物과 社會史 및 科擧制度史 등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修理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化 7(1471, 成宗 2, 辛卯)년 3월에 시행된 別試 文武科의 합격자 명단으로 成化 15(1479, 成宗 10)년 7월에 간행된 榜目이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榜目으로는 간행시기가 가장 앞서고 당시 文科 3등에 합격한 趙鑣(?~?)이 跋文을 지음으로써 해당 科試에서 합격한 인물이 跋文을 지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같이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書誌學的 가치가 크고, 조선시대 전기의 人物과 社會史 및 科擧制度史 研究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修理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書誌事項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編著者不明]. -- 金屬活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0(1479) 推定].

1冊(6張) : 四周單邊, 半郭 16.4×10.8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22.4×13.5 cm. 楮紙. 線裝(改裝).

表題: 辛卯殿試榜目

內題: 辛卯龍戶榜目

卷首題: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

卷末跋: 上之宅憂之二年冬十月乙亥諭諸道監/ 司曰予明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體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萬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顛顛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應/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年七月初吉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鑰利民謹跋.

○ 현 상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현 소유자가 1980년대 말경에 原州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문화재라고 전해진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현재 앞뒤의 표지가 개장된 상태이다. 表題는 ‘辛卯殿試榜目’이나 卷首題는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이다. 모두 6장으로 그 중 1장은 7~9행의 상부 글자 일부가 결락되었고, 제6장에서는 8행의 가운데 일부와 9행 그리고 판심부 전체가 결락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化 7年(1471, 성종 2)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의 명단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성종실록』에 보인다.

取文科金訥等九人(『성종실록』 9권, 成宗 2年 3月 壬寅)

幸慕華館 御館門 試武科 取金確等十七人 仍命諸將及衛士 試三甲射·三甲槍·毛毬·擊毬.(『성종실록』 9권, 成宗 2年 3月 庚子)

문과는 1등에 金訥 등 2인, 2등에는 兪臣老 등 3인, 3등에는 趙鑣 등 4인으로 모두 9명이 수록되었고, 무과는 1등에 金確 등 3인, 2등에는 蔣處仁 등 5인, 3등에는 黃仲孫 등 9인으로 모두 17명의 명단이 올라있다.

권말에는 문과 3등에 합격한 趙鑣이 지은 跋文이 있다. 간기는 成化 15年(1479, 성종 10)년 7월로 되어 있어 시험을 치룬 이후 8년이 지나서 간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武科榜



跋文

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세조 11년(1465)에 鄭蘭宗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주조한 乙酉字로 인출되었다. 이 銅活字는 圓覺寺를 준공하고 「大方廣圓覺修陀羅了義經」을 印出하기 위하여 주조한 것으로 口訣을 달기 위하여 한글 활자도 주성하였다. 이 활자는 글자체가 단정하지 않다고 혹평받아 그 사용 사례가 많지 않은데, 더욱 甲辰字를 새로 주조하면서 이 활자를 녹여서 사용한 때문에 사용기간이 짧아 전하는 印本도 많지 않다.

조선전기에 金屬活字로 인쇄된 榜目 중에서 지정된 것으로는 燕山君 7年(1501) 科試의 합격자를 수록한 「司馬榜目」(보물 제1464호), 中宗 8年(1513) 科試의 합격자를 수록한 「正德癸酉司馬榜目」(보물 제524호)과 「文武雜科榜目」(보물 제603호) 등이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현재까지 공개된 방목으로는 간행시기가 가장 앞서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 지정사례

- 보물 제 524호 「驪州李氏 玉山門中典籍-正德癸酉司馬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 603호 「文武雜科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1464호 「司馬榜目」(燕山君 7, 1501)

■ 書誌記述 :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編著者不明]. -- 金屬活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成宗 10(1479) 推定].

1冊(6張) : 四周單邊, 半郭 16.4×10.8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22.4×13.5cm. 楮紙. 線裝(改裝).

表題: 辛卯殿試榜目

內題: 辛卯龍戶榜目

卷首題: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

卷末跋: 上之宅憂之二(1470, 성종 1)年冬十月乙亥(11월 1일)諭諸道監/ 司曰予明(1471, 성종 2)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休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1471, 성종 2년 2월)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万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顛顛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應/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1479, 성종 10)年七月初吉(1일)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鑣(?~?)利民謹跋.

活字名: 金屬活字 乙酉字 中間字

伝來歷: 소유자 홍명순이 1980년대 말경에 原州의 조병윤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한다.

■ 現狀 :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소유자 홍명순이 1980년대 말경에 原州에 사는 지인 조병윤으로부터 구입한 문화재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반포리체아파트 103동 3102호의 홍명순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현재 상태는 前後의 表紙가 改裝된 전체 6張이다. 그 중 제1장은 제7~9행의 상부의 글자 일부가 缺落되어 있고 末張인 제6장도 제8행의 가운데 일부가 毀損되어 글자가 缺落되었으며, 글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9행과 版心部分은 전체가 缺落되어 있다.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表題는 ‘辛卯殿試榜目’이고 卷首題는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이며 道합 6張이다. 楮紙에 金屬活字인 乙酉字의 中間字로 印刷되었으며 每半葉의 行字數는 9行 16字이고, 半郭의 크기는 가로 16.8 cm 세로 10.4cm이다. 前後의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제1장은 제7~9행의 上部의 글자 一部가 缺落되어 있고 末張인 제6장 역시 제8행의 가운데 一部가 毀損되어 글자가 缺落되었다. 글자가 없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제9행과 版心部分은 全体가 缺落된 상태이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내용은 成化 7(1471, 성종 2, 신묘)년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의 名單으로, 이는 成宗實錄 2(1471)年 3月 29日의 “文科에 金訢(1448~1492)³⁾⁴⁾ 등 9인⁵⁾을 뽑았다”라는 記事와 同年(1471) 3월 27일 의 “武科를 試驗하여 金確(?~?)⁶⁾ 등 17인을 뽑았다”라는 記事와 일치하고 있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에 수록된 “上之宅憂之二(1470, 성종 1)年冬十月乙亥(11월 1일)諭諸道監/ 司曰予明(1471, 성종 2)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体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1471, 성종 2년 2월)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万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颯颯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應/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1479, 성종 10)年七月初吉(1일)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鑣(?~?)利民謹跋”의 跋文 著作時期가 成化 15(1479, 성종 10)년 7월인 것으로 보아 放榜 이후 8년이 지나서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며, 跋文을 지은 趙鑣(?~?)은 당시 文科 3등(丙科) 1位로 합격한 인물로 當該 科試에 합격한 인물이 跋文을 지은 독특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을 印出한 乙酉字는 世조 11(1465)

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4(1468)年 2月 25(丙辰)日條.

宗簿寺正尹子溟 來進新取生員·進士等試券 命饋之 上覽兩榜一等人試券 成均幼學趙亨門爲生員第一人 金訢進士第一人.

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471)年 3月 29(壬寅)日條.

取文科金訢等九人.

5) 當時에 選取된 9人은 金訢(1448~1492)·鄭摯(?~?)·俞臣老(?~?)·李禮堅(1436~1510)·南梯(?~?)·趙鑣(?~?)·金瑞亨(?~?)·孫尙長(?~?)·孫紱倫(?~1457) 등이다.

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471)年 3月 27(庚子)日條.

幸慕華館 御館門 試武科 取金確等十七人 仍命諸將及衛士 試三甲射·三甲槍·毛毬·擊毬.

년에 鄭蘭宗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鑄造한 大字와 中間字 및 小字 그리고 한 글자의 銅活字로 이 활자는 圓覺寺를 준공하고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印出하기 위하여 주조된 활자이다. 이후 甲辰字를 새로 鑄造하면서 이 活字를 녹여서 사용한 때문에 使用期間이 짧아 傳存하는 印本이 많지 않은 편이다. 現伝本으로는 「碧巖錄」, 「六經合部」 중의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觀世音菩薩禮文」, 「兵將說」, 「唐書」, 「文翰類選大成」 등이 있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本文이 도합 6장에 불과하나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해낸 印本이라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 前期에 金屬活字로 인쇄된 榜目 중에서 個別的으로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것은 司馬榜目 2종과 文武科榜目 1종 등 도합 3종에 불과하다. 보물 제 1464호 [弘治辛酉]司馬榜目은 燕山君 7(1501)년 科試의 放榜이며, 보물 제524호 [正德癸酉]司馬榜目과 보물 제603호 [正德癸酉]文武雜科榜目은 中宗 8(1513)의 放榜이다. 반면에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宗 2(1471)년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의 放榜으로 成宗 10(1479)년 7월에 刊印된 것으로, 현재까지 公開된 榜目으로는 放榜 및 刊行時期가 가장 앞서는 榜目이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跋文을 지은 趙鑣(?~?)은 당시 科試에서 文科 3등 1位로 합격하였는데 當該 科試에 합격한 인물이 跋文을 지은 독특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에서도 書誌學的 가치가 큰 것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前期의 人物과 社會史 및 科擧制度史 등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지정사례

우리나라 最古의 榜目은 조선 제8대 睿宗 원(1469)년에 甲寅字로 찍어낸 「司馬榜目」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榜目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榜目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成宗 10, 1479)
- 보물 제524호 [正德癸酉]司馬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603호 [正德癸酉]文武雜科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1464호 [弘治十四年辛酉]司馬榜目(燕山君 7, 1501)

○ 문헌자료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查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書誌記述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編著者不明]. -- 金屬活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0(1479) 推定].

1冊(6張) : 四周單邊, 半郭 16.4×10.8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22.4×13.5cm. 楮紙. 線裝(改裝).

表 題: 辛卯殿試榜目

內 題: 辛卯龍虎榜目

卷首題: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

卷末跋: 上之宅憂之二(1470, 성종 1)年冬十月乙亥(11월 1일)諭諸道監/ 司曰予明(1471, 성종 2)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体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1471, 성종 2년 2월)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万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顛顛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庶/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1479, 성종 10)年七月初吉(1일)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鑣(?~?)利民謹跋.

活字名: 金屬活字 乙酉字 中間字

狀 態: 부분적으로 毀損되고 글자가 缺落되어 보존처리와 再裝訂이 필요함

所 藏: 홍명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반포리체아파트 103동 3102호)

傳來歷: 1980년대 말경에 소장자가 原州의 조병윤으로부터 구입함

旣指定: 金屬活字로 인쇄된 榜目은 司馬榜目 2종(보물 제524호, 제1464호)과 文武雜科榜目(보물 제603호) 1종이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일본은 없음

■ 現狀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소장자가 1980년대 말경에 原州에 사는 지인 조병윤으로부터 구입한 문화재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반포리체아파트 103동 3102호의 홍명순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상태는 전체 6張으로 前後 表紙가 改裝되어 있다. 그 중 제1장은 제7~9행 상부의 글자 일부가 缺落되어 있고, 제6장도 제8행 가운데 일부가 훼손되어 글자가 缺落되었으며, 글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9행과 版心部分은 전체가 缺落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表題는 ‘辛卯殿試榜目’이고 卷首題는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이며 전체 6張이다. 楮紙에 금속활자인 乙酉字 中間字로 인쇄되었으며 行字數는 9行16字이고, 半郭의 크기는 가로 16.8 cm 세로 10.4cm이다. 前後 表紙가 改裝되었으며 제1장은 제7~9행 상부의 글자 일부가 缺落되어 있고 마지막 장인 제6장 역시 제8행 가운데 일부가 훼손되어 글자가 缺落되었다. 글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9행과 版心部分은 전체가 缺落된 상태이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내용은 成化 7년(1471, 성종 2, 신묘) 3월에 시행된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 名單으로, 이는 성종실록 2(1471)년 3월 29일의 “文科에 金訥(1448~1492)⁷⁾ 등 9인⁸⁾을 뽑았다”라는 기사와 同年(1471) 3월 27일의 “武科를 試驗하여 金確(?~?)⁹⁾ 등 17인을 뽑았다”라는 기사와 일치하고 있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에 수록된 “上之宅憂之二(1470, 성종 1)年冬十月乙亥(11월 1일)諭諸道監/ 司曰予明(1471, 성종 2)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体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1471, 성종 2년 2월)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万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顛顛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

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471)年 3月 29(壬寅)日條.

取文科金訥等九人.

8) 합격자 9人은 金訥(1448~1492)·鄭摯(?~?)·兪臣老(?~?)·李禮堅(1436~1510)·南梯(?~?)·趙鎭(?~?)·金瑞亨(?~?)·孫尙長(?~?)·孫敘倫(?~1457) 등이다.

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471)年 3月 27(庚子)日條.

幸慕華館 御館門 試武科 取金確等十七人 仍命諸將及衛士 試三甲射·三甲槍·毛毬·擊毬.

譽則庶幾乎應/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1479, 성종 10)年七月初吉(1일)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鑣(?~?)利民謹跋”의 跋文이 成化 15(1479, 성종 10)년 7월인 것으로 보아 放榜 이후 8년이 지나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문을 지은 趙鑣(?~?)은 당시 文科 3등(丙科) 1위로 합격한 인물로 科試에 합격한 인물이 발문을 지은 희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을 印出한 銅活字 乙酉字는 세조 11(1465)년에 鄭蘭宗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주조한 大字, 中間字, 小字 및 한 글자의 이 활자는 圓覺寺를 준공하고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印出하기 위하여 주조된 활자이다. 이후 甲辰字를 새로 주조하면서 이 활자를 녹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이십년으로 짧아서 현존하는 印本이 많지 않은 편이다. 現傳本으로는 「碧巖錄」, 「六經合部」 중의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觀世音菩薩禮文」, 「兵將說」, 「唐書」, 「文翰類選大成」 등이 있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본문이 6장에 불과하나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찍은 印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榜目 중에서 個別的으로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것은 司馬榜目 2종과 文武科榜目 1종 등 도합 3종에 불과하다. 보물 제 1464호 [弘治辛酉]司馬榜目은 燕山君 7(1501)년 科試의 放榜이며, 보물 제524호 [正德癸酉]司馬榜目과 보물 제603호 [正德癸酉]文武雜科榜目은 中宗 8(1513)의 放榜이다. 반면에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宗 2(1471)년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의 放榜으로 성종 10(1479)년 7월에 刊印된 것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榜目으로는 放榜 및 간행시기가 가장 앞서는 방목이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발문을 지은 趙鑣(?~?)은 당시 科試에서 文科 3등 1위로 합격하였는데 해당 科試에 합격한 인물이 발문을 지은 희귀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에서도 書誌學的 가치가 크고 조선시대 전기의 人物과 社會史 및 科擧制度史 등의 研究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지정사례

우리나라 最古의 榜目은 조선 제8대 睿宗 원(1469)년에 甲寅字로 찍어낸 「司馬榜目」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榜目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榜目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成宗 10, 1479)
- 보물 제524호 [正德癸酉]司馬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603호 [正德癸酉]文武雜科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1464호 [弘治十四年辛酉]司馬榜目(燕山君 7, 1501)

○ 문헌자료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가. 심의사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7.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6)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0.26~’15.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소유자(관리자): 남풍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 수 량: 10권2책
- 규격(cm): 세로 24.0(19.4) × 가로 14.0(12.3)
- 재 질: 죽지[竹紙(中國 元朝)]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309년(고려 충선왕 1)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고려 忠宣王 1年

(1309)에 간행된 판본으로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판각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토가 기입되어 있어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구결이 적어도 3종이 전하는데 이 책에 있는 구결이 가장 이른 시기의 구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라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비록 훼손상태는 심하나 高麗 板本으로 初印本이며,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朝의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解釋한 密敎思想和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원(1309)년에 刊行된 版本으로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板刻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佛敎學과 書誌學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특히 漢文의 學習이나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口訣研究에 있어 더욱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朝의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의 戒環(?~?)이 解釋한 密敎思想和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1(1309)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판각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불교학과 書誌學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漢文의 學習 및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

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읽는 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口訣研究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훼손상태가 심하여 차후 紙類文化財 보존처리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書誌事項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密帝(?~?, 唐) 漢譯 ; 戒環(?~?, 宋) 解.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者)不明], [高麗 忠宣王 1(1309) 推定].

10卷2冊 : 四周雙邊, 半郭 19.4×12.3cm, 有界, 15行30字, 無魚尾 ; 24.0×14.0cm. 中國紙. 線裝(改裝).

題簽題: 首楞嚴要解上·下

卷首頭: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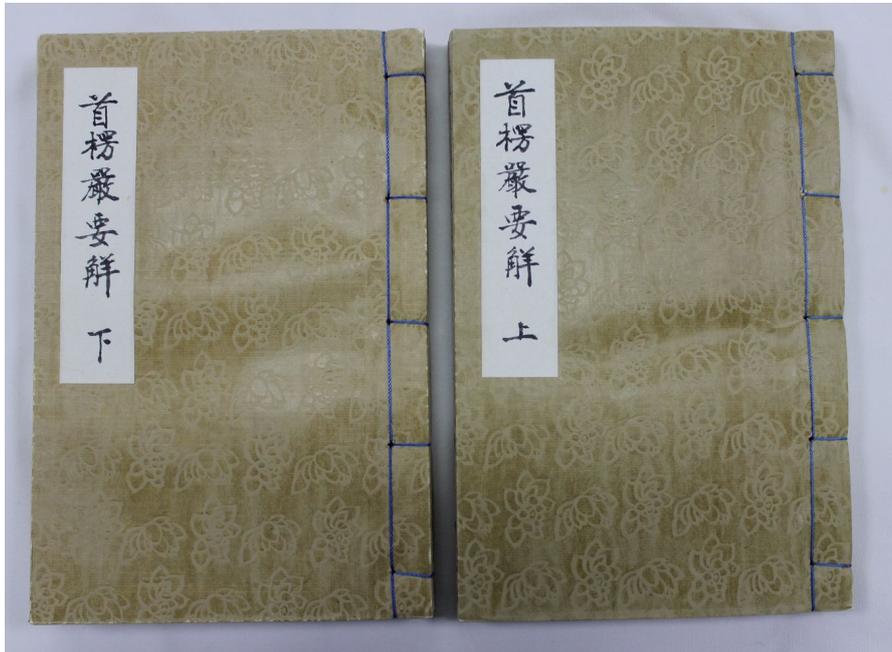
版心題: 楞嚴

○ 현 상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원래 慶北 安東市の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의 소장본이었는데, 1997년경에 현 소장자가 소장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은 현재 낮은 品質의 중국종이에 인쇄된 까닭에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인데, 1990년대에 전체를 裱接하여 2책으로 장책한 상태이다. 전 10권 170여 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 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 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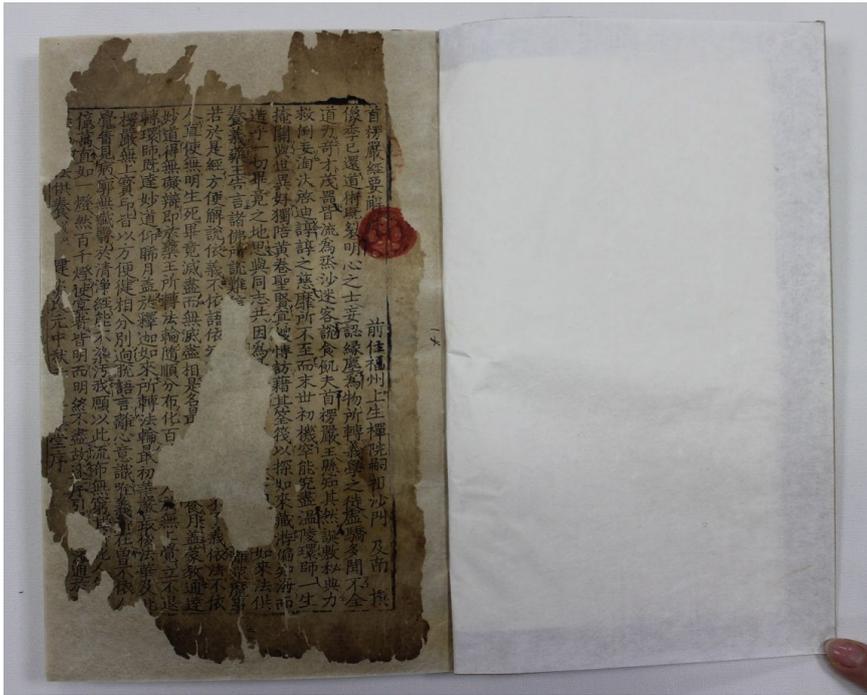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上·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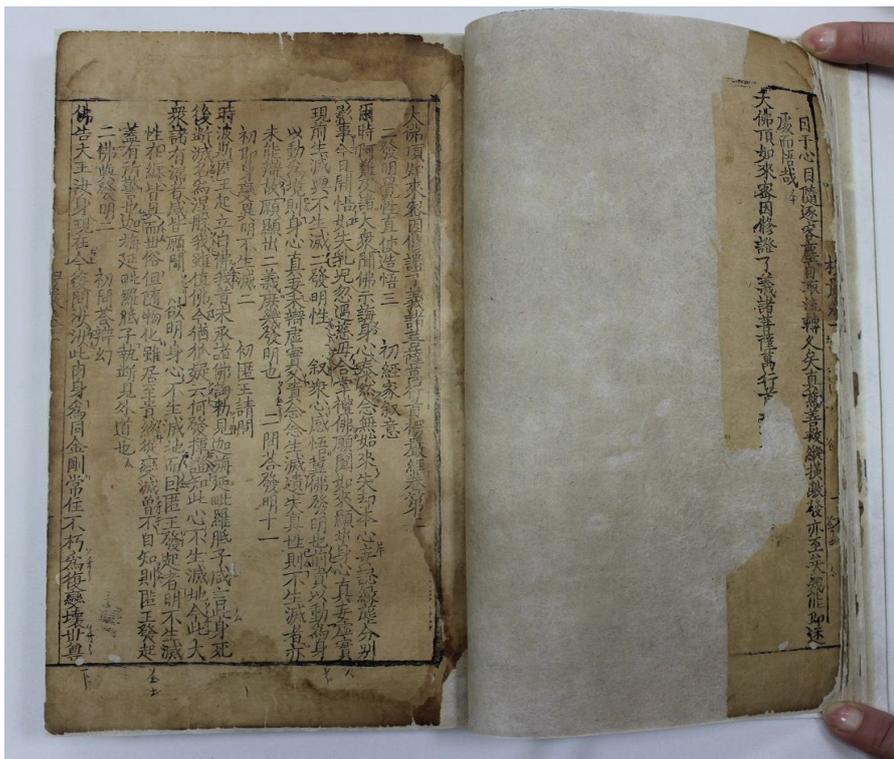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나라 中宗 神龍 1年(705)에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쉽게 풀이한 密敎思想과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1年(1309)에 간행된 목판 小字本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비록 卷末이 결락되어 刊記를 알 수 없으나, 보물 제959호로 지정된 「慶州 祇林寺 塑造毗盧遮那佛 腹藏典籍」 가운데 하나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四之七과 동일한 판본으로 그곳에 기록된 元 武宗 至大 2年(1309, 충선왕 1, 己酉)에 쓴 誌文을 통하여 고려 忠宣王 1年(1309)에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기 지정된 책은 高麗의 楮紙에 인쇄되어 있고 胡蝶裝本이라면, 조사본은 元나라의 竹紙에 印刷되었고 線裝本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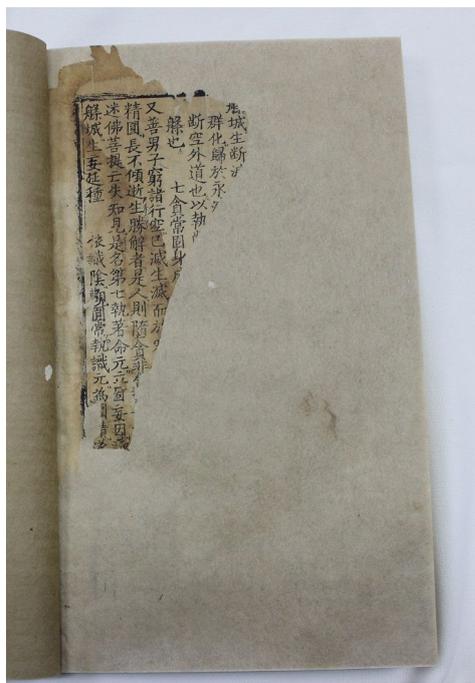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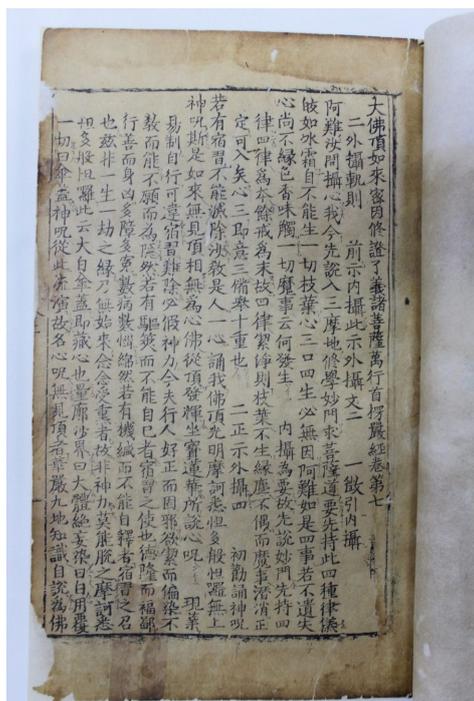
首楞嚴經了解 序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1 末/卷2 首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2 末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7 首/卷10 末

한편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吐가 기입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구결은 한문의 학습이나 독해의 수단으로 한문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吐로 표시해 놓은 것인데, 조사본에 기입되어 있는 口訣은 고려시대 말기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口訣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지정사례

보물 제959-2-2호 「慶州 祇林寺 塑造毗盧遮那佛 腹藏典籍-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四之七, 卷八之九」

○ 문헌자료

남풍현, 「朴東燮本 능엄경의 解題」, 『구결자료집』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書誌記述 :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密帝(?~?, 唐) 漢譯 ; 戒環(?~?, 宋) 解.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者)不明], [高麗忠宣王 1(1309) 推定].

10卷2冊 : 四周雙邊, 半郭 19.4×12.3cm, 有界, 半郭 15行30字, 無魚尾 ; 24.0×14.0 cm. 中國紙. 線裝(改裝).

題簽題: 首楞嚴要解上·下

卷頭題: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版心題: 楞嚴

狀 態: 品質이 좋지 못한 中國紙에 印刷된 까닭에 毀損이 심하여 1990년대 全張을 裱接하여 2冊으로 裝冊하였다 한다. 全 10卷 170여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 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 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다.

伝來歷: 1997년경에 現 所藏者가 원래 慶北 安東市의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씨의 所藏本을 現 所藏者의 중요한 연구의 자료였으므로 現 所藏者가 소장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한 것이라 한다.

既指定: 보물 제959-2-2호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 腹藏典籍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現狀 :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1997년경에 현 所藏者가 원래 慶北 安東市의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의 所藏本을 현 소장자가 소장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현 所藏者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현재 상태는 品質이 좋지 못한 中國紙에 印刷된 까닭에 毀損이 심하여 1990년대 全張을 繕接하여 2冊으로 裝冊하였다 한다. 全 10卷 170여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 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다. 차후 紙類文化財保存處理 專門家나 繕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朝 中宗 원(705)년에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쉽게 풀이한 密敎思想과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楞嚴經」은 密敎部에 수록되어 있으며 印度의 바깥으로 流通되지 못하게 하라는 王의 嚴命이 있어 唐朝 이전까지는 中國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中國에서 많이 加筆되어 거의 中國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楞嚴經」의 내용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菩提心을 얻게 되고 眞正한 境地를 體得한다’고 보아 中國 禪家의 實踐道와 近접하며 密敎적인 색채가 짙다.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佛陀의 제자인 阿難陀(?~?)가 摩登伽가 여인의 呪術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석가)께서 神通력으로 구해낸다. 그리고서 禪定의 힘과 「白傘蓋陀羅尼」의 功德力을 찬양하며, 이 陀羅尼에 의해 모든 魔鬼障을 물리치고 禪定에 前念하여 如來의 眞實한 境地를 얻어 生死의 苦惱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후의 目的임을 밝혔다. 따라서 「楞嚴經」은 密敎思想이 가미되기는 하였지만 禪定이 역설되고 있기 때문에 密敎 쪽보다는 禪家에서 환영을 받아 中國에서의 註釋家들은 모두 禪門의 비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高麗時代 中期의 閑庵 普幻(?~?)의 「首楞嚴經環解刪補記」는 宋朝 戒環(?~?)의 「首楞嚴經要解」의 잘못된 곳을 고쳐 刪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楞嚴經」은 한국 불교 根本經典의 하나로 ‘小華嚴經’이라 불리며 널리 讀誦되

고 있으며, 僧侶들이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經典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만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體得하여 자신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사상으로 하고 있어, 「金剛經」·「圓覺經」·「大乘起信論」 등과 함께 조선시대 승려들이 수행과정에서 배우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원(1309)년에 刊行된 木板小字本の 版本으로 推定된다. 調査本은 卷末이 缺落되어 刊行의 記錄을 알 수 없으나,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 腹藏典籍 중의 하나인 보물 제 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대비할 때 동일한 版本이다. 그것은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권10의 卷末에는 “旧本은 글자가 커서 修行僧이 携帶하고 다니기가 不便하여 僧統 仲昱 등이 國大夫人 鄭氏와 함께 발원하고 글씨를 가늘게 써서 새겨 200부를 인쇄하여 널리 베푼다”는 元朝 武宗 至大 2(1309, 충선왕 1, 己酉)년에 쓴 誌文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도 高麗 忠宣王 원(1309)년에 간행된 版本으로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口訣은 漢文의 學習이나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吐가 기입되어 있어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高麗時代 末期부터 朝鮮時代 初期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종의 口訣이 전하는데 調査本에 기입되어 있는 口訣은 가장 이른 시기의 口訣이라는 研究結果가 수차례에 걸쳐 學界에 報告·評価된 바 있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大文과 註文의 글자는 크기가 같으나, 註文은 大文의 末字에서 2字정도 띄우고 시작하여 行이 바뀌면 大文보다 1字 내려서 썼다. 書籍의 分量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이러한 방식은 調査本이 嚆矢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의 楮紙에 인쇄되어 있는 반면에 調査本대나무(竹)를 主原料로 製作된 元朝의 竹紙에 印刷되어 있다. 또한 調査本은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板刻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佛敎學과 書誌學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특히 漢文의 學習이나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助辭나 魚尾 또는 讀法을 따로 표시해 놓은 口訣研究에 있어 더욱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지정사례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동일한 판본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959-2-2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高麗 忠宣王 원(1309)년.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

○ 문헌자료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口訣資料集 1: 高麗時代 楞嚴經. (韓國學資料叢書: 6).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書誌記述 :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密帝(?~?, 唐) 漢譯 ; 戒環(?~?, 宋) 解.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者)不明], [高麗忠宣王 1(1309) 推定].

10卷2冊 : 四周雙邊, 半郭 19.4×12.3cm, 有界, 15行30字, 無魚尾 ; 24.0×14.0cm. 中國紙. 線裝(改裝).

題簽題: 首楞嚴要解上·下

卷頭題: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版心題: 楞嚴

狀 態: 낮은 品質의 中國紙에 인쇄된 까닭에 毀損이 심하여 1990년대에 전체를 補接해서 2冊으로 裝冊함. 全 10卷 170여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 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음.

所 藏: 南豊鉉(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傳來歷: 원래 慶北 安東市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씨의 소장본이었는데 現 소장자의 중요한 연구 자료였으므로, 1997년경에 現 소장자가 소장

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한 것이라 함.

既定: 보물 제959-2-2호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 腹藏典籍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現狀 :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원래 慶北 安東市의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의 소장본이었는데, 1997년경에 현 소장자가 소장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현재 상태는 낮은 品質의 중국종이에 인쇄된 까닭에 훼손이 심하며, 1990년대에 전체를 補接하여 2冊으로 裝冊하였다. 총 10卷 170여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 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 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다. 차후 紙類文化財保存處理 專門家나 補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나라 中宗 神龍 1(705)년에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쉽게 풀이한 密敎思想과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楞嚴經」은 密敎部에 수록되어 있으며 印度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王의 엄명이 있어 唐나라 이전까지는 중국에 전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중국에서 후대에 찬술된 僞經이라는 설도 있다.

「楞嚴經」의 내용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菩提心을 얻게 되고 眞正한 경지를 체득한다’고 보아 중국 禪家의 實踐道와 근접하며 密敎적인 색채가 짙다.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佛陀의 제자인 阿難陀(?~?)가 摩登伽라는 여인의 呪術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석가)께서 神通력으로 구해낸다. 그리고 禪定의 힘과 「白傘蓋陀羅尼」의 功德力을 찬양하며, 이 陀羅尼에 의해 모든 魔鬼障을 물리치고 禪定에 전념하여 如來의 眞實한 경지를 얻어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후의 목적임을 밝혔다. 따라서 「楞嚴經」은 密敎思想이 가미되기는 하였지만 禪定이 역설되고 있기 때문에 밀교 쪽보다는 禪家에서 환영을 받아 중국에서의 주석가들은 모두 禪門의 비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楞嚴經」은 한국 불교 근본 경전의 하나로 ‘小華嚴經’이라 불리며 널리 讀誦되고 있으며, 僧侶들이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만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득하여 자신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사상으로 하고 있어, 「金剛經」·「圓覺經」·「大乘起信論」 등과

함께 조선시대 승려들이 수행과정에서 배우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1(1309)년에 刊行된 木版 小字本の 판본으로 추정된다. 조사본은 卷末이 결락되어 刊記를 알 수 없으나,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 腹藏典籍 중의 하나인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동일한 판본이다.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권10의 卷末에는 “舊本은 글자가 커서 修行僧이 휴대하고 다니기가 불편하여 僧統 仲昱 등이 國大夫人 鄭氏와 함께 발원하고 글씨를 가늘게 써서 새겨 200부를 인쇄하여 널리 베푼다”는 元 武宗 至大 2(1309, 충선왕 1, 己酉)년에 쓴 誌文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도 高麗 忠宣王 1 (1309)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口訣은 漢文의 학습이나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읽는 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吐가 기입되어 있어서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高麗時代 末期부터 朝鮮時代 初期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종의 口訣이 전하는데 조사본에 기입되어 있는 口訣은 가장 이른 시기의 口訣이라고 평가되며, 그 연구결과가 학계에 報告된 바 있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大文과 註文의 글자는 크기가 같으나, 註文은 大文의 끝 글자에서 2字정도 띄우고 시작하여 行이 바뀌면 大文보다 1字 내려서 썼다. 서적의 分量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이러한 방식은 조사본이 효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 지정된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의 楮紙에 인쇄되어 있는 반면에 조사본은 대나무(竹)를 主原料로 製作된 元나라의 竹紙에 印刷되어 있다. 또한 조사본은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판각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불교학과 書誌學 研究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漢文의 학습 및 독해의 수단으로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읽는 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口訣研究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다만 훼손상태가 심하여 차후 紙類文化財 보존처리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동일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959-2-2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高麗 忠宣王 원(1309)년.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

○ 문헌자료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口訣資料集 1: 高麗時代 楞嚴經. (韓國學資料叢書: 6).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6.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再雕本 瑜伽師地論 卷二十)

가. 심의사항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10.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6)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10.26~’15.11.25)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再雕本_瑜伽師地論 卷二十)
- 소유자(관리자): 남풍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 수 량: 1권1축
- 규격(cm): 전장(匡) 세로 31.9(22.3) × 가로 1500.4(48.4)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246년(고려 고종33) 판각, 13~14세기경 후인(後印)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의 玄奘이 한역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卷末의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고려 고종33년(1246, 丙午)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재조대장경의 판본으로,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卷子本으로 장정한 後印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결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기경에 印出해낸 고려 재조대장경의 판본으로서 중요하며, 특히 各張 各行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瑜伽師地論」은 인도 彌勒菩薩(?~?)의 저술을 唐朝의 玄奘(602~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으로 瑜伽行을 닦는 사람의 修行의 단계인 17地를 밝힌 내용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實踐法을 논한 것이라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朝의 玄奘이 漢譯한 100권 중의 제20권으로 卷末의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高麗 高宗 33(1246, 丙午)년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再雕大藏經의 版本이다. 調査本 「瑜伽師地論」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缺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기에 印出해낸 高麗 再雕大藏經의 版本으로 佛敎學 및 大藏經研究에는 물론 各張 各行의 左右에 釋讀口訣이 筆寫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版本學研究 및 書誌學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調査本 「瑜伽師地論」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瑜伽師地論」은 5세기경 인도 彌勒菩薩(?~?)의 저술을 唐 玄奘(602~ 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으로 瑜伽行을 닦는 修行者의 깨달음에 이르는 實踐法인 17地를 밝힌 내용을 논한 것이라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玄奘이 漢譯한 100권 중의 제20권으로 卷末의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高麗 高宗 33(1246, 丙午)년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再雕大藏經의 판본이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결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기에 印出해낸 高麗 再雕大藏經의 판본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佛敎學 및 大藏經研究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各張 各行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書誌事項

瑜伽師地論. 卷20 / 彌勒菩薩(?~?, 5世紀頃) 著 ; 玄奘(602~664, 唐) 漢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年 板刻, 13~14世紀頃 後印 推定].

1卷1軸 : 上下單邊, 全匡 22.3×48.4cm, 無界, 全葉 23行14字, 無魚尾 ; 全張 32.1×1500.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瑜伽師地論

板尾題: 瑜伽師地論

板 尾: 每板尾에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張 習’라 있음.

刊 記: 卷末 ‘瑜伽師地論 卷第二十 /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卷 尾: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三十二張 習

○ 현 상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1993년경 소장자 南豊鉉 教授가 古書仲介人 故 최길동씨로부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장자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은 현재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나 나머지 29장은 완전하며,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전체에 남아있는 상태이다.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세척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배접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은 새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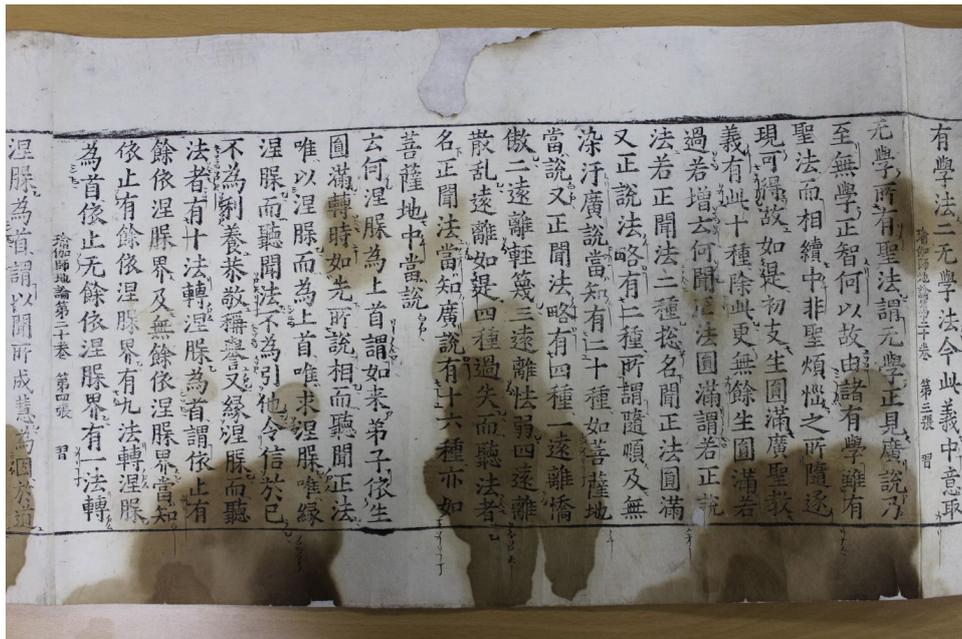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瑜伽師地論」은 5세기경 인도의 論師 彌勒菩薩의 저술을 唐 玄奘(602~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이다. 이 경전은 瑜伽行을 닦는 사람의 수행의 단계인 17地를 밝힌 내용으로, 전체를 本地分, 攝結擇分, 攝釋分, 攝異門分, 攝事分 등의 5분으로 나누어 17地를 논술하고 있어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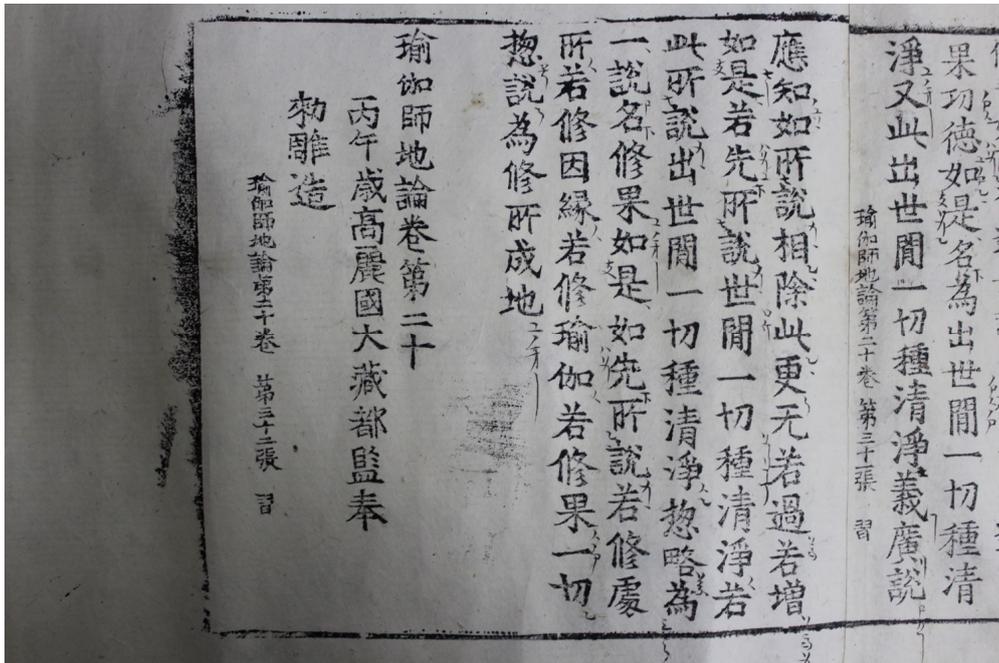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의 玄奘이 한역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卷末의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고려 고종33년(1246, 丙午)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재조대장경의 판본으로, 조사본은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卷子本으로 장정한 後印本으로 추정된다. 板式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이 없으며 行字數는 23行14字이다. 板尾에는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二張 習’ 등으로 經名·卷次·張次 그리고 函次 등이 새겨져 있다.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제2장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제4장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제32장 권말 간기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각 장 전체에 걸쳐 각 행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국어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 지정사례

- 보물 제 969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64(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 972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55(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1658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42(원각사)

○ 문헌자료

남풍현, 「고려본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1993.
남풍현,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1999.

□

■ 書誌記述 : 調査本 「瑜伽師地論」 卷20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瑜伽師地論. 卷20 / 彌勒菩薩(?~?, 5世紀頃) 著 ; 玄奘(602~664, 唐) 漢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年 板刻, 13~14世紀頃 後印 推定].

1卷1軸 : 上下單邊, 全匡 22.3×48.4cm, 無界, 全葉 23行14字, 無魚尾 ; 全張 32.1×1500.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瑜伽師地論

板尾題: 瑜伽師地論

板尾: 每板尾에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張 習’라 있음.

刊記: 卷末에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二張 習/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 있다.

狀態: 전체가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남아있고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장은 완전하다.

保存歷: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洗滌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補接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을 새로이 제작하였다 한다.

伝來歷: 1993년경 所藏者가 古書 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하였다 한다.

既指定: 보물 제1658호(卷42), 보물 제972호(卷55), 보물 제969호(卷64).

■ 現狀 :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1993년경 所藏者 南豊鉉 教授가 古書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所藏者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의 현재 상태는 전체가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남아있고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장은 완전

하다.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洗滌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補接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을 새로 제작하였다 한다. 차후 紙類文化財保存處理專門家나 補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瑜伽師地論」은 인도의 論師 彌勒菩薩(5世紀頃)의 저술을 唐朝의 玄奘(602~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이다. 역사상 實存人物로서의 彌勒은 인도 大乘佛敎 2大學派 중의 하나인 瑜伽行派의 始祖로, 大乘初期 「般若經」 이래의 空思想에 기초하여 「海深密經」 등에 의한 唯識學說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瑜伽師地論」은 瑜伽行을 닦는 사람의 修行의 단계인 17地를 밝힌 내용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實踐法을 논한 것이라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전체를 本地分, 攝結擇分, 攝釋分, 攝異門分, 攝事分 등의 5분으로 나누어 17地를 논술하고 있다. 本地分(제1~50권)은 聲門·獨覺·菩薩 등 三乘을 거쳐 佛位에 이르는 根本十七地를 분별하고 있으며, 攝結擇分(제51~80권)은 17地의 要義를 문답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攝釋分(제81~82권)은 여러 가지 偈·經에 있는 體·釋·師·說·衆·聽·讚佛 등의 儀側을 해석하고 있고 攝異門分(제83~84권)은 偈·經 중에 있는 諸法의 三毒·布施·持戒 등의 名義와 差別을 해석하고 있으며, 攝事分(제85~100권)은 經藏·論藏·律藏 등 三藏 중의 要意를 略攝하고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朝의 玄奘이 漢譯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卷末의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高麗 高宗 33(1246, 丙午)년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再雕大藏經의 版本이며, 調査本은 再雕大藏經의 木板으로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卷子本으로 裝訂한 後印本이다. 板式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이 없으며 行字數는 每張 23行14字이다. 板尾에는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二張 習’으로 經名·卷次·張次 그리고 函次 등이 새겨져 있다.

調査本 「瑜伽師地論」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缺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기에 印出해낸 高麗 再雕大藏經의 版本으로 佛敎學 및 大藏經 研究에는 물론 各張 各行의 左右에 釋讀口訣이 筆寫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版本學 및 書誌學 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 지정사례

調査本 「瑜伽師地論」과 同一한 版本의 再雕本 「瑜伽師地論」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658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42. 원각사.
- 보물 제972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55.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969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64. 국립중앙박물관.

○ 문헌자료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書誌記述 : 조사본 「瑜伽師地論」 卷20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瑜伽師地論. 卷20 / 彌勒菩薩(?~?, 5世紀頃) 著 ; 玄奘(602~664, 唐) 漢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年 板刻, 13~14世紀頃 後印 推定].

1卷1軸 : 上下單邊, 全匡 22.3×48.4cm, 無界, 全葉 23行14字, 無魚尾 ; 全張 32.1×1500.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瑜伽師地論

板尾題: 瑜伽師地論

板 尾: 每板尾에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張 習’라 있음.

刊 記: 卷末 ‘瑜伽師地論 卷第二十 /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卷 尾: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三十二張 習

狀 態: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전체에 남아있고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장은 완전함.

所 藏: 南豊鉉(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保存歷: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洗滌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褙接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을 새로이 제작함.

傳來歷: 1993년경 所藏者가 古書 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함.

既指定: 보물 제1658호(卷42), 보물 제972호(卷55), 보물 제969호(卷64).

■ 現狀 :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1993년경 소장자 南豊鉉 教授가 古書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장자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의 현재 상태는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전체에 남아있고 제 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장은 완전하다.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洗滌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繕接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을 새로 제작하였다 한다.

○ 내용 및 특징

「瑜伽師地論」은 5세기경 인도의 論師 彌勒菩薩의 저술을 唐 玄奘(602~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이다. 역사상 실존인물로서의 彌勒은 인도 大乘佛敎 2대학과 중의 하나인 瑜伽行派의 始祖로, 大乘初期 「般若經」 이래의 空思想에 기초하여 「海深密經」 등에 의한 唯識學說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瑜伽師地論」은 瑜伽行을 닦는 사람의 修行의 단계인 17地를 밝힌 내용으로, 전체를 本地分, 攝結擇分, 攝釋分, 攝異門分, 攝事分 등의 5분으로 나누어 17地를 논술하고 있어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本地分(제1~50권)은 聲門·獨覺·菩薩 등 三乘을 거쳐 佛位에 이르는 根本十七地를 分별하고 있으며, 攝結擇分(제51~80권)은 17地의 要義를 문답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攝釋分(제81~82권)은 여러 가지 偈·經에 있는 體·釋·師·說·衆·聽·讚佛 등의 儀側을 해석하고 있고 攝異門分(제83~84권)은 偈·經 중에 있는 諸法의 三毒·布施·持戒 등의 名義와 差別을 해석하고 있으며, 攝事分(제85~100권)은 經藏·論藏·律藏 등 三藏 중의 要意를 略攝하고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의 玄奘이 漢譯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卷末의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高麗 高宗 33(1246, 丙午)년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再雕大藏經의 판본이며, 조사본은 再雕大藏經의 木板으로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卷子本으로 장정한 後印本으로 추정된다. 板式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이 없으며 行字數는 23行14字이다. 板尾에는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二張 習’ 등으로 經名·卷次·張次 그리고 函次 등이 새겨져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결락되고 第2~3張이 훼손되어 있으나 13~14세기에 印出해낸 高麗 再雕大藏經의 판본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佛敎學 및 大藏經研究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各張 各行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지정사례

조사본 「瑜伽師地論」과 同一한 版本의 再雕本 「瑜伽師地論」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658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42. 원각사.
- 보물 제972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55.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969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64. 국립중앙박물관.

○ 문헌자료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 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5-06-008

1.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등 9건 국외반출

가. 심의사항

프랑스, 러시아 순회전을 통해 한국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신청한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등 9건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청한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등 9건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 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 대상문화재 및 수량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 명칭	허가수량
1	국보 제 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1점
2	국보 제 93호	백자 철화포도원숭이문 항아리	1점
3	국보 제 96호	청자 구룡형 주전자	1점
4	국보 제 113호	청자 철화양류문 통형 병	1점
5	국보 제 167호	청자 인물형 주전자	1점
6	국보 제 175호	백자 상감연화당초문 대접	1점
	국보 소계		6건 6점
1	보물 제 240호	백자 청화투각모란당초문 항아리	1점
2	보물 제 1060호	백자 철화근무늬 병	1점
3	보물 제 1437호	백자 달항아리	1점
	보물 소계		3건 3점
	총계		9건 9점

○ 장소 및 기간

- 반출기간 : 2016년 4월 10일 ~ 11월 20일

- 전시기간
 - 프랑스 그랑팔레 : 2016년 4월 27일 ~ 2016년 6월 20일
 -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 : 2016년 7월 29일 ~ 2016년 11월 6일
- 전시 명칭 : 한국도자 특별전 “흙, 혼, 불, 공기” Korean Ceramics Exhibition
“Earth, Spirit, Fire, Air”

라. 국외반출 대상 조사 결과

- 목 적 : 반출대상 유물 보존 상태 등 조사
- 조사일자 : 2015. 11. 23(월)
- 조사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 조사자 의견
 - 금번 조사한 국가지정문화재는 전반적으로 국외반출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단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국보 제91호(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국보 제96호
(청자 구룡형 주전자), 국보 제167호(청자 인물형 주전자)는 반출시 특히 주의가 필요함.

마. 우리청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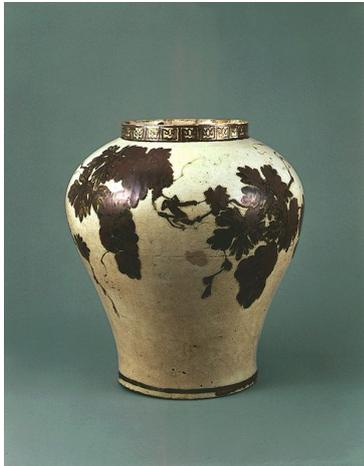
-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국보 제96호 청자 구룡형 주전자, 국보 제113호 청자 철화양류문 통형 병, 보물 제240호 백자 청화투각모란당초문 향아리 등이 각 1회씩 해외 전시를 위해 반출되었으며, 전시에 의한 유물의 피로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프랑스, 러시아 순회전을 통해 한국 문화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립박물관 내 유물포장 전문인력 양성방안 제출할 것
 - 금번 유물포장시 전문인력 투입할 것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

허가신청목록

① 지 정 번 호	국보 제 91호	
② 명 칭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21.0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 정 번 호	국보 제 93호	
② 명 칭	백자 철화포도원숭이문 항아리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38.0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 정 번 호	국보 제 96호	
② 명 칭	청자 구룡형 주전자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17.3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허가신청목록

① 지 정 번 호	국보 제 113호	
② 명 칭	청자 철화양류문 통형 병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31.4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 정 번 호	국보 제 167호	
② 명 칭	청자 인물형 주전자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28.0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 정 번 호	국보 제 175호	
② 명 칭	백자 상감연화당초문 대접	
③ 수 량	1점	
④ 규 격	높이 7.6cm	
⑤ 보 관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허가신청목록

① 지정번호	보물 제 240호		
② 명칭	백자 청화투각모란당초문 항아리		
③ 수량	1점		
④ 규격	높이 26.5cm		
⑤ 보관장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정번호	보물 제 1060호		
② 명칭	백자 철화끈무늬 병		
③ 수량	1점		
④ 규격	높이 31.4cm		
⑤ 보관장소	국립중앙박물관		
① 지정번호	보물 제 1437호		
② 명칭	백자 달항아리		
③ 수량	1점		
④ 규격	높이 46.0cm		
⑤ 보관장소	국립중앙박물관		

I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 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5-06-009

1. 보물 제1683-2호 ‘정약용 필적 하피첩(丁若鏞 筆蹟 霞帔帖)’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683-2호 ‘정약용 필적 하피첩(丁若鏞 筆蹟 霞帔帖)’의 오염 및 열화 부위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민속박물관으로부터 보물 제1683-2호 ‘정약용 필적 하피첩’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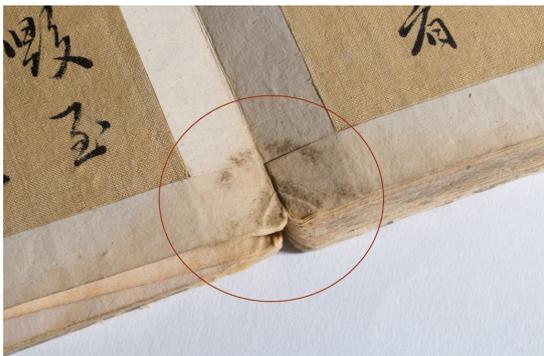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민속박물관)
- 수 량 : 3첩
- 규 격 : 제1첩: 24×14.2cm/ 제2, 3첩: 24.6×15.6cm
- 재 질 : 지류
- 제작연대 : 조선시대(1810년)
- 지 정 일 : 2010. 10. 25.
- 문화재내용 : 《하피첩》은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아내 홍씨부인이 치맛감 여러 폭을 부쳐오자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구절을 직접 짓고 써준 것이다. 원래 네 첩이었으나 현재 세 첩만 알려져 있다. 현재의 《하피첩》 3첩은 그 하나가 결락된 셈인데, 각첩 표지에 ‘하피첩’이란 제목은 좀 남아 있으나 그 아래의 ‘첩 순서’[帖次]는 탈락되어 몇 번째 첩이 없는지를 알 수 없다. 《하피첩》 3첩은 그 중 두 첩에 각각 1810년 7월[首秋]과 1810년 9월[菊秋]의 서문이 있어 강진 유배시절인 1810년 기년작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 강진 유배 이후 정약용의 전형적인 행초서풍을 보여주며, 특히 세번째 첩에 실린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는 다른 서첩에서 좀처럼 볼 수 없다.

라. 현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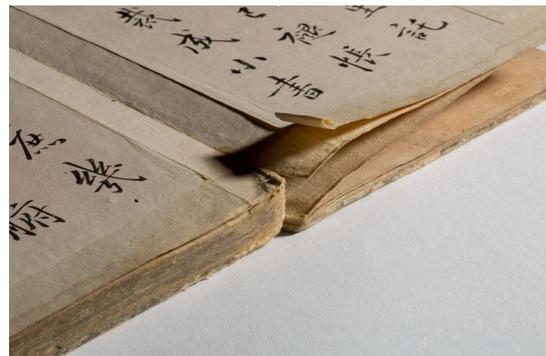
- 곰팡이 등 표면 오염 발생
- 접착력 약화로 접합부 들뜸 발생
- 가장자리를 두르는 회장(回裝)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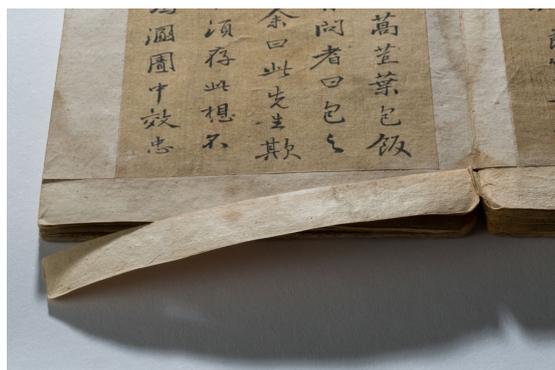
보물 제1683-2호 정약용 필적 하피첩



곰팡이 등 표면 오염물



접착력 약화로 발생한 들뜸



가장자리를 두르는 회장(回裝)의 분리

마. 현상변경 내용

- 곰팡이 제거 및 손상부 복원
- 전면 해체 지양, 최소한의 보존처리 실시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재질분석 : 종이섬유 분석, 종이가공에 사용된 재료 분석 등
- 클리닝 : 진공 suction과 부드러운 붓을 이용한 곰팡이 포자 제거
- 손상부 복원 : 종이섬유 및 가공법 분석 결과에 따라 종이를 복원한 후, 소맥 전분풀을 사용해 접착
- 색맞춤
- 보 관 : 2중 오동나무 상자 제작, 보관
- 보존처리 계획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처리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진행
 - 해체 없이 최소한의 보존처리 실시 예정
- 보존처리 기간 : 2015. 12. 18. ~ 2016. 4. 22.(4개월)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문화재위원 등 총 3명 자문 하에 실시

2. 보물 제1684호 ‘신위 해서 천자문’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1684호 ‘신위 해서 천자문(申緯 楷書 千字文)’의 오염 및 곰팡이 등으로 인한 손상이 진행중으로 이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대학교로부터 보물 제1684호 ‘신위 해서 천자문(申緯 楷書 千字文)’의 현상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의받기 위해 부의하는 것임.

다. 문화재현황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 수 량 : 1첩
- 규 격 : 28.2×15.3cm(書面 23.5×10.3cm)
- 재 질 : 지류
- 제작연대 : 조선시대(1837년)
- 지 정 일 : 2010. 10. 25.
- 문화재내용

신위는 조선후기 문신·서화가로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한수(漢叟), 호는 자하(紫霞)·경수당(警修堂) 등이다. 아버지는 대사헌 신대승(申大升)이며 어머니는 이영록(李永祿)의 따님이다. 1799년(정조 23) 춘당대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발탁된 뒤 1812년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가서 당대의 대학자 옹방강(翁方綱) 등을 만났다. 이후 병조참지, 곡산부사, 승지, 춘천부사, 병조참판, 강화유수 등을 지내던 중 윤상도(尹尙度)의 옥사로 관직에서 물러나 시흥의 자하산(紫霞山)에 은거하였다. 1832년에 도승지에 제수되나 사양하고 이듬해 대사간에 나갔으나 경기암행어사 이시원(李是遠)이 강화유수 때의 실정을 거론하자 이에 상소했다가 평산에 유배되었다.

그 뒤 복직되어 이조참판·병조참판·대사간 등을 지냈다. 시에 뛰어나고 서화를 두루 잘했는데 특히 묵죽(墨竹)에 능했다. 글씨에 있어 해서는 청에 다녀온 뒤 옹방강 서풍을 따랐고 행초에서는 북송 미불(米芾)의 서풍을 애호했으며 명 동기창(董其昌)의 서풍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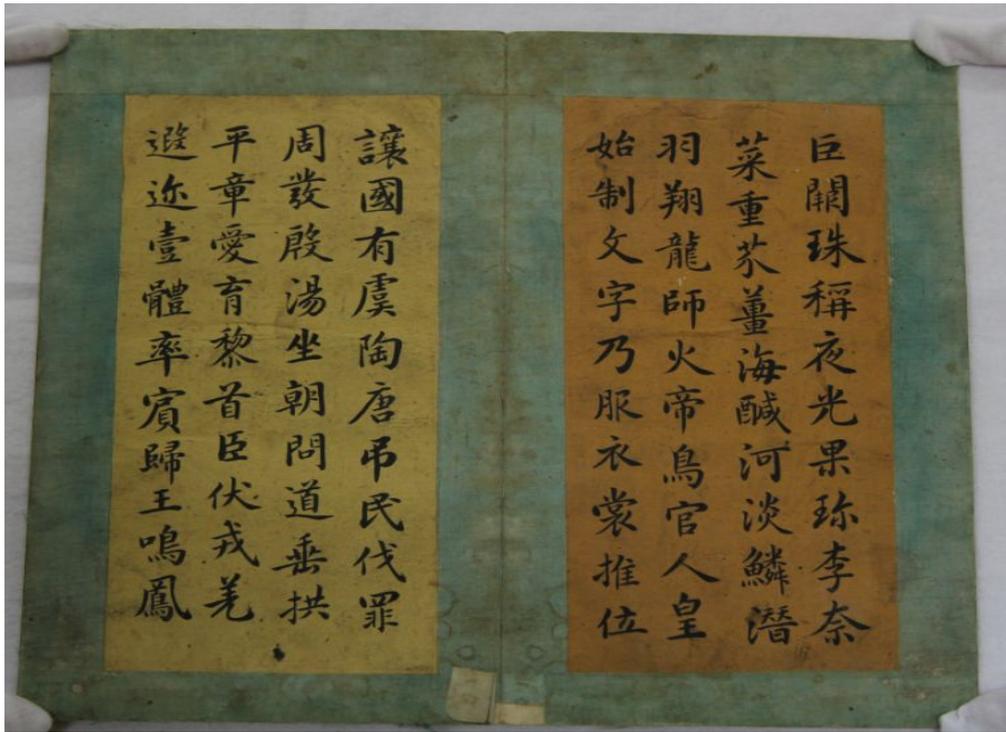
이 《해서천자문》은 모두 26면의 다양한 색지를 사용하여 1면에 4줄 40자씩 썼다. 그중 첫 면에는 “千字文”·“梁員外散騎侍郎周興嗣次韻”을 세 줄에 쓰고 천자문 10자를 한 줄에 썼으며, 마지막 면에는 천자문 30자를 3줄에 쓰고 나머지 한 줄에 “丁酉九月廿一日 紫霞六十九叟書”라 썼다. 신위가 69세 되는 1837년(헌종 3) 9월 21일에 썼다. 서풍은 당나라 구양순(歐陽詢)에 바탕을 둔 옹방강과 그의 아들 옹수곤(翁樹昆)과 유사한데, 김정희(1786-1856) 역시 1810년 청나라에 다녀온 뒤 한동안 이 서풍을 따랐다. 신위의 해서 글씨는 옹방강에 비해 좀 더 부드럽고 단아한 필치이다. “千字文”이라 쓴 표지의 제첩 글씨도 신위의 필적으로 여겨진다.

인영(印影)은 첫 면에 원장자(原藏者) 덕수이씨의 소장인과 근래의 소장자 신호충(申孝忠, 1934-86)의 소장인, 그리고 임창순(任昌淳)·이가원(李家源)·김충현(金忠顯)·김응현(金膺顯)·이기우(李基雨)의 감상인이 찍혀 있다. 마지막 면에도 신호충의 [集古軒]이 찍혀 있다.

라. 현 상태

- 습윤으로 인한 얼룩 및 황변 진행
- 접착력 약화로 접합부 들뜸 발생
- 표지와 내지 부위에 많은 양의 먼지가 산재
- 가장자리를 두르는 회장(回裝)의 분리

○ 현황사진





보물 제1684호 '신위 해서 천자문(申緯 楷書 千字文)'

마. 현상변경 내용

- 과학적 분석조사를 근거로 수리복원

바. 보존처리 계획

- 보존처리 전 상태 조사

- FT-IR 적외선 분광법, 현미경 촬영, XRF 분석

- 보존처리

- 해체, 건식세척, 표면표접 후 표장해체, 배접지 제거 및 습식 클리닝

- 복원처리

- 1-2차 배접 및 부속품 보강 배접, 화장비단 장정 및 추가배접, 절첩장 연결 및 재단, 표지 연결

- 보 관

- 오동나무상자 및 과보(褱袱) 제작, 의향(衣香) 제작 및 격납

- 보존처리기간 : 2015. 12 ~ 2016. 4

사. 향후계획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존처리 진행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자문 하에 실시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5-06-011

1.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魯英 筆 阿彌陀如來九尊圖)

가. 검토사항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27)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魯英 筆 阿彌陀如來九尊圖)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점
- 규격(cm): 21.0×12.0
- 재 질: 나무판에 흑칠금니선묘화
- 제작연대: 1307년(충렬왕 3)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이 작품은 나무바탕에 옷칠을 하고 금니로 그린 금선묘 불화로서, 1307년 魯英

이 제작한 것으로 아랫면에 받침축이 있으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금선묘의 필선이 속도감 있으면서도 굵기가 다른 선으로 화사의 뛰어난 기량을 엿보인다.

화풍은 뚜렷한 윤곽선과 齒形突起, 針形細樹 등에서 대체로 북송대의 李成과 郭熙에 의해 이룩된 李郭派畫風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금선묘는 서역출신 위지을승(尉遲乙僧)의 화풍과도 유사하다.

고려시대 금니사경화를 보는 듯한 금선묘기법의 활달한 필치, 금니이면서도 작품의 완성도가 높음은 물론 조성작가와 조성연대가 분명한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틀이 휘어져 있고 화면의 표면 옷칠의 갈라짐과 안료 일부에 박락이 보이는 등 보존상태가 열악한 편으로, 시급히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작품은 1307년 작가 노영이 나무판에 흑칠을 하고 그 위에 금선묘로 그린 고려 후기 불화의 기준자료이다. 화면의 정면에는 아미타여래팔대보살도를, 그리고 뒷면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는 금강산 신앙과 관련된 일화를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것이며, 이는 당시 유행했던 금강산 신앙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면에 표현된 아미타여래팔대보살도는 엄격한 상하 2단 구도, 섬세하고 우아한 귀족적인 인물표현과 유려한 선묘, 단아한 형태미를 기반으로 하는 고려불화의 특징을 잘 담고 있다. 후면의 고려 태조의 금강산 배점(拜帖) 장면에서는 일반회화 작품이 거의 없는 고려시대 산수화풍을 읽을 수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더욱이 여기서 보이는 금강산의 표현은 조선후기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불화에서 검은 바탕에 선묘로 그린 기법과 테두리에 금강저를 문양을 시문한 형태 등은 전반적으로 고려 사경변상도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사경화와 선묘불화의 절묘한 만남도 이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노영이라는 작자와 1307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 그리고 아미타여래팔대보살도, 고려태조 금강산 배점도, 지장보살도 등 도설내용이 모두 밝혀진 고려불화의 절대 기준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이 작품은 흑칠한 나무바탕에 금니로 그린 금선묘 불화로서, 1307년에 魯英이 제작하였다. 아랫면에 받침축이 있으므로 받침대에 세워놓았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금선묘를 사용하여 그리는 이와 같은 기법은 고려시대 사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필선은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비수가 뚜FUT

하여 화사의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다. 화풍은 뚜렷한 윤곽선과 齒形突起, 針形細樹 등에서 대체로 북송대 李郭派畫風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금선묘의 특징은 서역출신으로 唐代에 활약했던 尉遲乙僧의 화풍을 연상시킨다.

고려시대 사경화를 연상시키는 금선묘기법, 뛰어난 필치,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작가와 조성연대가 분명한 점 등에서 이 작품은 고려불화의 편년작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무틀이 휘어져 있고 안료가 박락되는 등 보존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즉 앞면은 중앙부분과 윗부분의 갈라짐이 심하며 향우측 윗부분에는 일부 물감의 박락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뒷면 역시 갈라진 부분이 많다. 또 얼굴과 보발 등에는 마치 아교를 칠한 것처럼 다소 번들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안료가 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존처리를 시행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명칭은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로 함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세로 22.5cm, 가로 13cm, 두께 1cm의 목판 위에 黑漆을 한 뒤 앞·뒷면에 金泥로 阿彌陀九佛尊圖와 地藏,曇無竭菩薩禮拜圖를 그린 흑칠 금니 불화로서, 목판 가장자리에는 앞·뒷면 모두 고려시대 經變相圖에서와 같이 좌우에 3개씩, 상하에 2개씩 총 10개의 金剛杵 문양을 둘러 장식하였다.

-구불구불한 금니의 섬세하고 거침없는 필선으로 묘사한 아미타구존불도는 앞면에 그렸으며 뒷면에는 지장보살과 담무갈보살에배도를 그렸다.

앞면의 아미타구존불도는 화면을 상하 2단 구도로 나누어 위쪽에 아미타불을 크게 그렸는데, 커다란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通肩의 法衣를 착용하고 대좌 위에 結跏趺坐하고 앉아 있다. 오른손은 어깨 위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가슴부근으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다. 아미타불의 두광과 신광의 내부는 모두 구불구불한 빛을 가득 차게 그리고 가장자리는 연꽃잎으로 장식하였으며, 광배 밖으로는 꽃과 구름 문양을 가득 채워 화려함을 더 하였다.

-본존불 아래쪽에 2단으로 그린 팔대보살들은 마치 아미타불을 떠받치는 것과는 같이 배치되었는데, 모두 측면으로 몸을 살짝 돌리어 중앙을 향해 시립하고 있는 측면향으로서 얼굴이 가름하게 묘사되었다.

아랫줄 중앙의 좌측(向右) 보살은 관음보살로 왼손에 鉢을 받쳐 들고 오른손으로 버들가지를 잡고 있으며, 이와 마주 서 있는 우측(向左) 보살은 대세지보살로 鬘(두개의 弓자가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모양)를 들고 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劍을 든 문수보살과 如意를 든 보현보살이 서 있다.

윗줄 중앙에는 金剛杵를 든 금강장보살과 칼을 비스듬히 들고 있는 제장애보살, 그 양옆으로는 두 손에 연꽃봉오리를 받쳐 든 미륵보살과 보주를 든 지장보살이 배치되었다.

아미타불과 팔대보살 모두 얼굴과 손, 발 등 육신부는 금으로 칠하였으며, 옷자락과 보관 등은 금선묘로 처리하였는데, 모두 턱이 가름하니 둥근 얼굴에 고살이 많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렇듯 관음보살의 지물이 정병 대신 발과 버들가지를 든 예는 고려시대 아미타구존불도 중 이 작품과 동경예술대학 소장 아미타구존불도 뿐이다.

-여기에서처럼 아미타불과 팔대보살을 함께 묘사하는 아미타구존불도의 도상은 不空이 번역한 『八大菩薩曼荼羅經』이라는 밀교경전에 의거한 것으로, 신속하게 훑

提를 얻기 위해서는 觀自在(관음)·慈氏(미륵)·虛空藏·普賢·金剛手·曼殊室利(문수)·除蓋障(제장애)·地藏팔대보살의 만다라를 건립하여 공양해야 한다고 서술하면서, 팔대보살의 형상과 지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관자재보살은 왼손에 연화를 쥐고 頭冠에는 無量壽如來가 있으며, 자씨보살은 오른손에 淨瓶(軍持), 허공장보살은 가슴 앞에서 왼손에 鬘을 쥐고 있으며, 보현보살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다고 한다. 또 금강수보살은 오른손에 金剛杵, 만수실리보살은 왼손에 금강저가 놓인 연화, 제개장보살은 왼손에 如意, 지장보살은 왼손에 拓鉢을 들고 오른손이 감싸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듯 팔대보살의 지물이 경전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관음보살과 상대하여 나타나는 허공장보살 대신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것은 고려 불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뒷면의 그림은 '노영(魯英)이 그렸다'는 관지(款識)가 적혀 있으며, 위아래가 각각 다른 그림으로 두 장면을 한 화면에 담은 특이한 형식이다. 상단에는 왼쪽(向右)에 보살이 8구의 천인들을 거느리고 하강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오른쪽(向左)에 거친 암산과 그 아래로 한 인물이 보살의 現身을 보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 그리고 하단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오른쪽(向左)에 3인의 인물을 그리고 왼쪽에 지장보살을 향 하여 엎드려 있는 1인의 인물상이 묘사되어 있다.

-상단 오른쪽의 험준한 산악 그림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 듯하나 뚜렷한 윤곽선과 치형돌기(齒形突起)의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즐비하고 침형세수(針形細樹) 등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아 금강산을 묘사한 것이 틀림없으며, 산속 평평한 대지 위에 보살을 향해 엎드려 예배하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앞쪽에 '太祖'라고 적혀있어 고려 태조가 금강산 拜帖에서 담무갈보살(法起菩薩)의 現身을 보고 엎드려 절했다는 설화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담무갈보살은 구불거리는 금선묘의 능숙한 필치로 하강하는 모습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뽕죽뽕죽한 암산이 금강산이며 방광보살은 담무갈보살이라는 것은 『東國輿地勝覽』 제47권 회양(淮陽). 정양사조(正陽寺條)의 다음과 같은 전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正陽寺：표훈사의 북쪽에 있으니, 즉 이 산의 正脈이다. 그런 까닭에 정양사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지대가 높고 트여서 산 안팎의 여러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모두 보인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고려 태조가 이 산에 오르니, 曇無竭이 돌 위에 몸을 나타내어 광채를 발산하였다. 태조가 신료들을 거느리고 頂禮한 뒤에 이어 이 절을 창건하였다” 한다. 그런 까닭에 절 뒤의 언덕을 放光臺라 하고, 앞의 고개를 배재(拜帖)라고 한다. 또 진혈대(眞歇臺)가 있다.”

위의 설화로 보아 정양사는 금강산의 대표적 사찰로 고려 태조가 이곳에 올라왔을 때 법기보살이 현신하여 石上에서 放光을 하였고, 이에 감격한 태조가 정양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또 拜帖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拜帖：금강산 서쪽에 있다. 부와의 거리는 1백 64리이다. 李穀의 <東遊記>에 “至正 기축년 가을에 금강산을 유람하려고 천마령(天磨嶺)을 넘어서 산 아래 장양현에서 자고, 아침 일찍 잠자리 위에서 식사를 한 뒤에 산에 오르니, 구름과 안개가 덮여 어두컴컴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풍악(楓嶽)을 유람하는 이가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하니, 같이 유람하는 자들이 다 근심스런 빛으로 묵묵히 기도를 하였다. 산에서 5리쯤 되는 곳에 이르자, 검은 구름이 차츰 엷어지면서 햇빛이 새어 나오더니, 배재에 올랐을 때에는 하늘도 밝고 기운도 맑아서 산이 밝기가 닭아 놓은 것 같았다. 이른바 1만 2천봉을 날날이 셀 수 있을 듯하였다. 이 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재를 지나게 되는데, 재에 오르면 산이 보이고, 산이 보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마를 조아리게 된다. 그런 까닭에 배재(拜帖 절하는 고개)라고 한 것이다.”

위의 <동유기>의 내용으로 보아 배재에 오르면 금강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며 절하는 고개라 하여 배재라고 했다는 것이다.

-암산 하단으로는 커다란 신광과 두광을 두른 지장보살상이 반가좌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승형 머리에 通肩의 法衣를 걸치고 왼발을 내려 연꽃 대좌 위에 대고 거친 암석 위에 앉아있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투명한 보주를 들었으며, 왼손은 무릎에 대어 내렸는데 구불거리는 금선묘로 인해 역동감이 느껴진다. 지장보살상의 왼쪽(向右)에는 머리에 건을 쓰고 있는 한 인물이 지장보살을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옆에 ‘魯英’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을 그린 인물이 자신의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인물은 복장 등의 모습으로 보아 승려는 아닌 듯하며 속세의 인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장보살상 오른쪽(向左) 아래 맞은 편 바위 위에는 예배하는 두 인물이 그려져 있다. 승려상은 앉아서 합장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선비차림의 인물은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선비 앞에 ‘祿始’라는 명문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작품의 가장자리(周額) 바닥면에 돌출된 두 개의 축이 있고 사이 바닥면에 ‘大德十一年丁未八月日 謹畫魯英同願福得付 金漆書’ 라는 발원 명문이 있어, 이 불화는 충렬왕 33년인 1307년 8월에 노영이 삼가 그리고 함께 복덕을 발원해서 옷칠 위에 금으로 썼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 조성연대가 확실한 아미타구존불도 중 가장 이른 작품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하단의 지장보살도 오른쪽에 두 줄의 금선으로 네모 칸을 만들어 발원자들의 이름을 써 넣은 부분이 있다. 두 겹의 테두리를 두른 뒤 그 안쪽에 ‘同願 金宜甲良成幹○惠朴益松’ 라고 적혀있는데 시주자의 인원은 정확히 확인하

기 어렵지만 대략 3~4명 정도로 생각된다. 축 아래 부분의 명문에 함께 복덕을 발원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기에 적힌 사람들은 시주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노영은 이 아미타구존불도 및 지장.담무갈보살예배도를 그린 뒤 20년 후인 1327년에 강화도 禪源寺 毘盧殿의 벽화와 단청을 그릴 때 ‘班頭’로 활약했던 화사로서, 기록은 『동문선』 제65권 禪源寺毘盧殿丹青記에 등장한다. 이 기록은 1327년 무신정권기 최우의 원찰이었던 강화도 거찰 선원사 비로전에 단청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단청을 진행했던 화사에 대한 부분이 실려 있다.

내용을 보면 ‘대덕년간에 선원사가 화재를 당하여 몇 년 뒤에 복구되었으나 단청을 올리지 못하였다가 □菴和尚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그의문인 쏠忍에게 돈을 맡기어 송나라에 가서 채색을 사오게 하니 1324년 전인이 돌아와 이듬해 동·서벽에 四十神衆을 그렸다고 한다. 또 다음해에 雲峰이 주지로 부임하여 전당을 증축한 후 단청불사를 하였는데 동·서벽은 山人 鶴仙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이즈음 노영이 가세하여 운봉화상이 장엄해 놓은 전당의 전체장엄을 맡아 1327년 드디어 낙성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 기록으로 볼 때 노영이 그린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록 중에 “可駭也。疑若光明天宮。從忉利縋下；光明天宮이 忉利天에서 줄을 달아 내려놓은 듯 했다, … … 班頭魯英畫屋。山人鶴仙畫東西壁。某畫北壁”이라는 내용을 보아 매우 뛰어난 그림이었다는 것과 그 때의 직책이 ‘班頭’였음을 알 수 있다. ‘班頭’는 『조선왕조실록』에 사용되었던 의미에 따르면 어떤 직급이나 무리의 우두머리인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화사 그룹의 수장인 수화승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노영이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선원사 비로전의 단청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노영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가 圖書院 소속의 화원이었는지 혹은 寫經院에 소속된 화원이었는지, 또는 승려화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선원사 비로전 단청불사 시 ‘반두’라는 직책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佛事 시 책임자로서 활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조사내용

이 작품은 얇은 나무판에 옷칠을 한 뒤 金線으로만 그린 金線描 불화이다. 전체 크기는 21.0×12.0cm 정도이며, 표면이 S자형으로 휘어져 있어 현재 틀잡이로 고정하고 있다. 화면은 두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아미타구존도를, 뒷면에는 작자인 노영이 직접 지장보살에게 정례하는 장면과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점에서 담무갈 보살을 예경하는 장면 등 두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담아내었다. 나무판의 하단부에는 두 개의 축을 달아 받침대에 꽂아 앞뒤의 불화를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축이 달려 있는 아랫면에는 “大德十一年丁未八月日謹

晝魯英同願福得付 金漆書”라는 명문을 써놓았는데, 이를 통해 이 그림은 1307년 (충렬왕 3)에 노영이라는 화가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무판의 앞면에는 아미타여래를 비롯한 8대보살을 그렸다. 화면은 크게 이등분하고 상단에는 원형의 광배를 갖춘 아미타여래를 다른 존상들에 비해 크게 묘사하여 존격을 부각시켰고, 하단에는 좌우대칭을 이루며 2열로 도열한 팔대보살을 배치하였다. 팔대보살들은 중앙으로 몸을 틀어 측면관을 취하고 있으며, 하단 첫 열은 중앙 좌우부터 보관에 화불을 갖춘 관음보살을 비롯하여 대세지보살, 금강장보살(금강저), 제장애보살(여의), 한단 2열은 중앙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갈), 그리고 미륵(용화), 지장(두건, 보주)보살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윗 단에 표현된 문수·보살은 연화대좌를 딛고 선 한쪽 발이 드러나 있는 점이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본존과 협시의 위계질서를 엄격하게 구분지은 2단 구도는 고려시대 제작된 삼존 또는 군도 형식의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다.

아미타여래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었고, 두·신광 내에는 불신에서 뿜어내는 무한 광명을 파형으로 표현하였으며, 광배의 테두리에는 불꽃을 표현하여 불법의 영원함을 표현하였다. 머리모양은 두 개의 능선을 가진 봉우리와 한 개의 봉우리를 중첩시키고, 겹쳐지는 중간에 계주를 집어 넣어 마치 해가 떠오르는 모양처럼 표현하였다. 이러한 머리스타일은 1306년작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아미타여래도나 1309년작 우에스기신사(上杉神社) 소장 아미타삼존도 등 고려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머리의 표현방식이다.

법의는 간다라식 통견착의법이며, 주름은 탄력 있는 세밀한 선을 사용하였다. 특히 흘러내린 소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 등은 유연하고 구불구불한 과장된 선으로 처리한 점은 서역 출신으로 당대에 활동했던 승려화가 尉遲乙僧의 화풍을 연상시키며, 또한 송대에 제작된 나한도나 고려후기의 사경화나 불화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묘를 확인할 수 있다.

광배 주위로는 구름을, 빈 하늘에는 훑날리는 보수(寶樹) 잎을 그려 넣어 아미타정토회상의 정취를 고조시켰다. 외곽 테두리에는 삼고저의 금강저와 만다라문을 반복하여 시문한 점은 사경변상도와 유사한 면이 강하다. 이외 왼쪽 어깨 아래로 고불고불 거리며 흘러내린 옷 주름을 겹겹처럼 주름 잡은 모습도 고려 후기 불화나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다.

8대 보살의 신체는 늘씬하게 묘사되었으며,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구불구불 울동적인 주름으로 처리한 천의와 군의를 걸쳤고, 군의를 묶은 띠 자락이 길게 드리워져 특징이 있다. 신체는 늘씬하게 묘사되었으며, 얼굴과 손, 발, 가슴 등은 금칠하였으며, 법의는 금선으로 처리하였다. 보발은 청색 등 다른 색으로 칠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칠이 박락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뒷면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표현되었다. 화면은 상·하단으로 구분하고 상단에는

태조가 등극하기 전 금강산 배점(拜帖)에서 담무갈보살을 찾아 가 정례했다는 전설과 하단에는 노영과 발원자들이 지장보살에게 예경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점에서 담무갈보살에게 정례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7 江原道 淮陽都護府 佛宇 正陽寺條에 나온다. 이 기록에는 “고려 태조가 이 산에 오르니, 담무갈이 돌 위에 몸을 나타내어 광채를 발산하였다. 태조가 신료들을 거느리고 頂禮한 뒤에 이어 이 절을 창건하였다. 그런 까닭에 절 뒤의 언덕을 放光臺라 하고, 앞의 고개를 拜帖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림의 내용과 꼭 일치하여 고려 태조의 배점 전설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稼亭集』 第5卷 東遊記에는 “태조가 정양암을 창건하고 그곳에 범기보살(담무갈보살)의 존상을 봉안하였다”라고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금강산 배점 전설을 뒷받침 하며, 나아가 고려 태조의 금강산 범기보살(담무갈보살)에 대한 신앙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너럭바위 위에 엮드려 정면의 보살상을 향해 정례하고 있는 사람은 명문대로 고려 태조로 볼 수 있으며, 두건을 쓰고 여의를 들고 광명을 받으며 우뚝 서 있는 보살상은 곧 담무갈보살으로 해석된다. 담무갈보살의 앞쪽에는 여덟 구의 권속이 정례하고 있는 태조를 그윽하게 내려 다 보고 있는 모습인데, 담무갈보살의 1만 2천 권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담무갈보살에 대한 신앙은 『화엄경』에 근거하는데, 『화엄경』 諸菩薩住處品에는 사방 팔방과 바다 속에 보살이 상주하며 설법하고 있고, 그 중에 海中 금강산(舊譯 枳怛山)이 있고, 이곳에서는 범기(法起, 舊譯에는 曇無竭)보살이 1천 2백(舊譯에는 1만 2천) 권속을 거느리고 상주하며 설법하고 있다고 설하고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금강산은 담무갈보살의 성지로서 각광을 받아왔고, 태조의 배점 일화도 화엄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면의 상단의 우측 부분은 수직으로 뽕족뽕족하게 솟은 수려하고 험난한 암산, 즉 금강산의 수려한 산세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은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경은 연무가 어슴푸레 낀 것처럼 가는 선을 흘뿌렸고, 중경과 근경은 암산 둘레를 뭉게구름을 그려 넣어 영험한 금강산의 신비로운 자태를 충만시키고 있다. 수직준으로 표현된 암산은 마치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를 보는 듯하여, 그의 화풍의 전통이 여기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의 뚜렷한 윤곽선과 齒形突起, 針形細樹 등의 세부 모습은 북송대의 이파와 화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화면의 하단에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춘 지장보살이 바위 대좌 위에 반가좌로 앉았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올려 보주를 들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내려두었다. 내린 발은 연화족대 위에 올려 놓았고, 주변은 구름으로 처리하였다. 얼굴과 신체는 양감이 풍만하며, 옷 주름은 물결이 흐르듯 유연하고 구불구불 거리는 선묘로 처리하였다. 지장보살의 좌측에는 방란을 마련하고 그곳에 “同願 ○

惠朴益松 金宣申良成幹”이라는 발원자의 이름을 써두었다. 지장보살이 앉아 있는 암좌 아래쪽 좌우측 너럭바위 위에는 마치 선재동자가 관음보살을 찾아 합장정례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지장보살을 향해 합장 정례하고 있는 시·발원자를 표현하였다. 좌측에는 ‘魯英’, 우측에는 ‘祿始(加)’라는 명문이 적혀 있다. 이 그림을 그린 노영과 시·발원자들을 직접 화면에 등장하여 지장보살도에게 정례하는 모습은 상당히 흥미롭다. 다른 고려시대 지장보살도와 달리 금강산을 배경으로 지장보살이 등장하는데, 신라시대 고승 진표율사는 간절한 기도와 투철한 수행으로 지장보살을 현신을 받고, 급기야 미륵으로부터 계법을 전수 받아 금산사와 법주사, 그리고 금강산 발연수 등을 창건한다. 그는 금강산 발연수를 창건하고 그는 지장신앙과 관련있는 점찰법회를 개최한다. 금강산 발연수를 둘러싼 이러한 진표율사의 신앙적 모티프가 산악을 배경으로 하는 지장보살도가 그려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며, 노영 또한 진표율사처럼 지장보살을 통해 그가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염원을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文明大, 「魯英의 阿彌陀·地藏佛畫에 대한 고찰」, 『미술자료』 25, 국립중앙박물관, 1979

문명대, 「魯英筆 阿彌陀九尊圖 뒷면 佛畫의 재검토 -高麗 太祖의 金剛山拜帖 曇無竭(法起)菩薩 禮拜圖」, 『古文化』 1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0

□

○ 조사내용

이 작품은 나무바탕에 흑칠을 하고 금니로 그림을 그린 불화로서, 세로 22.5cm, 가로 13cm, 두께 1cm의 목판 위에 黑漆을 한 뒤 金泥로 앞면에는 아미타구존도, 뒷면에는 曇無竭菩薩禮拜圖와 地藏菩薩圖를 그렸다. 목판의 가장자리는 앞면과 뒷면 모두 고려시대 經變相圖에서와 같이 좌우 각각 3개, 상하 각각 2개 등 총 10개의 金剛杵문양으로 테를 둘러 장식하였다.

앞면에는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과 여덟 보살을 구불구불한 금니의 섬세하고 거침없는 필선으로 묘사하였다. 화면 상부에 그려진 아미타불은 커다란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대좌 위에 結跏趺坐하였는데, 오른손은 어깨부근으로 올려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맞대고 왼손은 가슴부근으로 올려 첫째와 셋째손가락을 맞대어 下品中生印을 결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두광과 신광의 내부는 모두 구불구불한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가장자리는 연꽃잎으로 장식되었고, 광배 밖으로는 꽃과 구름 문양으로 가득 채워 화려함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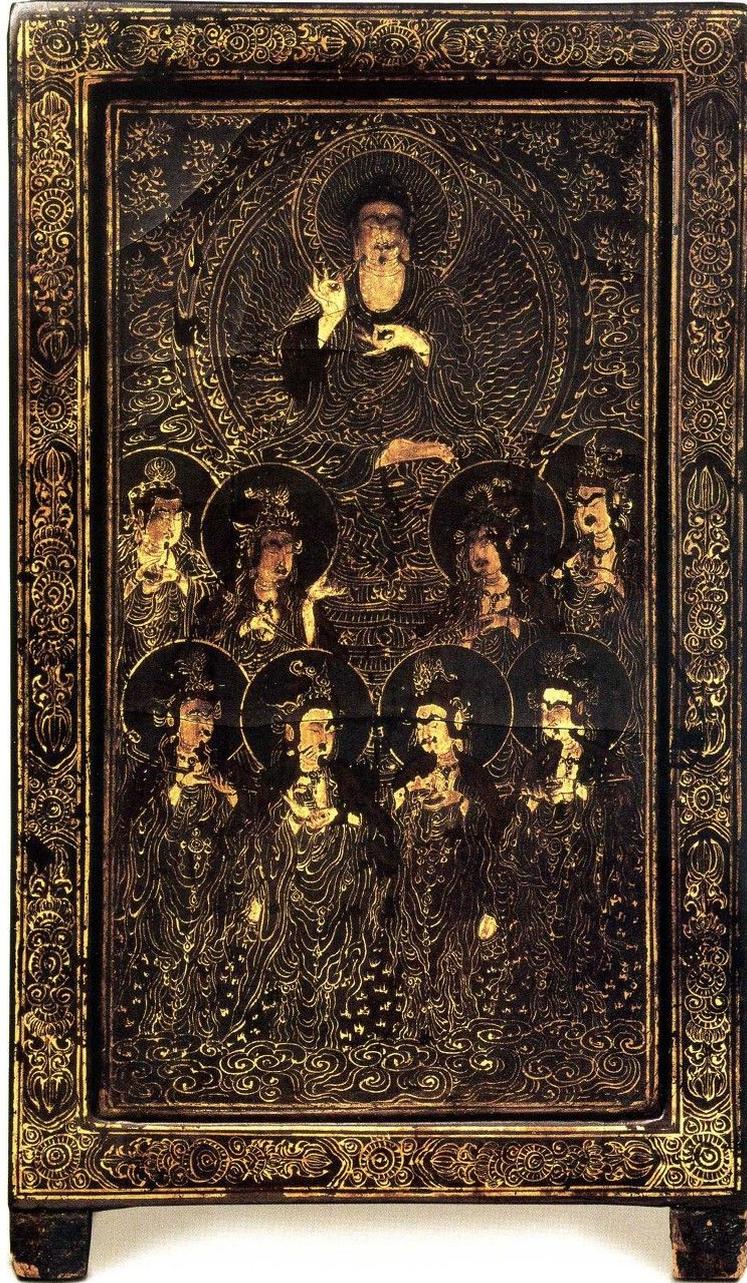
아미타보살의 무릎 아래로는 여덟 보살이 중앙을 향해 시립하고 있다. 아래줄

중앙에는 𪗇(두개의 弓자가 서로 등을 대고 있는 모양)를 든 대세지보살과 버들가지와 鉢을 든 관음보살이 서로 마주 서 있고, 그 옆으로 劍을 든 문수보살과 如意를 든 보현보살이 서있다. 윗줄 중앙에는 金剛杵를 든 금강장보살과 칼을 비스듬히 들고 있는 제장애보살, 그 옆으로는 두 손에 연꽃봉오리를 받쳐 든 미륵보살과 보주를 든 지장보살이 배치되었다. 아미타불과 여덟 보살 모두 얼굴과 손, 발 등 육신부는 금으로 칠하였으며, 옷자락과 보관 등은 금선묘로 처리하였는데, 얼굴은 둥글고 살이 많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여기에서 처럼 아미타불과 여덟보살을 함께 묘사하는 아미타구존도의 도상은 不空이 번역한 『八大菩薩曼荼羅經』이라는 밀교경전에 의거한 것으로, 경전에서는 신속하게菩提를 얻기 위해서는 觀自在(관음)·慈氏(미륵)·虛空藏·普賢·金剛手·曼殊室利(문수)·除蓋障(제장애)·地藏 등 팔대보살의 만다라를 건립하여 공양해야 한다고 서술하면서, 팔대보살의 형상과 지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관자재보살은 왼손에 연화를 쥐고 頭冠에는 無量壽如來가 있으며, 자씨보살은 오른손에 淨瓶(軍持), 허공장보살은 가슴 앞에서 왼손에 𪗇을 쥐고 있으며, 보현보살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다고 한다. 또 금강수보살은 오른손에 金剛杵, 만수실리보살은 왼손에 금강저가 놓인 연화, 제개장보살은 왼손에 如意, 지장보살은 왼손에 拓鉢을 들고 오른손이 감싸고 있다고 한다. 이 그림에서 여덟보살의 지물이 경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경전에 기록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관음보살과 상대하여 나타나는 허공장보살 대신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것은 고려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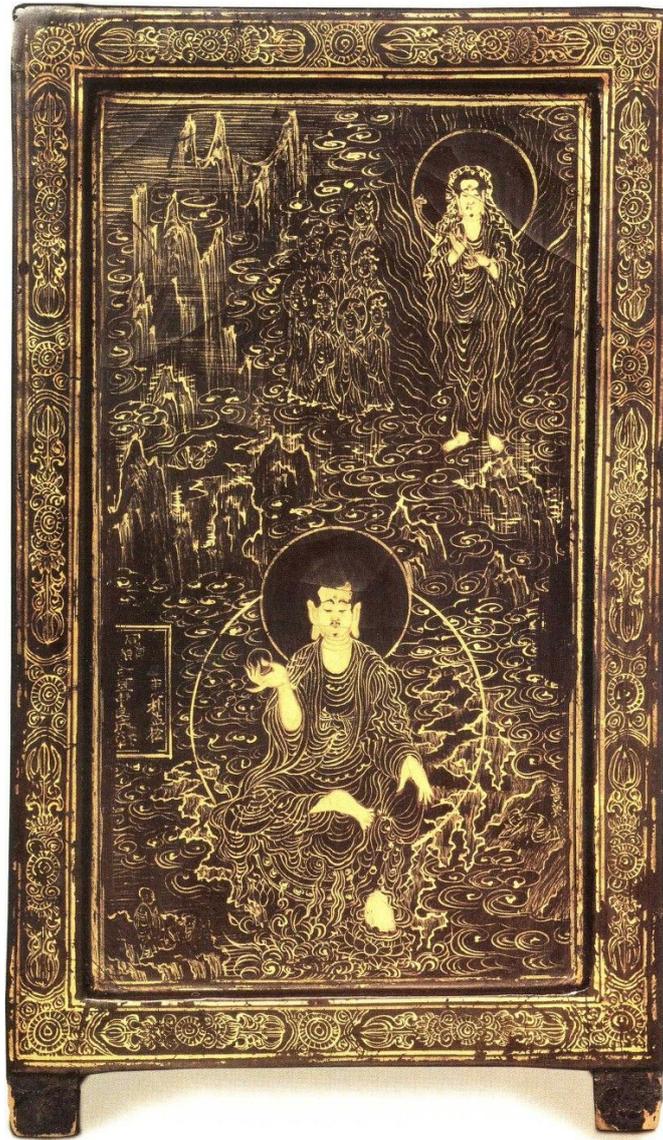
뒷면은 화면을 2분하여 상단에는 왼쪽에 보살이 하강하는 모습, 오른쪽에 거친 암산과 한 인물이 보살의 現身을 보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 하단에는 지장보살과 3인의 인물을 그렸다. 상단에는 뾰족한 암산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구불거리는 금선묘의 능숙한 필치로 보살이 8구의 천인들을 거느리고 하강하는 모습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암산은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즐비한 것으로 보아 금강산을 묘사한 것이 틀림없으며, 산속 평평한 대지 위에는 보살을 향해 엎드려 예배하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앞에는 ‘太祖’라고 적혀있어 고려 태조가 금강산 拜謁에서 담무갈보살(法起菩薩)의 現身을 보고 엎드려 절했다는 설화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단에는 커다란 신광과 두광을 두른 지장보살이 반가좌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다. 지장보살은 승형에 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왼발을 내려 연꽃 대좌 위에 대고 거친 암석 위에 앉아있다.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투명한 보주를 들었으며 왼손은 무릎에 대어 내렸는데, 구불거리는 금선묘의 묘사로 인해 역동감이 느껴진다. 지장보살의 왼쪽에는 한 인물이 지장보살을 향하여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 그 옆에 魯莢이라 적혀 있다. 이 인물은 그 모습으로 보아 승려는 아닌 듯하며 속세의 인물로 여겨진다. 또 보살의 오른쪽 아래 맞은 편 절벽에도 예배하는 두 인물이 그려져 있다. 승려상은 앉아서 합장한 자세, 선비차림의 인물은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 엮드려 절하는 선비 앞에는 祿始라는 명문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지워져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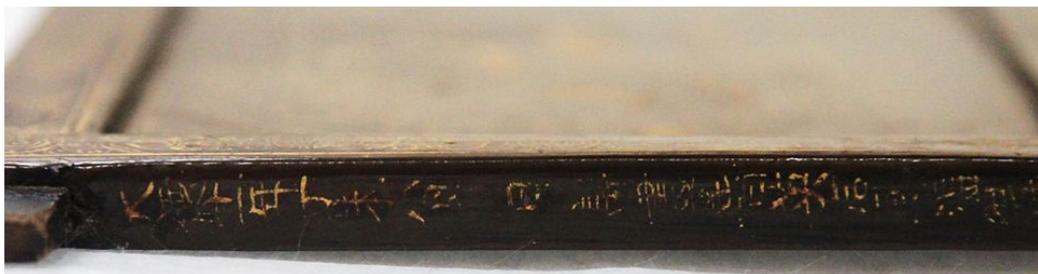
한편, 이 작품의 가장자리(周額) 바닥면에 돌출된 두 개의 축 사이의 바닥면에는 “大德十一年八月 日 謹畫魯英同願□□□ (대덕11년 8월에 노영이 삼가 그리고 □□□가 함께 발원하였다).”라는 명문이 적혀있어 1307년 8월에 노영이 그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린 노영은 아미타구존도를 그린 뒤 20년 후인 1327년에 강화도 禪源寺 毘盧殿의 벽화와 단청을 그릴 때 班頭(그 향렬의 우두머리)로 활약했던 화사이다. 「禪源寺毘盧殿丹青記」(釋 息影菴 著, <東文選> 卷之六十五 수록)에 의하면 대덕년간에 선원사가 화재를 당하여 몇 년 뒤에 복구되었으나 단청을 올리지 못하였다가 □菴和尚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그의 문인 全忍에게 돈을 맡기어 송나라에 가서 채색을 사오게 하니 1324년 전인이 돌아와 이듬해 동서벽에 四十神衆을 그렸다고 한다. 또 다음해에 雲峰이 주지로 부임하여 전당을 증축한 후 단청불사를 하였는데, 동서벽은 山人 鶴仙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이즈음 노영이 가세하여 운봉화상이 장엄해 놓은 전당의 전체장엄을 맡아 1327년 드디어 낙성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노영이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선원사 비로전의 단청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光明天宮이 忉利天에서 줄을 달아 내려놓은 듯 했다”라는 표현을 보아 장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영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가 圖書院 소속의 정식화원이었는지 혹은 그림에 보이는 寫經畫와의 관련성으로 보아 寫經院에 소속된 화원이었는지, 또는 승려화가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선원사 비로전 단청불사시 반두라는 직책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佛事 시 책임자로서 활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영 필 아미타구존도(앞면), 1307년, 노영, 칠위에 금,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노영 필 아미타구존도(뒷면)



바닥면 조성기

2.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求禮 泉隱寺 三藏菩薩圖)

가. 검토사항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결과물 중 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가치가 있다고 추천('14.6.20)되어 관계 전문가의 조사('15.7.1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전남 유형문화재 제268호(2005.1.27지정)
- 명 칭: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求禮 泉隱寺 三藏菩薩圖)
- 소유자(관리자): 천은사
- 소재지: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천은사(방광리 70)
- 수 량: 1폭
- 규격(cm): 전체 세로224.5 가로420.0 화면 세로 186.1 가로394.0
- 재 질: 견본채색
- 제작연대: 1776년(乾隆 41)
- 조성화원: 信庵, 來淑, 德箴, 敏徽, 泰閏, 六圓, 幻綜, 泰華 등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극락보전 아미타후불도와 함께 화승 信庵華連을 대표하는 불화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바탕천 훼손 및 안료 박락이 거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아하고 세련된 존상의 형태 및 섬세한필치와 문양, 화사하고 명랑한 분위기의 화면 처리 등에 있어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특히 화사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색채를 채용하고 자연스럽고 적당한 비례의 신

체표현 및 유기적인 화면구성 등에 있어 18세기 중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되며, 또한 각 회상별 권속들의 명칭을 명기해 놓은 유일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조성연대가 1776년으로 다소 뒤지기는 하지만 국가문화재(보물)로 승격·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천은사 <삼장보살도> (1776년)는 극락보전 중단탱으로 봉안되어 있는 횡폭이 매우 넓은 중대형 불화이다. 화면 중앙의 천장보살과 왼쪽(향우측)의 지지보살, 그리고 오른쪽(향좌측)의 지장보살로 구성된 보살 3위를 중심으로, 각 보살의 주위에 여러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다. 천장보살은 좌우협시 진주보살과 대진주보살을 비롯해 주위에 천부중을, 지지보살은 협시 용수보살과 다라니보살을 비롯해 신중상을, 그리고 지장보살은 협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비롯해 시왕상과 명부 권속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같은 삼장보살의 도상구성은 天界·地上界·幽冥界와 같은 삼계신앙의 구조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도상구성은 본 작품이 수륙회를 비롯한 죽은 영혼의 천도와 三界六道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의식용 불화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시대 삼장보살도는 16세기 일본 新長谷寺 소장 조선 1550년 <삼장보살도>를 비롯해 10여점 정도 알려져 있으며, 18~19세기에 이르러 상당수가 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시기적으로 18세기 후반 1776년에 제작된 작품이나 대형의 와이드 화면에 도상들이 잘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기법이 섬세하여 비교적 수작에 속한다.

특히 화면 하단에 기술된 장문의 묵서 화기외에 백서로 천장회상, 지지회상, 지장회상에 속하는 도상의 존명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어 조선후기 삼장보살 도상 연구에 기준작이 되는 매우 주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1776년 수륙재 중단의례용 불화로 제작되어 천은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삼장보살도로서, 천장보살과 지지보살, 지장보살 등 세 보살의 회상을 묘사한 작품이다. 각 보살은 높은 수미단 위에 결가부좌하고 그 주위에 각각의 권속들이 시립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화면에 비하여 많은 권속들을 표현하면서도 비교적 여유있는 화면구성을 보여준다. 조선 중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삼장보살도는 16세기 이후 많은 수의 작품들이 남아 있는데,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각 보살의 아래 화기란에 권속들의 이름을 적고 있어 삼장보살도의 도상연구에 기준작이 되고 있다. 화기의 명칭에 의해볼 때 권속들의 명칭은 수륙재 의례집인

『천지명왕수륙재의범음산보집』(1739년) 등에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장보살도 도상연구에 기준작이 되고 삼장보살도와 수륙재 의궤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 현 상 및 보존상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어 있는 패널식 불화로서 현재 천은사 극락보전 내에 봉안되어 있으며, 화면 훼손이나 안료 박락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임.

○ 내용 및 특징

-극락보전 내 향우측 단에 모셔져 있는 <삼장보살도>로서 화기 중의 ‘乾隆四十一年丙申八月日敬畫三藏會奉安于南原泉隱寺大法堂’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건륭 41년인 1776년에 조성하여 남원(지금의 구례) 천은사 대법당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로로 길어진 화면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중앙부의 천장보살상 무리(天藏會上)를 중심으로 좌측(향우측)에는 지지보살상 무리(持地會上)를 배치하고, 오른쪽(향좌측)에는 지장보살상 무리(地藏會上)를 자리시켰다.

화면 하단으로는 좌우측 끝부분에 조성시기 및 봉안처를 비롯하여 大施 主秩, 證師, 緣化秩, 金魚, 持殿, 誦呪, 供養主 등을 기록한 화기(향우측)와, 山中大禪師秩을 시작으로 時主持, 化主, 三綱, 持殿兼別座, 都監, 施主秩과 함께 끝부분에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라는 일반적인 발원문이 있는 화기(향좌측)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좌우측 화기 사이 각 회상 하단으로는 별도의 화기란을 마련하여 각기 중심보살상의 좌우 협시보살과 권속들의 명단을 白書로 명기해 놓았다.

-각 회상의 중심보살상은 높은 수미단 위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으며, 하단과 주위로 각기의 협시보살과 권속들을 배치하여 전체로 한 화면을 이룬다.

화면 중앙부의 천장보살은 황색 연화대와 위에서 앉아 둥근 모양의 녹색 두광과 신광을 두르고 설법인을 짓고 있다. 청색 天衣에 적색 裙衣를 착용하고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쓴 모습으로 무릎 하단으로는 좌협시 眞珠菩薩과 우협시 大眞珠菩薩이 몸을 틀어 정면을 향하여 합장하고 있으며, 주위로 四空天衆, 十八天衆, 六欲天衆, 日月天衆, 諸星君衆, 五通仙衆 등의 권속들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

천장보살의 좌측으로는 지지보살상이 왼손에 경권을 들고 청색 연화대 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있는데 천장보살상과 동일하게 둥근 모양의 녹색 두광과 신광을 구비하였으며, 적색 천의와 군의를 착용하였다. 무릎 아래에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는 협시는 龍樹菩薩(좌협시)과 陀羅尼菩薩(우협시)이며, 주위의 권속들은 諸堅牢神衆, 諸金剛神衆, 諸八部神衆, 諸龍王神衆, 諸阿修羅衆, 大藥叉衆 등으로 중심보살상을 빙 둘러 시위하고 있다.

그리고 천장보살 우측으로는 僧形의 지장보살상이 청색 연화대와 위에 앉아 석장 없이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으며, 두광과 신광은 천장·지지보살상과 동일한 형태인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지장보살상 주위로는 좌우협시인 道明尊者和 無毒鬼王을 비롯하여 觀世音菩薩, 常悲菩薩, 龍樹菩薩, 陀羅尼菩薩, 金剛藏菩薩, 虛空藏菩薩과 함께 第一秦廣大王을 위시한 10대왕과 太山府君, 判官鬼王, 將軍童子, 監齋直符사자 등의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다.

-각 삼장보살상 및 권속들의 상호는 턱이 둥근 형태의 얼굴에 가늘고 둥근 눈썹,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 가늘고 긴 코, 작고 짝 다문 입술이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붉은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밝은 하늘색과 흰색을 적절히 사용하고 피부색을 밝게 처리함으로써 화사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각 권속들의 표현을 보면 정교하고 치밀하면서도 자연스러워 생동감이 있으며, 각 회상마다 화면 상부에 공간을 두고 뻗쳐 나가는 광선모양의 적·청·황·녹색 구름과 중앙에 蓮花形 天蓋를 두어 화려하면서도 장엄스럽다.

-이 삼장보살도를 조성한 화승은 화기로 보아 수화승 信庵華連의 책임 아래 來淑, 德箴, 敏徽, 泰閏, 六圓, 幻綜, 泰華, 有云, 性岑, 性闊, 普岑, 幸正, 惺鑑 등 13인의 보조화승들이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화승 信庵華連은 삼장보살도와 함께 극락보전 봉안의 아미타후불도(보물 제 924호)를 책임 맡아 조성한 화승으로서, 1759년과 1761년에는 곡성 태안사 봉서암의 감로왕도와 신중도를 조성하고, 1764년에는 수화승 色敏과 함께 해남 대흥사 괘불도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1770년에는 수화승으로서 광주 무등산 안심사에서 조성하여 순천 송광사 화엄전에 이운·봉안한 화엄경변상도(국보 제314호)를 조성하는 등 18세기 중후반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의겸’ 계열 화승임이 파악된다.

□

○ 현 상

천은사 <삼장보살도> 는 극락보전 중단탱으로 봉안되어 있다. 비단바탕에 채색을 베푼 패널식의 불화로, 횡폭이 매우 넓은 중대형 작품이다. 횡폭은 비단 10매와 면 1매(추정)를 잇대어 한 화폭을 형성하였다. 화면 가장자리에 과거 도난시 흔적으로 보이는 면도칼 자국이 보이고, 화면 중앙과 하단부에는 촛농 자국이 군데군데 확인된다. 게다가 녹색 안료의 박락도 눈에 띄나, 전체적으로 화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지 하단의 묵서화기를 통해 乾隆 41년(1776)에 수화승 신암당 華連을 비롯하여 來淑, 德箴, 敏徽, 泰閏, 六圓, 幻綜, 泰華, 有云, 性岑, 性闊, 普岑, 幸正, 惺鑑 등이 함께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1) 화기 및 도상명

<화기>

① 乾隆四十一年丙申八月日敬畫三藏」會奉安于南原泉隱寺大法堂」奉爲」主上殿下壽萬歲」大施主秩」孟元比丘」性覺比丘」覺還比丘」照叔比丘」再贊比丘」性守比丘」達演比丘」敬叔比丘」快心比丘」妙仁比丘」勸訓比丘」重念比丘」允坦比丘」震逸比丘」惠澄比丘」極初比丘」碧虛堂贊彥」圓應堂義岑」郭再守兩主」韓萬芳兩主」裴萬福兩主」朴時三兩主」李千窠兩主」張漢一兩主」金萬旭兩主」孫貞雲兩主」李智英兩主」李碩仁兩主」白光純兩主」李碩華兩主」李碩龍兩主」鄭思海兩主」王孟元兩主」王孟官兩主」朴尙雲保體」緣化秩」證師中庵慕根」金魚信庵華連」來淑比丘」德箴比丘」敏徽比丘」泰閏比丘」六圓比丘」幻綜比丘」泰華比丘」有云比丘」性岑比丘」性闊比丘」普岑比丘」幸正比丘」惺鑑比丘」持殿」學仁比丘」誦呪」研察比丘」泰植比丘」允岑比丘」洪晶比丘」供養主」念煥比丘」典益比丘」有贊比丘」快澄比丘」本豈比丘」梵恩比丘」開心比丘」渾敏比丘」有心比丘」

② 山中大禪師秩」聖巖」敬守」南波」覺初」靜庵」守初」退庵」華日」肯庵」景賢」冠谷」裕妥」鳳瑞」牢湜」時住持如一」三綱」初一」眞英」宏淑」前嚙秩」明贊」法仁」再贊」永察」守一」策英」守英」典海」福心」允坦」琬琯」達演」化主前御抱性」持殿兼別座軟祐」此寬」都監前御養澄」施主秩」敬淑」桐坡禪心)」昌勤」爲(海)」勤(忍)」一三」慈允」感海」有(天)」典軒」得(寒)」日還」養(遠)」勝雲」愁(雲)○○」白(僧)」西(銀)」呂察」此俊」處善」贊允」抱玄」淨祐」桂閑」華日」宏哲」最祐」極旻」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字滿」

<도상명>

① 天藏會上」教主天藏菩薩」左補眞珠菩薩」右補大眞珠菩薩」四空天衆」十八天衆」六欲天衆」日月天衆」諸星君衆」五通仙衆」

② 持地會上」敎主持地菩薩」左補龍樹菩薩」右補陀羅尼菩薩」諸堅牢神衆」諸金剛神衆」諸八部神衆」諸龍王神衆」諸阿修羅衆」大藥叉衆」羅刹婆衆」鬼子母衆」大河王衆」

③ 地藏會上」敎主地藏菩薩」左補道明尊者」右補無毒鬼王」觀世音菩薩」常悲菩薩」龍樹菩薩」陀羅尼菩薩」金剛藏菩薩」虛空藏菩薩」第一秦廣大王」楚江大王」宋帝大王」五官大王」閻羅大王」變成大王」泰山大王」平等大王」都市大王」五道轉輪大王」太山府君」判官鬼王」將軍童子」監齋直符」

□

○ 조사내용

1776년 천은사에서 조성하여 대법당(大法堂)에 봉안한 삼장보살도로, 신암 화련(信庵 華連), 내숙(來淑), 민휘(敏徽) 등을 비롯하여 14명의 화원들이 제작하였다. 현재 천은사 극락보전의 향우측 벽에 봉안되어 있다.

삼장보살도는 천장보살(天藏菩薩)·지장보살(地藏菩薩)·지지보살(持地菩薩) 등 세 보살의 회상(會上)을 묘사한 그림. 천장보살은 상계교주(上界敎主), 지지보살은 음부교주(陰府敎主), 지장보살은 유명계교주(幽冥界敎主)로서, 천상과 지상, 지하의 3교주로 신앙된다. 보통 1폭에 삼장보살이 모두 그려지지만 2 또는 3폭으로 나누어 그리는 경우도 있다. 삼장보살에 대해서는 소의경전이 알려진 바가 없어 도상이나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지반(志磐)이 찬술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에 삼장의궤가 중단의궤로 기록되었으며 원·명대(元·明代)의 수륙화(水陸畫)에 천장·지장·지지보살이 그려져 있어 일찍이 수륙재와 관련되어 새롭게 도상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승려 지환(智還)이 불가(佛家)에서 널리 사용되던 수륙재(水陸齋) 관련 의식집을 모아 편찬한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冊補集)』에 삼장보살이 중단의궤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외 수륙재관련 불교의례집에도 대부분 삼장의궤(三藏儀軌)가 실려 있는 점을 볼 때 수륙재 중단의궤용(中壇儀禮用)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상단에 천장보살(天藏菩薩)을 중심으로 지장보살(地藏菩薩), 지지보살(持地菩薩)과 권속들을, 하단에는 각 보살의 권속들을 2열로 배치하였다. 상단의 중앙에는 천장보살이 권속들에 둘러싸여 앉아있는데, 천장보살은 연화대좌 위에 이중륜광의 광배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설법인(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천장보살 아래로 왼쪽에는 진주보살(眞珠菩薩)과 대진주보살(大眞珠菩薩)이 협시하고 있고 그 좌우로 일월이 표시된 면류관을 쓴 일월천중(日月天衆)과 그 밖의 권속들이 3열로 늘어서 있으며, 천장보살의 주위로도 여러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

다. 삼장보살도의 권속에 대해서는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冊補)』,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작법절차(作法節次)』,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 등에 기록되었으나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화기에 묘사된 것처럼 사공천중(四空天衆)과 십팔천중(十八天衆), 육욕천중(六欲天衆), 제성군중(諸星君衆), 오통선중(五通仙衆) 등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의 지장보살 역시 이중륜광 광배를 지고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다. 승려머리에 투명한 흑갑사의 두건을 어깨아래까지 넓게 쓰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왼손은 가슴 앞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지장보살의 주위로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상비보살(常悲菩薩), 용수보살(龍樹菩薩), 다라니보살(陀羅尼菩薩), 금강장보살(金剛藏菩薩),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의 6보살이 둥글게 에워싸고 있으나 백의(白衣)에 정병을 든 관음보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 구분할 수 없다. 지장보살의 연화대좌 아래에는 왼쪽에 도명존자, 오른쪽에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제1진광대왕(第一秦廣大王), 초강대왕(楚江大王), 송제대왕(宋帝大王), 오관대왕(五官大王), 염라대왕(閻羅大王), 변성대왕(變成大王), 태산대왕(泰山大王), 평등대왕(平等大王), 도시대왕(都市大王),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태산부군(太山府君) 등 시왕과 판관(判官), 귀왕(鬼王), 장군(將軍), 동자(童子), 감재(監齋), 직부(直符) 등이 협시하고 있다. 지지보살은 왼손에 경책(經冊)을 들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다. 지지보살 아래에 용수보살(龍樹菩薩)과 다라니보살(陀羅尼菩薩)이 합장하고 협시하고 있으며, 그 주위로 합장 또는 각종의 무기를 든 신중들이 지지보살을 에워싸고 있다. 이들은 화기에 적혀있듯이 제견뢰신중(諸堅牢神衆), 제금강신중(諸金剛神衆), 제팔부신중(諸八部神衆), 제용왕신중(諸龍王神衆), 제아수라중(諸阿修羅衆), 대야차중(大藥叉衆), 나찰마중(羅刹婆衆), 귀자모중(鬼子母衆), 대하왕중(大河王衆)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인물 표현은 방형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작고 가운데로 몰려있는데, 이러한 얼굴표현은 18세기 전라도지역의 불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의겸(義謙)의 영향이 엿보인다. 주조색은 적색, 녹색, 홍색, 황색을 주로 썼으며 거기에 갈색, 양록색, 주홍색을 간간히 썼는데 권속들의 옷에는 물골법의 사용도 보인다.

이 불화의 수화승 신암 화련(信庵 華連)은 18세기 후반 전라남도에서 활동한 화승으로, 초기 화풍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759년 전남 곡성 태안사 봉서암 감로왕도 제작에 수화승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화련의 작품으로는 태안 봉서암 감로도(1759)와 신중도(1761), 대흥사 괘불도(1764), 송광사 화엄전 화엄경변상도(1770),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불도(1776)와 삼장보살도(1776) 등이 전하는데, 봉서암 감로도(1759)의 구도와 표현이 의겸이 그린 운흥사 감로도(1730) 및 선암사 감로도(1736)와 유사하여 의겸 화풍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畫記]

향우측 : 乾隆四十一年丙申八月日敬畫三藏會奉安于南原泉隱寺大法堂」奉爲」主上殿下壽萬歲 大施主秩」孟元比丘郭再守兩主」性覺比丘韓萬芳兩主覺還比丘裴萬福兩主照叔比丘朴時三兩主再贊比丘李千棠兩主性守比丘張漢一兩主達演比丘金萬旭兩主敬叔比丘孫貞雲兩主快心比丘李智英兩主妙仁比丘李碩仁兩主○訓比丘白光純兩主重念比丘李碩華兩主允坦比丘李碩龍兩主震逸比丘鄭思海兩主惠澄比丘王孟元兩主極初比丘王孟官兩主碧虛堂贊彥朴尚雲保休圓應堂義岑持殿學仁比丘緣化秩誦呪證師中庵慕根研察比丘金魚信庵華連泰植比丘來淑比丘允岑比丘德箴比丘洪晶比丘敏徽比丘供養主泰閏比丘念煥比丘六圓比丘典益比丘幻綜比丘有贊比丘泰華比丘快澄比丘有云比丘本豈比丘性岑比丘梵恩比丘性闊比丘開心比丘普岑比丘渾敏比丘幸正比丘有心比丘惺鑑比丘」

중앙 : 教主持地菩薩」左補龍樹菩薩」右補陀羅尼菩薩」諸堅牢神衆」諸金剛神衆」諸八部神衆」諸龍王神衆」諸阿修羅衆」大藥叉衆」羅刹婆衆」鬼子母衆」大河王衆」天藏會上」

教主天藏菩薩」左補眞珠菩薩」右補大眞珠菩薩」四空天衆」十八天衆」六欲天衆」日月天衆」諸星君衆」五通仙衆」地藏會上」

教主地藏菩薩」左補道明尊者」右補無毒鬼王」觀世音菩薩」常悲菩薩」龍樹菩薩」陀羅尼菩薩」金剛藏菩薩」虛空藏菩薩」第一秦廣大王」楚江大王」宋帝大王」五官大王」閻羅大王」變成大王」泰山大王」平等大王」都市大王」五道轉輪大王」太山府君」判官鬼王」將軍童子」監齋直符」

향좌측 : 山中大禪師秩 施主秩聖巖敬守敬淑南波覺初桐坡○○靜庵守初昌勤退庵華日爲○肯庵景賢勤○冠谷裕妥一三鳳瑞牢湜慈允時住持如一感海三綱 初一有○眞英典軒宏淑得○前啣秩日還明贊養○法仁勝雲再贊愁○○永察白○守一西○策英呂察守英此俊典海處善福心贊允允坦抱玄琬瑄淨祐達演化主前御抱性桂閑持殿兼別座軟祐華日此寬宏哲都監前御養澄最祐極旻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宇滿持地會上」

3.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求禮 泉隱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가. 검토사항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결과물 중 불교문화재연구소로부터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가치가 있다고 추천(‘14.6.20)되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7.14)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求禮 泉隱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천은사
- 소재지: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천은사(방광리 70)
- 수 량: 불상 3구, 발원문 1점
- 규격(cm): 아미타여래좌상 상높이 78.4, 무릎폭 54
대세지보살 상높이 96.7, 무릎폭 61.4
관음보살 상높이 93.0, 무릎폭 61.3
발원문 38×180.5
- 재 질: 목조, 견본주서(발원문)
- 제작연대: 아미타여래좌상(17세기 전반), 관음·대세지보살좌상 1614년
- 제작자: 현진(玄眞) 명은(明隱), 의능(義能), 언호(彦浩), 사인(思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구례 천은사에 소장되어 있는 2구의 목조보살좌상은 좌보처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여 조각승 현진을 비롯한 5명의 조각승들이 1614년 6월에 조성한 불상들이 밝혀졌다. 조각승 현진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으로 1622년 광해군비인 장렬왕후가 발원한 불상들을 조성하는 불사에서 수조각승으로 활동한 사실 등으로 보아 조선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던 조각승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작품들 중에는 7건 17점의 보물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작품성과 학술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 두 보살상은 현진의 초기 경향을 볼 수 있는 수작에 속하며, 조선 후기 불교미술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래 극락전에 주존으로서 함께 봉안되어 있던 아미타불좌상은 원 봉안처가 다르고, 비례도 두 보살상과 조화롭지 않으며, 현재 불전에 봉안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두 보처보살상과 함께 지정할 필요는 적다고 판단된다.

○

이 두 관음·대세지보살좌상은 천은사 극락전의 주존불의 협시로 조성되어 최근까지 예배되어 온 보살상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14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와 현진, 명은, 의능, 언호, 사인 등의 조각승, 그리고 당시 불상 제작에 동참했던 사부대중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불상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이 불상은 여타 17세기 초반의 다른 불상과 달리 태능과 영원 등의 승려가 큰 원을 세워 조성한 불상이며, 불상 조성을 주도한 승려들은 대선사 선수를 비롯하여 각성, 태능 등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은 부휴선수 문도들이고 각성은 이후 조선후기 불교중흥 불사에 큰 별과 같은 존재였고, 벽암 각성의 스승이자 당대의 최고승 부휴선수가 이 불사의 시주자로 참여할 만큼 이 불사가 갖는 상징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의 상호 표현에 있어서도 17세기 중후반대의 다소 관념적인 모습과 달리 중생의 모습과 닮아 실존감이 있으며, 불신에 사용된 주름도 탄력 있고 긴장감 있는 선묘를 사용하여 불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불상은 등신대의 아담한 크기이지만 형태는 늘씬하고 장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17세기 전반기 조각과의 양식적 특징과 공통하는 것으로 이 불상을 통해 시대적 미감을 읽을 수 있어서 중요하다.

이 불상은 현진의 1612년 월명암 불상과 상련대 불상에 이어 1614년에 제작된 현진의 초기 작품이자 그의 대표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초기 작품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그 동안 이 불상은 본존불이 결손되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보살상에서 보이는 조형적 우수성과 감각

적인 표현방식 등은 다른 17세기 초기의 조각 작품들에 비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조각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보살상만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존 아미타불상은 조성 이후 멀지 않은 시점에 현진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勝日이 수도암 아미타여래삼존상(1646년)을 조성할 때 다시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삼존상 모두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발원문만 없을 뿐 충분한 시기성과 조각적 의의도 갖추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구례 천은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후기 1614년 수조각승 현진에 의해 제작된 관음·대세지보살좌상과 승일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아미타불좌상으로 이루어진 삼존불상으로서 비록 본존 아미타불좌상과 좌우 협시보살좌상의 조각승은 동일하지 않으나 세 구 모두 조각적으로도 우수하고 조선후기 17세기 전반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조각승들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조각으로 생각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 관음·대세지보살좌상 2구를 보물로 지정예고함
 - 명칭은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으로 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求禮 泉隱寺의 명월료에 보관 중인 <목조이보살좌상>은 원래는 같은 명월료에 보관 중인 불좌상과 함께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이라 한다. 좌보처보살상의 복장으로부터 발결된 복장발원문의 기록에 의해 조각가 玄眞과 1614년의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상이다. 발원문은 조선시대 불상 복장의 기준이었던 『造像經』의 규정에 따라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다. 발원문 기록에 상응하는 불상은 좌보처보살상과 우보처보살상만이며, 주존으로 봉안되었던 아미타불상은 이 두 보살상과 달리 17세기 중엽 승일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두 보살상의 원래 봉안처가 어디인지를 발원문이나 조성기를 통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존이었던 아미타불상은 복장구 뚜껍의 묵서에 의해 천은사의 산내 암자인 內院庵에 봉안되었던 불상임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즉, 천은사에 봉안되었던 이들 세 존상은 주존(고 81cm)은 내원암에 봉안되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천은사 극락전으로 옮겨져 좌우 보처보살상(고 95cm, 97cm)과 함께 삼존을 이루어 봉안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내원암에서 이안된 아미타불상은 현재 명월료에 함께 보관되어 있는 또다른 아미타불상(승일, 1646년), 대세지보살상(승일, 1646년)과 똑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아미타불상과 대세지보살상은 1646년 천은사 산내 암자인 修道庵에 봉안되었던 불상들로서, 내원암의 아미타불상도 수도암의 두 불상과 함께 1646년에 승일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최근까지 천은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던 세 존상 중 아미타불상은 1646년 승일에 의하여 조성되어 내원암에 봉안되었던 불상이며, 좌우 보처보살상은 1614년 현진에 의하여 조성되어 소재 불상의 사찰에 봉안되었던 보살상으로, 어느 때인가 천은사 극락전에 함께 봉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상의 크기가 좌우보처상이 95-7cm이고 주존상이 81cm로 비례가 맞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봉안되었기 보다는 20세기에 들어 조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보살상의 존명은 확정하기 어렵다. 원래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던 상인지 확실하지 않고, 도상학적 지표가 남아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보살상들의 보관에 화불이나 정병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지물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두 보살상은 좌보처 보살상의 腹藏發願文의 기록에 의해 전형적인 현진 작품이 확립되기 이전의 초기작임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1620-30년대에 제작된 현진 불상들이 넓적한 얼굴과 장대한 신체가 표현된 것과 달리, 얼굴은 폭이 좁고 길며 턱이 뾰족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 장식이 단순하고 위로 높이 솟은 보관은 조선 전기인 15-16세기의 보관 형태에 가깝다. 위쪽 끝의 뾰족한 부분마다 불꽃 모양의 장식이 달린 점은 17세기 전반기의 보관과 비슷하지만, 보관을 장식하고 있는 단순한 투조의 꽃무늬는 좀 더 전통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천은사 보살상들의 보관은 높이가 높고 화염문을 위주로 한 구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1603년에 廣圓 등이 제작한 安城 靑龍寺 <소조석가삼존불좌상>의 보살상 보관과 비슷하지만, 진주 靑谷寺 보살상(1615년), 부여 無量寺 보살상(1633년), 대구 桐華寺 보살상(1629년) 등 보관 상부의 테두리에 불꽃 장식이 있고, 구름, 봉황, 꽃 등이 내부에 조각되어 있는 1610년대 후반 이후에 현진에 의해 제작된 보살상들의 보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왼쪽 어깨 측면의 대의 주름은 관음보살상의 경우 이 상을 조각한 조각승 현진이 1612년 제작한 함양 상련대 보

살상처럼 어깨 아래의 앞쪽에만 ‘하단이 동그랗게 말린 모양’의 주름 무늬가 있으나, 대세지보살상의 경우에는 가운데의 ‘U’자 모양의 주름을 중심으로 앞뒤로 ‘하단이 동그랗게 말린 모양’ 주름 무늬가 형성되어 있어, 현진 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하로 긴 얼굴과 높은 보관 등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16세기 불상 양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 있지만, 복부의 부견의 주름 표현과 왼쪽 어깨 아래의 대의 등 옷의 표현에는 이미 현진 특유의 표현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즉, 천은사 보살상의 길고 좁은 얼굴이나 높이가 높은 보관 등 조선 전기의 전통 위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해 낸 조각승의 내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진이 조성한 불상은 현재 腹藏發願文 또는 기타의 기록으로 제작 연대와 조각승이 알려진 불상이 13건 28점의 불상이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는 7건 17점의 보물과 3건 5점의 지방유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현진 작품 중 지정문화재 목록

現 奉安處	原 奉安處	佛像名	造成年代	지정문화재
晉州 月明庵 人法堂	未詳	木造阿彌陀佛坐像	1612년	보물 1686호
求禮 泉隱寺 明月寮	求禮 泉隱寺	木造二菩薩坐像	1614년	
南海 龍門寺 大雄殿	未詳	木造阿彌陀佛坐像	1610년대	경남 446호
晉州 靑谷寺 大雄殿	晉州 靑谷寺 大雄殿	木造釋迦三尊佛坐像	1615년	보물 1688호
서울 地藏庵 大雄殿	서울 慈壽寺 仁壽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	1622년	보물 1621호
報恩 法住寺 大雄殿	報恩 法住寺 大雄殿	塑造三身佛坐像	1626년	보물 1360호
扶餘 無量寺 極樂殿	扶餘 無量寺 極樂殿	塑造阿彌陀三尊佛坐像	1633년	보물 1565호
昌寧 觀龍寺 大雄殿	未詳	木造三方佛坐像	1629년	보물 1730호
大邱 桐華寺 極樂殿	未詳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1629년	보물 ???호
茂州 安國寺 極樂殿	未詳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1630년대	전북 201호
大邱 北地藏寺 大雄殿	未詳	木造阿彌陀佛坐像	1630년대	대구 51호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求禮 泉隱寺 木造觀音勢至菩薩坐像 造成發願文」¹⁰⁾ 1614년 6월, 靑綃·紅書, 38.0×180.5cm, 明月寮.

淸信戒弟子太能靈源等敬造

靈像尊像特樹菩薩大願云

願我生生在在處處相好端嚴梵行淸
白常說正法具四無碍梵音淸雅令人樂聞
傳佛心燈如迦葉流通教海如阿難大智如

10) 송은석 석문.

文殊大行如普賢大慈如彌勒大悲如
觀音大願如地藏大果如舍那虛空有
盡我願無窮

十方諸佛咸垂證明

施主秩

朴天民 兩主
智雲 比丘
金奉世 兩主
崔愛福 兩主
克玄 比丘
二月 比丘
薛文香 兩主
金太男 兩主
金大男 兩主
山福 兩主
蔡福 兩主
崔億年 兩主
毛進介 兩主
梅香 兩主
金環 兩主
李生 兩主
允石 兩主
張菴 兩主
南春種 兩主
今伊 靈駕
大禪師 善修 比丘
玉井 比丘
覺性 比丘
省均 比丘
清雲 比丘
行機 比丘
道林 比丘
畫士 玄眞 比丘
明隱 比丘
蒙能 比丘
彥浩 比丘

思印 比丘
 證明 太英 比丘
 雪梅 比丘
 香火 學珠 比丘
 執務秩
 寶湛 比丘
 智寒 比丘
 印宗 比丘
 性林 比丘
 敏正 比丘
 智照 比丘
 幹善大化主靈源 比丘
 烏金化土優婆塞柳介屎 兩主
 萬曆四十二年甲寅六月日辦舉比丘太能拜手
 願以此功德普及於一
 切我等與衆生皆共
 成佛道

□

○ 조사내용

이 불상은 원래 천은사 극락전의 삼존불로 봉안되어 있었으나, 도난 우려로 현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불상의 구성은 불상 1구와 보살상 2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상과 보살상의 양식에서 시대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우선 보살상은 복장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어 1614년에 太能, 靈源 등의 발원으로 조각승 현진, 명은, 의능, 언호, 사인 등이 조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본존불상에서는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으나, 동 사찰 산내암자인 천은사 수도암에 이 불상과 거의 똑같은 형태와 크기,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1646년에 수조각승 승일에 의해 제작된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도 수도암 불상과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해에 같은 조각승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음·대세지보살상을 조각한 현진은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중 한명이다. 그는 1612년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86호)를 비롯하여,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1612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보물 제1621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24년, 보물 제1360호), 대구 동화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1629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0년, 보물 제1730호),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36년, 보물 제1565호) 등 대소형의 불상에서 소조·목조불상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조각

숨씨를 발휘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두 번째 조각승 명은은 현진을 도와 1612년에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였고, 1622년에는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세 번째 조각승 의능은 현진을 도와 1612년에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과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조성하였다. 다섯 번째 보조 조각승 사인은 1612년 태전을 도와 해남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상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1637년에는 수조각승 현진을 도와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37년)을 제작하였고, 1656년에는 수조각승 무염을 도와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오백나한상을 제작하였다. 이 불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들은 대부분 초반기에 현진과 함께 활동한 현진과 조각승들이다.

본존인 아미타불상은 협시보살상의 늘씬한 신체비례와 달리 안정된 구도 속에 단아한 형태미를 보이는데,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양감이 크게 강조되지 않고 단아한 형태미를 추구한 조각승은 승일이 대표적이다. 승일은 1622년에 현진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한 자인수양사 불상(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제작시 性玉에 이어 두 번째 治匠으로 참여하였고, 1629년과 1630년에 제작된 대구 동화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는 수조각승 현진의 차조각승으로 참여할 만큼 현진과 내에서도 비중이 매우 높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일은 또 다른 유력 조각승인 청헌(淸憲), 무염(無染)과도 작품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조각활동을 거쳐 17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승일만의 독자적인 조각유형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은 승일의 초기작품으로서, 그의 초기 작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어쨌든 아미타여래삼존상이 현진의 주도 하에 1614년에 이루어졌으나 이후 어떤 이유로 본존불이 손실되어, 다시 그의 문하 중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던 승일에게 본존 불상의 제작을 의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보살상 2구는 아미타여래의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기와 형태 등은 거의 같고, 좌우의 수인의 위치만 달리하여 서로 상응하게 하였다. 관음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따르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복구불사를 이끌었던 浮休 문도들이 이 불사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 불상 조성에 浮休善修(1543-1615)가 직접 시주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주목된다.

두 보살상은 이중으로 꽃잎 모양의 판을 겹쳐 만든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보관의 표면에는 넝쿨문을 투각하고 동판으로 화염, 구름 등의 장식을 부착하였다. 보계는 작고 세장하며, 보관의 턱을 이루는 머리만 머릿결을 표현하였다. 구렛나루와 귀밑머리를 타고 내려 온 두 가닥의 머리카락은 나비모양으로 고리 매듭을 짓고 다시 어깨 위로 흘러 내렸다. 세장한 얼굴형에 이마는 넓고 반반하며 살짝 부푼 눈두덩에는 반개한 눈을 표현하였다. 광대뼈는 다소곳이 돌출하였고, 콧날은 짧고 높으며 콧방울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현실감이 있다. 활모양으로 휘어진 입

술에는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전체적으로 순박한 청년의 인상을 보여주는 데, 이는 이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존감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얼굴은 현진의 초기 조각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후대의 다소 관념적인 얼굴과 비교되는 점이다.

무릎은 낮고 넓으며, 허리는 길어 장대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천의는 佛衣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걸쳐 입었으며 가슴에는 사선으로 한번 접어 마무리한 군의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상체에 표현된 주름은 긴장감이 있는 탄력적인 주름을 사용하였고, 길상좌로 앉은 무릎에는 철선같이 뻗뻗하고 힘 있는 주름을 사용하였다. 특히 왼쪽 아래로 흘러내린 주름을 좁은 옴형으로 처리하였고,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된 옴형 주름이 M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현진 조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관음보살상은 소맷자락이 발가락을 살짝 덮어 무릎 아래로 펄럭이듯 크게 흘러내렸고, 대세지보살상은 발가락만 살짝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주었다. 특히 오른쪽 발목을 덮고 내린 좁고 긴 띠 모양의 주름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사선으로 세밀하게 새긴 주름은 왼쪽 어깨의 좁은 옴형 주름과 함께 이후 현진 조각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發願文>

清信戒弟子太能靈源等敬造」靈像尊像特樹菩薩大願云」願我世〃生〃在〃處〃相好端嚴梵行清」白常說正法具四無碍梵音清雅今人樂聞」傳佛心燈如迦葉流通教海如阿難大智如」文殊大行如普賢大慈如彌勒大悲如」觀音大願如地藏大果如舍那虛空有」盡我願無窮」十方諸佛咸垂證明」施主秩」朴天民兩主」智雲比丘」金奉世兩主」崔愛福兩主」克玄比丘」二月比丘」薛文香兩主」全太男兩主」金大男兩主」山福兩主」蔡福兩主」崔億年兩主」毛進介兩主」梅香兩主」金環兩主」李生兩主」允石兩主」張菴兩主」南春種兩主」今伊靈駕」大禪師 善修比丘」玉井比丘」覺性比丘」省均比丘」法雲比丘」行機比丘」道林比丘」畫士 玄眞比丘」明隱比丘」義能比丘」彥浩比丘」思印比丘」證明 太英比丘」雪梅比丘」香化 學珠比丘」執務秩」寶湛比丘」智寒比丘」印宗比丘」性林比丘」敏正比丘」智照比丘」幹善大化主 靈源比丘」烏金化士 優婆塞柳介屎兩主」萬曆四十二年甲寅六月日 辨舉比丘 太能拜手」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그림 1 대세지보살상



그림 2 아미타여래좌상



그림 3 관음보살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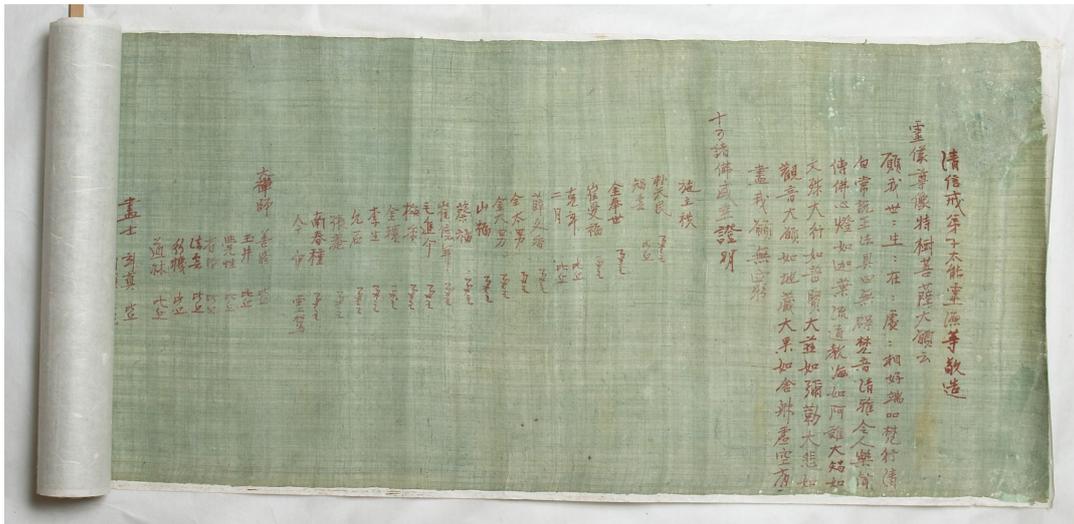


그림 4 조성발원문

□

○ 현 상

구례 천은사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후기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으로 원래는 본존상과 좌우협시보살상의 제작시기와 조각승은 다르지만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조각승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삼존불상이다. 협시보살좌상 2구는 대세지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청색 비단에 경명주사로 쓰여진 조성발원문을 통해서 萬曆 42년(1614) 수조각승 현진에 의해 조성된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존아미타불상은 복장발원문은 잃었으나 17세기 전반에 조성된 조각승 승일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먼저 보살상들의 세부를 살펴보면, 2구의 보살상은 거의 닮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가운데 대세지보살상의 크기가 관음보살상에 비해 3~4cm 정도 크고, 본존아미타여래상의 좌우 협시보살이었으므로 양 손의 수인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세부표현에도 약간씩 차이점이 보인다. 두 구 모두 화려한 보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보관의 앞면은 花紋이 투각된 2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梵字가 양각된 뒷판과 이어져 있으며 일부는 종이, 일부는 동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관의 상부는 화염보주로 장식되었는데, 대세지보살상은 뒷면 중앙판과 보관 아래쪽의 화문 장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보관을 벗으면 반구형의 머리 정상에 그리 높지 않은 보계가 솟아있고 이마 위에 수평한 발제선(髮際線)에는 작고 촘촘한 앞머리가 가지런히 새겨져 있다. 얼굴을 앞으로 숙인 자세 때문에 아래쪽을 응시하는 얼굴은 반듯한 이마, 반개한 두 눈, 비량이 넓은 우뚝한 콧날, 넓은 인중,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 띤 입술, 턱 중앙이 안으로 폭 들어간 표현에서 단엄하면서도 사실적이고 자비로운 상호를 보여준다. 귀를 타고 흘러내린 보발은 어깨위에 두 개의 둥근 매듭을 이루며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에는 사선으로 접힌 내의 상단이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살옷은 여래의 가사와 같은 형태로 두 벌을 겹쳐 입은 이른바 이중착의형식을 보여주며, 그 자락이 오른쪽 어깨위에서 접혀진 주름을 이루면서 흘러 내려온다. 양 손은 別材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워 넣었는데 손마디가 곧고 사실적으로 조각되었으며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하품중생인]을 결하고 있다. 대세지보살상은 오른손 무명지, 왼손 중지 1마디씩이 훼손된 상태이다.

무릎의 높이[坐高]는 전체 신체비례에 비해 낮고 관음보살좌상은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오른쪽 발아래에서 나뭇잎 같은 형태로 길게 늘어져 있어 짧게 새겨진 대세지보살상과 다르다. 보살좌상의 대좌는 상대 양련좌가 남아있는데, 세 줄의 단판 연잎으로 이루어진 대좌이다. 보살좌상 2구는 가슴과 배, 얼굴 왼편 턱 아래(관음보살상) 또는 등판, 오른쪽 어깨, 배(대세지보살상) 부분에 균열이 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고 본존상을 잃은 상태이나 두 구의 보살상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본존 아미타불상은 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에 이목구비가 단엄하고 머리는 육계와 머리의 구분이 없이 둥근 球形을 이루며 머리 중앙에 중계주와 머리정상에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체구는 어깨가 넓지 않으며 가사를 두벌 겹쳐입은 이중착의형식으로 옷을 입었으며 오른쪽 어깨 위에 V자형의 옷단이 새겨져 있다. 가슴에는 내의가 수평으로 나타나며 하체에는 옷자락이 중앙에 넓은 띠주름을 이루면서 늘어져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무릎위에 올려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을 결했다.

○ 내용 및 특징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력 42년(1614)에 조선후기 17세기전반에 크게 활약했던 조각승 玄眞이 수조각승을 담당하고 明隱, 義能,

彦浩, 思印의 네 명이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했던 佛事였다. 현진은 16세기 후반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161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620~30년대에 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전하는 현진의 가장 이른 작품은 1612년작인 함양 상련대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포함하여 같은 해에 3구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1614년작인 本 구례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이 전한다.

현진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오른쪽 어깨를 가린 가사(부건의) 복부 중앙에서 대의 속으로 삽입되는데, 삽입되기 직전에 꺾인 주름이 예리한 각을 이루는 점과 불·보살상의 상호가 매우 순수하고 차분한 표정을 보이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조삼불좌상(1629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현존하는 현진의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서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상(1622년), 법주사 대웅전 소조 삼신불좌상(1626년) 등 여러 구가 전하고 있다.

한편, 본존아미타불상의 조각가로 생각되는 승일은 1620년대부터 활약이 보이는데,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가장 이른 기록으로는 현진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조성 때에 冶匠을 맡은 것이고, 조각승으로는 현진이 수조각승을 맡았던 창녕 관룡사 삼불좌상(1629년) 조성 때 제 2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한 것이다. 승일이 수조각승을 맡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작품으로는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46년)이 알려져 있는데, 모든 면에서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의 본존상과 매우 유사하여 이 상 또한 같은 시기의 승일에 의해 제작된 불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문헌자료

- 송은석, 「17世紀 彫刻僧 玄眞과 그 流派의 造像」, 『美術資料』 70, 2004.
- 송은석, 「求禮 泉隱寺 修道庵의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考察」, 『불교중앙박물관 2007 상설전』, 불교중앙박물관, 2007.
- 문명대,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玄眞派의 성립과 지장암 木毘盧遮那佛坐像의 연구」, 『講座美術史』 29, 2007.
-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 佛教彫塑 -』, 양사재, 2007.
-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4.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 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七尊坐像)

가. 검토사항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
- 관계전문가 회의('15.2.5)를 통해 지정조사 추진 대상으로 검토된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15.8.27)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 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七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심곡사
- 소재지: 전북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천은사(낭산면 낭산리 176)
- 수 량: 불감 1점, 불상 7구
- 규격(cm): 아미타불 14.5, 관음보살상 12.4, 대세지보살상 12.4
여래좌상① 7.3, 여래좌상② 7.3, 지장보살상 6.8, 관음보살상, 7.4
불감 높이 18.8, 너비 22.7
- 재 질: 금동
- 제작연대: 여말선초
- 제작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심곡사 칠층석탑의 지대석 윗부분에 있는 사리공에서 출토된 금동불감과 불상들은 조형적으로 보아 칠층석탑이 건립되던 조선시대 1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불감과 불상들은 정확한 조성 배경을 알려줄 만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으나 수준작으로서 조선시대 불교조각 연구에서 있어서 중요한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금동아미타불삼존상은 각각 후령통 등 복장 유물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뿐만 아니라, 금동불좌상 2존과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과 함께 하나의 도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학적·신앙적으로 조선시대 15세기의 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비록 절대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조형적으로 보아 조선시대 15세기에 조성된 것이라는 점과 예술성·희소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심곡사 칠층석탑 지대석에서 발견된 이들 불상은 높은 육계, 큼직한 연봉모양의 정상계주, 잘록한 허리와 육감적인 신체 표현, 삼각형의 모양으로 仰·覆蓮이 맞닿은 연화좌, 원반모양의 귀고리, U자형으로 두껍게 늘어진 목걸이 등 이 시기에 크게 유행했던 元·明代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여말선초기 소형 금동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따라서 이 불상도 이 시기(여말선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사찰의 중창 시기나 석탑의 편년 설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불감에서 발견된 여말선초 양식의 소형 금동불상들은 금강산 신앙에 의거하여 금강산 일원에 봉납된 것과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 및 불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불감,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 출토 불감 및 불상, 그리고 순천 매곡동 석탑 출토 청동불감 및 불상 등에서 발견된 불감이나 불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것으로, 이 시기 유행한 불상의 형식과 양식, 제작기법 뿐만 아니라 석탑 사리장엄 의식 및 신앙 양상까지 엿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금동불감과 불상은 라마불상양식이 강한 아미타여래삼존상과 이를 수용하여 어느 정도 우리화된 4구의 불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말선초기 원·명대 외래 양식의 전래와 수용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출토지가 분명하고 7구의 불상이 한 불감 내에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은 여말선초에 제작된 불교조각으로서 고려말·조선초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적으로도 우수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

○ 현 상

2012년 6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심곡사 칠층석탑 해체 과정에서 중대석 윗면의 방형 사리공(가로 15.5cm, 세로 15cm, 깊이 10.5cm)에서 금동불입상 2존과 백자 소호 1점, 소호 속에서 나온 회색 사리 1과, 청동 원경 1점, 50여편의 향목 편, 소량의 직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지대석 윗면의 방형 사리공(가로 25cm, 세로 24cm, 깊이 18cm)에서 금동불감과 그 속에 봉안되어 있던 7존의 불상과 보살상이 발견되었다.

1. 금동불감

금동불감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나, 밑판, 좌우 측판, 뒷판, 지붕을 각각 따로 만들어 끼운 다음 못으로 고정하여 조합한 것이다. 여단이 형태로 고정되었던 두개의 문은 따로 분리된 상태이다. 지붕 위쪽에는 지름 2.5cm 크기의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는데, 안쪽에 화형 판을 끼운 다음 안에서 고정하였다. 측판 가장자리에는 연당초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밑판에는 불감 속에 봉안되었던 7존의 존상을 고정하기 위하여 앞쪽에 2개씩 3조, 뒷쪽에 2-5개씩 4조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2.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아미타불좌상은 금동불감 중심에 놓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불상의 뒷면이 갈라진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불상 속에서 양면 원경, 직물, 광물, 뽕씨가 들어 있던 후령통과 함께 사리호, 사리, 광물, 종이 뭉치 등의 복장 유물이 발견되었다. 불상 밑바닥을 막았던 금동판이 남아 있는데, 판을 밑바닥의 크기에 맞춰 자른 다음 끼워서 고정하였다. 불상 내부는 청동 녹이 남아있지만 깨끗한 편이다.

3.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주조 때 박락된 코의 일부와 대좌 밑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면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 속에서 직물과 양면원경이 들어 있던 후령통과 이것을 감싼 종이, 광물 등 복장물이 나왔다. 보살상 밑바닥을 막았던 금동판은 밑바닥 크기에 맞춰 자른 다음 고정하였다. 보살상 내부에는 해체하지 못한 후령통 일부가 남아 있으며, 청동 녹도 일부 확인되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4. 금동대세지보살좌상

금동대세지보살좌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 속에서 직물과 양면원경이 들어 있던 후령통과 이것을 감싼 종이, 광물 등 복장물이 나왔다. 보살상 밑바닥을 막았던 금동판은 밑바닥에 고정한 다음 일부분을 구부려 부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살상 내부에는 해체하지 못한 후령통 일부가 남아 있으며, 청동 녹의 흔적이 다소 있으나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5. 금동불좌상

금동불좌상은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뒤편 옆에서 출토되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밑바닥이 금동판으로 끼워 막아 놓은 상태이다. 많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대좌 일부가 남아 있으며, 그 윗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는 불상 밑판에 뚫려 있는 2개의 구멍과 함께 불상을 대좌에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6. 금동불좌상

금동불좌상도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뒤편 옆에서 출토되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밑바닥이 금동판으로 끼워 막아 놓은 상태이다. 많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대좌 일부가 남아 있으며, 윗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 또한 불상 밑판에 뚫려 있는 2개의 구멍과 함께 불상을 대좌에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7.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 밑바닥을 금동판을 끼워 막아 놓았다. 훼손이 심하지만 대좌 일부가 남아 있는데, 윗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는 보살상 밑판에 뚫린 2개의 구멍과 함께 보살상을 대좌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이다.

8.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 밑바닥을 금동판을 끼워 막아 놓았다. 훼손이 심하지만 대좌 일부가 남아 있는데, 윗부분에 2개의 구멍이 나 있다. 이는 보살상 밑판에 뚫린 2개의 구멍과 함께 보살상을 대좌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이다.

○ 내용 및 특징

1. 금동불감

청동불감의 안쪽 정면에는 위아래에 구름 무늬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불좌상을 중심으로 협시보살상 2존, 제자상 6존, 금강역사상 2존이 각각 돈을새김[타출]기법과 음각 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불상은 통견 형식으로 법의를 착용하고 팔각연화대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 앞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두었는데, 손등을 위로 한 채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가슴 앞에 끈자가 새겨진 불상은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는 아담한 형태이다. 양협시보살상도 불상과 같은 형태의 광배를 갖추고 있으며, 팔각연화대좌 위에서 합장한 모습이다. 보살상들의 배 부분에서 시작된 법의의 띠자락은 대좌의 상대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이들 불상과 보살상 사이에는 합장하고 있는 6존의 제자상이 있다. 또한 양쪽 아래 가장 자리에는 각각 합장하고 서 있는 금강역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불감 문은 바깥 면을 음각으로 새긴 꽃무늬로 장엄하였으며, 안쪽 면은 금강역사상을 각각 돈을새김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들 존상은 여러 부분에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조각이라기보다 마치 회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금동불감은 감의 크기와 형태, 표현 기법, 문 안쪽에 새겨진 금강역사의 모습 등에서 조선시대 1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Harvard대학 새클러박물관 소장 금동불감과 수종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불감과 유사하다. 또한 돈을새김기법으로 표현된 존상들은 1493년 이전에 조성된 수종사 오층석탑 발견 금동불감의 도상과 1467년에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탑신석에 부조된 도상과 조형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2.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불감에 봉안되었던 7존의 존상 중에서 비교적 큰 불상 1존과 보살상 2존은 보관에 화불이 새겨진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통하여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이 협시하는 금동아미타불삼존상일 가능성이 높다. 금동아미타불좌상은 편단우견 형식으로 법의를 입고 상대와 하대가 맞붙어 있는 연화대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다. 불상은 오른손은 내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오른쪽 발다닥 위에 둔 채 손등을 위로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금동아미타불좌상은 보주형 정상 계주와 육계, 나발의 머리카락부분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 구도와 왼쪽 어깨로부터 내려와 오른쪽 허리를 가로 지르는 법의의 자연스러운 가장자리 형태, 그 위에 표현된 꽃무늬 장식,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대좌 형식, 대좌 상대와 하대에 각각 새겨져 있는 연주문 등의 조형적인 특징을 통하여 원나라 장전(藏傳)불상의 영향을 받은 고려말 조선초에 조성된 불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 표정과 신체 비례는 이 불상이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금동아미타불좌상은 조선시대 1450년명 보물 제1747호 양산 통도사 은제도금아미

타여래삼존상 등 조선시대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금동불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다.

3.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화불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당당하고 안정된 자세를 하고 있다. 보살상은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한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비스듬히 들어 올린 유희좌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 왼발은 대좌 하대에서 뻗어나온 연꽃 위에 두었다. 상체는 천의만 걸쳤으며, 하체는 군의를 입고 있다. 오른손은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살짝 걸친 채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린 천의 자락을 잡고 있다. 높은 보계와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있으며, 화려한 보관과 크고 둥근 귀걸이, 배꼽까지 드리우고 있는 목걸이, 화려한 팔찌를 하고 있다. 머리카락은 꺾불 앞쪽을 가로 지른 다음, 어깨 위에서 여러 번 꼬인 후 세 가닥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과 천의와 군의, 대좌에 보이는 3개의 점으로 구성된 꽃무늬 장식은 이 보살상이 장전보살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한층 부드러워진 얼굴 표정 등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조형적인 특징이 보인다.

4. 금동대세지보살좌상

금동대세지보살좌상은 왼쪽 무릎을 세운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달리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관음보살상의 도상과 일치한다. 다만 보살상은 오른손으로 연꽃 줄기를 잡고 있으며, 이 줄기는 손목을 돌아나가 상박부와 하박부의 경계 부분에서 두 줄기로 나뉘는 다음, 한 줄기에서는 연잎이, 어깨까지 올라간 줄기에서는 연꽃 봉오리가 나 있다. 왼손 바닥에는 손금이 새겨져 있다.

5-6. 금동불좌상

금동불좌상들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자세를 한 아담한 모습이다. 이들 불상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중앙 계주가 표현된 점, 나발 형식의 머리카락, 가슴 앞에 음각으로 새겨진 끈자, 통견 형식의 법의, 대좌가 없는 점 등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불상들은 상체를 뒤로 약간 젖힌 모습으로, 불신의 윤곽을 따라 법의를 입체적이며 유기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경직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불상 중에서 오른손을 들어올려 엄지와 약지를, 왼손은 복부 앞에서 엄지와 약지를 맞대고 있는 상은 불상 뒤편의 법의 자락 표현을 과감하게 생략함으로써 앞쪽에서 어깨 뒤로 넘어간 옷주름과 유기적이지는 못하다. 법의 표현에서 이 불상이 나머지 1존과 또 다른 점은 왼쪽 무릎 위에서 앞으로 흘러내린 뒤집혀진 요자 형태의 법의자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불좌상은 왼손을 가슴 앞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손등을 위로 하여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 놓았다. 불상은 왼쪽 어깨 위로 넘어간 법의 자락이

왼쪽 엉덩이 윗부분까지 흘러내리며 내려오는 것 등에서 볼 때 다른 불좌상보다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은 통견 형식으로 법의를 착용한 채 가부좌를 하고 있다. 머리에 꽃무늬 장식의 각이 진 두건을 착용하고 있으며, 복부 앞에 모은 두 손으로는 지장보살의 지물인 보주를 들고 있다. 크고 화려한 귀걸이와 연주문으로 된 장엄된 목걸이를 하고 있다. 보살상은 다소 경직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조형적으로 지장보살의 성격을 나타내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8.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천의와 군의를 착용한 채 가부좌를 하고 있다.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각각 꽃으로 장엄된 커다란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하고 있다. 두 손은 복부 앞에 두었는데, 손바닥으로 역시 같은 꽃 무늬로 장식된 정병을 받쳐 들고 있다. 보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머리 카락은 가지런히 빗어내렸는데, 귓불 위로 가로 지른 보발은 어깨 위에서 여러 번 꼬인 다음 세 갈래로 흘러내리고 있다. 양쪽 다리 사이의 군의 가장자리와 보살상 뒤쪽 허리의 군의를 묶은 매듭에는 화려한 꽃무늬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와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뒷모습에서는 좌우 대칭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은 조선시대 초기 보살상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

○ 조사내용

익산 심곡사는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미륵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찰의 창건은 통일신라시대 선문구산의 하나인 聖住山門을 개창한 無染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고고학적, 미술사적 자료는 없다. 아마도 이는 전국의 수많은 사찰이 元曉나 義湘같이 불교계의 저명인사를 창건주로 내세워 寺格을 높이려 했던 것과 같이, 심곡사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심곡사와 멀지 않은 곳에 성주산문이 있기 때문에 무염대사에 의한 창건설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사찰에는 여말선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칠층석탑이 주법당인 대웅전 앞마당에 세워져 있다. 2012년 6월 이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소형 금동불상 2구와 여말선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佛龕, 그리고 그 속에 봉안된 7구의 불상이 발견되었다. 칠층석탑은 연화대좌 형태의 기단과 옥개와 탑신이 좁고 얇은 전체적으로 세장한 형태를 띠는 전형적인 여말선초 양식의 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은 사찰에서 전래되어 오던 것을 석탑의 건립 때 법

사리로 봉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금동불감과 7구의 불상은 석탑의 양식과 거의 일치하므로 조성당시의 사리장엄구로 판단된다.

금동불감은 지대석에서 발견되었는데, 지대석의 상면에 마련된 사각형의 홈(25.0×24.0cm, 깊이 18.0cm) 안에 정확하게 맞도록 제작되었다. 따라서 석탑을 제작할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감은 밑판, 좌우측면판, 뒤판, 뚜껑 등이 각각 1판으로 제작되었고, 문비만 2판으로 제작되었다. 뚜껑과 밑판은 꺾어 측면판과 뒤판을 안쪽에 끼우도록 하였고, 양 측면과 뒤판은 별도의 넝쿨무늬가 새겨진 ‘ㄱ’자형 장식판을 덧 되어 못으로 고정하였다. 뚜껑은 모를 죽인 녹정형으로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¹¹⁾ 감실의 내면 중앙벽면에는 타출기법으로 아미타여래설법도를 나타내었다. 구성은 팔각연화대좌에 결가부좌한 불·보살 삼존상을 중심으로 제자상 6구, 신장상 2구로 구성되어 있다. 삼존상은 다른 존상에 비해 존격을 크게 부각하였고, 사이사이의 빈 공간에는 제자상 등 권속상과 구름문으로 채웠다. 본존은 낮고 넓은 머리에 작은 중앙계주를 가졌으며, 둥그란 얼굴에 크고 뭉툭한 콧날에서 정겹고 귀여운 인상을 자아낸다. 이중착의법으로 대의를 입었으며, 가슴에는 균의를 묶은 띠 자락이 꽃잎처럼 표현되었고, 무릎 앞에 흘러내린 대의 자락은 마치 앞치마를 두른 듯 수평 주름으로 길게 처리하여 특이한 인상을 준다. 이와 유사한 무릎 주름은 판교 출토 금동불상입상 등 고려 전기 불상에서도 보이고, 고려말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불감의 벽면 부조상, 조선 초기로 추정되는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상이나 원각사 십층석탑의 부조상, 그리고 여말선초에 제작된 사경변상도 등에서도 볼 수 있다. 門扉의 양쪽 면에는 타출기법으로 권법자세를 취한 역동적인 금강역사 2구를 나타내었는데, 부식으로 인하여 결손부위가 많다.

불감 안에서 발견된 불상은 모두 7구인데, 앞쪽 열에는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배치하였고, 뒤쪽 열에는 이 보다는 이국적인 느낌이 덜한 불상 4구를 배치하였다. 앞쪽에서 발견된 불상 3구 중 본존불은 대의를 편단우견으로 살결이 드러날 정도로 얇게 입었다. 대의에는 삼보문을 새겨 넣었으며,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하였고, 왼쪽 어깨에는 여말선초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형의 주름이 잡혀 있다. 머리는 복발모양의 큼직한 육계 위에 팽이모양의 정상계주를 올려놓은 형태이며, 가름한 얼굴에 이목구비는 이국적인으로 표현하였다. 가슴은 당당하게 발달하였고, 허리는 잘록하여 감각적인 조형의지를 보여준다. 양·복련이 맞닿아 있는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는데, 두 발은 모두 노출되어 표현되었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설법인을 결하였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고려후기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좌상(소재불명)이나 1450년 조성으로 추정되는 통도사 소장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과 경태 2년명(1451년, 문종 원년) 금동아미타삼존좌상(금강산 은정골 출토) 등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금강산 일대에서 조성

11) 진정환,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사리장엄구의 특징과 성격」,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 (국립전주박물관, 2014), p.47.

된 소형 금동불상들과 세부적인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 거의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관음보살상은 5구의 화불이 있는 보관을 썼으며, 뒤로 둥글게 말린 보계는 각져 있고 보관 앞으로 노출된 머리는 가르마를 타고 양쪽으로 가지런히 빗겨 넘겼다. 귀를 타고 흘러내린 보발은 어깨위에서 3겹의 둥근 고리모양을 만든 뒤 다시 3가닥으로 드리웠다. 귀에는 원반모양의 큰 귀고리를 착용하였고, 팔뚝에는 腕釧을 부착하였다. 양어깨를 걸치고 흘러내린 천의자락 중 한 자락은 팔뚝을 타고 사행하며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또 왼손으로는 왼쪽 팔뚝을 휘감은 옷자락을 잡았다. 천의의 곳곳에는 三寶文을 시문하였다. 가슴에는 U자형으로 늘어진 두꺼운 영락장식을 걸치고 있다. 양·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 위에 반가좌의 형태로 앉았는데, 반가좌로 내린 왼발은 대좌에서 따로 피어난 연화족대에 발을 올려 둔 대단히 감각적인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臺灣 鴻禧美術館所藏의 大明 永樂年施(1403-1424)에 만들어진 일련의 금동보살상들과 비교할 수 있다. 대세지보살상은 관음보살상과 달리 오른손으로 연꽃줄기를 잡고 있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관음보살상과 유사하다. 연꽃줄기를 지물로 취하고 있는 대세지보살상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경천사지 십층석탑 부조상이나 호림박물관 금동대세지보살상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관음과 지장보살이 반가좌를 취하고 있는 것은 1476년에 제작된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지장보살상이 있다. 이 삼존불에서 보이는 팽이모양의 정상계주, 이국적인 상호, 잘록한 허리, 양복련이 맞닿은 대좌, 살결이 드러날 정도로 얇게 입은 옷 주름, 별도의 족좌대 등 표현 방식과 양식적 특징은 여말선초기 크게 유행한 원·명대 라마불교 양식으로 제작된 불상들과 상통하는 요소이다.

뒤쪽에서 발견된 불상은 여래상 2구, 보살상 2구 등 모두 4구이다. 여래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의 불상으로 서로 손의 위치를 달리하여 상응하게끔 하였다. 불상은 복발모양의 높은 육계와 작고 동그란 중앙계주를 갖추었으며, 불감 뒷벽에 새겨진 불상과 마찬가지로 동그란 얼굴에 콧날을 크고 뭉툭하며, 입은 작게 표현하여 전반적으로 통통하고 귀여운 인상을 주는데, 같은 작자의 수법으로 보인다. 착의는 이중착의법으로 양 어깨를 모두 덮어 내렸으며, 내의는 표현되지 않았다. 열려있는 가슴에는 두 구 모두 ‘卍’자를 새겨 넣었다. 무릎은 좁고 높아 단구적인 형태미를 보여준다. 옷 주름은 비교적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관음보살상은 활짝 핀 꽃모양의 넓은 보관을 썼으며, 관대가 어깨 좌우로 넓게 드리워져 있다. 보관 앞으로 노출된 보발은 세밀하게 빗금질 하였으며, 큼직한 원반모양의 귀고리를 부착한 양귀를 타고 흘러내린 보발은 어깨 위에서 복잡하게 엮은 뒤 다시 몇 가닥으로 흘러 내렸다. 불신에는 천의를 걸쳤는데, 양 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자락이 S형으로 사행하며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다. 치마의 가장자리 테두리에는 넝쿨문양을 시문하여 단조로움을 피했다. 옷깃에 문양을 시문하는 것

은 대만 홍희미술관 소장 1486년작 금동비로자나불상이나 금동금강총지좌상 등 명대의 15세기 자료들과 비교된다. 보살상의 허리는 다른 상들에 비해 뒷열의 다른 불상에 비해 더욱 잘록하며, 이목구비는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다. 두 손은 단전 앞에서 선정인으로 포개 모으고 그 위에 꽃무늬로 장식된 정병을 올려놓았다. 허리 뒤쪽에는 군의를 묶은 띠 자락이 가위모양으로 드리워져 있고, 가슴 앞과 허리, 팔뚝 등에는 꽃무늬로 이루어진 장신구를 부착하였다.

지장보살상은 꽃무늬가 새겨진 두건을 썼는데, 두건은 네 곳에 세로로 각을 잡았고 이러한 두건의 형태는 여말선초기 지장보살의 두건형태와 상통한다. 얼굴은 큼직한 콧날 등 불상과 거의 같으며, 가사는 양어깨를 모두 덮어 내린 통견식이며, 두 손은 가슴에 모아 보주를 올려놓았다. 가슴에는 작은 구슬로 이어진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이 4구의 불상은 천은사 금동불감의 불상, 순천 매곡동 석탑 출토 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그리고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 등 여말선초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쪽 열에서 발견된 3구의 불상에 비해 좀 더 전통양식에 가까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심곡사칠층석탑 - 정밀실측 및 보수정비수리보고서-」, 익산시·한림보존테크, 2012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 국립전주박물관, 2014



그림 1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그림 2 금동불감 출토 모습(지대석 상면)



그림 3 불감의 지붕



그림 4 불감의 정면 벽면



그림 5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그림 6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

○ 현 상

익산 미륵산 자락에 위치한 深谷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이다. 이 절의 대웅전 앞에 있는 칠층석탑(전북 유형문화재 제 192호)은 심곡사가 백년쯤 전에 현재의 사찰에서 서북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옮겨오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전해온다. 칠층석탑은 2012년 6월 해체·보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단 중대석 상면에 파여진 방형의 사리공에 납입되어 있던 백자호를 비롯한 사리장엄구와 불상 9구, 금동불감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쳐 현재 익산 왕궁리 유적전시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칠층석탑에서 발견된 아홉 구의 금동불상 가운데, 일곱 구는 불감 속에 들어있었다. 금동불감은 경첩이 떨어져 분리된 상태인데, 불감의 내부 정면 벽에는 여래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 2구, 제자 6구, 신장 2구가 협시하여 11존을 이루고 있다. 10구의 협시상들은 모두 합장의 수인을 결했고 광배 뒷면과 대좌 아래로 雲紋

이 새겨져 있다. 불감의 문비는 앞, 뒤로 2개의 판을 이어 붙였는데, 정면에는 능형문과 연화문을 선각하여 실제 건물의 꽃살창을 묘사했고 안쪽 면에는 금강역사를 양각하였다.

불감에 봉안되어 있던 칠존은 금동아미타삼존상과 이 삼존상 보다 크기가 작은

여래상 2구, 관음, 지장보살상이다. 아미타삼존상의 본존 아미타불좌상은 나발의 머리 위에 정상계주가 높게 표현되었고 편단우견으로 착의한 가사의 접힌 자락에는 花紋이 장식되어 있으며 수인은 오른손의 엄지와 중지를 맞댄 說法印을 결했다. 대좌는 중대가 없이 連珠文이 둘러진 상대 양련좌와 하대 복련좌가 서로 맞붙어있는 형태이다. 이 상의 정상계주와 대좌의 표현, 착의형식은 고려말 몽고간섭기에 元으로부터 전해졌던 티벳 불교미술 양식을 보여준다. 등 뒤쪽에 갈라진 균열은 주조 당시의 결함으로 판단된다.

좌우 협시보살상들은 어깨위에 두른 술 형태의 天衣와 팔찌에 본존상의 가사에 새겨진 둥근 花紋이 장식되었으며, 보관의 형태와 가슴에 U자형을 이룬 2줄의 영락장식, 유희좌로 앉아 각각 바깥쪽의 발을 대좌하단에서 위로 올라온 연화 足座 위에 올려놓은 자세에서 본존상과 마찬가지로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를 보인다. 관음보살상은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었고 손에는 천의자락을 쥐었으며 대세지보살상은 오른손에 연꽃가지를 쥐고 있다.

앞의 삼존불상과는 달리 나머지 4구의 불상들은 전통양식을 더 많이 보인다. 2구의 여래좌상은 거의 상호가 동일하며 머리에는 나발이 큼직한데 앞의 아미타불상과 같은 정상계주는 표현되지 않았다. 착의형식도 가사를 두벌 겹쳐 입은 이중착의 형식을 보이고 가슴에는 卍字가 음각되어 있다. 수인은 한쪽은 왼손을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다른 쪽 불상은 오른손을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왼손으로도 역시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설법인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두 손을 포개어 정병을 받쳐 들고 있는 관음보살좌상(도 2)의 기본 형태는 전통적인 도상을 보이지만 허리가 잘록하고 넓게 옆으로 퍼진 보관의 형태와 밧줄처럼 굵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늘어진 모습, 화문이 달려있는 팔찌들의 형태는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를 보인다. 이에 비해서 지장보살은 전통적인 양식을 보이는데(도 3), 머리에는 화문이 새겨진 두건[風帽]을 쓰고 두 손을 포개어 보주를 받쳐 들었다. 이마 위로 보이는 두건의 앞단과 가슴의 內衣 윗단, 목걸이는 魚子紋을 새기는 원형의 도구를 써서 찍었는데, 이것은 앞의 아미타삼존불상의 가사와 天衣에 문양을 새긴 도구와 동일한데, 이 점은 칠존의 불·보살상들이 같은 공방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에서 출토한 일곱 구의 존상들은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로 협시하는 아미타삼존불좌상과 고려후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관음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삼존불상의 두 종류의 아미타불상이 모두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도상이나 양식면에서는 고려말 이래의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이국적인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반영된 모습이 보인다. 아미타삼존불의 좌우협시인 관음·대세지보살상은 국립전주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도 4)과 도상 뿐 아

나라 상호에 표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사하여 같은 공방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불상들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기년자료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할 것인데, 강원도 금강산에서 출토한 1429년명의 금동아미타삼존불상(도 5)이나 1451년명 금동아미타삼존불상(도 6), 1468년명의 순천 매곡동석탑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도 7)에 비해서 상호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신체의 세장화가 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양감이 좋은 것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양식을 보인다고 생각되므로 여말선초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도 1.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대세지보살좌상



도 2.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관음보살좌상, 여말선초, 전북 익산



도 3.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 여말선초, 전북 익산



도 4. 금동관음보살좌상, 나말여초, 국립전주박물관



도 5. 금동아미타삼존불상, 조선시대 1429년 금강산 향로봉출토,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도 6. 금동관음보살좌상, 조선시대 1451년, 금강산출토, 평양조선중앙력사박물관



도 7. 순천 매곡동 석탑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시대 1468년, 국립광주박물관

5.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서울 興天寺 金銅千手觀音菩薩坐像)

가. 검토사항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3. 7. 23)를 거쳐 2014년도 제3차 분과위원회('14.4.10)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제작연대 검토 및 과학적 분석 필요’ 사유로 보류됨
- 이에, 과학적 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보완조사('15.8.3)를 실시하였으나 채취할 수 있는 시료가 없었으며, 제작연대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의 2차 조사('15.10.15)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서울 興天寺 金銅千手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동)
- 수 량: 1구
- 규격(cm): 상높이 71.5 무릎폭 43.2
- 재 질: 금동
- 제작연대: 고려~조선 초
- 제작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2차 조사자 의견】

○

홍천사 금동천수관음상은 사찰 소장품의 현판기록을 통해 적어도 홍천사에서 19세기 부터는 봉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얼굴 모습이든가 비례, 영락 등의 형식 및 양식적인 특징에서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려시대의 문헌기록에 천수경이라든지 천수관음상 제작에 대한 기록이나 발원문이 전하는 시대성과도 부합된다. 천수관음은 많은 손과 다양한 지물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로 이끌어 주며 동시에 호국적 성격이 강한 원력을 가진 보살상이다.

42수 천수관음상은 우리나라 전 시대에 걸쳐 몇 구만 존재하는 특수한 형식의 보살상인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고려시대의 문헌에 질병 퇴치나 호국적성격이 강한 원력을 가진 보살상으로 등장하는 점 등 불교조각사는 물론 불교신앙 및 사상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에서 살펴본 홍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은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42수 관음보살상으로서 고려 말 조선 초의 양식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천수관음상 도상 및 관음신앙 연구에 있어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비례감각이 뛰어나고 가냘픈 듯 강인함이 돋보이는 등 예술성 또한 돋보인다.

이에 홍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

서울 홍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조선 초기에 조성된 매우 드문 사례로 판단된다. 또한 관련 기록물로 보아 조선 말기까지 보살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훼손과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대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42수 천수관음상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홍천사 관음보살상은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의 뛰어난 작품성으로 보아 국가장인이 조성하여 왕실사원인 홍천사에 봉안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흥천사 사십이수관음상의 도상특징은 1면 42수를 가진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며, 이 도상특징(1면 42수)은 지통역 천안천비관세음보살다라니신주경에서 유래했고, 구체적인 42수 도상은 상원사본(1485년) 『오대진언』 42수 수인도에서 유래한 상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천수관음보살상은 1450년 전후의 티벳계 명양식에 속하는 천수관음보살상 등과 가장 흡사하므로 1450년 경에 조성된 장신 계통의 보살상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서 장신의 늘씬한 양식을 대표하는 보살상으로 중시된다.

넷째, 이 42수 천수천안보살상은 현존하는 4점(프랑스 기메박물관상, 국립박물관상, 개인소장, 본상)의 천수천안관음보살상 중 사찰에서 신앙되고 있는 유일한 예이자 가장 크고 뛰어난 예이므로 그 희귀성에서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의 신앙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인 흥천사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1차 조사자 의견】

○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894년명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현판에 기록을 통하여 볼 때, 尙宮 洪敬心華와 상궁 李慈仁華의 시주에 의해 조선시대 19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판의 기록을 통하여 보살상은 “사십이수관세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보살상에는 42개의 손이 있는데, 이들은 따로 주조하여 연결하였다. 결손되어 나무로 대체된 일부 손과 후대에 보완된 것으로 보이는 持物을 제외하곤 비교적 완전한 모습이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沙土를 이용한 전통적인 주조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보살상 내부에는 아직도 모래가 두껍게 붙어 남아 있다. 보살상은 전체적인 비례와 얼굴 표정, 화려한 장엄 등을 통하여 볼 때, 상당히 수준높은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42수를 가진 관음보살상으로서, 조선시대 19세기 작품답게 여러 시대의 양식적인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즉, 목과 상반신에 보이는 고려시대 초기의 특징, 지물로 들고 있는 金剛鈴과 2층 전각에 나타난 고려시대 중기의 특징, 몸 전체를 감싼 영락장식에 보이는 고려말 조선초의 특징, 보계 형식에 보이는 조선시대 전기의 특징, 그리고 보관에 보이는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 갈고리 매듭과 같은 영락 장식과 복부와 양다리 사이로 흘러 내린 띠 자락은 기존의 보살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징들이다.

홍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일부 손상되어 후보되긴 하였지만, 42수 관음보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1894년명 현판에 기록된 보살상의 조성 시기 “辛卯”년이 1831년인지 1891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살상이 조선시대 19세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복장 발원문이 아닌 현판에 조성발원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상기한 두 명의 발원자가 각각 100량씩 돈을 내어 조성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19세기에 유행하던 발원자의 이름 표기법 등을 참고해 볼 때 불상도 대략 이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살상 안쪽 표면에 남아 있는 청동 녹들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의 보살상에 보이는 것과 달리, 그다지 부식되지 않아 보살상의 조성 시기가 현판에 기록된 19세기일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하겠다.

홍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비록 조성시기가 조선시대 19세기이긴 하지만,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동반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42수 관음보살상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을 이와 관련되는 현판과 더불어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현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천수관음보살상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상은 다소 추상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기 드문 예로서 천수관음 도상 및 신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인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지물이 남아 있어 어느 시점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보이는 거친 주물 상태나 인위적으로 긁어낸 흔적 등은 지정에 앞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홍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현존하는 천수관음보살상의 희귀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2차)



○ 조사내용

홍천사 천수관음좌상은 42수 천수관음상으로 현재 서울시 성북구 홍천사 극락보전에 조선시대의 다른 불상과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 천수관음상은 마르고 가는 신체에 잘록한 허리, 볼록 튀어 나온 배와 낮고 좁은 무릎, 큰 얼굴과 화려하고 장식적인 높은 보관, 유난히 기다란 손가락 등이 특징이다. 여기에 균의를 묶은 허리띠가 무릎 밑으로 굴곡을 지으며 흘러지듯 흘러내렸고 지나치게 기다란 손가락과 얇은 팔, 마른 신체에 튀어 나온 배는 독특한 느낌을 준다. 각 팔을 이어 붙인 거친 조각기술로 인한 투박한 주조기법은 입이 크고 광대뼈가 튀어 나온 얼굴에 각을 넣어 무섭게 처리한 얼굴 형상과 더불어 강한 생명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얼굴 모습은 고려시대 철불과 유사성을 보이는데 특히 서산 보원사지 출토로 전해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조여래좌상이라든지 강원도 원주 출토 철조여래좌상에서 좀 더 엄격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각 팔에 장식된 팔찌, 팔뚝지, 중간팔찌 그리고 화려한 꽃문양으로 장식된 보관, 물방울 모양의 장식 등은 고려전기-중기 보살상에 보이는 특징들이다.

현재 홍천사 천수관음상의 지물은 대부분 거의 없어졌으며 오른손에 소라 法螺手, 왼손에는 宮殿手, 金輪手, 蓮花手, 軍持手, 如意珠手, 寶經手 정도가 확인된다. 그런데 언젠가 수리가 이루어진 듯 손에 든 지물이나 손의 위치가 이전의 사진과는 다르며 이는 육안으로 판명된다. 특히 금강령의 위치는 지금 보다 하나 위에 위치하였으며, 금강령의 모습도 똑 같지 않으며, 연화가지도 이전의 사진에서는 없는 지물이다. 현재 중간이 부러진 손도 이전의 사진에서는 없어 다시 만들어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른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 소라를 든 팔 밑에는 현재 두 개의 팔이 있지만 이전의 사진에는 한 개만 남아 있다. 이는 계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데 유난히 가는 팔과 천수관음의 특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천수관음상은 X-ray 촬영 결과를 보면 몸통과 각 팔 마다 철심이 있어 내형도의 원형 제작 과정에서 철심과 흙으로 뼈대를 만든 다음 밀납으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 개금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며, 보수에 의한 팔 역시 안 좋은 상태이다.

○ 천수관음 관련 기록

천수관음상에 대한 기록은 사찰에 있는 현판 2건과 1929년과 1937년에 찍은 유

리원판 사진이 남아 있다. 현판은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懸板(1891년 추정)>과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懸板(1898년 추정)>으로 1891년과 1898년경에 각각 상궁 및 일반신도들에 의해 시주 및 개금불사가 이루어진 내용이다. 현판에는 상의 봉안처를 삼각산 흥천사로 명시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흥천사에서 <천수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하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자료 1)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24×31.7cm)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文百兩」未壹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文百兩」辛卯三月日」化主釋暎曇」大房重修時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百兩」米①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百兩」米一石」乙酉四月日化主釋暎曇」冥府殿重建時大施主」醢醬與饌著等物亦」獻納」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文一千兩」米二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文一千兩」甲午二月十八日始役五月十五日終役化主暎曇」

(자료 2)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42×26cm)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信士壬申生趙龍鎬」信女辛巳生崔喆珠」長子己亥生趙益求」次子甲辰生趙孝鎭」化主金曉星」庚戌年十月十五日」

현재 극락보전에 걸려 있는 첫 번째 현판 기록의 내용은 42수 관음보살상의 佛糧시주를 비롯하여 대방 중수(乙酉년), 명부전 중건(甲午, 1894)에 시주한 명단을 적은 것이다. 42수관음상의 불량시주는 辛卯년으로 1891년경으로 추정된다. 화주는 흥천사의 스님으로 추정되는 영운, 시주자는 상궁 홍경심화, 상궁 이자인화이다. 관음보살상에 대해 각기 100량씩 돈을 내어 시주하였다는 기록으로 구체적인 물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상궁 홍경심화와 이자인화는 관음상과 대방, 명부전 중건에 각기 문 1200석을 내 놓았으며 쌀도 각기 3석이상과 1석을 내는 등 흥천사 불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화주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현판에 적힌 42수관음상을 개금한 시주질이다. 김효성이 화주가 되어 임신생 조용호와 부인, 아들, 딸 4 등 가족이 주체가 되어 경술년 10월 15일 개금한 내용이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19세기에는 흥천사에 천수관음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중요성과 신앙 형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천수관음상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리원판 사진과 독일 안드레 에카르트(Ander Eckardt, 1884-1971)의 『조선미술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1929)에 수록된 사진자료를 통해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홍천사는 조선시대에 조선전기 선교양종으로 통합되면서 홍천사는 태조의 비, 신덕왕후의 추복을 위한 능침사찰로서 1396년 창건되었으며 이후 선종의 본산이 된다. 이후 1504년(연산군10)에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1669년(현종19) 정릉이 중수되면서 인근 신흥사를 정릉의 원찰로 삼았으나 1709(정조18)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그리고 1865년 대원군의 후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즉 현판기록에 보이는 상공들은 대원군의 중창 이후 왕실사찰로서 불사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고려말 이전에 제작되었을 이 천수관음상이 언제 홍천사로 이안되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선종의 본산이자 관음도량의 성격이 높았던 홍천사에 다른 사찰에 있었던 관음상이 이안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19세기에는 불상을 새롭게 제작하기 보다 상공들에 의해 다른 사찰로 이안되어 봉안된 사례들이 많았던 시기였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배경 속에서 현재 홍천사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현 상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興天寺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42수 중 각 손의 지물은 대부분 유실되어 오른쪽 손의 소라를 비롯하여 왼쪽 손의 궁전, 법륜, 연화, 정병, 금강령, 보주, 경전 등 몇 종류만 남아 있음.

각 팔의 이음새 및 개금 등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조성의 목조아미타불좌상과 함께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으로 높은 관을 쓴 채 합장하고 앉아 있는 本體와 몸에 이어 붙인 42수의 팔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는 대칭을 이루었을 것으로 계속된 보수에 따라 이어 붙인 부분이 거칠고 팔의 길이와 굵기도 일정하지 않아 대칭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성이 결여된 손의 형태와 유난히 기다랗게 표현된 손가락으로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하나 多臂觀音像으로서의 신비로움과 강인함이 함께 느껴진다.

많은 팔에 비해 허리가 잘록하니 가냘픈 신체를 하고 무릎의 높이가 낮아져 안정감은 다소 떨어져 보이지만,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에 근엄하고 강한 표정의 얼굴 모습과 가슴 앞에 모아서 합장하고 있는 두 손을 큼직하게 나타내고 하복부를 볼록하게 표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힘이 넘쳐나 보이며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렇듯 뺨이 팽만하여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엄격하면서도 강인한 표정을 하는 얼굴 모습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고려시대 철조佛像 및 철조佛頭에서도 유사성을 볼 수 있어 그 흐름이 짐작된다. 또한 제공된 X-ray 촬영 사진에 몸통과

각 팔의 연결부위마다 남아 있는 철심의 흔적과 상 내부에 남아 있는 회색 조형토로 보아 철심과 흙으로 뼈대를 만들고 밀랍주조법으로 조성하였음이 짐작되며, 이러한 내용들은 금동불상이 많이 조성되는 고려 말 조선 전반기 상황과도 연결되어 흥천사 천수관음보살상의 조성시기를 고려 말 조선 초로 가늠케 하는 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 외에도 이 관음상의 조성시기를 고려 말 조선 초기로 추정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신체와 각 팔에 장식된 영락장식과 화려한 문양이 투각된 원통형 보관, 사각형적인 얼굴 형태에 길게 치켜 올라간 가는 눈과 굳게 다문 입을 하여 근엄한 듯 강인한 느낌을 주는 얼굴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신체에 장엄되어 있는 화려하고 정교한 영락장식은 고려 전기 부터 이어져와 조선 초기까지 나타나는 특징들로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천수관음상의 조성시기를 말해주는 「불상조성기」 「개금중 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간접적인 자료로서 사중에 전해오는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와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현관 2건과,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리원관(1937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십일면천수관음보살상 및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의 천수관음보살상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흥천사 관음상과 형태적 측면에서 가장 친연성을 보이는 고려말 조선 초 추정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천수관음보살상의 경우는 흥천사 상과 비교해 보아, 보다 곡선적인 신체 표현에 영락장식이 간단해지고 42수가 비교적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상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관 2건과 최근 공개된 유리 원관 사진은 관음상의 조성시기와는 상관없는 자료로서 늦어도 19세기부터는 천수관음상이 흥천사에 봉안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특히 1894년명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현관과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2건은 계속된 보수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천수관음상 조성과는 관계없는 중수 시의 시주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

○ 현 상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興天寺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천수관음신앙이 성행하였던 점에 비하면 매우 드물게 유존한 불상이다. 42개의 팔을 갖고 있는 ‘사십이수관음보살’이지만, 일부 훼손되거나 유실된 팔은 보수되어 있다. 각 손마다 지물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대부분의 지물은 유실되고 일부만 남겨져 있다. 보살은 하반신에 균의를 착용하고 몸에는 천의를 걸쳤으며, 가슴, 복부, 하반신 등 온몸에는 영락으로 감싸고 있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전반적으로 세장한 신체를 갖고 있으며 하반신 폭에 비하여 상반신의 길이가 길지만, 상반신 양옆으로 뻗어나간 팔들로 인하여 상반신의 길이가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안정감을 주고 있다. 상반신 좌우로 뻗어나간 팔들은 전면, 중간면, 후면 등 세 겹으로 배치되어 있어 단조롭지 않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은 발제보다 턱의 폭이 약간 넓은 편이며, 폭보다 길이가 긴 편이다. 뺨과 턱에 양감이 드러나 있는 얼굴에는 인중 폭이 매우 넓고 상하 대칭형의 입은 매우 특이하다.

전면을 감싸는 영락장식은 고려시대 13-14세기의 보살상으로부터 조선 초기 15세기의 보살상에 이르기까지 많이 나타나는 방식으로서 이 보살상의 연대 추정에도움을 준다.

이 보살상과 관련된 문헌기록 2건이 전한다.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기록은 1894년의 기록으로 추정되고,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은 재질이나 구성으로 보아 1910년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록으로 보아, 보살상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의식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조선 말기까지 보살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지속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1894년, 나무, 24×31.7, 1점, 극락보전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 錢文百兩

米壹石

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 錢文百兩

辛卯三月 日 化主釋暎曇

大房重修時 施主

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 錢百兩

米□石

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 錢百兩

米一石

乙酉四月 日 化主釋暎曇

冥府殿重建時大施主 醢醬與饌著等物亦

獻納

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 文一千兩

米二石

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 文一千兩
甲午二月十八日始役五月十五日終役化主暎曇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

조선말~근대, 나무, 42×26, 1점, 수장고

四

十 改 信士 壬申生 趙龍鎬

二 金 信女 辛巳生 崔喆珠

手 長子 己亥生 趙益求

觀 施 次子 甲辰生 趙孝鎭

音 主 化主 金曉星

像 庚戌年十月十五日

□

○ 조사내용

홍천사 천수관음보살상은 얼굴이 하나이고 42개의 손과 팔을 가진 이른바 1면 42수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다. 특히 장신의 긴 도상특징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레한 대표적 조선 초기 보살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홍천사 42수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은 고려말 조선초기 불상들에서 유래해서 조선 초기인 1450년경의 티벳계 명양식 불상들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원류는 1330년대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등에 있지만 어느 정도 가까운 상들은 고려말 조선초 양식인 1395년(조성 또는 중수) 장륙사 건칠보살상이나 1477년 중수의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상 등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길고 세장한 관과, 얼굴, 신체, 손과 손가락은 물론 삼각형 상체, 잘쭈ken 허리 등은 조선초기의 티벳계 명양식 금동불상들과 가장 친연성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450년 금강산출토 통도사 금은아미타삼존상, 1451년 금강산 은정골 금동아미타삼존상, 최근 출현한 금강산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등이 이 관음보살상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1451년 작 금강산 은정골 금동아미타삼존상 가운데 관음보살상과 상당히 유사한 편이다. 줄기형의 높은 관, 긴 얼굴, 입가의 개성적 표현, 삼각형 가슴과 잘쭈ken 허리, 크고 긴 손, 영락장식 등에서 같은 계열의 도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 자체의 구도, 형태, 양감 등도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42수관음보살상은 1450년 전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려말의 특징도 일부 있지만, 세장한 세부도상과 함께 긴 상체와 잘쭈ken 허리, 화려하고 번잡하기까지 한 독특한 영락장식 등은 다른 시대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대적 특징이며, 특히 티벳계 명양식 계통의 불상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특징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물론 1407년 상왕산 출토 금동아미타불상에서도 유사한 도상특징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1468년의 매곡동 석탑금동아미타여래삼존상 특히 관음보살상이나 심곡사 탑불보살상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1450년 경의 불보살상과 가장 친연성이 많아 1450년 경 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세종32년(1449년 1월 22일)에 세종이 병이 나자 흥천사에 관음정근을 베풀었다는 기록이나 1462년(세조8년)에 국가와 세자를 위하여 여래상과 관음상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과 연계된 천수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보고서(1차)

□

1) 명문 및 특기사항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懸板, 1894년, 나무, 24×31.7, 1점, 극락보전
 <銘文>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文百兩」未壹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文百兩」辛卯三月日」化主釋暎曇」大房重修時施主」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錢百兩」米①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錢百兩」米一石」乙酉四月日化主釋暎曇」冥府殿重建時大施主」醢醬與饌著等物亦」獻納」尙宮淸信女丙申生洪氏敬心華文一千兩」米二石」尙宮淸信女辛丑生李氏慈仁華文一千兩」甲午二月十八日始役五月十五日終役化主暎曇」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 懸板, 조선말~근대, 나무, 42×26, 1점, 수장고

<銘文>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信士壬申生趙龍鎬」信女辛巳生崔喆珠」長子己亥生趙益求」次子甲辰生趙孝鎭」化主金曉星」庚戌年十月十五日」

2) 조사내용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흥천사 극락보전에는 42개의 팔을 지닌 천수관음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상은 우리나라에는 남아있는 예가 매우 드문 금동으로 제작된 천수관음상으로, 각 손에 자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물은 유실되어 몇 개만 남아있다.

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몸에 천의를 걸쳤으며, 상체에 비해 무릎의 높이가 낮고 허리 부분이 긴 신체비례를 보인다.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른 상체에 비해 배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표현되었다. 얇은 천의는 신체에 밀착해 있으며, 목에는 영락장식과 함께 전신에 걸쳐 장신구가 확인된다. 장신구는 긴 줄 형태로 전신에 드리워졌는데, 중간에 부분적으로 타원 형태의 장식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추

가되어 나타난다. 상호는 방형에 가까운데, 양쪽 광대뼈 부분에 양감이 드러난다. 원형의 백호와 함께 눈썹 윗부분에서 깊게 파인 선으로 연결된 코는 윗부분이 평평한 모습이고, 입술은 상호에 비해 작은 편으로 인중 부분이 강조되었다. 턱 아래쪽으로는 한 줄 음각선을 넣어 양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게는 높은 편이다.

이 상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각 내부에 남아있는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의 두 현관기록을 통해 적어도 19세기에는 이미 흥천사에서 봉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관 기록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미술사(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1929)에서도 흑백사진을 통해 흥천사 천수관음보살좌상의 존재가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리원판(1937년) 자료에서도 극락보전에 봉안된 천수관음보살좌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천수관음보살상으로는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상이 몇 구 남아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천수관음상과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 소장의 금동천수관음상이 현존하는 예이다. 이외에도 1322년에 작성된 천수관음주성원문이 남아있으며, 1343년에 장안사 선실에 천수천안관음을 안치했다는 기록이 「금강산장안사중흥비」에도 전한다.

□

흥천사는 1396년에 태조가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사찰이다. 이후 태종은 1409년 정릉을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장하고, 석축들은 명나라 사신들의 숙소인 태평관과 청계천 광평교 보수에 사용하였다. 연산군 10년(1504)에는 태조의 명에 의해 건립한 사리각을 제외한 모든 당우가 불에 탔으며, 중종 5년(1515년)에는 유생들에 의해 사리각까지 완전히 소실되었다. 현종 19년(1699)에는 송시열(宋時烈, 607~1689)의 건의로 정릉을 중수하고 인근에 있는 신흥암을 신흥사로 바꿔 정릉의 원찰로 삼았으며, 정조 18년(1794년)에 비로소 현재의 자리로 사찰을 이건하였다. 고종 2년(1865)에는 대원군의 지원으로 크게 중창하여 다시 寺名을 興天寺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흥천사는 창건 이래 관음신앙과 관련 깊은 도량이었다. 태조의 명에 의해 건립한 사리각에도 관음과 지장보살상을 봉안하였고, 세종 23년(1441)과 32년(1450)에는 도승지 이사철에게 명하여 관음정근을 베풀었다고 한다. 1943년에 발간된 「봉은사본말사지」 흥천사조에도 “흥천사는 중간에 신앙상으로 관음도량으로 일컬은 적도 있으나, 본래는 선종도량이다”라고 기록하여 흥천사가 관음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금동천수관음상이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부합하는 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전통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흥천사의 주불전인 극락전에는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극락전은 철종4(1853)년에 건립한 것인데, 현재 봉안된 삼존상은 각기 다른 양식적 특징과 시기성을 가지고 있어

모두 다른 곳에서 移安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아미타불상의 좌측에 봉안되어 있고, 천수관음보살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1894년에 작성된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音菩薩佛糧施主」 현판이다. 이때 尙宮 洪敬心華는 錢文百兩과 米壹石을, 尙宮 李慈仁華는 錢文百兩을 佛糧施主하였다. 이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 불량시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불량시주는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을 말하는 것으로 불상 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같은 현판에 불량시주 다음에 기록된 대방과 명부전의 경우 중수와 중건 등 불사 목적을 분명히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京畿右道楊洲牧地三角山興天寺寮舍重勸記文」과 「漢陽東三角山新興寺極樂寶殿重建丹青施主」 현판에는 1867년에 법당 삼존불상을 개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주법당 건립 후 얼마 있지 않아 삼존불상에 대해서도 개금불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수관음상이 불량시주가 있기 이전부터 극락전 삼존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33년 1월 24일자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흥천사 귀중품 중 하나로 철제도금 관음보살상이 고시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철제도금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에 관음보살상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천수관음신앙은 통일신라 초에 관련경전이 수용된 이후 천수관음 신앙이 널리 성행하였고, 이에 따른 천수관음상의 조성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널리 유행했던 천수관음 신앙에 비해 현존하는 천수관음상은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에서의 천수관음 신앙은 천수관음상 자체보다 천수다라니 자체를 신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각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금동 11면천수관음보살상, 파리 국립기메동양미술관 금동천수관음보살상, 그리고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상 정도가 알려져 있고, 그림으로는 호암미술관에 1폭이 전한다. 천수관음상은 보통 11면 40비 또는 11면 42비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면 42비로 표현된 경우도 많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1면 32비로 제작되었고, 서울 흥천사와 프랑스 기메박물관의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1면 42비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천수관음상의 소의경전은 『千眼千臂觀世音菩薩陀羅尼神呪經』(智通 譯),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唐 蘇縛羅釋), 『千手千眼觀世音菩薩娑陀羅尼身經』(菩提流志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悲心陀羅尼』(不空 譯), 『金剛頂瑜伽千手千眼觀自在菩薩修行儀軌經』(不空 譯),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伽梵達摩 譯)등이다. 『千光眼觀自在菩薩秘密法經』(唐 蘇縛羅釋)에는 천수관음상의 특징과 지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불상이나 불화로 표현될 때는 지물의 위치나 순서 등이 경전의 내용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흥천사 관음보살상은 금속판을 투각한 보관을 쓰고 있고, 보관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고 수직에 가깝다. 머리와 닿는 보관의 둥근 테두리에는 聯珠文을 돌렸다. 보관의 정면과 뒷면에는 꽃잎모양의 장식판을 세우고, 그 둘레에는 줄기가 굵은 당초문과 활짝 핀 연꽃 무늬를 투각하였다. 꽃잎모양의 입식 장식판 안에는 半葉의 화문을 두었고 그 안에 다시

3개의 圓文을 삼각형이 되도록 배열하여 三寶文을 이루도록 하였다. 꽃모양의 장식판 위에는 활짝 핀 연꽃을 다시 올리고, 그 위에 다시 鳥翼形 冠飾을 펼쳐 장엄하였다. 새날개 모양의 관식의 중앙과 좌우로 펼쳐진 날개의 윗면에는 둥근 구슬을 올려놓았다. 귀 뒤로는 짧게 드리운 관대가 표현되었다. 짧게 드리운 관대와 조익형 관식의 보관은 고려 후기에 제작된 수월관음도(日本 東光寺)나 제석천도(日本 光澤院), 그리고 고려 후기 사경 변상도에 나타나는 보살상의 보관 장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조익형의 관식은 보수성이 짙은 불화에서는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조각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다가 근대기에 조성된 수덕사 정혜사 보살상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모티프는 동일한 것에서 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형태나 표현 방식에서 분명한 시대적 차이가 있다.

머리의 중앙에는 모양의 다섯 개의 능을 가진 보계가 솟아 있는데, 적절한 높이의 5능형 보계는 여말선초기에 보이는 보살상의 보계들과 비교된다. 보관 아래로는 세밀하게 빗질한 寶髮이 표현되었고, 구렛나루를 타고 내린 한 가닥의 머리카락은 귀를 가로질러 어깨 위로 드리워졌다. 보계는 보살상의 얼굴형은 가름하나 눈썹 끝의 경사가 급하면서 날카롭고 가늘게 뜬 눈매는 치켜 올렸으며 광대뼈를 드러내고 열린 미소를 의도하며 입 주변을 움푹 파내었으나, 오히려 의도와 달리 전체적인 인상은 추상적이다. 이러한 사실성에 기반하지 않은 추상적인 얼굴과 과장스러운 만큼 잘록한 허리, 연약한 팔 등은 보는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이나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좌상,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청동 빈두루존자상, 고려 개포동 마애보살좌상 등 고려 전·중기 다양하게 등장하는 불상 양식의 한 계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보살상에서 보이는 특징은 양 귀밑에서부터 U자형으로 길게 늘어진 끈 모양의 장식, 치마를 2번에 걸쳐 묶어 매듭지은 띠자락, 그리고 전신에 걸쳐 표현된 고리모양의 영락장식이다. 우선 양귀 밑에서부터 흘러내린 U자형의 띠 장식은 중국 中唐 시기에 그려진 돈황 제159窟 문수·보현도살도에서 같은 장식이 이미 확인되며, 이는 돈황 오대벽화에서도 이어져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성 관음굴 석조관음보살상을 비롯하여 무량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 등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매우 드물다. 그러나 고려 불화에서는 1294년작 일본 묘만지(妙滿寺) 미륵하생경변상도를 비롯하여 1350년작 신노인(親王院) 미륵하생경변상도의 협시보살상, 그리고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아미타삼존도 중 대세지보살상, 프랑스 기메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보살도 등 고려 후기에 제작된 불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조선 초기에 제작된 일본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 관음보살도에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한정된 시기 조각과 불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치마를 묶어 내린 띠를 다시 한 번 더 묶은 매듭은 논산 개태사지 석조보살입상, 감지금니 대보적경 변상도(1006年刊, 日本文化廳), 당진 영탑사 금동비로자나불상의 협시상, 日本 야마구찌현(山口縣) 金銅菩薩立像,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입상,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발견 금동보살좌상 등 고려시대 작품에서 확인된다. 이외 가슴에 고리 모양의 영락장식은 일본 야마구찌현 金銅菩薩立像, 당진 영탑사 금동

비로자나불삼존좌상, 부여 무량사 금동보살좌상 등 고려시대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 보살상에서 보이는 추상적인 얼굴과 잘록하게 허리, 꽃잎형의 입식과 조익형 관식으로 이루어진 보관, 머릿결을 표현한 多稜形의 보계, 고리모양의 영락장식과 U자형의 끈 장식, 2번에 걸쳐 묶은 치마 매듭 등은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제작된 작품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상의 제작 시기도 이르면 고려 전기, 늦어도 조선 초기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편년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 시기의 폭을 넓게 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제작된 천수관음보살상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상은 다소 추상적인 조형성을 갖추고 있는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의 보기 드문 예로서 천수관음 도상 및 신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인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지물이 남아 있어 어느 시점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보이는 거친 주물 상태나 인위적으로 긁어낸 흔적 등은 지정에 앞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宋殷碩, 「高麗 千手觀音圖 圖像에 對하여」,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 4, 1999
김정희, 「한국의 千手觀音 信仰과 千手觀音도」, 『淨土學研究』 17, 한국정토학회, 2012

□

우리나라에서 천수관음에 대한 신앙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성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분황사 ‘左殿’의 북쪽벽에 그려져 있던 千手大悲[천수관음]가 영험하여 어린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가 『三國遺事』(권3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에 전하고 있다.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도록 천수관음에 대한 신앙이 이어져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고려후기에 천수관음상 조성에 관한 여러 기록이 전해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천수관음상은 회화 한 점뿐이며(삼성리움미술관 소장), 조각으로는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작품으로는 흥천사 천수관음상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천수관음보살상, 파리 기메동양미술관 소장의 금동천수관음보살상의 3점이 전한다.

흥천사의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뒷면의 등판 좌우에 팔을 이어붙인 부분이 거칠고 부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팔의 길이와 굵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길게 조각된 손의 형태에서도 사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기에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보통 천수관음상은 많은 팔 때문에 몸체와 팔들을 따로 제작하여 조립하기도 하는데, 흥천사 천수관음상은 가는 몸통에 달린 팔들의 무게 때문에 일부가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갔던 듯하다.

그렇지만 보살상 자체는 뛰어난 요소를 보인다. 細長한 신체 위에 표현된 정교한 영락장식, 화려한 문양이 투각된 원통형의 보관, 보발의 가닥이 섬세하게 새겨진 보계, 세속적이면서도 신령스러운 얼굴, 착의형식 등에서 판단할 때, 고려 중·후기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조선전기의 조각으로 생각된다. 다만, 홍천사 천수관음상의 내부에 남아있는 회색의 조형도와 거친 주조 상태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다른 금동상의 상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불교조각 재료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전기에는 금동상들이 비교적 많이 제작되어 서울 보타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해남 대흥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은혜사 운부암 금동관음보살좌상, 남양주 수종사 석탑출토 금동불감과 여래좌상 등 비교적 여러 작품이 전하고 있는 반면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부터는 목조와 소조, 석조(경주불석)의 상들이 불교조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금동상의 주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천사는 1396년 신덕왕후의 추복을 위해 창건되어 연산군 10년(1504)에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현종 19년(1669)에 정릉이 중수되면서 인근 신흥사를 정릉의 원찰로 삼았으나, 이후 다시 정조 18년(1709)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었는데, 고종 2년(1865)에는 대원군의 후원으로 대대적으로 중창되었다. 이와 같은 홍천사의 변천에서 미루어 볼 때, 홍천사 천수관음상은 원래부터 홍천사에 봉안되었던 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필시 서울·경기 일대의 다른 사찰에 있던 상을 홍천사로 옮겨 봉안하여 개금과 보수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재 전해오는 『三角山興天寺四十二手觀世音菩薩佛糧施主』와 『四十二手觀音像改金施主』의 현판기록은 19세기에 이 천수관음상의 개금과 보수, 그에 따른 공양불사가 베풀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익재난고 권6~7(益齋亂藁 卷六~七)

가. 검토사항

‘익재난고 권6~7’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익재난고 권6~7’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익재난고 권6~7(益齋亂藁 卷六~七)
- 소유자(관리자):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수 량: 2권1책
- 규격(cm): 세로 24.6(17.6) × 가로 16.1(12.6)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32년(세종 14)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대표적인 문신이며 학자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詩文集으로 全10卷이다.

이 문집은 저자의 77세 때인 恭愍王 12(1363)년에 저자의 차자 李彰路와 長孫 李寶林의 編輯으로 慶州에서 처음 刊行하였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그후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 간행된 것은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학사들의 교정과繕寫를 거쳐 1432년에 江原監營(原州)에서 「櫟翁稗說」 등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 조사대상본은 그 중의 2권(권6-7) 1책의 零本이다.

이 중간본의 국내 傳本은 조사대상본과 李謙魯의 山氣文庫에 零本(권9-10)이 남아있는 정도로 전본이 희귀하다. 국외에는 일본 蓬左文庫에 일부가 전한다.

이 판본의 특징은 조선이 開國한지 40년이 지난 후임에도 고려의 국왕과 元의 천자를 높이기 위한 改行과 間字의 방식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본의 문집에서 자주 보이는 行草가 여전히 혼용되고 있고 같은 자가 반복될때에 쓰이는 기호인 ‘ 〃 ’표도 자주 쓰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전기의 한문학연구는 물론 당시의 출판문화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본 『익재난고(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익재(益齋) 이 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문집으로 10권본 가운데 권6과 권7 2권에 해당한다.

조사본 『익재난고』는 1432년(세종 14)에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에서 『역옹패설(櫟翁稗說)』과 함께 간행된 것으로서, 국내에는 조사본 외에 이겸로(李謙魯)의 산기문고(山氣文庫)에 소장된 권9~10 등 잔본(殘本)만이 전래되고 있다.

조사본 『익재난고』는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서,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전래본이 드문 판본(板本)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詩文集으로 10卷本이다.

調査本 「益齋亂藁」는 세종 14(1432)년에 「櫟翁稗說」과 마찬가지로 集賢殿 관리의 校正과 繕寫를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櫟翁稗說」과 함께 「益齋集」으로 10行17字로 간행된 重刊된 善本이나, 完本은 전래되지 않고 다만 국내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권6~7)과 李謙魯의 山氣文庫(권9~10)에 殘本이 傳來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의 蓬左文庫에 일부 전래되고 있을 뿐이다.

조사본 「益齋亂藁」는 益齋의 「櫟翁稗說」과 함께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으로, 漢文學과 書誌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益齋亂藁」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

□ 書誌事項 :

益齋亂藁. 卷6~7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2(1432) 重刊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17.6×12.6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4.6×16.1cm. 楮紙. 線裝.

表 題: 益齋集

板心題: 亂藁

內 容:

-卷6.

書 3수

在大都上中書都堂書

上白住丞相書

同崔松坡贈元郎中書

記 6수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重修開國律寺記

重修乾洞禪寺記

白華禪院政堂樓記

雲錦樓記

妙蓮寺石池竈記

碑 1수

妙蓮寺中興碑

-卷7

碑銘

有元高麗國清平山文殊寺施藏經碑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祐)祠堂碑
 大都南城興福寺碣
 海東曹溪山修禪寺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諡慧鑑國師碑銘并序
 王順妃許氏墓誌銘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誠之)墓誌銘并序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益禧)墓誌銘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
 權公(溥)墓誌銘
 壁上三韓三重大匡彥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倫)墓誌銘并序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兆年)墓誌銘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文度)墓誌銘
 金文英公(恂)夫人許氏墓誌銘并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并序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并序

刊 記: 조사본에는 卷7의 말미에 수록된 저자의 장모인 <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 다음에 別行으로 ‘至正四(1344)年九月日刊’이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수록된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并序>의 내용 중에 ‘至正十年(1350)十月壬寅卒’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344년이 이 책의 간년은 아니다. 卞韓國夫人柳氏는 지정 4년 8월에 죽어서(至正四年甲申八月 感疾 壬戌薨) 그해 9월에 장사지낸 것으로 보아(九月甲辰 窆于德水縣鉢松原之北) 저자가 장모의 묘지명을 새긴 년도로 추정된다.

李穡의 益齋亂藁序에 의하면 저자의 문집이 처음 판각된 것은 저자 77세시인 1363년(공민왕12년)에 아들 李彰路와 손자 李寶林에 의하여 편찬 간행되었다. 계명대본은 조선 세종14년(1432)에 왕명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인출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상 태 : 표지는 개장되었고, 본문의 각장은 얇은 저지로 배접하였으나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특히 권6의 妙蓮寺石池竈記의 끝부분에서 妙蓮寺中興碑의 첫 부분까지의 1장과 증흥비의 뒷부분 2장 분량, 모두 3장의 낙장이 있다.

○ 현 상

전 10권 중 권6-7의 2권 1책의 零本이며, 권6에 3장 분량의 낙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대표적인 문신이며 학자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詩文集으로 全10卷이다. 조사대상본은 그 중의 2권(권6-7) 1책의 零本이다. 조사대상본의 권6에는 1323년(충숙왕 10) 都堂에 올린 글을 비롯하여 2편의 書와 6편의 記文, 그리고 妙蓮寺를 重興한 내력을 적은 비문 1편이 실려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장의 낙장이 있다.)

권7에는 方祐·崔誠之·羅益禧·權溥(저자의 장인)·金倫·李兆年·崔文度·金恂과 저자의 장모인 卞韓國夫人柳氏 등의 碑銘과 묘지명 등 15편이 실려 있다.

이 문집은 저자의 77세 때인 恭愍王 12(1363)년에 저자의 차자 李彰路와 長孫 李寶林의 編輯으로 慶州에서 처음 刊行하였다. 저자 생존 당시에도 이미 일실된 원고가 많았으므로 서명을 ‘亂藁’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초간본은 전래되지 않는다. 목은 이색이 쓴 ‘益齋先生亂藁序’(1363)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선에 들어와서 처음 간행된 「益齋亂藁」는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학사들의 교정을 거쳐 1432년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櫟翁稗說」 등과 함께 간행한 것이다. 이 중간본의 국내 傳本은 조사대상본과 李謙魯의 山氣文庫에 零本(권 9-10)이 남아있다. 국외에는 일본 蓬左文庫에 일부가 전한다. 이 판본의 간행과정은 金鑣이 쓴 ‘櫟翁稗說跋’(1432년)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역용패설과 함께 간행한 관계로 익재난고에는 따로 김빈의 발이 붙어있지 않다.

이 판본의 특징은 조선이 開國한지 40년이 지난 후임에도 고려의 국왕과 元의 천자를 높이기 위한 改行과 間字의 방식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본의 문집에서 자주 보이는 行草가 여전히 나타나 있고 같은 자가 반복될때에 쓰이는 기호인 ‘ 〃 ’표가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전기의 한문학연구는 물론 출판문화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익재난고(益齋亂藁)』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 櫟翁稗說跋文: 高麗益齋公 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 名爲亂藁 雜記時事謂之稗說 非徒詞旨典雅 前朝上下五百季之跡 大略可見 實與麗史相爲表裏者也 刊行既久 未免缺誤 宣德六年夏 殿下命文臣 釐正繕寫刊行于江原道之原州 惟公道德之高 功業之盛 後輩 所欽慕而未及見 獨其英華之流及後世者 唯文章是賴耳

學者聞其風 誦其詩 必有興起者矣 此集幾至湮晦 而特命重梓 以壽其傳 我殿下尊德右文之美 猗歟盛哉 歲宣德壬子(1432)秋 七月日 朝奉大夫集賢殿應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 臣金 鑣 奉教敬跋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 동해제(www.itkc.or.kr)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書誌事項

益齋亂藁. 卷6~7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2(1432) 重刊 推定].

2卷1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17.6×12.6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4.6×16.1cm.

表 題: 益齋集

板心題: 亂藁

內 容: 卷6. 書·記(在大都上中書都堂書, 上白住丞相書, 同崔松坡贈元郎中書,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重修開國律寺記, 重修乾洞禪寺記, 白華禪院政堂樓記, 雲錦樓記, 妙蓮寺石池竈記).

卷7. 碑銘(有元高麗國清平山文殊寺施藏經碑,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大都南城興福寺碣, 海東曹溪山修禪寺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諡慧鑑國師碑銘并序,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并序, 王順妃許氏墓誌銘,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墓誌銘并序,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墓誌銘,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墓誌銘, 壁上三韓三重大匡彥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墓誌銘并序,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金文英公夫人許氏墓誌銘并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并序,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并序)

刊 記: 至正四年九月日刊

○ 현 상

조사본 『익재난고(益齋亂藁)』는 계명대학교가 2010년 11월에 안동 소재의 고서점 안동민속당(安東民俗堂, 대표 임동걸)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계명대학교(啓明大學校) 동산도서관(童山圖書館) 고문헌실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익재난고』는 현재 표지는 개장되었고, 전 책에 걸쳐 판심(版心)이 분

리된 장이 상당수 보이는 등 빠른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본문을 보면 현재 각장의 이면(裏面)에 얇은 종이를 덧대고 참고가 될 만한 여러 사항을 전사(轉寫)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필사되었던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익재난고』는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인 익재(益齋) 이체현(李齊賢, 1287~1367)의 시문집으로 10권본 가운데 권6과 권7 2권에 해당한다.



표지



권6 권두

『익재난고』 10권은 권1~4에 시, 권5에 서(序), 권6에 서(書)와 비(碑), 권7에 비명(碑銘), 권8에 표(表), 권9는 상·하로 나누어 상에는 세가(世家), 하에는 사찬(史贊)과 서(序)·책문(策問)·논(論)·송(頌), 권10에는 장단구(長短句)·무산일단운(巫山一段雲)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1363년(공민왕 12)에 익재 선생의 아들인 이창로(李彰路)와 장손 이보림(李寶林)에 의해 경주에서 초간본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현전하지 않는다.

중간본은 1432년(세종 14)에 집현전의 교정을 거쳐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에서 『역옹패설(櫟翁稗說)』과 함께 간행되었는데 이에선 이색(李穡)의 서문과 김빈(金鎭)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 판본은 현재 계명대학교에 소장된 조사본 『익재난고』 권6~7과 이겸로(李謙魯)의 산기문고(山氣文庫)에 소장된 권9~10 등 잔본(殘本)이 전래되고 있다.

삼간본(三刊本)은 1600년(선조 33)에 익재의 11대손인 경주부윤 이시발(李時發)에 의하여 이미 간행된 『익재난고』와 『역옹패설』을 수교(讎校)하고, 빠진 시문을 집록(輯錄)하고 습유(拾遺)를 붙여 경주에서 10행 18자의 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에선 이색의 서문과 1600년(선조 33) 작성된 이시발의 지문(識文)이 수록되

었다. 또한 후대의 간본을 통해서 볼 때 류성룡(柳成龍)의 「익재선생문집발(益齋先生文集跋)」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간본(四刊本)은 1693년(숙종 19)년에 허경(許穎)에 의하여 경주부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이색의 서문, 류성룡의 발문, 이시발의 지문, 김빈의 발문이 수록되었고, 허경의 「익재선생문집 중간 지(益齋先生文集重刊識)」, 임상원(任相元)의 「익재집 중간 서(益齋集重刊序)」 그리고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1693)正月鷄林府重刊”의 간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오간본(五刊本)은 1698년(숙종 24) 황해도관찰사 이인엽(李寅燁)에 의하여 해주에서 간행되었는데 이에 이색의 서문, 유성룡의 발문, 이시발의 지문과 함께 이인엽의 지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숙종 이후에도 여러 간본이 전한다. 1814년(순조 14) 경상도관찰사 김노응(金魯應)의 「익재선생 연보 후서(益齋先生年譜後叙)」가 수록된 경주 간행본, 1911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이인로(李仁老)의 『과한집(破閑集)』과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 등과 함께 간행한 합본, 1923년 익재의 19대손인 이규석(李圭錫)이 안동의 노림재(魯林齋)에서 간행한 연활자본 등이 있다.

조사본 『익재난고』는 고려 태조 및 역대 왕의 칭호 앞에 존경의 의미로 대두(擡頭)와 공격(空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 책에 걸쳐 판심(版心)이 분리된 장이 상당수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얇은 종이를 덧대고 참고가 될 만한 여러 사항을 전사(轉寫)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필사되었던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다.



이면



이면 첨지

한편, 권말에는 ‘至正四(1344)年九月日刊’이라는 간기가 있으나, 이는 조사본의 간행 연도가 아니라 권7의 비명 혹은 바로 앞의 내용인 「변한국부인 유씨 묘지명(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의 판각 연도로 추정된다.

조사본 『익재난고』와 동일한 판본은 현재 이점로의 산기문고(山氣文庫)에 잔본(殘本)으로 권9~10의 2권만이 전래되고 있고, 일본의 호사문고〔蓬左文庫〕에 일부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사본 『익재난고』는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서,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전래본이 드문 판본(板本)으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권말 간기

○ 지정사례

『익재난고(益齋亂藁)』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 調査本 「益齋亂藁」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益齋亂藁. 卷6~7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原州牧], [世宗 12(1432) 重刊 推定].

2卷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17.6×12.6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4.6×16.1cm. 楮紙. 線裝.

表題: 益齋集

板心題: 亂藁

內容: -卷6. 書·記(在大都上中書都堂書, 上白住丞相書, 同崔松坡贈元郎中書,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重修開國律寺記, 重修乾洞禪寺記, 白華禪院政堂樓記, 雲錦樓記, 妙蓮寺石池竈記). -卷7. 碑銘(有元高麗國清平山文殊寺施藏經碑,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

方公祠堂碑, 大都南城興福寺碣, 海東曹溪山修禪寺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諡慧鑑國師碑銘并序,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并序, 王順妃許氏墓誌銘,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君崔公墓誌銘并序,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墓誌銘,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墓誌銘, 壁上三韓三重大匡彥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墓誌銘并序,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金文英公夫人許氏墓誌銘并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并序,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并序)

刊 記: 卷7 碑銘의 마지막인 <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 다음에 行을 달리하여 “至正四(1344)年九月日刊”이 있으나, 이는 卷7의 碑銘 혹은 <卞韓國夫人柳氏墓誌銘>의 板刻年度로 추정된다.

狀 態: 卷末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假裝을 입히는 등 改裝되어 있다. 全冊 各張의 裏面에 薄紙를 덧대고 經典 등 備忘할 내용을 轉寫해 두었던 듯하나, 현재 卷末의 數張을 제외한 대다수의 薄紙는 脫락되고 書尾와 書脚에 필사되었던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所 藏: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傳來歷: 啓明大學校가 2010년 11월에 안동 소재의 고서점 安東民俗堂(대표 임동걸)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고 있다.

既指定: 無

○ 현 상

조사본 「益齋亂藁」는 계명대학교가 2010년 11월에 안동 소재의 고서점 安東民俗堂(대표 임동걸)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의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守藏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益齋亂藁」에는 全冊 各張의 裏面에 薄紙를 덧대고 經典 등 備忘할 내용을 轉寫해 두었던 듯하나, 현재 卷末의 數張을 제외한 대다수의 薄紙는 脫락되고 書尾와 書脚에 필사되었던 글씨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卷末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假裝을 입히는 등 改裝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 보존수리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益齋亂藁」는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의 詩文集으로 10卷本이다.

「益齋亂藁」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1) 恭愍王 12(1363)년에 益齋의 次子 李彰路와 長孫 李寶林의 編輯으로 慶州에서 初刊本이 刊行되었는데 당시 이미 없어진 原稿가 많아 書名을 ‘亂藁’라고 하였으며, 이 初刊本은 傳來되지 않고 있으나 後代의 刊本을 통해서 볼 때 恭愍王 12(1363)년에 쓴 牧隱 李穡의 <益齋先生亂藁序>가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세종 14(1432)년에 集賢殿의 校正을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櫟翁稗說」 등과 함께 「益齋集」으로 10行17字의 重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과 세종 14(1432)년 金鑣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重刊本도 完本은 傳來되지 않고 현재 계명대학교(권6~7)와 李謙魯의 山氣文庫(권9~10)에 殘本이 傳來되고 있을 뿐이다. (3) 선조 33(1600)년에 益齋의 11대손인 경주부윤 李時發에 의하여 舊刻의 「[益齋]亂藁」와 「[櫟翁]稗說」에 讎校를 가하고 빠진 詩文을 輯錄하고 拾遺를 붙여 慶州에서 10行18字의 三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과 선조 33(1600)년의 李時發의 識文이 수록되었으며, 후대의 刊本을 통해서 볼 때 선조 33(1600)년 柳成龍의 <益齋先生文集跋>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숙종 19(1693)년에 許頴에 의하여 慶州府에서 私刊으로 10行18字의 四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 柳成龍의 跋文, 李時發의 識文, 金鑣의 跋文이 수록되고 숙종 19(1693)년 許頴의 <益齋先生文集重刊識>, 任相元의 <益齋集重刊序>,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1693)正月鷄林府重刊”의 刊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5) 숙종 24(1698)년 黃海道觀察使 李寅燁에 의하여 海州에서 10行18字의 五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 柳成龍의 跋文, 李時發의 識文, 숙종 24(1698)년 李寅燁의 識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6) 순조 14(1814)년에는 慶州에 살던 後孫들에 의하여 10行18字의 六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慶尙道觀察使 金魯應의 <益齋先生年譜後敘>가 수록되어 있다. (7) 1923년에는 十九代孫 李圭錫가 河謙鎭의 序文을 받아 鉛活字로 安東의 魯林齋에서 七刊本을 活字로 간행하였다. (8) 1911년에는 朝鮮古書刊行會에 의하여 李仁老의 「破閑集」과 崔滋의 「補閑集」 등과 함께 合本으로 刊行되었다. (9) 1973년에는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에 의하여 1814년의 六刊本을 大本으로 「河西集」·「梅湖遺稿」 등과 함께 「高麗名賢集」으로 영인·간행되었다. (10) 1979년에는 民族文化推進會에 의하여 大東文化研究院 影印本을 大本으로 原文을 影印하고 翻譯文과 함께 合本하여 國譯叢書로 간행되었다.

「益齋亂藁」는 원래 卷1~4에 詩, 卷5에 序, 卷6에 書와 碑, 卷7에 碑銘, 卷8에 表, 卷9는 上·下로 나누어 上에는 世家, 下에는 史贊과 序·策問·論·頌, 卷10에는 長短句·巫山一段雲 등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에 나온 民族文化推進會 國譯本 「益齋

亂藁」에는 李穡의 <益齋先生亂藁序>와 任相元의 <益齋集重刊序>가 卷頭に 수록되어 있으며 柳成龍의 <益齋先生文集跋>과 李時發의 識, 金鑽의 跋, 許頴의 <益齋先生文集重刊識>, 金魯應의 <益齋先生年譜後敘>, 李圭錫의 <益齋先生文集重刊識>가 卷末에 수록되어 있다.

「益齋亂藁」에 수록된 글을 통하여 益齋가 중국에 건너가서 그곳의 文士들과 교유한 자취를 알 수 있어, 「高麗史」에서 빠져 있는 여러 가지 史料를 보충할 수 있다. 「益齋亂藁」 권1에서 권4에 실린 詩를 통하여 그의 是認으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볼 수 있는데, 그 중 권3의 <山中雪夜>는 그의 평생의 詩法이 모두 들어 있다고 일컬어진다. 金澤榮은 그의 詩를 평하여 “工妙清俊하고 萬象을 구비하여 우리나라 漢詩史上 제일의 大家”라 평하였다. 李德懋도 우리나라 2천년 이래의 名家로 추앙하였다. 徐居正의 「東人詩話」에서는 “그는 樂府詩에도 능하여 字字句句가 音律에 맞았다”고 평하였다. 「益齋亂藁」 권4에 수록되어 있는 小樂府는 高麗朝에 유행하던 우리말 가요를 樂府體로 번역한 것으로 9首가 있다. 그 중에서 口碑·傳承되다가 朝鮮朝에 이르러 訓民正音が 창제된 뒤 文字로 기록되고 정착되었다. 현재 歌詞를 전하는 高麗歌謠와 부합되는 것으로 <處容歌>·<西京別曲>·<鄭瓜亭曲>이 있다. 그러나 한 노래의 全篇을 直譯한 것이 아니고 본래 歌謠가 지닌 정서를 살려 意譯한 것인데, <處容歌>의 경우는 신라의 鄉歌 및 「高麗史」 高麗俗樂 <處容歌>의 일부와 背景說話를 참작하여 意譯한 것이다. 「益齋亂藁」 小樂府의 <長巖歌>·<居士戀>·<濟危寶>·<沙里花>·<少年行>·<五冠山>은 原歌의 歌詞가 전하지 않으나, 이 小樂府를 통하여 原歌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9首의 小樂府에 이어서 樂府詩 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社主와 妓女와의 사랑을 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耽羅島 사람들의 불평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益齋亂藁」 권10의 長短句는 益齋의 詞文學의 면모를 과시한 것으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益齋의 詞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詞는 그 이후에도 더러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가 단연 독보였다고 할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그 곳의 音律과 詞曲을 익혔으며, 또한 詞에 이름이 있던 趙孟頫·張養浩·虞集 등과 교유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益齋亂藁」 권10의 長短句는 <益齋詞>라는 명칭으로 淸朝의 朱孝臧이 편찬한 中國歷代詞 總輯인 「彊村叢書」 끝에 元代詞의 하나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益齋는 散文에도 이름이 높아 「麗韓十家文鈔」에 8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 <送辛員外北上序> 등은 널리 읽혀지고 있다.

調査本 「益齋亂藁」는 세종 14(1432)년에 「櫟翁稗說」과 마찬가지로 集賢殿 관리의 校正과 繕寫를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櫟翁稗說」과 함께 重刊된 「益齋集」 권6·7의 2卷1冊의 零本이다. 表題는 ‘益齋集’이고 板心題는 ‘亂藁’이며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行字數는 10行17字에 註는 雙行이다. 판심에는 黑口가 있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收錄內容은 卷6에는 書·記가 수록되었는데 書는 <在大都

上中書都堂書>, <上白住丞相書>, <同崔松坡贈元郎中書> 등 3편이 수록되어 있고
 記는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重修開國律寺記>, <重修
 乾洞禪寺記>, <白華禪院政堂樓記>, <雲錦樓記>, <妙蓮寺石池竈記> 등 6편이 수
 록되어 있다. 卷7에는 碑銘이 수록되었는데 <有元高麗國清平山文殊寺施藏經碑>,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大都南城興福寺碣>, <海東曹溪山修
 禪寺第十世別傳宗主重續祖燈妙明尊者贈諡慧鑑國師碑銘并序>, <有元高麗國曹溪宗
 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并序>, <王順妃許氏墓誌銘>, <推誠亮節功臣重大匡光陽
 君崔公墓誌銘并序>, <匡靖大夫僉議參理上護軍羅公墓誌銘>, <推誠翊祚同德輔理功
 臣三重大匡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永嘉府院君贈諡文正公權公墓誌銘>, <壁上
 三韓三重大匡彥陽府院君贈諡貞烈公金公墓誌銘并序>, <有元高麗國誠勤翊贊勁節功
 臣重大匡星山君贈諡文烈公李公墓誌銘>, <有元高麗國匡靖大夫都僉議參理上護軍春
 軒先生崔良敬公墓誌銘>, <金文英公夫人許氏墓誌銘并序>, <大元制封遼陽縣君高麗
 三韓國大夫人李氏墓誌銘并序>,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并序> 등 15편이 수록되
 어 있다.

調査本「益齋亂藁」의 본 版本에는 李穡의 序文과 세종 14(1432)년 金鑑의 跋文
 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太祖 및 歷代 王의 稱號 앞에 존경의
 의미로 擡頭와 空格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권7의 마지막 記事인 <卞韓
 國夫人柳氏墓誌銘> 마지막에 行을 달리하여 “至正四(1344)年九月日刊”이라는 기
 록이 있으나, 이는 本書의 刊行年度가 아니라 卷7의 碑銘 혹은 <卞韓國夫人柳氏
 墓誌銘>의 板刻年度로 추정된다.

調査本「益齋亂藁」는 선조 원(1568)년의 乙亥字本「故事撮要」冊板目錄에도 강
 원도 原州에 본서의 木板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조사본
 과 동일한 重刊本의 完本은 전래되지 않고 다만 국내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권6~7)과 李謙魯의 山氣文庫(권9~10)에 殘本이 傳來되고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의 蓬左文庫에 일부 전래되고 있을 뿐이다.

조사본「益齋亂藁」는 益齋의「櫟翁稗說」과 함께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으로, 漢文學과 書誌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
 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益齋亂藁」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益齋亂藁」가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 문헌자료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

- 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7. 역옹패설(櫟翁稗說)

가. 검토사항

‘역옹패설’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역옹패설’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역옹패설(櫟翁稗說)
- 소유자(관리자): 계명대학교
-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수 량: 4권 1책
- 규격(cm): 세로 25.7(17.3) × 가로 17.1(12.5)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32년(세종 14) 중간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4권 1책본이다.

이 책은 고려시대의 시문평론집의 대표적인 저서중 하나로서 4권 1책본이다. 처음 간행된 것은 저자 생존시기인 恭愍王 12(1363)년에, 그의 차자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편집하여 慶州에서 刊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본 계명대 소장본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처음 간행된 것으로,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학사들의 교정을 거쳐 1432년에 原州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의 특징은 판각후 초기에 인출한 것인 듯 본문의 상태가 매우 선명한 善本이라는 점과 함께, 조선이 開國한지 40년이 지난 후에 판각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국왕을 높이기 위한 間字의 방식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 고려본의 문집에서 자주 보이는 바와 같이 같은 자가 반복될 때에 쓰이는 기호인 ‘ 〃 ’표가 자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전기의 詩文의 비평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당시의 출판문화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역옹패설』은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화(詩話)·잡록집(雜錄集)으로 1342년(충혜왕 복위3)에 익재가 56세로 환로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시문비평집(詩文批評集) 4권본이다.

조사본 『역옹패설』은 1432년(세종 14)에 집현전의 교정을 거쳐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에서 『익재난고』와 함께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이색(李穡)의 서문과 김빈(金鑣)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인면(印面)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판각 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 초기의 간본임에도 고려 태조 및 역대 왕의 칭호 앞에 존경의 의미로 대두(擡頭)와 공격(空格)을 사용하고 있다.

조사본 『역옹패설』은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서,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전래본이 드문 판본(板本)으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櫟翁稗說』은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저술한 詩話·雜錄集으로 충혜왕 복위 3(1342)년에 益齋가 56세로 宦路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고려시대 3대 詩文批評集의 하나로 4卷1冊本이다. 서명을 저자의 의도에 따라 ‘낙옹비설(櫟翁稗說)’이라 하는 학자도 있으나, 현재는 ‘역옹패설(櫟翁稗說)’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調査本 「櫟翁稗說」은 세종 14(1432)년에 「益齋亂藁」와 마찬가지로 集賢殿 관리의 校正과 繕寫를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益齋集」과 함께 10行17字로 간행된 刊本으로 印面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板刻 初期에 印出된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초기의 刊本임에도 고려 太祖 및 歷代 王의 稱號 앞에 존경의 의미로

擡頭와 空格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3종의 藏書記로 보아 南氏家の 舊藏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櫟翁稗說」은 益齋의 「益齋亂藁」과 함께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으로, 漢文學과 書誌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櫟翁稗說」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 書誌事項 :

櫟翁稗說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4(1432)].

前集2卷 後集2卷 合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7.3×12.5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5.7×17.1cm. 楮紙. 線裝(改裝).

板心題: 說

自序: 櫟翁稗說前序

至正壬午夏 雨連月 杜門無登音 悶不可祛 持硯承簷溜 聯友朋往還折簡 遇所記書諸紙背 題其端曰櫟翁稗說 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 在木爲可樂 所以從樂也 予嘗從大夫之後 自免以養拙 因號櫟翁 庶幾其不材而能壽也 稗之從卑亦聲也 以義觀之 稗禾之卑者也 余少知讀書 壯而廢其學 今老矣 顧喜爲駁雜之文 無實而可卑 猶之稗也 故名其所錄 爲稗說云 仲思序 益齋自號櫟翁以對稗說

跋文: 櫟翁稗說跋文: 高麗益齋公 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 名爲亂藁 雜記時事謂之稗說 非徒詞旨典雅 前朝上下五百季之跡 大略可見 實與麗史相爲表裏者也 刊行既久 未免缺誤 宣德六年夏 殿下命文臣 釐正繕寫 刊行于江原道之原州 惟公道德之高 功業之盛 後輩所欽慕而未及見 獨其英華之流及後

世者 唯文章是賴耳 學者聞其風 誦其詩 必有興起者矣 此集幾至湮晦 而特命重梓 以壽其傳 我殿下尊德右文之美 猗歟盛哉 歲宣德壬子(1432)秋七月日 朝奉大夫集賢殿應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 臣金鑣 奉教敬跋

內 容: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李穡 撰).

前1. 櫟翁稗說自序, 本文.

前2. 本文.

後1. 本文.

後2. 本文.

跋文(金鑣 撰).

藏書印: 4顆(不明)

藏書記: 南氏家藏(前二末), 沙溪冊主南氏(後一末), [沙溪冊]主南[氏](後二末).

○ 현 상

表紙는 改裝하였고, 卷頭의 몇 장과 판심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본문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櫟翁稗說」은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大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저술한 詩話集이다. 저자가 56세 되던 해(1342)에 벼슬에서 은퇴하여 집에 있으면서 지은 것이라 한다. 4卷 1책本이다.

이 책이 처음 간행된 것은 저자 77세 때인 恭愍王 12(1363)년에 그의 차자 李彰路와 장손 李寶林이 편집하여 慶州에서 刊行한 것으로 보이나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처음 간행된 「櫟翁稗說」은 세종의 명에 따라 집현전학사들의 교정을 거쳐 「益齋亂藁」과 함께 1432년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의 간행과정은 金鑣이 쓴 ‘櫟翁稗說跋’(1432년)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 판본의 특징은 판각후 초기에 인출한 것인 듯 책의 본문의 상태가 선명한 선본이라는 점과 함께, 조선이 開國한지 40년이 지난 후에 판각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국왕을 높이기 위한 間字의 방식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고려본의 문집에서 자주 보이는 바와 같이 같은 자가 반복될때에 쓰이는 기호인 ‘ㄴ’표가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반 특징은 조선전기의 시문의 비평에 대한 연구는 물론 출판문화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동종의 책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www.itkc.or.kr)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書誌事項

櫟翁稗說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4(1432) 推定].

前集2卷 後集2卷 合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7.3×12.5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5.7×17.1cm. 楮紙. 線裝(改裝).

板心題: 說

自 序: 櫟翁稗說前序; 至正壬午夏雨連月杜門無聲音悶不可祛/ 持硯承簷溜聯友朋往還折簡遇所記書諸/ 紙背題其端曰櫟翁稗說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在木爲可樂所以從樂也予/ 嘗從大夫之後自免以養拙因號櫟翁庶幾/ 其不材而能壽也稗之從卑亦聲也以義觀/ 之稗禾之卑者也余少知讀書壯而廢其學/ 今老矣顧喜爲駁雜之文無實而可卑猶之/ 稗也故名其所錄爲稗說云仲思序益齋自號櫟翁以對稗說.

跋 文: 高麗益齋公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名爲亂藁雜記時事謂之/ 稗說非徒詞旨典雅前朝上下五百/ 季之跡大略可見實與麗史相爲表/ 裏者也刊行既久未免缺誤宣德六/ 年夏/ 殿下命文臣釐正繕寫刊行于江原道之原/ 州惟公道德之高功業之盛後輩所/ 欽慕而未及見獨其英華之流及後/ 世者唯文章是賴耳學者聞其風誦/ 其詩必有興起者矣此集幾至湮晦/ 而特/ 命重梓以壽其傳我/ 殿下尊德右文之美猗歟盛哉歲宣德壬/ 子秋七月日朝奉大夫集賢殿應/ 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 臣金鑣奉教敬跋.

內 容: -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李穡 撰). -前1. 櫟翁稗說自序, 本文. -前2. 本文. -後1. 本文. -後2. 本文. - 跋文(金鑣 撰).

藏書印: 4顆(不明)

藏書記: 南氏家藏(前二末), 沙溪冊主南氏(後一末), [沙溪冊]主南[氏](後二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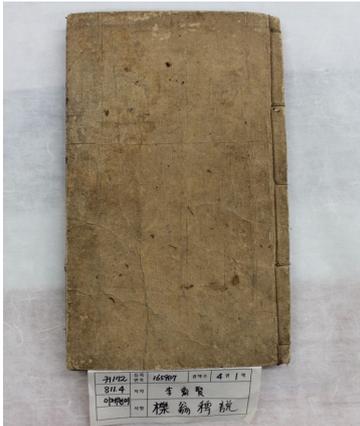
○ 현 상

조사본 『역옹패설(櫟翁稗說)』은 계명대학교가 2010년 11월에 대구 소재의 고서점 그림애(대표 김성수)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동산도서관(童山圖書館)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 『역용패설』의 표지는 개장되었고, 전 책에 걸쳐 판심(版心)이 분리된 장이 상당수 보이는 등 빠른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역용패설』은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시화(詩話)·잡록집(雜錄集)으로 1342년(충혜왕 복위3)에 익재가 56세로 환로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시문비평집(詩文批評集) 4권본이다.



표지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

『역용패설』은 본래 전집·후집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각각 다시 1·2권으로 구분되어 있어 권수는 모두 4권이다. 전집에는 저자의 자서(自序)가 있고 권1에 17조, 권2에 43조의 역사·인물과 일화·골계(滑稽) 등이 수록되어 있다. 후집에는 저자의 자서와 권1에 28조, 권2에 25조의 시화(詩話)와 세태담(世態談)이 있다.

『역용패설』은 『익재난고』와 함께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초간본은 1363년(공민왕 12)에 익재 선생의 아들인 이창로(李彰路)와 장손 이보림(李寶林)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현전하지 않는다.

중간본은 1432년(세종 14)에 집현전의 교정을 거쳐 강원감영이 있던 원주에서 『익재난고』와 함께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이색(李穡)의 서문과 김빈(金鑓)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었다.

삼간본(三刊本)은 1600년(선조 33)에 익재의 11대손인 경주부윤 이시발(李時發)에 의하여 이미 간행된 『익재난고』와 『역용패설』을 수교(讎校)하고, 빠진 시문을 집록(輯錄)하고 습유(拾遺)를 붙여 경주에서 10행 18자의 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에는 이색의 서문과 1405년(태종 5)의 권근(權近) 서문, 1600년(선조 33) 작성된 이시발의 지문(識文)이 수록되었다. 또한 “萬曆庚子(1590)月城重[刊]”이라는 간기와 “萬曆庚子(1600)鷄林府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전집 권2



후집 권2

사간본(四刊本)은 1693년(숙종 19)년에 허경(許穎)에 의하여 경주부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이색의 서문, 류성룡의 발문, 이시발의 지문, 김빈의 발문이 수록되었고, 허경의 지문, 임상원(任相元)의 서문 그리고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1693)正月鷄林府重刊”이라는 간기가 수록되었다.

오간본(五刊本)은 1698년(숙종 24) 황해도관찰사 이인엽(李寅燁)에 의하여 해주에서 간행되었는데 이에 이색의 서문, 유성룡의 발문, 이시발의 지문과 함께 이인엽의 지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숙종 이후에도 여러 간본이 전한다. 1814년(순조 14) 경상도관찰사 김노응(金魯應)의 경주 간행본, 1911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간행한 책이 전한다. 조사본 『역옹패설』은 인면(印面)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판각 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 초기의 간본임에도 고려 태조 및 역대 왕의 칭호 앞에 존경의 의미로 대두(擡頭)와 공격(空格)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첫 장에는 판독하기 어려운 장서인(藏書印) 4과(顆)가 있으며, ‘남씨가장(南氏家藏)’(前二末), ‘사계책주 남씨(沙溪冊主南氏)’(後一末), ‘사계책주 남씨(沙溪 [冊]主南[氏])’(後二末) 등 3종의 묵서(墨書)된 장서기(藏書記)로 보아 남씨가(南氏家)의 구장본으로 추정된다.



한편, 권말에는 “宣德壬/子(1432)秋七月日朝奉大夫集賢殿應/ 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 臣金鑣奉教敬跋”이라는 김빈(金鑣)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역옹패설』은 우리나라 한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문헌으로

서, 서지학적(書誌學的)으로도 전래본이 드문 판본(板本)으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지정사례

『역용패설』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 문헌자료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書誌記述 : 調査本 「櫟翁稗說」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櫟翁稗說 / 李齊賢(1287~1367, 高麗) 撰. -- 木板本. -- [原州] : [原州牧], [世宗 14(1432) 推定].

前集2卷 後集2卷 合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7.3×12.5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25.7×17.1cm. 楮紙. 線裝(改裝).

板心題: 說

自序: 櫟翁稗說前序; 至正壬午夏雨連月杜門無登音悶不可祛/ 持硯承簷溜聯友朋往還折簡遇所記書諸/ 紙背題其端曰櫟翁稗說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在木爲可樂所以從樂也予/ 嘗從大夫之後自免以養拙因號櫟翁庶幾/ 其不材而能壽也稗之從卑亦聲也以義觀/ 之稗禾之卑者也余少知讀書壯而廢其學/ 今老矣願喜爲駁雜之文無實而可卑猶之/ 稗也故名其所錄爲稗說云仲思序益齋自號櫟翁以對稗說.

跋文: 高麗益齋公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名爲亂藁雜記時事謂之/ 稗說非徒詞旨典雅前朝上下五百/ 季之跡大略可見實與麗史相爲表/ 裏者也刊行既久未免缺誤宣德六/ 年夏/ 殿下命文臣釐正繕寫刊行于江原道之原/ 州惟公道德之高功業之盛後輩所/ 欽慕而未及見獨其英華之流及後/ 世者唯文章是賴耳學者聞其風誦/ 其詩必有興起者矣此集幾至湮晦/ 而特/ 命重梓以壽其傳我/ 殿下尊德右文之美猗歟盛哉歲宣德壬/ 子(1432)秋七月日朝奉大夫集賢殿應/ 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 臣金鑣奉教敬跋.

內容: -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李穡 撰). -前1. 櫟翁稗說自序, 本文. -前2. 本文. -後1. 本文. -後2. 本文. - 跋文(金鑣 撰).

藏書印: 4顆(不明)

藏書記: 南氏家藏(前二末), 沙溪冊主南氏(後一末), [沙溪冊]主南[氏](後二末).

狀態: 卷頭的 數張과 版心に 마멸이 있고 表紙는 改裝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

문거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所 藏: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실(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傳來歷: 啓明大學校가 2010년 11월에 대구 소재의 고서점 그림애(대표 김성수)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고 있다.

既指定: 無

○ 현 상

조사본 「櫟翁稗說」은 啓明大學校가 2010년 11월에 대구 소재의 고서점 그림애(대표 김성수)에서 구입한 자료로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의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櫟翁稗說」은 현재 卷頭의 數張과 版心에 마멸이 있고 表紙는 改裝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保存狀態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櫟翁稗說」은 고려시대 말기의 文臣이며 學者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저술한 詩話·雜錄集으로 충혜왕 복위 3(1342)년에 益齋가 56세로 宦路에서 은퇴하여 자신의 집에 거처하면서 저술한 고려시대 3대 詩文批評集의 하나로 4卷本이다. 서명을 저자의 의도에 따라 ‘낙옹비설(櫟翁稗說)’이라 하는 학자도 있으나, 현재는 ‘역옹패설(櫟翁稗說)’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櫟翁稗說」은 대체로 「益齋亂藁」의 別冊附錄의 성격으로 간행되었다. 「櫟翁稗說」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1) 恭愍王 12(1363)년에 益齋의 次子 李彰路와 長孫 李寶林의 編輯으로 慶州에서 初刊本이 刊行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初刊의 高麗本은 傳來되는 것이 없으며, 後代의 刊本을 통해서 볼 때 恭愍王 12(1363)년에 쓴 牧隱 李穡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세종 14(1432)년에 集賢殿의 校正을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益齋集」과 함께 10行17字의 重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李穡의 序文과 세종 14(1432)년 金鑣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선조 33(1600)년에 益齋의 11대손인 慶州府尹 李時發에 의하여 舊刻의 「[益齋]亂藁」와 「[櫟翁]稗說」에 讎校를 가하고 빠진 詩文을 輯錄하고 拾遺를 붙여 慶州에서 10行18字의 三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는 충혜왕 복위 3(1342)년 仲思(李齊賢)의 서문, 태종 5(1405)년 權近의 서문, 선조 33(1600)년의 李時發의 識文, 세종 14(1342)년 金鑣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고 “萬曆庚[子](1590)月城重[刊]”이라는 刊記와 “萬曆庚子(1600)鷄林府刊”이라는 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의 刊本을 통해서 볼 때 선조 33(1600)년 柳成龍의 발문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숙종 19(1693)년에 許頴에 의하

여 慶州府에서 私刊으로 10行18字의 四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 李穡의 序文, 숙종 19(1693)년 許頴의 識文, 任相元의 서문, 柳成龍의 跋文, 李時發의 識文, 金鑣의 跋文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崇禎丙子後伍拾柒年癸酉(1693)正月鷄林府重刊”이라는 刊記가 수록되어 있다. (5) 숙종 24(1698)년 黃海道觀察使 李寅燁에 의하여 海州에서 10行18字의 五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 李穡의 序文, 柳成龍의 跋文, 李時發의 識文, 숙종 24(1698)년 李寅燁의 識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6) 순조 14(1814)년에는 慶州에 살던 後孫들에 의하여 10行18字의 六刊本이 간행되었는데 이에 慶尙道觀察使 金魯應의 年譜後敍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7) 1911년에는 朝鮮古書刊行會에서 活字版 洋裝本으로 출판된 바 있고, (8) 1913년에 日本 東京에서 影印되기도 하였다.

「櫟翁稗說」의 원래 體制는 前集·後集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各集이 다시 1·2권으로 구분되어 있어 권수는 도합 4권이다. 前集에는 著者의 自序가 있고 권1에 17조, 권2에 43조의 歷史·人物逸話·滑稽 등이 수록되어 있다. 後集에는 著者의 自序와 권1에 28조, 권2에 25조의 詩話와 世態談이 있다. 「櫟翁稗說」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益齋는 高麗가 蒙古 즉 元朝로부터 치욕을 당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한 방법으로 民族自尊의 필요성을 깨닫고 부당한 事大主義에 저항하고 있다. (2) 益齋는 傳統性 즉 民心의 기반이 없는 僞朝의 영화로운 생활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本書에서 삼별초정권을 부정적 입장으로 보아 僞朝라 생각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3) 益齋는 武臣政權의 전횡을 폭로하고 그 폐단을 고발하고 있는데 文風이 진작되는 시점이 되어도 학생들이 글을 배울 만한 스승이 없어 도피한 학자였던 중들을 찾아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지적은 武臣執權期가 초래한 반문화적 폐해를 단적으로 밝혀준 좋은 사례이다. ④ 「櫟翁稗說」에는 고려시대 말기의 文學論에 있어서 用事論과 新意論의 현황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益齋는 韓愈·李白 등 唐代의 시인들을 비롯한 유명한 중국 문인들의 詩를 거론하기도 하고 鄭知常을 비롯한 우리나라 詩人들도 거의 망라해서 그들의 詩에 대해 비평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排斥이나 惡評은 삼갔다. 用事에 있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단어의 사용은 권장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여 地名의 사용도 실제정황과 일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호된 비판을 가하였다. 이러한 그의 비평태도는 詩語의 현실성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다. 「櫟翁稗說」은 著者가 스스로 뒤섞여 어수선한 글로 열매 없는 피 같은 雜文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後代의 사람들에게 作者 當代의 現實과 文學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남긴 요긴한 서적이다. 또한 「破閑集」이나 「補閑集」의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調査本 「櫟翁稗說」은 세종 14(1432)년에 「益齋亂藁」와 마찬가지로 集賢殿 관리의 校正과 繕寫를 거쳐 江原監營이 있던 原州에서 「益齋集」과 함께 간행된 前集

2卷 後集 2卷 合 4卷 1冊本이다.

調査本 「櫟翁稗說」의 版心題는 ‘說’이고 邊欄은 四周雙邊이며, 行字數는 10行17字이고 註는 雙行이다. 版心に 黑口가 있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冊頭에는 牧隱 李穡이 찬한 <鷄林府院君諡文忠李公墓誌銘>이 수록되어 있고 前集1의 머리에는 <櫟翁稗說自序>가 있으며, 이어서 前集과 後集의 本文이 수록되어 있고 冊末에는 세종 14(1432)년에 세종의 명으로 간행의 경위를 설명한 集賢殿 應教 金鑣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調査本 「櫟翁稗說」 前集1의 自序는 “至正壬午夏雨連月杜門無登音悶不可祛/ 持硯承簷溜聯友朋往還折簡遇所記書諸/ 紙背題其端曰櫟翁稗說夫櫟之從樂聲也/ 然以不材遠害在木爲可樂所以從樂也予/ 嘗從大夫之後自免以養拙因號櫟翁庶幾/ 其不材而能壽也稗之從卑亦聲也以義觀/ 之稗禾之卑者也余少知讀書壯而廢其學/ 今老矣顧喜爲駁雜之文無實而可卑猶之/ 稗也故名其所錄爲稗說云仲思序益齋自號櫟翁以對稗說”이며, 冊末의 跋文은 “高麗益齋公以德業文章倡於當世/ 所著詩文名爲亂藁雜記時事謂之/ 稗說非徒詞旨典雅前朝上下五百/ 季之跡大略可見實與麗史相爲表/ 裏者也刊行既久未免缺誤宣德六/ 年夏/ 殿下命文臣釐正繕寫刊行于江原道之原/ 州惟公道德之高功業之盛後輩所/ 欽慕而未及見獨其英華之流及後/ 世者唯文章是賴耳學者聞其風誦/ 其詩必有興起者矣此集幾至湮晦/ 而特/ 命重梓以壽其傳我/ 殿下尊德右文之美猗歟盛哉歲宣德壬/ 子(1432)秋七月日朝奉大夫集賢殿應/ 教藝文應教知製教經筵檢討官/ 臣金鑣奉教敬跋”이다.

調査本 「櫟翁稗說」은 印面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板刻 初期에 印出된 것으로 보이며, 朝鮮時代 초기의 刊本임에도 고려 太祖 및 歷代 王의 稱號 앞에 존경의 의미로 擡頭와 空格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본서의 첫張에는 判讀하기 어려운 藏書印 4顆가 있으며, ‘南氏家藏’(前二末), ‘沙溪冊主南氏’(後一末), ‘[沙溪冊]主南[氏]’(後二末) 등 3종의 墨書된 藏書記로 보아 南氏家의 舊藏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櫟翁稗說」은 益齋의 「益齋亂藁」과 함께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으로, 漢文學과 書誌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초기의 木板印刷文化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櫟翁稗說」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益齋亂藁」가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 문헌자료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8.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가. 검토사항

‘퇴계선생문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퇴계선생문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3.4.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1.2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 소유자(관리자):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수 량: 46권 24책
[本集 45권 23책(卷1~31, 34~43, 46~49), 別集 1권 1책(目錄·卷1)]
- 규격(cm): 세로 30.5(21.7) × 가로 21.0(16.5)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板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600년(선조 33년)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退溪 李滉(1501~1570)은 조선시대가 배출한 탁월한 학자이며, 동시에 嶺南學派의 宗匠이다. 퇴계가 그러한 인물이기애 그의 학문적 성과를 집성한 문집인 退溪先生文集의 가치 또한 높다.

『退溪先生文集』은 그 내용의 풍부함이나 분량의 방대함은 물론, 이를 편집하고 간행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문집편집의 방법과 성과가 조선후기 문집의 편집과 판각의 典範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명대소장 퇴계집은 퇴계의 문인인 月川 趙穆(1524~1606)이 중심이 되고 여러 문인과 후손, 그리고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하에 퇴계선생 사후 30여년 만에 완성을 본 庚子本(1600)이다. 편집기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판각되면서 오류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수정판이 간행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책 가운데 退溪先生文集別集目錄卷의 첫 장의 邊欄 여백에는 ‘萬曆庚子玉山書院上’이라는 墨書가 있어서 이 책들이 퇴계집의 초간본인 경자본임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모든 책에 ‘慶州府印’과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고, 특히 ‘慶州府印’은 모든 책에 날인되어 있는데, 李時發(1569-1626)은 本貫이 月城(慶州)이고 字가 養久이다. 퇴계집이 간행되던 宣祖 33(1600)년 당시에 慶州府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몇 책은 ‘玉山書院上’이라는 寄贈記를 塗抹하고 ‘驪江李氏家藏’이라는 藏書記를 墨書한 것도 있다. 책의 소유주에 수차의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문집은 퇴계집의 초판본으로, 퇴계집의 초판본이 판각되던 시기에 초래된 여러 곡절과, 오랜 진통 끝에 판각되면서 안게 된 제반 문제를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문집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다양한 장서인과 장서관련 墨記는 장서의 변천에 관한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퇴계선생문집』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시문집이다.

조사본 『퇴계선생문집』은 1600년 간행된 경자본(庚子本) 초간본으로 원래 본집목록 2권 2책, 본집 49권 25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모두 57권 31책이다. 그러나 계명대학교 소장본은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권 2책(32~33, 44~45),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11권 7책이 결락된 본집 45권 23책(권1~31, 34~43, 46~49) 그리고 별집(목록·권1) 1권1책 등 모두 46권 24책만이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 『퇴계선생문집』은 조선 중기에 성리학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영남학파의 종주가 된 퇴계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퇴계의 학문과 성리학 사상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한문학사상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문헌사학적으로도 그 전래가 드문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退溪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이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선조 33(1600, 경자)년에 陶山書院에서 趙穆(1524~1606)의 主導로 本集目錄 2권, 本集 49권, 別集 1권, 外集 1권, 年譜 4권 등 도합 57卷 31冊으로 간행된 庚子年 初刊本으로, 啓明大學校 동산도서관에는 현재 本集目錄 2권2책, 本集 4권2책(32~33, 44~45),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11卷 7冊이 缺落된 本集 45卷 23冊(권1~31, 34~43, 46~49), 別集(목록·권1) 등 도합 46권 24冊의 殘本이 소장되고 있으며, 玉山書院에도 일부 殘本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宗주가 된 退溪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退溪의 學問觀과 文學觀의 研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 思想史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인 만큼 書誌學研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한편,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할 당시의 木板이 현재 陶山書院의 所有로 韓國國學振興院에 752매가 殘板으로 전존되고 있다.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의 木板은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研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소장의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의 殘板 752매도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文化財聽의 職權調査를 통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初刊 「退溪先生文集」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退溪先生文集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木板本.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推定].

本集 45卷23冊 別集 1卷1冊 合46卷24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1.7×16.5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30.5×22.0cm. 楮紙. 線裝.

表題 :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 退溪先生文集

寄贈記 : 萬曆庚子玉山書院上, 玉山書院上 등

藏書印 : 慶州府印,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

藏書記 : 驪江李氏家藏

魚尾 :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卷冊數 : 本集 45권 23책(卷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道합 46卷 24冊

缺本 : 本集 目錄 2卷2冊, 本集 4卷2冊(32~33, 44~45), 外集 1卷1冊, 年譜 4卷2冊 등 道합 11卷7冊

취득경위 : 1982년 6월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이인재로부터 구입한 7,540책 중의 일부라 함.

기지장: 無

○ 현 상

조사 대상본 「退溪先生文集」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다. 保存修理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退溪 李滉(1501~1570)은 조선시대가 배출한 탁월한 학자이며, 동시에 嶺南學派의 宗匠이다. 퇴계가 그러한 인물이기에 그의 학문적 성과를 집성한 문집인 退溪先生文集의 가치 또한 높다.

조사 대상 퇴계선생문집은 퇴계의 문인인 月川 趙穆(1524~1606)이 중심이 되고

여러 문인과 후손, 그리고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하에 퇴계선생 사후 30여년 만에 완성을 본 庚子本(1600)이다. 편집기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판각되면서 오류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수정판이 간행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조사대상본은 바로 이때 판각한 초간본으로 이른바 경자본이다.

이 책 가운데 退溪先生文集別集目錄卷의 첫 장의 邊欄 여백에는 ‘萬曆庚子玉山書院上’이라는 墨書가 있어서 이 책들이 퇴계집의 초간본인 경자본임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모든 책에 ‘慶州府印’과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고, 특히 ‘慶州府印’은 모든 책에 날인되어 있는데, 李時發(1569-1626)은 本貫이 月城(慶州)이고 字가 養久이다. 퇴계집이 간행되던 宣祖 33(1600)년 당시에 慶州府尹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몇 책은 ‘玉山書院上’이라는 寄贈記를 塗抹하고 ‘驪江李氏家藏’이라는 藏書記를 墨書한 경우도 있다. 책의 소유주에 수차의 변동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사 대상본은 「退溪先生文集」 庚子本(1600) 가운데, 本集目錄 2권2책, 本集 4권2책(32-33, 44-45),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11권 7책이 결락된 本集 45권23책(권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도합 46권 24책이다.

이 문집은 퇴계집의 초판본으로, 퇴계집의 초판본이 판각되던 시기에 초래된 여러 곡절과, 오랜 진통 끝에 판각되면서 안게 된 제반 문제를 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문집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다양한 장서인과 장서관련 墨記는 장서의 변천에 관한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 도서를 인출한 책판이 현존하고 있는 바(한국국학진흥원수탁장판), 이들 책판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정사례

동종의 도서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 문헌정보

- 신승운, 퇴계집해제(한국문집총간. www.itkc.or.kr)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書誌事項

退溪先生文集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木板本.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推定].

本集 45卷23冊 別集 1卷1冊 合46卷24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1.7×16.5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30.5×22.0cm. 楮紙. 線裝.

表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寄贈記: 萬曆庚子玉山書院上, 玉山書院上 등

藏書印: 慶州府印,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

藏書記: 驪江李氏家藏

魚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卷冊數: 本集 45卷23冊(卷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1권1책 등 포함 46卷24冊

缺本: 本集 目錄 2卷2冊, 本集 4卷2冊(32~33, 44~45), 外集 1卷1冊, 年譜 4卷2冊 등 포함 11卷7冊

○ 현 상

조사본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은 계명대학교가 1982년 6월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이인재로부터 구입한 7,540책 중의 일부로 현재 동산도서관(童山圖書館) 고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본집(本集) 45권 23책(권1~31, 34~43, 46~49), 별집(別集) 1권 1책(목록·권1) 등 포함 46권 24책이 전하고 있다. 결본은 본집가운데 목록 2권 2책, 본집 4권 2책(권32~33, 권44~45) 그리고 외집(外集)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포함 11권 7책 등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시문집이다. 퇴계는 주자(朱子)의 학문과 사상을 이은 도학자로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등 성리학 관련 분야에서 고명한 탁견과 학문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특히 퇴계가 당시 군왕인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는 성학(聖學)에 대한 선학들의 도(圖)와 설(說)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유학의 핵심을 10개의 도(圖)로써 정리한 것으로, 군주는 사단(四端)의 마음을 확충해 본성(本性)을 회복한 성인(聖人)이 되는 학문인 성학(聖學)을 돈독히 닦아 그것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선생문집』의 편찬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1571년(선조 4, 신미)부

터 시작되었다.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은 1571년부터 역동서원(易東書院)에 모여 유문(遺文)을 정리하는 한편, 각처에 있던 제자들도 각자가 정리한 초고를 역동서원으로 보내오자 1573년(선조 6, 계유)에는 선조가 류성룡(柳成龍, 1542~1607) 등의 요청에 따라 『퇴계집(退溪集)』을 교서관에서 인출하라고 하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되지 못하였다.

이후 문집의 편집은 대체로 예안(禮安)에 있던 조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 1584년 9월에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모여 『퇴계선생문집』을 교정하였는데 당시 대략 초고의 편집이 완성되고 초본(草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퇴계선생문집』의 본격적인 간행은 1600년(선조 33, 경자)에 도산서원에서 조목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조목의 「문집고성문(文集告成文)」에 의하면 1599년(선조 32, 기해) 봄부터 여러 동지와 함께 개간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자본(庚子本)의 간행 이후 류성룡에 의하여 「퇴계선생연보(退溪先生年譜)」 3권과 부록 1권이 편찬되어 경자본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본집(本集) 목록 2권, 본집(本集) 49권, 별집(別集) 1권, 외집(外集) 1권, 연보(年譜) 4권 등 모두 57권 31책으로 간행된 경자본(庚子本)은 현재 옥산서원(玉山書院) 및 계명대학교 등에 잔본(殘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경자본 이후의 『퇴계선생문집』의 간행은 모두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2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자본이 간행된 직후에 경자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 부분만을 개각(改刻)하거나, 교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전체를 다시 판각한 경자본류(庚子本類)이다. 경자본 보각본(庚子本補刻本), 의경자본(擬庚子本), 경자본복각본(庚子本覆刻本) 등으로 불리는 이런 판본은 경자본이 간행된 1600년경에서 멀지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중간본류(重刊本類)이다. 중간본에는 ① 이른바 ‘중본(中本)’으로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甲辰本(1724) ③ 癸卯本(1843) 등이 있다.

‘중본(中本)’에 대해서는 정축보각본(丁丑補刻本, 1817)의 각판일기(刻板日記)에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이 쓴 「제문집개간일기후(題文集改刊日記後)」에 의하면 “선생의 문집은 수차 간판(刊板)되어 모두 3가지 판본이 있게 되었다. 초본(初本)은 만력(萬曆) 경자년(庚子年, 1600)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연보의 문집조성문(文集告成文)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본(中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영묘(英廟) 갑진(甲辰, 1724) 연간에 방조(傍祖)인 삼가공(三嘉公)이 동주(洞主)로서 다시 간판하였는데 당시의 일기가 본가(本家)에 있다고 하며 이 판본이 현재 통행되는 판본이다”라고 하여 ‘중본’은 그 판본의 존재에 대해서만 언급

하였을 뿐 그 간행의 시기나 경위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당시에도 이미 이 판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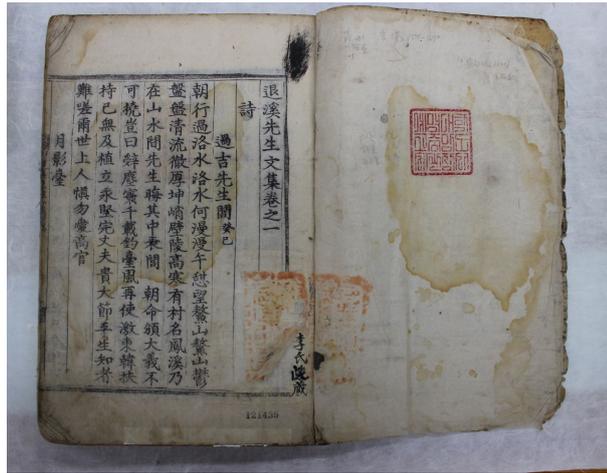
갑진본(甲辰本)은 이이순의 글에서 나타나듯 경자본(庚子本)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조 갑진년(1724)에 이루어진 판본으로 처음으로 두주(頭註)가 첨각(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되는 판본 중 상당수가 갑진본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가 쇄출(刷出)되고 유포도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목의 마모에 따라 보각도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진본에 대대적으로 보각된 경우가 있었는데 「선조문집개간일기(先祖文集改刊日記)」가 바로 그때의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정축년(1817)에 대략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200판 정도가 보각되었다. 이때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의 차의(筭疑) 100 여 조 등을 두주(頭註)로 첨각하였는데, 새로 각판한 것이 아닌 구판(舊板)에 두주를 첨각할 때는 판두(板頭)에 나무를 대고 철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보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200판의 보각은 극히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간이 불가피한 형편이었는데 이를 갑진중간보각본(甲辰重刊補刻本)이라 한다.

계묘본은 정축보각본(丁丑補刻本) 이후 26년 만인 1843년(헌종 9, 계묘)년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이 판본의 간행경위에 관하여는 「퇴계선생문집중간시일기(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계묘교정중간본(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영남의 전체 사림이 완성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교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실제로 문집도 이전의 판본에 비하여 일신되었다. 이 계묘본은 갑진본처럼 두주가 첨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판식(板式)이 엄격하고 자체도 해정하여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계묘본은 본집 49권, 별집, 외집, 연보 4권의 30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연보에는 1839년(헌종 5, 기해)년에 내린 치제문(致祭文)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 계묘중간본은 규장각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 『퇴계선생문집』은 1600년 간행된 경자본(庚子本) 초간본으로 원래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9권 25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모두 57권 31책이다. 그러나 계명대학교 소장본은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권 2책(32~33, 44~45),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11권 7책이 결락된 본집 45권 23책(권1~31, 34~43, 46~49) 그리고 별집(목록·권1) 등 모두 46권 24책만이 소장되어 있다.



본집 권1 표지



본집 권1 권두



별집 권1 표지



별집 목록

조사본 『퇴계선생문집』에는 ‘萬曆庚子玉山書院上’(별집)와 ‘玉山書院上’(본집) 등의 기증기(寄贈記)가 묵서되어 있고 모든 책에 ‘慶州府印’과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데, 특히 ‘慶州府印’은 모든 책에 날인되어 있다.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은 본관이 월성(月城;慶州)이고 자가 양구(養久)로 본서가 간행되던 1600년 당시 경주부윤을 지냈던 인물이다.

본집에서 간혹 ‘玉山書院上’이라는 기증기를 지우고 그 위에 ‘驪江李氏家藏’이라는 장서기(藏書記)를 묵서한 경우도 있다. 이로 보아 조사본 『퇴계선생문집』은 1600년에 도산서원에서 인출되어 옥산서원(玉山書院)에 기증된 서적인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시발에 의하여 수장되기도 하고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후손 중의 누군가에 의하여 수장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퇴계선생문집』은 조선 중기에 성리학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

여 후일 영남학파의 종주가 된 퇴계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퇴계의 학문과 성리학 사상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한문학사상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문헌사학적으로도 그 전래가 드문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 지정사례

『퇴계선생문집』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 書誌記述 : 調査本 「退溪先生文集」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退溪先生文集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木板本.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推定].

本集 45卷23冊 別集 1卷1冊 合46卷24冊(零本) : 四周雙邊, 半郭 21.7×16.5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30.5×22.0cm. 楮紙. 線裝.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寄贈記: 萬曆庚子玉山書院上, 玉山書院上 등

藏書印: 慶州府印,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

藏書記: 驪江李氏家藏

魚 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卷冊數: 本集 45卷23冊(卷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道합 46卷24冊

缺 本: 本集 目錄 2卷2冊, 本集 4卷2冊(32~33, 44~45), 外集 1卷1冊, 年譜 4卷2冊 등 道합 11卷7冊

狀 態: 대체로 良好한 편임

所 藏: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문헌연구실(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傳來歷: 啓明大學校가 1982년 6월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이인재로부터 구입한 7,540책 중의 일부로 현재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

文獻室에 소장되고 있다.

既指定: 無

○ 현 상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啓明大學校가 1982년 6월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이인재로부터 구입한 7,540책 중의 일부로 현재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古文獻室에 소장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의 상태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 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退溪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이다. 退溪는 朱子の 학문과 사상을 이은 道學者로서 理氣互發說 등 性理學 관련 분야에서 고명한 탁견과 학문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특히 退溪가 당시 君王인 宣祖에게 올린 <聖學十圖>는 聖學에 대한 先學들의 圖와 說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儒學의 핵심을 10개의 圖로써 정리한 것으로, 君主는 四端의 마음을 확충해 本性을 회복한 聖人이 되는 學問인 聖學을 돈독히 닦아 그것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退溪는 평소에 자신의 著作을 매우 유의하여 정리해 놓았던 듯하다. 生前에 「自省錄」을 편집한 것이라든지, 順조 7(1807, 정묘)년에 후손 李野淳(1755~1831)이 편찬한 「退溪先生年譜補遺」은 그 凡例에서 선생의 文集·逸集·雜錄·手本·日記·來歷·草記 등에 의하여 追補된 것이라고 한 사실이라든지, 高宗 6(1869, 기사)년에 「陶山全書」를 編纂할 때 陶山書院의 光明室에 소장되어 있던 「退陶集」·「退溪先生集」·「先生文集草本」·「文集草本」·「退溪先生文集拾遺」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든지 하는 등의 사실은 退溪의 著述이 잘 보전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퇴계의 生前부터 잘 보전된 遺文에 대한 정리로 「退溪先生文集」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退溪先生文集」의 편찬은 退溪가 卒去한 직후인 선조 4(1571, 신미)년부터 시작되었다. 退溪의 高弟인 月川 趙穆(1524~1606)을 중심으로 그의 弟子들은 선조 4(1571)년부터 易東書院에 모여 遺文을 정리하는 한편, 각처에 있던 弟子들도 각자가 정리한 草稿를 易東書院으로 보내오자 선조 6(1573, 계유)년에는 宣祖가 柳成龍(1542~1607) 등의 요청에 따라 「退溪集」을 校書館에서 印出하라고 하명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11(1578, 무인)년에 退溪의 손자인 李安道(1541~1584)가 어느 정도 정리된 草稿를 가지고 漢陽으로 올라와 在京門徒인 柳成龍을 중심으로 乙覽을 위한 編輯과 校正 그리고 淨寫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覽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의 文集의 編輯은 대체로 禮安에 있던 趙穆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月川年譜」에는 “甲申(1584)年 9

월에 「退溪先生文集」을 哀集하였다”고 하였고 柳雲龍(1539~1601)의 年譜에서도 동(1584)년 9월에 陶山書院에서 모여 「退溪先生文集」을 교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참여자였던 趙穆, 琴應燠(1540~1616), 權宇(1552~1590), 金澤龍(1547~1627), 金垓(1555~1593), 洪汝栗(1563~1600) 등의 姓名이 脚註에 수록되어 있다. 이때에 대략 초고의 編輯이 완성되고 草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草本의 교정과 편찬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鶴峯 金誠一(1538~1593)이 선조 19(1586, 병술)년경에 趙穆에게 보낸 書簡에서 文集의 草本이 趙穆을 중심으로 琴應燠과 琴應夾(?~?) 등에 의하여 일단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초본에는 退溪의 모든 著作이 수록되었으며 심지어 手錄本의 詩稿에서 退溪가 刪節한 것까지도 別集 등으로 編次하여 편입되었다. 이렇게 文集의 草本이 완성된 후에 柳成龍은 선조 19(1586, 병술)년에 趙穆에게 편지를 보내 “編輯의 원칙은 次第가 분명해야 하고 상세하고 간명한 것이 모두 적당해야 합니다”고 하며 刪節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20(1587, 정해)년 5월에 趙穆, 柳雲龍, 金誠一이 廬江書院에서 모였으나 이 회합에 柳成龍이 참석하지 않아 刪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다만 이 모임에서는 文集의 草本에 대한 校正의 方案과 分擔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刪節이 결정된 것은 동(1587)년 8월 屏山의 會合에서였다. 이때 刪節에 부정적인 趙穆과 刪節을 주장한 柳成龍의 대립을 金誠一이 중재하여 일단 柳成龍의 의견에 따라 刪節하기로 결정되었던 듯하다. 이에 따라 柳成龍은 선조 21(1588, 무자)년 초까지 刪節을 모두 마치고 이를 다시 繕寫하여 中草本의 작성에 착수하였는데, 이 中草本의 작성은 柳成龍의 주관 하에 진행되고 동(1588)년 6월 15일에는 屏山에서 中草本에 대한 교정과 편집회의가 열렸으며, 대체로 柳成龍을 중심으로 교정을 진행하여 조속히 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柳成龍의 刪節本으로 中草本이 작성되는 것에 반대한 趙穆은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禹性傳(1542~1593)과 같이 선생의 片言隻字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全稿收錄의 원칙을 견지하는 門徒도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동(1588)년 10월에 柳成龍이 형조판서에 제수되어 入京하자 그를 따라 서울에서 中草本의 작업이 진행된 듯하나, 이 中草本의 작성은 선조 22(1589, 기축)년에 일어난 己丑獄事로 인하여 지지부진해지고 선조 25(1592, 임진)년의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退溪先生文集」의 본격적인 刊行은 선조 33(1600, 경자)년에 陶山書院에서 趙穆의 主導로 이루어지는데, 趙穆의 <文集告成文>에 의하면 선조 32(기해, 1599)년 봄부터 여러 동지와 함께 開刊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趙穆은 柳成龍이 刪節한 中草本을 무시하고 刪節되지 아니한 草本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柳成龍이 선조 39(1606, 병오)년경에 李好閔(1553~1634)에게 보낸 편지에서 “宣城人(趙穆)이 갑자기 草本으로 板刻할 줄은 몰랐다”고 하여, 趙穆이 柳成龍의 中草本이 아닌 자신이 編輯한 草本을 바탕으로 간행함으로써 刊行事業에서 柳成龍이 배제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庚子(1600)年の 初刊

본이 간행되자마자 柳成龍을 중심으로 改刊이 의논되었는데, 李好閔에게 보낸 편지에는 “평소에 이 文集을 펴볼 때마다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다 쓰고 버린 빚자루 같아서 改刊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하여, 庚子本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改刊의 의도는 우선 庚子本을 교정하는 일로 표현되었는데, 柳成龍의 제자인 鄭經世(1563~1633) 등이 이를 교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改刊에 이르지 못하고 문인 柳成龍에 의하여 「退溪先生年譜」 3권과 附錄 1권이 편찬되어 庚子本에 추가된 듯하다. 이렇게 本集目錄 2권, 本集 49권, 別集 1권, 外集 1권, 年譜 4권 등 都合 57卷 31冊으로 간행된 「退溪先生文集」의 庚子年 初刊本은 현재 玉山書院 및 啓明大學校 등에 殘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庚子本 이후의 「退溪先生文集」의 간행은 모두 陶山書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2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1) 첫째는 庚子本이 간행된 직후에 庚子本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부분만을 改刻하거나, 교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전체를 다시 판각한 庚子本類이다. 庚子本補刻本, 擬庚子本, 庚子本覆刻本 등으로 불리는 이런 板本은 庚子本이 간행된 선조 33(1600)년에서 멀지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退溪先生文集」이 어느 정도 완전한 판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板本으로 보인다. 따라서 修正이 상당부분 진행된 庚子本의 覆刻本을 제외하고는 그 유포도 비교적 넓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2) 둘째는 重刊本類이다. 重刊本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① 이른바 “中本”으로서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과 ② 甲辰本(1724) 및 ③ 癸卯本(1843)이 그것이다. ① 中本의 경우 丁丑補刻本(1817)의 刻板日記에 李頤淳(1754~1832)이 쓴 <題文集改刊日記後>에 의하면 “선생의 文集은 數次 刊板되어 모두 3가지 판본이 있게 되었다. 初本은 萬曆 庚子年(1600)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年譜의 文集告成文을 보면 알 수 있다. 中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英廟 甲辰(1724)年間に 傍祖인 三嘉公이 洞主로서 다시 刊板하였는데 당시의 日記가 本家に 있다고 하며 이 板本이 현재 通行되는 板本이다”라고 하여 中本은 그 板本의 존재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그 刊行의 時期나 경위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당시에 이미 이 판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② 甲辰本은 李頤淳의 글에서 나타나듯 庚子本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英祖 甲辰年(1724)에 이루어진 판본으로 처음으로 頭註가 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되는 판본 중 상당수가 甲辰本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가 刷出되고 流布도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板本의 마모에 따라 補刻도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甲辰本에 대대적으로 補刻된 경우가 있었는데 위의 「先祖文集改刊日記」가 바로 그때의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정축(1817)년에 대략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200판 정도가 補刻되었다. 이때 廣瀨 李野淳의 筭疑 100餘條 등을 頭註로 添刻하였는데, 새로 刻板한 것이 아닌 舊板에 頭註를 添刻할 때는 板頭に 나무를

대고 첩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保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200판의 補刻은 극히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重刊이 불가피한 형편이었는데 이를 甲辰重刊補刻本이라 한다. ③ 癸卯本은 丁丑補刻本 이후 26년 만인 현종 9(1843, 계묘)년에 간행된 重刊本이다. 이 판본의 간행경위에 관하여는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嶺南의 전체 士林이 완전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교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실제로 文集도 이전의 판본에 비하여 일신되었다. 이 癸卯本은 甲辰本처럼 頭註가 添刻되었으며 전체적으로 板式이 嚴格하고 字體도 楷正하여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癸卯本은 本集 49권, 別集, 外集, 年譜 4권의 30책으로 간행되었는데, 年譜에는 憲宗 5(1839, 기해)년에 내린 致祭文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 癸卯重刊本은 규장각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退溪先生文集」의 續集(8권)은 退溪의 후손 李守淵(1693~1748)이 陶山書院에 소장된 拾遺를 바탕으로 자신이 10여 년간 수집한 著作을 더하여 영조 40(1764, 갑신)년에 편찬한 것이다. 그의 跋文을 보면 續集의 編纂은 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서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편자인 李守淵이 간행까지 간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續集의 간행에 대한 다른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정조 12(1788, 무신)년경에 편찬이 완료된 「退溪先生文集考證」에 續集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영조 40(1764)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續集의 初刊本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退溪先生言行錄」은 정조 17(1793, 계축)년에 權斗經(1654~1725)이 편찬한 「退溪言行通錄」 8권을 개정하여 陶山書院에서 6권으로 간행되었다. 「退溪先生文集考證」은 고종 28(1891, 신묘)년에 柳建鎬(?~?)가 간행한 것이다. 처음에 柳道源(1721~1791)이 자신의 隨錄과 洪汝河(1621~1678)가 詩卷에 隨記한 訓解, 그리고 金江漢(1719~1779)이 書簡부분을 주석한 「退溪集考證」을 합하여 정조 12(1788)년에 정리·편집되었다. 그 후 그의 현손인 柳建鎬가 退溪의 후손 李野淳이 隨記한 <要存錄>을 각 卷末에 첨부하여 고종 28(1891, 신묘)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退溪의 모든 詩文을 수집하여 정리한 筆寫本인 「退溪先生全書」가 3種이 있는데 ① 樊南本과 ② 上溪本 및 ③ 下溪本으로, 이 중에서 下溪本은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① 樊南本은 고종 6(1869)년에 退溪의 후손 癡翁 李彙溥(1809~1869)·李彙載(1795~1875)·李晚浩(?~?)·李晚懋(1815~1874) 등과 禮安의 유생 40여명이 陶山書院에 모여 重刊本을 내되 「朱子大全」의 체재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으고 陶山書院의 光明室에 소장된 文集의 草本을 바탕으로 傳存된 退溪의 모든 詩文을 수집·정리한 것이다. 이때 光明室에 소장되었던 草本은 최초의 초본인 「退陶集」 20책, 中本으로 불리는 「退溪先生集」 40책, 庚子本의 底本인 「退溪

先生文集」30책 및 「退溪先生手簡」2책, 「先生文集草本」1책, 「文集草本」2책, 「退溪先生集拾遺」12책 등이었다. 가장 양적으로 풍부한 中本인 「退溪先生集」40책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稿本 중 이 中本에 수록되지 않은 저작을 모두 遺集 13책으로 편차하였으며 李彙溥(1809~1868)가 외부에서 수집한 것도 추가하였다. 따라서 전체는 目錄 1책, 逸書目錄 1책, 本集 66권49책, 外集 1권1책, 別集 2권2책, 續集 8권6책이고, 遺集은 卷次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13책이며 기타 編次가 분명하지 않은 雜著 2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찬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 「退溪先生文集」과 비교하면 대략 1,000편 정도의 저작이 「退溪先生文集」보다 많으며, 동일한 저작에 있어서도 1,000여 군데 이상이 「退溪先生文集」에서보다 더 첨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版本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특히 遺集의 경우에는 그 目錄과 실제 수록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으며, 편찬원칙을 밝힌 凡例에는 附錄에 <言行通錄>과 <年譜> 등을 수록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한편의 글도 수집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詩文에 중점을 두어 다른 著述은 소홀히 취급된 한계가 있다. 이 樊南本 97권 75책은 경비를 전담한 李彙溥가 자신의 樊南家塾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樊南本이라고 하며, 1980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陶山全書」로 영인·출간되었다. ② 上溪本은 1910년 이후에 후손들이 樊南本을 저본으로 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上溪의 光明室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上溪本이라 하며 本集目錄 1책, 本集 66권26책, 續集 8권3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遺集 20권 6책의 도합 96권 39책으로 정리된 것인데 이 중 數冊은 韓國動亂으로 遺失되었다고 한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 庚子(1600)年 初刊本은 원래 本集目錄 2권2책, 本集 49권25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都合 57卷 31冊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는 本集目錄 2권2책, 本集 4권2책(32~33, 44~45),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11권 7책이 결락된 本集 45권23책(권 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도합 46권 24책이 소장되어 있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 庚子年 初刊本의 表題·卷首題·卷末題·版心題 등은 모두 「退溪先生文集」이고 邊欄은 四周雙邊이며 行字數는 10行18字이다. 版心の 魚尾는 주로 上下內向花紋魚尾이나 간혹 上下內向黑魚尾와 上下內向有紋魚尾 등이 있기도 하다.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에는 「萬曆庚子玉山書院上」(別集)와 「玉山書院上」(本集) 등의 寄贈記가 墨書되어 있고 모든 책에 「慶州府印」과 「月城後人李時發養久」 등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데, 특히 「慶州府印」은 모든 책에 날인되어 있다. 李時發(1569~1626)은 本貫이 月城(慶州)이고 字가 養久로 本書가 간행되던 宣祖 33(1600)년 당시에 慶州府尹을 역임하고 있었다. 本集에서 간혹 「玉山書院上」이라는 寄贈記를 지우고 그 위에 「驪江李氏家藏」이라는 藏書記를 墨書한 경우도 있다. 이로 보아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宣祖 33(1600)년에 陶山書院에서 印出되어 玉山書院에 기증된 書籍인데, 어떤 緣由에서인지 李時發에 의하여 守藏되기도 하고 晦齋 李彦迪의 후손 중의 누군가에 의하여 守藏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慶州府印’의 官印이 날인된 이유는 본서가 간행되던 宣祖 33(1600)년 당시에 慶州府尹을 역임하던 李時發과의 관련성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종주가 된 退溪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退溪의 學問觀과 文學觀의 研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의 思想史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의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인 만큼 書誌學研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할 당시의 木板이 현재 陶山書院의 所有로 韓國國學振興院에 752매가 殘板으로 전존되고 있다.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의 木板은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研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소장의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의 殘板 752매도 조사본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文化財聽의 職權調査를 통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初刊 「退溪先生文集」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 지정사례

<退溪先生文集>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 문헌자료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9. 퇴계선생문집 목판(退溪先生文集 木板)

가. 검토사항

‘퇴계선생문집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3.4.29)된 ‘퇴계선생문집’에 대한 관계전문가 조사('15.1.23) 결과,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퇴계선생문집 목판’과 함께 지정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15.4.22)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퇴계선생문집 목판(退溪先生文集 木板)
- 소유자(관리자): 도산서원(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 수 량: 752매 (본집 709매, 외집 15매, 별집 28매)
- 규격(cm): 세로 19.5(18.9)×가로 55.9(17.7)×두께 3.0 내외
- 재 질: 목(木, 松木 등)
- 판 종: 목판(木板)
- 형 식: 양면(兩面)·양각(陽刻)
- 제작연대: 1600년(선조 33) 판각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退溪先生文集冊版」은 조선시대가 배출한 탁월한 학자이며, 동시에 嶺南學派의 宗匠인 退溪 李滉(1501-1570)의 학문적 성과를 集成한 퇴계선생문집을 인출하기 위하여, 1600년(선조33)에 門人 趙穆등이 중심이 되고 여타 후학과 후손,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판각한 庚子板의 일부가 전래된 것이다.

이들 冊版은 그 내용의 풍부함이나 분량의 방대함은 물론, 이를 편집하고 板刻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문집편집의 방법과 성과가 조선후기의 문집 편집과 판각의 典範이 되었다. 그리고 이 책판은 바로 서적출판의 필름과도 같은 그 本體라는 점에서, 유교사회 공동체의 이해를 비롯하여 당시의 출판문화사 연구 등에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 된다. 따라서 이들 책판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退溪先生文集木板)』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시문집인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경자본(庚子本) 초간본(初刊本)을 인출해낸 목판이다.

『퇴계선생문집』은 원래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9권 25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모두 57권 3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퇴계선생문집목판』은 본래 수량은 경자년 초간본 『퇴계선생문집』의 전질(全帙)이 전래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은 경자년 초간본인 『퇴계선생문집』과 함께 중요한 유물로 조선 중기의 사회사, 문헌학상 목판본 연구를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退溪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이다.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退溪先生文集」 庚子(1600)年 初刊本을 印出해낸 木板이다. 「退溪先生文集」은 원래 本集 目錄 2권2책, 本集 49권25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57卷 31冊으로 구성된 退溪의 全集이나 全集의 全帙이 전래되지 않아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원래 木板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에는 현재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의 도합 752매의 殘存 木板이 所藏되어 있을 뿐이다.

庚子年 初刊本の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종주가 된 退溪의 全集으로 退溪의 學問觀과 文學觀의 研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의 思想史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조사문화재 庚子年 初刻의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

」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研究와 조선 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研究 등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 소장의 庚子年 初刻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殘板 752매는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年 初刻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

□ 形態事項 :

退溪先生文集 木板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板刻者 不明]. -- 木板.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都合 752枚 : 四周雙邊, 半郭 18.9×17.7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19.5×55.9×3.0cm 內外.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魚 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木板數: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포함 752枚가 保傳되어 있음.

所藏板: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제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5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3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3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기 지정: 무

○ 현 상

조사대상 문화재인 退溪先生文集冊板(752매)은 2003년도에 陶山書院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관리중이다.

冊板의 保存狀態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일부의 책판은 마구리가 훼손되어 있고, 上邊欄 위에 추가로 판각하여 연결한 校勘記 등의 연결상태가 부실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수리할 필요가 있다.

○ 내용 및 특징

「退溪先生文集冊板」은 조선시대가 배출한 탁월한 학자이며, 동시에 嶺南學派의 宗匠인 退溪 李滉(1501~1570)의 학문적 성과를 集成한 퇴계선생문집을 인출하기 위하여 1600년(선조33)에 판각한 책판 중에 지금까지 전래된 752枚이다.

「退溪先生文集冊板」은 그 내용의 풍부함이나 분량의 방대함은 물론, 이를 편집하고 板刻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문집편집의 방법과 성과가 조선후기 문집의 편집과

판각의 典範이 된 그 本體라는 점에서,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학진흥원소장 퇴계집책판은 선생의 門人인 月川 趙穆(1524-1606)이 중심이 되고, 여러 문인과 후손, 그리고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하에 퇴계선생 사후 30여년 만에 완성을 본 庚子板(1600)이다. 편집기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판각되면서 오류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수정판이 간행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들 책판에는 上邊의 윗 부분에 나무에 새겨 첩판으로 연결시킨 교감기나 주석등을 보게 되는데, 이는 경자본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고안한 방법의 흔적들이다.

○ 지정사례

退溪先生文集冊板과 동종의 유물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 문헌정보

- 신승운, 퇴계집해제(한국문집총간. www.itkc.or.kr)
- 신승운,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대동문화연구39권(365-394),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2001.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외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韓國國學振興院(<http://mokpan.ugyo.net/index.do>)
- 陶山書院(<http://www.dosanseowon.com/>)
-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研究所 提供 <退溪先生文集 木板目錄>(陶山書院)

□

書誌事項

退溪先生文集 木板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板刻者 不明]. -- 木板.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刻 推定].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 都合 752枚 : 四周雙邊, 半郭 18.9×17.7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19.5×55.9×3.0cm 內外. 木(松木 등). 兩面·陽刻.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魚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木板數: 原板의 數量은 알 수 없으며, 현재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의 도합 752枚가 殘板으로 傳存되고 있음.

所藏板: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第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5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3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3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年譜 第1卷 0枚. -年譜 第2卷 0枚. -年譜 第3卷 0枚. -年譜 第4卷 0枚.(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 도합 752매)

○ 현 상

조사본 『퇴계선생문집목판(退溪先生文集木板)』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의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소유로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장관각에 도산서원의 기탁으로 수장되어 있다.

본래 원판(原板)의 수량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본집 709매, 외집 15매, 별집 28매 등 모두 752매가 잔판으로 전존되고 있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退溪先生文集木板)』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시문집인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경자본(庚子本) 초간본(初刊本)을 인출해낸 목판이다.

『퇴계선생문집』은 원래 본집 목록 2권 2책, 본집 49권 25책, 별집 1권 1책, 외집 1권 1책, 연보 4권 2책 등 모두 57권 3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퇴계선생문집목판』은 본래 수량은 경자년 초간본 『퇴계선생문집』의 전질(全帙)이 전래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장관각에는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第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

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6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2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2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年譜 第1卷 0枚. -年譜 第2卷 0枚. -年譜 第3卷 0枚. -年譜 第4卷 0枚 등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등 모두 752매의 잔존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조사 진행



목판 권1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의 서명은 표제·권수제·판심제·권말제 등이 모두 ‘퇴계선생문집’이다. 판식(板式)은 변란이 사주단변(四周雙邊)이며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18.9cm이고 가로 17.7cm이다. 판면(版面)에는 계선(界線)이 있고 행자수는 10행 18자이다. 판구(板口)는 백구(白口)이며 판심(版心)의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화문어미(上下內向花紋魚尾)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및 상하내향유문어미(上下內向有紋魚尾) 등이 혼재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세로 19.5cm, 가로 55.9cm, 두께 3.0cm 내외이다. 나무의 종류는 송목(松木) 등이며 판면의 양면에 양각(陽刻)되어 있다.

『퇴계선생문집』의 본격적인 간행은 1600년(선조 33, 경자)에 도산서원에서 조

목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조목의 「문집고성문(文集告成文)」에 의하면 1599년(선조 32, 기해) 봄부터 여러 동지와 함께 개간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자본(庚子本)의 간행 이후 류성룡에 의하여 「퇴계선생연보(退溪先生年譜)」 3권과 부록 1권이 편찬되어 경자본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본집(本集) 목록 2권, 본집(本集) 49권, 별집(別集) 1권, 외집(外集) 1권, 연보(年譜) 4권 등 모두 57권 31책으로 간행된 경자본(庚子本)은 현재 옥산서원(玉山書院) 및 계명대학교 등에 잔본(殘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한편 국학진흥원에는 경자본과 함께 경자본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 부분만을 개각(改刻)하거나, 교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전체를 다시 판각한 목판들이 함께 소장되어 있다.

이들 목판은 중간본류(重刊本類)에 해당하는데, 甲辰本(1724), 癸卯本(1843)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축보각본(丁丑補刻本, 1817)의 「각판일기(刻板日記)」에 이이순(李頤淳, 1754~1832)이 쓴 「제문집개간일기후(題文集改刊日記後)」에 의하면 “선생의 문집은 수차 간판(刊板)되어 모두 3가지 판본이 있게 되었다. 초본(初本)은 만력(萬曆) 경자년(庚子年, 1600)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연보의 문집조성문(文集告成文)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본(中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영묘(英廟) 갑진(甲辰, 1724) 연간에 방조(傍祖)인 삼가공(三嘉公)이 동주(洞主)로서 다시 간판하였는데 당시의 일기가 본가(本家)에 있다고 하며 이 판본이 현재 통행되는 판본이다”라고 하여 관련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갑진본(甲辰本)은 이이순의 글에서 나타나듯 경자본(庚子本)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조 갑진년(1724)에 이루어진 판본으로 처음으로 두주(頭註)가 첨각(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되는 판본 중 상당수가 갑진본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가 刷出(刷出)되고 유포도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목의 마모에 따라 보각도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갑진본에 대대적으로 보각된 경우가 있었는데 「선조문집개간일기(先祖文集改刊日記)」가 바로 그때의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정축년(1817)에 대략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200판 정도가 보각되었다. 이때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의 차의(筭疑) 100 여 조 등을 두주(頭註)로 첨각하였는데, 새로 각판한 것이 아닌 구판(舊板)에 두주를 첨각할 때는 판두(板頭)에 나무를 대고 철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보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200판의 보각은 극히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간이 불가피한 형편이었는데 이를 갑진중간보각본(甲辰重刊補刻本)이라 한다.

계묘본은 정축보각본(丁丑補刻本) 이후 26년 만인 1843년(헌종 9, 계묘)년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이 판본의 간행경위에 관하여는 「퇴계선생문집중간시일기(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계묘교정중간본(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영남의 전체 사림이 완정한 판본을 만들기 위

해 교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실제로 문집도 이전의 판본에 비하여 일신되었다. 이 계묘본은 갑진본처럼 두주가 첨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판식(板式)이 엄격하고 자체도 해정하여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계묘본은 본집 49권, 별집, 외집, 연보 4권의 30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연보에는 1839년(헌종 5, 기해)년에 내린 치제문(致祭文)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 계묘중간본은 규장각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경자본과 정축보각본

조사 유물인 『퇴계선생문집목판』은 경자년 초간본인 『퇴계선생문집』과 함께 중요한 유물로 조선 중기의 사회사, 문헌학상 목판본 연구를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지정사례

『퇴계선생문집목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 形態記述 :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形態記述은 다음과 같다.

退溪先生文集 木板 / 李滉(1501~1570, 朝鮮) 撰 ; [板刻者 不明]. -- 木板.
-- [禮安] : [陶山書院], [宣祖 33(1600) 刻 推定].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 都合 752枚 : 四周雙邊, 半郭
18.9×17.7cm, 有界,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 19.5×55.9×3.0cm 內外. 木(松
木 등). 兩面·陽刻.

表 題: 退溪先生文集

卷首題: 退溪先生文集

版心題: 退溪先生文集

卷末題: 退溪先生文集

魚 尾: 上下內向花紋魚尾,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內向有紋魚尾

木板數: 原板의 數量은 알 수 없으며, 현재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
枚, 年譜 0枚의 道합 752枚가 殘板으로 傳存되고 있음.

所藏板: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
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第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
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5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
26卷 9枚. -本集 第27卷 13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3
枚. -本集 第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
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
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
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
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年
譜 第1卷 0枚. -年譜 第2卷 0枚. -年譜 第3卷 0枚. -年譜 第4卷 0
枚.(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 道합 752매)

狀 態: 殘存 木板 752매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요망한
다.

所 藏: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研究所(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傳來歷: 韓國國學振興院이 2003년 4월 14일에 陶山書院으로부터 受託함.

既指定: 無

○ 현 상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의 陶山書院의 소유로 현재 慶尙北道 安東市 陶山面 退溪路 1997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에 陶山書院의 寄託으로 守藏되고 있으며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研究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保存狀態는 殘存 木板 752매는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年 初刊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요망한다.

○ 내용 및 특징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退溪 李滉(1501~1570)의 詩文集이다. 退溪는 朱子の 학문과 사상을 이은 道學者로서 理氣互發說 등 性理學 관련 분야에서 고명한 탁견과 학문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이다. 특히 退溪가 당시 君王인 宣祖에게 올린 <聖學十圖>는 聖學에 대한 先學들의 圖와 說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儒學의 핵심을 10개의 圖로써 정리한 것으로, 君主는 四端의 마음을 확충해 本性을 회복한 聖人이 되는 學問인 聖學을 돈독히 닦아 그것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退溪는 평소에 자신의 著作을 매우 유의하여 정리해 놓았던 듯하다. 生前에 「自省錄」을 편집한 것이라든지, 順조 7(1807, 정묘)년에 후손 李野淳(1755~1831)이 편찬한 「退溪先生年譜補遺」은 그 凡例에서 선생의 文集·逸集·雜錄·手本·日記·來歷·草記 등에 의하여 追補된 것이라고 한 사실이라든지, 高宗 6(1869, 기사)년에 「陶山全書」를 編纂할 때 陶山書院의 光明室에 소장되어 있던 「退陶集」·「退溪先生集」·「先生文集草本」·「文集草本」·「退溪先生文集拾遺」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든지 하는 등의 사실은 退溪의 著述이 잘 보존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퇴계의 生前부터 잘 보존된 遺文에 대한 정리로 「退溪先生文集」은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退溪先生文集」의 편찬은 退溪가 卒去한 직후인 선조 4(1571, 신미)년부터 시작되었다. 退溪의 高弟인 月川 趙穆(1524~1606)을 중심으로 그의 弟子들은 선조 4(1571)년부터 易東書院에 모여 遺文을 정리하는 한편, 각처에 있던 弟子들도 각자가 정리한 草稿를 易東書院으로 보내오자 선조 6(1573, 계유)년에는 宣祖가 柳成龍(1542~1607) 등의 요청에 따라 「退溪集」을 校書館에서 印出하라고 하명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11(1578, 무인)년에 退溪의 손자인 李安道(1541~1584)가 어느

정도 정리된 草稿를 가지고 漢陽으로 올라와 在京門徒인 柳成龍을 중심으로 乙覽을 위한 編輯과 校正 그리고 淨寫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완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乙覽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의 文集의 編輯은 대체로 禮安에 있던 趙穆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月川年譜」에는 “甲申(1584)年 9월에 「退溪先生文集」을 哀集하였다”고 하였고 柳雲龍(1539~1601)의 年譜에서도 동(1584)년 9월에 陶山書院에서 모여 「退溪先生文集」을 교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의 참여자였던 趙穆, 琴應燠(1540~1616), 權宇(1552~1590), 金澤龍(1547~1627), 金垓(1555~1593), 洪汝栗(1563~1600) 등의 姓名이 脚註에 수록되어 있다. 이때에 대략 초고의 編輯이 완성되고 草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草本의 교정과 편찬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鶴峯 金誠一(1538~1593)이 선조 19(1586, 병술)년경에 趙穆에게 보낸 書簡에서 文集의 草本이 趙穆을 중심으로 琴應燠과 琴應夾(?~?) 등에 의하여 일단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초본에는 退溪의 모든 著作이 수록되었으며 심지어 手錄本의 詩稿에서 退溪가 刪節한 것까지도 別集 등으로 編次하여 편입되었다. 이렇게 文集의 草本이 완성된 후에 柳成龍은 선조 19(1586, 병술)년에 趙穆에게 편지를 보내 “編輯의 원칙은 次第가 분명해야 하고 상세하고 간명한 것이 모두 적당해야 합니다”고 하며 刪節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 20(1587, 정해)년 5월에 趙穆, 柳雲龍, 金誠一이 廬江書院에서 모였으나 이 회합에 柳成龍이 참석하지 않아 刪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다만 이 모임에서는 文集의 草本에 대한 校正의 方案과 分擔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刪節이 결정된 것은 동(1587)년 8월 屏山의 會合에서였다. 이때 刪節에 부정적인 趙穆과 刪節을 주장한 柳成龍의 대립을 金誠一이 중재하여 일단 柳成龍의 의견에 따라 刪節하기로 결정되었던 듯하다. 이에 따라 柳成龍은 선조 21(1588, 무자)년 초까지 刪節을 모두 마치고 이를 다시 繕寫하여 中草本의 작성에 착수하였는데, 이 中草本의 작성은 柳成龍의 주관 하에 진행되고 동(1588)년 6월 15일에는 屏山에서 中草本에 대한 교정과 편집회의가 열렸으며, 대체로 柳成龍을 중심으로 교정을 진행하여 조속히 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물론 柳成龍의 刪節本으로 中草本이 작성되는 것에 반대한 趙穆은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禹性傳(1542~1593)과 같이 선생의 片言隻字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全稿收錄의 원칙을 견지하는 門徒도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동(1588)년 10월에 柳成龍이 형조판서에 제수되어 入京하자 그를 따라 서울에서 中草本의 작업이 진행된 듯하나, 이 中草本의 작성은 선조 22(1589, 기축)년에 일어난 己丑獄事로 인하여 지지부진해지고 선조 25(1592, 임진)년의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退溪先生文集」의 본격적인 刊行은 선조 33(1600, 경자)년에 陶山書院에서 趙穆의 主導로 이루어지는데, 趙穆의 <文集告成文>에 의하면 선조 32(기해, 1599)년 봄부터 여러 동지와 함께 開刊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간행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趙穆은 柳成龍이 刪節한 中草本을 무시하고 刪節되지 아니한 草

本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柳成龍이 선조 39(1606, 병오)년경에 李好閔(1553~1634)에게 보낸 편지에서 “宣城人(趙穆)이 갑자기 草本으로 板刻할 줄은 몰랐다”고 하여, 趙穆이 柳成龍의 中草本이 아닌 자신이 編輯한 草本을 바탕으로 간행함으로써 刊行事業에서 柳成龍이 배제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庚子(1600)년의 初刊本이 간행되자마자 柳成龍을 중심으로 改刊이 의논되었는데, 李好閔에게 보낸 편지에는 “평소에 이 文集을 펴볼 때마다 개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다 쓰고 버린 빗자루 같아서 改刊할 능력이 없습니다.”고 하여, 庚子本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改刊의 의도는 우선 庚子本을 교정하는 일로 표현되었는데, 柳成龍의 제자인 鄭經世(1563~1633) 등이 이를 교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改刊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문인 柳成龍에 의하여 「退溪先生年譜」 3권과 附錄 1권이 편찬되어 庚子本에 추가된 듯하다. 이렇게 本集目錄 2권, 本集 49권, 別集 1권, 外集 1권, 年譜 4권 등 都合 57卷 31冊으로 간행된 「退溪先生文集」의 庚子年 初刊本은 현재 玉山書院 및 啓明大學校 등에 殘本으로 소장되어 있다.

庚子本 이후의 「退溪先生文集」의 간행은 모두 陶山書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2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1) 첫째는 庚子本이 간행된 직후에 庚子本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여 그 교정부분만을 改刻하거나, 교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전체를 다시 판각한 庚子本類이다. 庚子本補刻本, 擬庚子本, 庚子本覆刻本 등으로 불리는 이런 板本은 庚子本이 간행된 선조 33(1600)년에서 멀지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退溪先生文集」이 어느 정도 완전한 판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板本으로 보인다. 따라서 修正이 상당부분 진행된 庚子本의 覆刻本을 제외하고는 그 유포도 비교적 넓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2) 둘째는 重刊本類이다. 重刊本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① 이른바 “中本”으로서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과 ② 甲辰本(1724) 및 ③ 癸卯本(1843)이 그것이다. ① 中本의 경우 丁丑補刻本(1817)의 刻板日記에 李頤淳(1754~1832)이 쓴 <題文集改刊日記後>에 의하면 “선생의 文集은 數次 刊板되어 모두 3가지 판본이 있게 되었다. 初本은 萬曆 庚子年(1600)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年譜의 文集告成文을 보면 알 수 있다. 中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英廟 甲辰(1724)年間に 傍祖인 三嘉公이 洞主로서 다시 刊板하였는데 당시의 日記가 本家に 있다고 하며 이 板本이 현재 通行되는 板本이다”라고 하여 中本은 그 板本의 존재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그 刊行의 時期나 경위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고 하여 당시에도 이미 이 판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② 甲辰本은 李頤淳의 글에서 나타나듯 庚子本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英祖 甲辰年(1724)에 이루어진 판본으로 처음으로 頭註가 添刻되었다. 현재 전존되는 판본 중 상당수가 甲辰本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가 刷出되고 流布도 매우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板本의 마모에 따라 補刻도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

된다. 그리고 甲辰本에 대대적으로 補刻된 경우가 있었는데 위의 「先祖文集改刊日記」가 바로 그때의 경위를 기술한 것으로 정축(1817)년에 대략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200판 정도가 補刻되었다. 이때 廣瀨 李野淳의 筭疑 100餘條 등을 頭註로 添刻하였는데, 새로 刻板한 것이 아닌 舊板에 頭註를 添刻할 때는 板頭에 나무를 대고 철판을 붙이는 등 견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래 保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200판의 補刻은 극히 불량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重刊이 불가피한 형편이었는데 이를 甲辰重刊補刻本이라 한다. ③ 癸卯本은 丁丑補刻本 이후 26년 만인 현종 9(1843, 계묘)년에 간행된 重刊本이다. 이 판본의 간행경위에 관하여는 「退溪先生文集重刊時日記」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癸卯校正重刊本이라고도 불리는데 嶺南의 전체 士林이 완전한 판본을 만들기 위해 교정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실제로 文集도 이전의 판본에 비하여 일신되었다. 이 癸卯本은 甲辰本처럼 頭註가 添刻되었으며 전체적으로 板式이 嚴格하고 字體도 楷正하여 당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癸卯本은 本集 49권, 別集, 外集, 年譜 4권의 30책으로 간행되었는데, 年譜에는 憲宗 5(1839, 기해)년에 내린 致祭文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 癸卯重刊本은 奎章閣과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다.

「退溪先生文集」의 續集(8권)은 退溪의 후손 李守淵(1693~1748)이 陶山書院에 소장된 拾遺를 바탕으로 자신이 10여 년간 수집한 著作을 더하여 영조 40(1764, 갑신)년에 편찬한 것이다. 그의 跋文을 보면 續集의 編纂은 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서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편자인 李守淵이 간행까지 간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續集의 간행에 대한 다른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정조 12(1788, 무신)년경에 편찬이 완료된 「退溪先生文集考證」에 續集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영조 40(1764)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續集의 初刊本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退溪先生言行錄」은 정조 17(1793, 계축)년에 權斗經(1654~1725)이 편찬한 「退溪言行通錄」 8권을 개정하여 陶山書院에서 6권으로 간행되었다. 「退溪先生文集考證」은 고종 28(1891, 신묘)년에 柳建鎬(?~?)가 간행한 것이다. 처음에 柳道源(1721~1791)이 자신의 隨錄과 洪汝河(1621~1678)가 詩卷에 隨記한 訓解, 그리고 金江漢(1719~1779)이 書簡부분을 주석한 「退溪集考證」을 합하여 정조 12(1788)년에 정리·편집되었다. 그 후 그의 현손인 柳建鎬가 退溪의 후손 李野淳이 隨記한 <要存錄>을 각 卷末에 첨부하여 고종 28(1891, 신묘)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현재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退溪의 모든 詩文을 수집하여 정리한 筆寫本인 「退溪先生全書」가 3種이 있는데 ① 樊南本과 ② 上溪本 및 ③ 下溪本으로, 이 중에서 下溪本은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① 樊南本은 고종 6(1869)년에 退溪의 후손 癡翁 李彙溥(1809~1869)·李彙載(1795~1875)·李晚浩(?~?)·李晚慤(1815~1874) 등과 禮安

의 유생 40여명이 陶山書院에 모여 重刊本을 내되 「朱子大全」의 체재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으고 陶山書院의 光明室에 소장된 文集의 草本을 바탕으로 傳存된 退溪의 모든 詩文을 수집·정리한 것이다. 이때 光明室에 소장되었던 草本은 최초의 초본인 「退陶集」 20책, 中本으로 불리는 「退溪先生集」 40책, 庚子本の 底本人 「退溪先生文集」 30책 및 「退溪先生手簡」 2책, 「先生文集草本」 1책, 「文集草本」 2책, 「退溪先生集拾遺」 12책 등이었다. 가장 양적으로 풍부한 中本人 「退溪先生集」 40책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稿本 중 이 中本에 수록되지 않은 저작을 모두 遺集 13책으로 편차하였으며 李彙溥(1809~1868)가 외부에서 수집한 것도 추가하였다. 따라서 전체는 目錄 1책, 逸書目錄 1책, 本集 66권49책, 外集 1권1책, 別集 2권2책, 續集 8권6책이고, 遺集은 卷次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13책이며 기타 編次가 분명하지 않은 雜著 2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찬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 「退溪先生文集」과 비교하면 대략 1,000편 정도의 저작이 「退溪先生文集」보다 많으며, 동일한 저작에 있어서도 1,000여 군데 이상이 「退溪先生文集」에서보다 더 첨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版本은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특히 遺集의 경우에는 그 目錄과 실제 수록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으며, 편찬원칙을 밝힌 凡例에는 附錄에 <言行通錄>과 <年譜> 등을 수록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한편의 글도 수집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詩文에 중점을 두어 다른 著述은 소홀히 취급된 한계가 있다. 이 樊南本 97권 75책은 경비를 전담한 李彙溥가 자신의 樊南家塾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樊南本이라고 하며, 1980년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陶山全書」로 影印·出刊되었다. ② 上溪本은 1910년 이후에 후손들이 樊南本을 저본으로 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上溪의 光明室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上溪本이라 하며 本集目錄 1책, 本集 66권26책, 續集 8권3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遺集 20권 6책의 도합 96권 39책으로 정리된 것인데 이 중 數冊은 韓國動亂으로 遺失되었다고 한다.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退溪先生文集」 庚子(1600)年 初刊本을 印出해낸 木板이다. 「退溪先生文集」은 원래 本集 目錄 2권2책, 本集 49권25책, 別集 1권1책, 外集 1권1책, 年譜 4권2책 등 도합 57권 31冊으로 구성된 退溪의 全集이다. 그러나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원래 木板數는 庚子(1600)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의 全帙이 전래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재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에는 -本集 目錄上 14枚. -本集 目錄下 15枚. -本集 第1卷 21枚. -本集 第2卷 17枚. -本集 第3卷 21枚. -本集 第4卷 13枚. -本集 第5卷 22枚. -本集 第6卷 25枚. -本集 第7卷 28枚. -本集 第8卷 17枚. -本集 第9卷 13枚. -本集 第10卷 7枚. -本集 第11卷 17枚. -本集 第12卷 10枚. -本集 第13卷 11枚. -本集 第14卷 13枚. -本集 第15卷 11枚. -本集 第16卷 19枚. -本集 第17卷 15枚. -本集 第18卷 12枚. -本集 第19卷 14枚. -本集 第20卷 10枚. -本集 第21卷 19枚. -本集 第22卷 14枚. -本集 第23卷 20枚. -本集 第24卷 9枚. -本集 第25卷 14枚. -本集 第26卷 9枚. -本集 第27卷 13枚. -本集 第28卷 11枚. -本集 第29卷 13枚. -本集 第

30卷 16枚. -本集 第31卷 15枚. -本集 第32卷 13枚. -本集 第33卷 14枚. -本集 第34卷 14枚. -本集 第35卷 13枚. -本集 第36卷 12枚. -本集 第37卷 19枚. -本集 第38卷 8枚. -本集 第39卷 11枚. -本集 第40卷 8枚. -本集 第41卷 16枚. -本集 第42卷 10枚. -本集 第43卷 9枚. -本集 第44卷 2枚. -本集 第45卷 6枚. -本集 第46卷 18枚. -本集 第47卷 19枚. -本集 第48卷 11枚. -本集 第49卷 8枚. -外集 目錄 2枚. -外集 第1卷 13枚. -別集 目錄 5枚. -別集 第1卷 23枚. -年譜 第1卷 0枚. -年譜 第2卷 0枚. -年譜 第3卷 0枚. -年譜 第4卷 0枚 등 本集 709枚 外集 15枚, 別集 28枚, 年譜 0枚의 도합 752매의 殘存 木板이 所藏되어 있다.

조사문화재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書名은 表題·卷首題·版心題·卷末題 등이 모두 '退溪先生文集'이다. 板式은 邊欄이 四周雙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9cm이고 가로 17.7cm이다. 板面에는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10行 18字이다. 板口는 白口이며 版心の 魚尾는 上下內向花紋魚尾와 上下內向黑魚尾 및 上下內向有紋魚尾 등이 혼재되어 있다. 목판의 크기는 세로 19.5cm, 가로 55.9cm, 두께 3.0cm 내외이다. 나무의 종류는 松木 등이며 板面の 兩面에 陽刻되어 있다.

庚子年 初刊本の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종주가 된 退溪의 全集으로 退溪의 學問觀과 文學觀의 研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의 思想史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조사문화재 庚子年 初刻의 <退溪先生文集 木板>은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研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研究 등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藏板閣 소장의 庚子年 初刻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殘板 752매는 庚子年 初刊本 「退溪先生文集」과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年 初刻 <退溪先生文集 木板>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 지정사례

<退溪先生文集 木板>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없다.

○ 문헌자료

-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배현숙·이수환·남권희의 조사보고서). 大邱, 大邱廣域市 文化財委員會,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문화재검색(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c=NS_04_03_01)
- 韓國國學振興院(<http://mokpan.ugyo.net/index.do>)

- 陶山書院(<http://www.dosanseowon.com/>)
- 韓國國學振興院 木板研究所 提供 <退溪先生文集 木板目錄>(陶山書院) 參看

10. 조선왕조의례(朝鮮王朝儀軌)

가. 검토사항

‘조선왕조의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래, 국민적 관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일체조사('11~'13)를 실시하고, 지정신청 대상목록 작성팀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정대상 선정 및 검토('14. 9월~'15. 1월)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조선왕조의례(朝鮮王朝儀軌)
- 소유자(관리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13개처
- 소재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13개처
- 수 량: 총 1,760건 2,756책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필사본(筆寫本), 활자본(活字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조선후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종합의견 : 국왕이 수행하는 국정 가운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국가 행사나 사업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던 의례는, 행사나 사업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즉,

행사나 사업기간 중에 국왕이 내린 명령서, 업무를 분장한 관청 간에 오간 공문서, 업무의 분장 상황, 업무 담당자의 명단, 행사 또는 공사에 동원된 인원, 소요 물품, 경비의 지출 내역, 유공자에 대한 포상 상황이 모두 기록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거나 탄 곳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본 의궤 1760건 2756책은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의궤 1760건 2756책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의궤는 어람용 및 예람용 의궤 및 분상용 의궤로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 현 상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한국순교자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 사천시청,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청주시청 등 13개처에 모두 1,760건 2,756책이 보관, 관리되고 있다.

조사본의 현재 상태는 거의 대부분 양호한 편이며 일부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조선왕조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癸亥條에 정도전, 권근 등이 찬수한 종묘 제사 때의 춤에 관한 의궤와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丁亥條에 태조4년 경복궁 창건시 그 건설과정을 기록한 『景福宮造成儀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의궤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지정 대상 의궤는 모두 1,760건 2,756책이다. 이 중에 선조 34년(1601) 3월에 작

성된 사천시청 소장의 『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와 선조 34년(1601) 6월에 작성된 규장각소장의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1910년의 『[興王]冊封儀軌』가 가장 후대의 것이다.

의궤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胎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親農·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의궤의 체제는 의례의 전 일정을 일자별로 정리한 時日, 의례의 주요장면이나 주요도구의 그림을 실은 圖式, 圖說, 업무시 오고간 문서들을 기록한 教旨, 上奏文,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적은 財用, 물품을 제조한 각종 기술자의 명단인 工匠, 의례 집행시 유공자 포상 내용을 적은 賞典 등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이다.

○ 지정기준

조선왕조의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지정 명칭은 조선왕조의궤로 한다.
- 2) 1)항에 의거 의궤 작성 시기의 하한은 1910년까지로 하며, 일제강점기 제작된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활자본(완질/비완질), 고본 등의 의궤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1)항과 2)항에 의거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어람용
- 분상용 유일본
- 분상용 비유일본
- 분상처 미확인 필사본

○ 지정 대상- 유형별 현황

1. 어람용

어람용 유일본	규장각 : 『營建廳儀軌』 등 10건 14책	10건 14책
어람용 비유일본 (완질본/비 완질본)	규장각 : 『親耕儀軌』 등 142건 243책(완질) 『嘉禮都監儀軌』 7건 22책(비완질) 장서각 : 『殯宮都監儀軌』 등 13건 18책(완질) 『墓所都監儀軌』 1건 1책(비완질) 국립고궁박물관 : 『元子阿只氏廟儀軌』 등 2건 2책(완질) 서울역사박물관 : 『追封 冊封儀軌』 등 1건 1책(완질) 한국순교자박물관 : 『冊封儀軌』 등 2건 2책(완질) 국립중앙도서관 : 『徽慶園 園所都監儀軌』 1건 1책(비완질)	169건 290책

2. 분상용 유일본

분상용 유일본 (완질본/비 완질본)	규장각 : 『殯殿魂殿都監儀軌』 99건 107책(완질) 『禮葬都監二房儀軌』 등 3건 3책(비완질) 장서각 : 『祀典別儀軌』 17건 20책(완질) 『進饌所儀軌』 등 2건 2책(비완질) 국립문화재연구소 :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1건 1책(완질) 사천시청 : 『世宗大王胎室石欄干修改儀軌』 3건 3책(완질)	125건 136책
------------------------------	--	-----------

3. 분상용 비유일본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필사본/활 자본)	규장각 : 『宣宗大王懿仁王后祔廟都監二房儀軌』 등 885건 1,458책(필사)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7건 53책(활자) 장서각 :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廳儀軌』 등 214건 253책(필사) 『[憲宗戊申]進饌儀軌』 등 13건 49책(활자) 국립문화재연구소 : 『昌德宮修理都監儀軌』 등 8건 9책(필사) 국립고궁박물관 : 『昌慶宮營建都監儀軌』 등 60건 105책(필사)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1건 8책(활자) 국립중앙도서관 : 『肇慶壇 濬慶墓 永慶墓 營建廳儀軌』 1건 2책(필사) 삼척시립박물관 : 『肇慶壇 濬慶墓 永慶墓 營建廳儀軌』 1건 2책(필사) 국립중앙박물관 : 『華城城役儀軌』 등 1건 9책(활자) 연세대학교 : 『[丁亥]進饌儀軌』 등 1건 9책(활자)	1,192건 1,957책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필사본/활 자본)	규장각 : 『國葬都監都廳儀軌』 등 47건 75책(필사)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2건 14책(활자) 장서각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등 5건 5책(필사)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2건 8책(활자)	56건 102책

4. 분상처 미확인

분상처 미확인 필사본 (완질본/비완 질본)	규장각 : 『迎接都監賜祭廳儀軌』 등 141건 178책(완질) 『推刷都監儀軌』 등 31건 38책(비완질) 장서각 : 『冊禮都監儀軌』 등 13건 13책(완질) 『英祖·貞純王司嘉禮都監儀軌』 등 10건 13책(비완질) 국립문화재연구소 : 『影眞模寫都監儀軌』 등 5건 5책(완질) 국립고궁박물관 : 『睿源譜略修正儀軌』 등 5건 7책(완질) 이화여자대학교 : 『上號都監儀軌』 1건 1책(완질) 청주시청 : 『胎室欄干造排儀軌』 1건 1책(완질) 국립중앙도서관 : 『肇慶壇 溶慶墓 永慶墓 營建廳儀軌』 1건 1책(비완질)	208건 257책
----------------------------------	--	--------------

○ 지정 대상- 소장처별 현황

연 번	기관명	분류											계
		어람용		분상용									
		유 일 본	비유일본		유일본		비유일본						
			완 질	비 완 질	완 질	비 완 질	완질			비완질			
							분상처 유	분 상 처 무	분상처 유	분상처 무			
필 사 본	활 자 본	필 사 본	필 사 본	활 자 본	필 사 본	활 자 본							
1	규장각	10	142	7	99	3	885	7	141	47	2	31	1,374
2	장서각		13	1	17	2	214	13	13	5	2	10	290
3	국립문화재연구소				1		8		5				14
4	국립고궁박물관		2				60	1	5				68
5	국립중앙박물관							1					1
6	국립중앙도서관			1			1					1	3
7	서울역사박물관		1										1
8	삼척시립박물관						1						1
9	한국순교자박물관		2										2
10	연세대학교							1					1
11	이화여자대학교								1				1
12	사천시청				3								3
13	청주시청								1				1
계(13기관)		10	160	9	120	5	1,169	23	166	52	4	42	1,760

○ 상세목록 : 붙임 1 참조

○ 문헌자료

-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박정혜, 「의궤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화원」, 『美術史研究』 第9號(미술사연구회, 1995).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5.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목록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 신승운, 「조선왕조 의궤의 조사연구와 정리방안」, 『조선왕조 의궤의 번역현황과 과제』 발표자료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 심재우, 「조선왕조의궤의 현존상황과 보존방안」,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 발표자료집, 문화재청, 2007.
- 옥영정, 「의궤의 서지학적연구성과와 편찬 간행관련 기록의 활용」,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1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의궤해제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3.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의궤목록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수 검토

안건번호 동산 2015-06-021

11.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보수 검토

가. 검토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 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2) 대상문화재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지문길 1-38
 - 지정일 : 2014. 03. 1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보수 및 주변정비
 - 사업내용
 -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그을림 제거 및 개채, 호분, 개금복원(동산분과)
 -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바닥정비 및 견치석 석축정비(전면)(건축분과)
 - 보호각 기둥 및 인방 석간주칠(건축분과)

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옥천암 마애보살좌상은 조선시대부터 ‘백불’로 칭해오던 불상이므로 오래전부터 흰색 호분으로 개채·개금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보살상의 불신에 칠해져 있는 채색과 개금은 최근에 현대 안료와 기법

으로 시행된 것이고, 착색 상태가 탈색되어 불량하여 새로운 개채, 개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채·개금 시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오염물질과 현대 안료는 적절한 보존처리 기법을 동원하여 제거하고, 전통기법으로 개채·개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개채·개금 시 불상을 가리며 늘어진 단집도 불상의 보존과 예배에 적절한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보존처리 및 개채(개금) 전 사전조사, 과학적인 조사, 마애불 및 보호각에 대한 안전진단, 3D스캔 등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임

○

- 현재 보도각으로 통행하는 계단은 좁은 돌음계단으로 안전과 통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적도를 고려하여 통로폭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음
- 석축은 콘크리트 면에 붙일 경우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애보살 좌상 전면의 바닥은 해체 후 바닥의 레벨 확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자문위원 위촉

보고 사항

1.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 실시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증도가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의 회의 결과 및 지정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증도가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의 회의 결과 및 구체적인 지정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다. 지정신청 대상 개요

- 명칭 / 수량 : 증도가자 / 101점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 / 소재 : 이** / 서울 종로구 다보성
- 크기 / 재질 : 각 가로 12.55 ~ 16.68 × 세로 11.62 ~ 15.57mm / 금속

라. 주요경과

- '11.10.06 : "증도가자" 보물 지정 신청(신청자 : 이**)
- '11.12.13 : 문화재위원회 보고(소위원회에서 지정가치 검토)
- '12.10.11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출처 불명, 진위판별 후 지정절차 진행)
- '13.01.29 : 증도가자 현지 실건조사(조사연구 축적이후 지정검토)
- '13.02.14 : 문화재위원회 보고(지정추진 보류)
- '13.06.18 : 지정신청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촉구
- '13.10.10 : 문화재위원회 보고(종합학술조사 필요)
- '14.12.19 :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 완료(국립문화재연구소)
- '15.02.12. : 문화재위원회 보고(지정조사 실시 의결)
- '15.06.04. :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 구성(3개 분야 12명)

마.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 회의 결과

○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 구성(3개 분야) 및 1차 회의 개최('15.06.04.)

- 소위원회별로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검증방법을 찾아 추진하기로 함. 조사단장은 추후 선출.

- * 서체비교
- * 연대측정
- * 제작기법

○ 연대측정 분야 회의 개최('15.08.11.)

- 용역 결과 및 기측정된 3개 기관의 결과값이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는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동일 시료의 교차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토 및 보존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측정 결과 수용을 유보함.
- 금속활자를 덮고 있던 흙과 녹에 대한 보존과학적·금속학적 연구 등이 필요
- 해당 문화재의 전체 실건 조사가 필요함.

○ 서체비교 분야 회의 개최('15.09.18.)

- 용역결과물에서 보여준 '증도가자'(금속활자)의 자형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번각본) 서체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둘 사이의 일치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없음.
- 추가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증도가자로 분류된 62개 활자와 현전 3종의 인본을 직접 대비하여 일치 여부 검증
 2. 다음 방증자료를 구축
 - 2-1. 금속활자본과 목각본의 비교를 통한 변화율
 - 2-2. 동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 검토

○ 제작기법 분야 회의 개최('15.10.07.)

- 용역결과물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 추가 검증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전수조사) X-ray CT 촬영을 통한 내부구조, 주조결함 등 제작기술 분석
 2. XRD 분석을 통한 부식물 분석
 3. 활자의 표면, 윤곽선 굴곡 등 분석(3차원 스캐너, 분광비교분석기 등)
 4. SEM-EDS 분석을 통한 먹 입자 분석
 5. 재현실험을 통한 주조, 조판 연구

○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 제2차 전체 회의 개최('15.12.02.)

- 지정조사는 원안대로 추진함.
- '증도가자 연구용역팀'에서 제시한 추가 검증방법은 추가 실시
다만 라만분광분석의 경우 파괴분석이므로 분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실건 조사는 12.30. 14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
- 조사단장은 '***위원'으로 함

바. 증도가자 지정조사 실시계획

□ 추진방향

- (조사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하되, 관련 기관과 협업 가능
- (조사방법) 분야별로 지정조사단에서 제시된 방법을 기초로 하되,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분야는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 모색
- (조사내용) 부식물, 활자(제작기술 등), 떡 입자, 주조·조판 등 다방면 조사
- (조사기간) 분야별 동시 진행을 통한 조사기간 단축

□ 세부추진계획

연번	수행기관	목적	분석방법	대상
1	국립 문화재 연구소	제작기술 분석	X-ray CT 촬영	○개인소장 금속활자 101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복' 활자 1점 및 기타 조선활자 30점
2		활자의 표면, 윤곽선 굴곡 등 분석	3차원 스캐너 분광비교분석기 등	
3		부식물 분석	XRD 분석	
4		떡 입자 분석	SEM-EDS 분석	떡 잔존 활자
5		균열	감마선 촬영	○개인소장 금속활자 101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복' 활자 1점 및 기타 조선활자 30점
6		균열, 박리, 박락 등의 결합상태	적외선 열화상 분석	
7		부식화합물의 색상별 성분 확인	라만 분광 분석	
8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	'증도가' 인본 3종간 인출 선후관계 및 '변화율'	서체 비교 프로그램 * 모형 제작, 떡·한지 등 협의 후 추진	현전 3종 '증도가' 인본 (보물 2종, 개인 1종)
9		'증도가' 선인출본과 증도가 활자의 '일치율'		'증도가' 선인출본 증도가자 59개 활자
10		주자본과 복각본 간 '일치율' 또는 '변화율'		· 초주갑인자 주자본 - 복각본 · 임진자(금속활자) - 주자본 - 복각본
11	문화재청 지정 조사단	주조, 조판 검증	재현실험 (금속활자장 등)	흙형 조판 /흙-날개형 조판 흙 및 흙-날개형 혼용 조판 네다리형 조판
12		실건조사	육안 조사	
13		동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	조사 연구	계미자본, 초주갑인자본

□ 추진일정

- 소장자 및 소장기관 협의 완료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서적 3종(삼성출판박물관, 공인박물관, 개인)
 - 개인 소장 금속활자(101점)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속활자(복 1점, 임진자 등 조선활자 30점)
- 개인 소장 금속활자 유물 운송(12.29.)
- 실건 조사 및 1차 분석대상 선별(12.30. 국립문화재연구소)
- 개인 소장 금속활자 유물 반환(12.31. 91점)
- 국립문화재연구소 1차 과학 분석 진행(10점, '16.1월~)
- 기분석 방법 문제점 보완 후 2차 과학 분석 진행(91점)
- 사진 촬영(4종)
 - 갑인자 주자본(국립중앙도서관) :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 권6, 9, 13, 19
 - 갑인자 복각본(리움) : 보물 제523-2호 석보상절 권11
 - 임진자 주자본(국립중앙도서관) : 속명의록(일산 古2156-5)
 - 임진자 복각본(국립중앙도서관) : 속명의록(한 古朝31-530)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체 비교 의뢰
 - 모형 제작, 인출(떡·한지) 실험
- 동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 조사
- 주조, 조판 재현 실험

사. 기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 (계기) 동아일보 김상운 기자 제보
- (대상) 청주고인쇄박물관 7점, 국립중앙박물관 31점(복자 1점, 조선활자 30점)
- (방법) 금속성분분석(XRF), 표면·외관검사(분광비교분석기), 표면확대 검사(입체 3차원 현미경), 활자 외곽선의 진직도 검사(3차원 스캐너), 서체 비교(3차원 스캔·제작 후 한지 날인)
- (결과) 청주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의 경우 위작 가능성 높음
 - 균일한 이중의 활자 단면(활자 안팎의 금속성분비 다름)
 - 떡과 활자의 부자연스러운 경계선, 일부 활자 뒷면의 땀질한 것 같은 흔적
 - 직선도가 높고 서체 유사도 낮음
 - 연자매 용(龍+瓦)은 중국에서만 사용한 활자
-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추계학술대회(10.3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증도가자 연구용역팀’ 반론

○ 국과수 조사 결과에 대한 반론내용

- 이종 구조 및 성분비 : 청동병(靑銅病, paratacamite)에 의한 밀도차, 이종 구조 불가, 활자의 EDS 면분석 결과 구리 74~80%, 주석 8~9%, 납 10~17%

※ EDS 면분석 대상 활자는 개인 소장 101점이 아닌 또 다른 개인 소장품

- 직선도 및 서체비교 : 사용빈도에 따른 획의 마모도 차이, 국과수의 서체 비교프로그램의 미검증 문제(제작모형의 재질 등), ‘연자매 용’자는 ‘답 중 (從+佳)’과 더불어 활자의 구조 및 사용 시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됨.
- 잔존 먹 : 출토품의 보존환경 변화에 의한 현상(흙 제거과정에 따른 훼손, 수분 증발에 의한 박리 등),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통해 하한시기를 확인했으며, 책의 인출시기에 맞게 하한시기를 맞춘 위조 불가.

○ 추가 검증방법 제안

- 감마선 촬영 : 균열
- 적외선 열화상 분석 : 균열, 박리, 박락 등의 결합상태
- 라만 분광 분석 : 부식화합물의 색상별성분확인

※ 한국서지학학회 추계학술대회(11.14. 국립중앙도서관)

□ 개성 만월대 고려금속활자 출토

○ 출토개요

- 일시 : 2015.11.14.토
- 경위 : 1956년 금속활자 출토 사례가 있어, 금년 조사시 ‘금속활자 조사조’ 운영. 문헌사료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역 선정, 6월 초부터 해당지역 표토 아래 2~30cm 지점에서 파낸 흙을 체로 치는 작업 중 발견

○ 조사개요

- 일시 : 2015.11.30.월/ 개성 민속려관
- 조사자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문화재청 · 국립중앙박물관

○ 조사결과

- 활자해석 : 전일할 전(傳), 아름다울 단
 - ‘寸’이 아닌 ‘方’으로도 읽힐 수 있어 추후 추가 조사가 필요
 - 고려대장경체와 유사(증도가 서체와 다름)
- 외양 : 네모반듯한 정방형(가로 1.36cm 세로 1.3cm)
 - 글자면이 깊게 새겨져 있음.(전체 높이 0.6cm중 0.38cm 2/3)
- 시대 : (북측) 고려문화 전성기 : 궁궐 2차 소실(1170)~13세기 중반

(남측) ~ 만월대 소실(1361)

- 성분 : (북측) 구리 41.9%, 주석 36.8%, 납 21.3%(EDS 파괴조사)
- ※ 우리측 휴대용 XRF 결과와 다소 상이. 추가 조사 필요
- 의미 : 출토지 명확한 최초 금속활자, 국가 주도로 만든 최고 수준 활자



출토 금속활자 앞면



출토 금속활자 뒷면

※ 기출토 고려금속활자



- 소장처 : 조선중앙역사박물관(평양)
- 출토지 : 신봉문 터 300m
- 출토시기 : 1956년 전쟁 중 파괴지역 보수중 발견
- 크 기 : 1.25cm
- 시 대 : 고려
- 현 황 : 준국보

아. 의결사항

- 원안접수

2.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수량관련 학술대회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지정수량의 검토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보각경판(補刻經板)과 중복경판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향후 지정 수량 변경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그 가치와 의미' 제하의 학술대회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지정수량 변경 추진 배경

- 일제 강점기 최초 지정(1934. 8. 27) 이후 공식적인 수량 조사와 그 따른 지정 수량변경 등의 조치가 없어 문화재와 지정수량에 차이가 있음
 - 2000~2010년까지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시 중복판 92판 추가 확인
 - '13. 7월, 추가로 '내전수함음소'(2판)가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수량 변경 불가피(지정번호 별도)

다. 주요내용(학술대회)

<개 요>

- 일시 : 2015년 11월 30일(월), 13:30 ~ 18:00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2층)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표 :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지정범위(박상국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학술발표 :
 - 중복경판 및 보각경판의 역사·문화적 성격(최영호 / 동아대학교)
 - 대장경판의 기능 및 수량 재지정 문제에 대한 고찰(김성수 / 청주대학교)
 - 종합토론 :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좌장 : 홍선스님(문화재위원)
- 토론 : 경암스님(팔만대장경연구원), 박용진(고려대장경연구소)
유부현(대진대학교), 최연식(동국대학교), 최연주(동의대학교)

<토론회 쟁점>

국보 제32호 <해인사 대장경판>의 시기별 경판 수량

구분	해당경판	조성시기	경판수량	비고	
원판	정장	1236~1251년 / 13세기 중엽	81,119판	「대장목록」 수록	
	신출			「내전수함음소」 1종	2013년 보물 지정
	보유 경판	보유경판 14종	1503년(연산군9)	114판	1865년 해명장웅 「보유목록」 수록
		「예념미타도량참법」 1종			
	「보유목록」 1종	1865년(고종2)	1판		
소계 1			81,234판		
보각경판	고려말~조선시대 보각경판		82판		
	일제 강점기 보각경판	1915년/1937년	36판		
소계 2			118판		
총계	소계 1 + 소계 2		81,352판		

- 1865년(조선 고종2) 해명장웅에 의해 대장경으로 포함된 보유경판의 편입여부
- 총 중복경판 211판 중 원판 93판을 제외한 후대 보각경판 118판의 편입여부
- 후대 보각경판 118판 중 일제 강점기 판각 된 36판의 지정여부
- 계(雞)함과 계(溪)함의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권10의 중복판 판단 및 분리여부
-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종경록』의 정장 편입 여부

<발표 및 토론 요약>

-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결과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지정범위와 보존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 제시
우선 ‘해인사고려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경판의 총수량이 81,258판이 아닌 81,350판(「내전수함음소」 포함 시 81,352판)이라는 점에는 참가자 모두 동의
그러나, 대장경판의 지정범위에 대해서는 보유경판 16종의 편입여부, 보각경판 중 중복판 편입여부, 일제강점기 제작된 보각경판 편입여부, ‘계(雞)함’과 ‘계(溪)함’의 중복판 분리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의견 제시
- ▶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의 원본으로서 가치와 대장경판의 엄밀한 정체성을 위해 보유경판으로 알려진 16종 2,740판은 제외해야 함

중복판은 대장경판 지정수량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중복판이 대장경판의 보존전승을 위해 완결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역사적 증거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존책 수립 필요(일제 강점기 보각판 포함)

- ▶ 최영호(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후대 보각경판 118판의 대장경판 포함과 관련한 최선의 방안은 대장경판 81,352판을 전체를 지정하는 것으로써, 학술연구와 경판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원천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인경불사와 해당 경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할 수 있음
두 번째 방안은 차선책으로 일제강점기 보각경판 36판을 근대문화유산이나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별도로 분리, 지정하여 첫 번째 방안에서 우려되는 조성 주체 및 시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 가능
- ▶ 김성수(청주대학교 교수) : <해인사 대장경판>은 ‘진병대장경’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판각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가 수호의 기능과 삼장결집의 누가성 그리고 대장경으로서의 완결성에 그 기능과 가치가 있음
<해인사 대장경판>은 몽고군에 의해 소실된 진병대장경을 복원·판각한 것이고, 조선시대의 보유경판 및 보각경판은 ‘시대적인 누적성’과 ‘대장경으로서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 경암스님(팔만대장경연구원장) : 서지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학 및 종교학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보유경판과 중복판을 모두 포함시켜 81,352판 전체를 지정하여 법보로서의 가치를 보존·전승해야 함
특히 신앙적으로 700년 이상 대장경을 법보로서 예경하고 보존해왔다는 점과 역사적으로 불교도 뿐 만 아니라 전국민이 경외하고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장목록에 없다고 해서 대장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못함
- ▶ 박용진(고려대장경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장경은 원판, 원판분류경판, 중복판, 보각경판 등 혼란스러운 용어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장경판의 세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함
또한, 국가가 대장경 편입여부를 판단(奉勅雕造)하는 입장(入藏)기준을 마련하였던 고려대장경의 특성상 보유경판은 성격이 다르지만 대장경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과 구조체계 그리고 조선후기 해명장웅을 비롯한 불교계가 가졌던 인식 등을 전거로 보유경판을 대장경으로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필요하다면 현재 보각경판을 제작하여 후대에 전승 필요

- ▶ 유부현(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가장 완벽하다고 전해지는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에도 중복경은 제외되어 있고, 보유경판이 (분사)대장도감에서 제작한 판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1865년 해명장웅의 「보유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보유경판들은 대장경판에서 제외시켜야 함
- 또한 분사대장도감에서 판각되어 정장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종경록』도 봉칙조조(奉勅雕造)한 대장경판과는 다르게 사적(私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장경판 지정범위에 들어갈 수 없으며,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10권의 계(溪)함과 계(雞)함은 서로 다른 저본을 바탕으로 판각한 것이므로 둘 중 하나는 중복판이므로 이 또한 제외시켜야 함
- ▶ 최연식(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보유’라는 것은 정장에서 빠진 부분을 덧붙인다는 의미로, 현재 소위 ‘보유경판’으로 불리는 16종 2,740판은 ‘보유’의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판이 아니라 (분사)대장도감이나 조선조 간경도감에서 필요한 책을 간행하기 위해 별도로 새긴 판임에 따라 대장경판과 구분되어야 함 그리고 보유경판이 가치가 있다면 별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만약 포함되어야 한다면 ‘해인사 대장경판’은 올바른 지정명칭이 될 수 없음
- ▶ 최연주(동의대학교 사학과 교수) : 보유경판과 중복판에 관련한 논의에 앞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경판이 각각 국보 2종과 보물 2종으로 지정되었던 당시의 기준과 범위를 되짚어 본 후 현재 논의를 진행해야 함
세부적으로 1962년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이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을 당시 수량과 범위를 확정지었던 배경과 1982년 사간판전의 경판들이 ‘국보 제206호’와 ‘보물 제734호’로 구분되어 지정될 때 적용된 기준 정리 필요

라. 향후 계획(방향)

- <해인사 대장경판>의 성격과 가치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추가적 의견 수렴(역사, 서지, 종교 등)
 - 보유판 및 보각판(특히 일제 강점기 판각 경판) 포함 여부에 대한 학술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
- <해인사 대장경판>의 원판에 대한 보각 여부 등 세부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전수조사 방안 강구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